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Ⅱ)



## 서 문

2005년, 우리는 ‘부산을 바꾸자’는 슬로건과 함께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며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선도할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시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슬기롭게 펼칠 때 더욱 보람된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도시 부산, 미래 지향형 도시 부산을 성공적으로 일구어 내기 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의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열린 토론의 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의미 있는 결실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부산을 가꾸어 가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은 힘찬 도약의 용트림을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간에 이루었던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앞에 닥쳤던 엄청난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저력은 그 외형적 성과에 걸맞는 내실을 굳건히 다질 때 한층 더 빛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부산을 빛낸 인물을 발굴하여 선열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여, 시민 모두의 울곧고 건전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20세기 이전 부산을 빛낸 인물』과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Ⅰ) - 민족운동·종교·사회활동편』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마지막 작업으로 그간의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민 공개검증으로 확정된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Ⅱ) - 정치·경제·문화예술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업이 첨단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참모습을 되찾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울곧은 인간상의 모범을 되새겨,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을 가꾸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을 위하여 정성을 모아 주신 선정위원님들과 집필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 7

부산광역시장 

## 발 간 사

부산시가 2003년 『20세기 이전 부산을 빛낸 인물』을 펴내고 이어서 2004년에는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을 발간하였으며, 이번에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를 간행하게 된 것을 4백만 부산시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는 공모와 조사 등을 통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 숙의를 하고, 다시 추가조사와 시민의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엄정한 심의 끝에 2004년 12월 정치가 郭尙勳 선생 등 26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인물들은 20세기 부산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서예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부산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셨으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인물을 선정하면서 위원들은 그분들의 국가사랑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숭고한 정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혀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과 도리를 발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발간하는 시점에 있어서 가장 알맞은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고장 부산은 예부터 국가 발전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이번에 선정된 인물들과 같이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 분들의 피와 땀이 어려있기 때문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 부산은 세계도시로 성장하는 또 하나의 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복 60년과 더불어 부산항 개항이래 최고의 행사인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행사는 부산의 국제적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급속히 높여줄 것이며, 부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부산시가 26분의 공헌을 기리는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를 간행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애국, 애항정신을 고취하는데 일조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료검증과 조사, 집필, 편집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 7.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위원장

# 차례

- 서 문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 발간사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위원장 김임식

## 제 1 편 정치·경제분야

### 제1장 정치분야

- 1. 곽상훈(郭尙勳) ..... 9
- 2. 문시환(文時煥) ..... 19
- 3. 박기출(朴己出) ..... 28
- 4. 허 정(許 政) ..... 39

### 제2장 경제분야

- 1. 강석진(姜錫鎭) ..... 53
- 2. 구인회(具仁會) ..... 63
- 3. 박기종(朴琪淙) ..... 73
- 4. 신덕균(申德均) ..... 83
- 5. 윤상은(尹相殷) ..... 94

## 제 2 편 문화예술분야

### 제1장 문학분야

- 1. 고두동(高斗東) ..... 109

## 차 례

2. 김말봉(金末峰) .....	120
3. 김정한(金廷漢) .....	130
4. 이영도(李永道) .....	140
5. 이주홍(李周洪) .....	152
6. 조 향(趙 鄉) .....	162
7. 최계락(崔啓洛) .....	174

### 제2장 무용 · 미술 · 음악분야

1. 강이문(姜理文) .....	187
2. 강태홍(姜太弘) .....	204
3. 금수현(金守賢) .....	214
4. 김종식(金鍾植) .....	227
5. 오제봉(吳濟峯) .....	238
6. 오태균(吳泰均) .....	250
7. 윤이상(尹伊桑) .....	258
8. 이상근(李相根) .....	269
9. 이석우(李錫雨) .....	277
10. 현 인 (玄 仁) .....	287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 명단

부산을 빛낸 인물 집필위원 명단

# 제 1 편 정치·경제분야

▣ 제 1 장 정치분야

▣ 제 2 장 경제분야

# 제 1 장 정치분야

1. 곽상훈(郭尙勳)

2. 문시환(文時煥)

3. 박기출(朴己出)

4. 허 정(許 政)

# 1. 곽상훈(郭尙勳)

## 출생과 유년시절

일찍이 한국의 간디로 불리었던 삼연(三然) 곽상훈은 경남 동래에서 1896년에 출생하였다. 그는 조부(祖父)가 동래부 중군(中軍)을 지낸 무관(武官)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구한말의 어지러운 현실에 좌절하여 시회(詩會)에 파묻혔던 부친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괘괄하고도 울곧은 성격으로 적잖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어려서 서당을 통해 한학(漢學)을 배우다가 9세 때에 동래보통학교(東萊普通學校)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접했던 그는 보통학교 2학년 을 마치고 동명학교(東明學校)에 들어갔다. 현 동래고등학교의 전신(前身)인 이 학교는 당시 민족적 성향이 강한 사립학교로 유명했는데, 곽상훈의 나이 11세였던 1910년에 일제강점으로 나라를 잃은 이후 조부와 학교 은사들의 영향 아래 더욱 강렬한 민족의식을 키워왔다. 이후 동래고등보통학교(東萊高等普通學校)에 진학하여, 교장 박규석(朴圭錫), 교감 김병규(金秉圭)와 평생의 스승으로 존경했던 교사 이환(李環)의 민족적 교육에 크게 감명을 받고 배일의식(排日意識)을 더욱 다져나갔다.

## 3·1 운동기의 활동

이어 경성공업전문학교(京城工業專門學校)에 진학하게 된 곽상훈은 인천에서 미곡상을 하던 큰형의 집에 머물며 수학하였다. 이 당시 경인선을 통해 통학하던 조선인 학생을 중심으로 ‘기차통학생친목회’를 이끌며 일본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던 그는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곧 인천상업학교(仁川商業學校)의 만세운동을 지도한 후 독립선언문을 숨겨 고향 동래로 내려갔다. 광상훈은 선언문과 격문을 동래에 가져오면서 군경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선언문과 격문을 모두 창호지에 베낀 후, 가위로 가늘게 잘라 노끈을 꼬아 당시 축구화로 사용했던 미투리의 끈을 만들어 신에 꿰어 가지고 내려왔다. 은사 이환(李環)을 찾아 거사의 뜻을 전한 광상훈은 스승의 골방에서 독립선언문을 등사하였다. 이후 동래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최익수는 광상훈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문을 박성해를 시켜 부산상업학교(釜山商業高等學校)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김수홍을 시켜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 東萊女子高等學校 前身)를 빌리게 하여 김태곤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선언문과 벽보를 인쇄하게 했다. 그리고 문복숙, 김복선 등 두 학생과 논의하여 그들이 재학 중인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참가를 독려하게 하고, 태극기 5천장을 만들게 했다. 그 밖에 부산진보통학교(釜山鎭普通學校) 교사 홍재문과 연락을 하여 부산진보통학교 학생들을 의거에 참가하게 했다. 그리고 유유진, 백용수 두 사람과 더불어 부산지역 청년단체 및 유지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이리하여 부산의 3·1운동은 3월 8일을 기해 표면화되고 마침내 영주동, 초량동, 좌천동에 태극기와 벽보가 붙었다. 오후에는 좌천동에 있는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 3월 12일 오후 2시경에는 부산진보통학교의 최고학년이었던 4학년생들이 홍재문 교사의 인솔아래 시위를 전개했다. 이것이 부산의 3·1운동의 신호탄이었다.

한편 광상훈은 이환과 더불어 3월 13일 동래읍 장날 오후 2시에 만세운동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3월 13일 거사 당일 학생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각자 숨겨서 나오기도 하고 일부는 부인들이 감추어 운반했다. 그 동안 장터로 통하는 길목에 배치되어 장꾼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배부했다. 이미 학생들 대부분은 장꾼들 틈에 섞여 서성거리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동래고등보통

학교생 40명은 미리 준비한 계획대로 두 분대로 나누어서 행동을 개시했다. 제1대는 동래군청 앞에 있는 망미루로 모였고 제2대는 동래남문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제1대의 지휘는 엄진영이 맡았고, 제2대의 지휘는 김귀룡이 담당했다.

이들이 지휘를 했던 것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거사 장소로 망미루와 남문을 택한 것은 그 곳 장날에 장꾼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2시가 되자 엄진영은 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치려고 했다. 그 순간 이미 학생들이 모여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과 헌병들이 순식간에 엄진영과 김귀룡을 덮치려 하자 두 사람은 먼저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했다. 주위에 모였던 40여 명의 학생들과 장꾼들도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동시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쓰여진 2개의 깃발이 세워지고 독립선언서와 ‘오왕독살’이라고 쓴 수백매의 빠라가 뿌려져 장시는 삽시간에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장날에 나온 범어사 승려들과 장꾼들 수천 명도 삽시간에 학생들의 만세소리에 호응했다. 이렇게 수천 명이 만세를 부르고 뛰는 바람에 하늘과 땅은 온통 먼지가 쌓이고, 모였던 사람 대부분은 길로 퍼져 나가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의 시위는 일제의 폭압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제국주의의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한민족(韓民族)과 부산지역민(釜山地域民)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하다가 검거된 김인호·엄진영 등 24명은 동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최고 1년 6월에서 최저 4개월을 언도받았으며, 배후 참모역할을 한 곽상훈은 동래경찰서에 연행되었으나 주도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여 사흘 만에 풀려난 후 상해로 망명을 기도하다가 대구에서 다시 체포되었다. 이후 대구(大邱), 영등포(永登浦)경찰서에서 각각 취조당하고, 서울지검 종로(鍾路)구치소에서 연루자로 추궁당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였으나 끝내 굴하

지 않아 8개월 만에 예심(豫審)에서 풀려났다.

### 야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이후 대외적 활동에 극히 제한을 받게 된 곽상훈은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 한용단(漢勇團)이라는 아마추어 야구단을 조직하여 인천 시민의 의기를 북돋았다. 한용단은 비록 야구단의 외피(外皮)를 둘러썼으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혁혁한 성과를 내었다. 이는 “한용단의 이름은 높았고 시민들의 기대는 컸다. 야구대회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시민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구름같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한 「인천석금(仁川昔今)」의 기록이나, 부정관정을 둘러싼 1924년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1924년, 한용단의 시합에서 인천경찰서 검도사범 키요타와 심판 요쿠다 등에 의해 일본인 야구단에 대한 편파적인 부정 관정이 계속되자 격분을 이기지 못한 응원군중이 본부석으로 몰려가 일본인 야구선수는 물론 일본인 관중 수십 명을 폭행하고 진압경찰과 맞서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곽상훈이 이끈 한용단은 인천시민에게는 단순한 야구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단체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상당 기간 야구시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한용단마저 강제로 해체되고 말았다.

### 관동대학살을 고발하다

이 일로 인해 깊이 상심한 곽상훈은 1920년대 후반에 마음을 다잡아 일제강점기 최대의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新幹會)의 감찰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신간회마저도 타협적 민족주의계열 인사들의 변절과 사회주의계열 인사들의 급진적 해소운동으로 와해되자 좌절하여 한동안 방탕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인으로 부터 산처림[山自然], 물처림[水自然], 스스로를 느긋하게 다스려 태어난 대로 살아가라[我自然]는 뜻의 삼연(三然)이라는 호를 받은 후 마음을 다스리고서 안동(安東)에 있는 오산학교로 초빙을 받아

교사로 재직하였다. 당시 오산학교는 독립운동가 유동산(柳東山)이 설립한 사립학교였는데 이곳에서 학생들과 숙식하며 민족교육을 하던 곽상훈은, 자신을 찾아온 김영주와 함께 일본 동경(東京)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도일(渡日)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과 그 후 폭풍으로 몰아닥친 일제의 조선인 대학살의 참상을 목격한 곽상훈은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김영주와 함께 낮에는 사체인양작업을 하여 모은 돈으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기사를 매수하여, 대지진 후 일본 국내의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재일 조선인을 학살한 참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내에 가서 폭로할 것을 마음먹은 곽상훈은 김영주를 상해로 떠나보내고 자신은 다시 안동 오산학교에 돌아왔다. 이후 그는 자료를 정리하여 관청, 학교, 신문사, 일반유지 앞으로 보내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배포하려다가 뜻밖에 의열단(義烈團) 관련 문제로 대구경찰서에 체포되어 7개월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모진 고초를 겪은 곽상훈은 부산의 독립운동가 최천택(崔天澤)의 도움으로 상해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고향 선배인 김갑(金甲)의 도움을 받으며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체육부장으로 지내다가 상해임시정부에서 주최한 기미년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회에서 관동대지진 때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재일조선인 대학살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상해에서의 시간은 곽상훈에게 실망의 연속이었다. 당시 상해임시정부를 둘러싼 창조파와 개조파의 논쟁과 대립, 그리고 독립운동가 일부에 만연하던 과별주의와 분열주의의 폐해상은 그에게 환멸을 느끼게 했고, 결국 곽상훈의 발길을 다시 인천(仁川)으로 되돌리게 만들었다.

## 결혼과 해방

어느 듯 36세의 나이에 이른 곽상훈은 여기에서 평생의 동지이자 반려자인 장혜경(張惠卿)을 만나게 된다. 북간도(北間島) 용정(龍井) 태생으로 동흥중학(東興中學)을 졸업한 후 혈혈단신으로 서울로 건너와 걸스카우트 운동을 벌이던 장혜경과의 동지애적 결혼은 이후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굳게 다져져만 갔다. 태평양전쟁의 발발 후 일제의 발악적 망동이 극에 달할 즈음, 요주의 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된 곽상훈은 동래 기장(機張)에 은거하였다. 해방 전야 일제는 국내 지사들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방책으로 여러 인사를 구속하게 되었는데 곽상훈도 역시 예비구속되어 대구경찰서의 유치장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 후, 이승만(李承晩)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의 창당에 힘썼으나,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의외로 후보공천마저 받지 못했다. 격노하기는 했지만 대의를 위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했으나 평소 그를 따르던 이들의 권유로 한국민주당을 탈당한 곽상훈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당히 당선되었다. 그리고 1949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산고(産苦) 끝에 제정이 되자 검찰차장으로 임명되어 갖은 저항을 물리치고 친일분자 색출에 힘썼다. 1950년에는 제2대 민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전원위원장(全院委員長)을 지냈으며, 1954년 제3대 민의원 의원 당선 후에는 부의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제헌의회 및 제2대 민의원 의원 시기에는 이승만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으나, 이승만의 장기독재(長期獨裁)의 징조가 보이자 그와 과감히 결별하였다. 이러한 결단은 곽상훈이 평생을 걸고 추구하였던 해방조국의 모습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원칙이 지켜지는 국가이지, 특정 개인을 위해 사유화(私有化)된 국가는 아니었기에 그는 열렬히 지지했던 이승만과 갈라서 대립한 것이었다.

##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이승만과 맞서다

제3대 민의원 의원 시기부터 반독재·민주수호 운동에 앞장 선 곽상훈은 1955년 민주당(民主黨) 최고의원이자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신익희(申翼熙), 조병옥(趙炳玉) 등과 함께 1956년 민주당 돌풍을 이끌기도 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승만 독재정권과 대립각(對立角)을 세우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으나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특히 1950년대 말에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조세부담의 가중, 저곡가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경제 사정도 한층 어려워져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갈수록 높아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로 치루어 졌다. 집권당이던 자유당은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총투표수의 40%를 사전에 투표하는 등 온갖 부정을 자행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개표 과정에서 부통령후보 이기봉(李起鵬)에 대한 찬성표가 총투표자수의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를 79%로 낮추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일어날 정도였다.

이같은 사태에 당면하여 대구, 부산, 서울,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마산에서는 경찰이 시위 중이던 중학생 김주열군에게 최루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후 그 시신을 돌에 매달아 바다 속에 수장시킨 흉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그 목적도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점차 독재타도의 열기가 높아지면서 4월 19일에는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이때 경찰의 발포로 시위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4월 25일,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 시내의 대학교수단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한편 미국측도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권유하였다.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직접원조방식에서 일본과의 협력에 의한 ‘지역 통합 전략’으로 변화하면서 이승만 독재체제는 이제 미국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었고 이에 미국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를 포기한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하야하였다.

이리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2년간의 이승만 독재정권은 무너지고, 외무장관이던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허정 과도정부는 야당의 주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내각제와 양원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 새 헌법을 마련하고, 7월 29일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이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转机(轉機)를 마련하게 되었다.

#### 4·19 혁명과 제 2공화국 시기의 활동

곽상훈은 이러한 혁명 상황 속에서 곳곳이 중심을 잡고 서서 개헌국회(改憲國會)의 의장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헌법 제정에 노력했다. 또한 그해 5월 17일부터 5월 22일 허정(許政)과도정부(過渡政府)가 들어설 때까지의 일주일 간은 법령에 의해 대통령권한 대행의 직무를 맡기도 했다. 그리고 7월에는 의원내각제 하의 제5회 민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1960년 8월 23일 내각제에 따라 출범한 장면 정부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리하여 자유로운 분위기가 넘쳐흐르고 진보적 정치 활동도 재개되었으며, 각계 각층의 요구는 봇물이 터진 듯이 분출하였다. 특히 민족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대학가에 불어 닥쳤고, 이에 따른 통일 논의와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통일 운동을 선도한 것은 1960년 11월에 결성된 ‘민족통일연맹’이었다. 이와 함께 혁신계열의 정치인들도 ‘민족자

주동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들과 연계하는 형태로 통일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때 중립화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의 통일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일부는 남북학생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활발한 민간의 움직임과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민주당 정부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장면(張勉)을 필두로 하는 신파(新派)와 윤보선(尹潽善)의 구파(舊派)로 갈려 정치적 갈등과 다툼에 골몰하였다. 이 와중 속에 국민들과 장면 정부는 점차 유리되어갔고 이것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해외 순방 중에 군사 쿠데타의 소식을 들은 곽상훈은 크게 좌절하고 귀국 즉시 민주당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물론 1969년 박정희(朴正熙)의 지지자로 변신해 정계 복귀를 하고 끝내 1973년 유신헌정(維新憲政)의 중요기간(重要基幹)인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함으로써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기는 했으나, 곽상훈의 조국에 대한 애정과 열의를 결코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곽상훈의 생애를 돌이켜 보건대, 그는 끊임없는 열정을 지닌 운동가인 동시에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도 많이 한, 무척이나 인간적인 면모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좌절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 단계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뛰었고 끝내 그것을 성취한 인물이었다. 가볍지 않은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애정이 더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일 것이다.

■ 경성대학교 교수 강대민

## 2. 문시환(文時煥)

### 성장과 중국행

문시환은 1897년 8월 12일 동래 남면 밤대(현 연산동)에서 문정두(文禎斗)의 1남 5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각별한 사랑과 기대 속에서 성장한 문시환은 오늘날 동래고등학교의 전신이었던 동명학교에 진학하였다. 동명학교는 1907년 동래기영회에서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으로 한말·일제하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명문학교였다. 특히 이 학교 교사였던 김병규(金秉圭)는 개항이후 밀려오는 근대화의 격랑 속에서 동래지역의 후학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동명학교에 입학한 문시환은 자연스럽게 선각자적 위치에 있던 김병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문시환은 동명학교 3년 시절 학교를 뛰쳐나와 만주의 안동현(安東縣)으로 가출하였다. 당시 안동현은 지리적으로 만주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탓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안동을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 안동에서 근거지를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백산 안희제(安熙濟)였다. 백산은 1914년 부산에 백산상회를 설립하여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국내에서 가져온 물품을 안동에서 바꿔, 거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만주와 중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때 부산에서 안동으로 물품을 수송하는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문시환의 스승이었던 김병규였다.



결국 문시환이 학교를 그만 두고 안동현으로 간 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스승인 김병규와 독립운동가였던 안희제와 같은 선각

자들과 일정 정도 연계 아래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문시환의 안동행은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죽음을 불러왔다. 외아들의 가출 소식에 놀란 부친 문정두는 결국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문시환이 안동에 머물러 있을 때 작고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중국에서 국내의 3.1운동 소식을 전해들은 문시환은 상해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뜻을 같이 하다가 국내로 귀환하였다. 몇 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문시환은 뜻한 바가 있어 1920년 기미육영회(己未育英會)에서 지원하는 장학생 신분으로 일본 동경정칙영어학교(東京正則英語學校)에 유학을 가게 되었다.

문시환을 유학 보낸 기미육영회는 안회제를 비롯한 부산, 경남지역의 양심적인 지주, 자본가들이 인재양성을 위해 1919년 11월 부산에서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한 일종의 육영장학회였다. 기미육영회는 1920년 5월 현재 회원 43명, 가입 부담금 1만 2천원, 불입금액 5천원을 갖춘 전국에서도 몇 번째가 큰 장학회였다. 당시 회원을 보면 백산상회의 안회제, 윤현태, 윤병호, 구포의 윤상은, 부산진 일기포(一紀鋪)의 전석준(全錫準) 등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중등학교 졸업자들 중 각종 상업학교 또는 전문학교, 대학교 등에 입학할 희망하는 학생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냈다. 특히 기미육영회는 유학생들의 전공을 간섭하지 않고 유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학과를 선택케 하였는데 1명당 매월 50원의 학자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기미육영회의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던 대표적 인물이 1927년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한 전진한(錢鎭漢), 1943년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었던 국어학자 이극로(李克魯), 해방후 초대 문교부장관을 지낸 안호상(安浩相), 한국전쟁 당시 국방부장관을 지낸 신성모(申性模)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문시환은 전진한과 함께 1920년 4월 동경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동경정칙영어학교에 유학한 문시환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1922년 학교과정 2년을 수료한 뒤 미국으로

유학할 작정으로 상해로 갔다.

미국유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 온 문시환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호북성(湖北省) 구강(九江)에서 미국인이 경영하던 학교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다. 이때 배웠던 그의 영어 실력은 해방후 미군정청 고위관리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밑천이 되었다. 중국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문시환은 1923년 2월 동아일보 부산지국 기사를 사임하는 것을 볼 때 늦어도 1922년 연말을 전후한 시기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국내에서 동아일보 부산지국 기자생활을 하던 문시환은 마침내 1923년 1월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대회에 경남기성회대표로 참가하였다. 국민대표대회에서는 1923년 2월 군사, 재정, 외교, 경제, 교육, 노동의 6개 분과와 헌법기초 및 과거문제위원회 등의 두 개의 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였다. 문시환은 이들 부서 중 노동분과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때 그는 대한민국임시헌법의 개정을 국민대표대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임시정부 의정원이 헌법문제를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이 요구는 의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시환이 국민대표대회에서 활동할 무렵 일제 경찰은 그를 초기 사회주의자들이었던 김철수(金綴洙), 오창환(吳昌煥), 윤자영(尹滋英) 등과 같이 한족공산당(韓族共產黨) 세력으로 분류하였다. 이 시기 그가 취했던 진보적 정치행동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마치 모스크바 동방노동자대학을 나온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문시환이 상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국민대표대회는 어떤 배경에서 개최된 모임인지 그 연원을 보도록 하자.

1919년 3.1운동 직후 민족운동의 지도기관으로 출발한 상해 임시정부는 민족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초기 사회주의자들 또한 참여하고 있었다. 임정의 이러한 좌우연합적 성격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내부에서 독립운동노선과 독립국가수립의 방법을 둘러싼 갈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임시정부 안팎의 독립운동단체들 사이에서는 1921년 2월부터 임시정부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곧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되 임정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개조파와 기존의 임시정부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민족운동 지도부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창조파로 나누게 되었다. 개조파와 창조파는 만주와 연해주에 있던 각 민족 운동세력들과 연계하여 민족운동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분열된 민족운동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새로운 독립운동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1923년 1월 상해에서 국민대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국민대표대회는 1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거듭하였지만 결국 개조파와 창조파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여 통일된 독립운동노선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대회를 끝내고 말았다. 이후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자임했던 임시정부의 위상은 급격히 실추되어 임정 또한 하나의 독립된 민족운동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그 결과 임정은 시간이 지난 뒤 새로운 지도자 김구를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기 전까지 시련의 시기를 거쳐야 했다. 1923년 1월 문시환이 참가한 국민대표대회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개최된 대회였다.

## 의열단 활동

국민대표대회에 참가한 문시환은 국민대표대회 활동에 머물지 않고 김원봉 중심의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원래 의열단은 1919년 11월 길림성에서 김원봉, 황상규, 김대지, 윤세주, 한봉인, 신철휴, 이종암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였다. 의열단이란 이름은 ‘정의(正義)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한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3.1운동 이후 논의되고 있던 여러 독립운동노선 가운데 외교론과 실력양성론 등을 부정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암살과 테러적 방법

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조직이 의열단이었다. 창립 당시 단장은 밀양 출신 김원봉이었으며 단원들은 대체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았다. 의열단은 창단 직후 ‘공약 10조’와 뒤에 ‘오과괴(五破壞)’, ‘칠가살(七可殺)’이란 활동지침



의열단을 결성한 중국 길림성 관호문 거리

을 채택하였다. 의열단이 주장한 공약 10조를 보면 ①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②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하기로 함. ③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者)라 함. ④ 단의(團義)에 선(先)히 하고 단원의 의(義)에 급히 함. ⑤ 의백(義伯) 1인을 선출하여 단체를 대표함. ⑥ 언제(何時) 어디(何地)에서나 매일 1차씩 사정을 보고함. ⑦ 언제 어디에서나 매 초회(招會)에 필응함. ⑧ 피사(被死)치 아니하여 단의에 진(盡)함. ⑨ 하나가 아홉을 위해, 아홉이 하나를 위해 헌신함. ⑩ 단의(團義)에 배반한 자는 처살(處殺)함 등이었다.

이와 같은 투쟁방침에 따라 의열단은 조국독립을 위해 조선총독부 고관, 군부수뇌, 매국노, 친일파거두, 밀정, 반민족적 인물들을 타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친일언론기관인 매일신보사, 각 지역의 경찰서 및 각종 식민통치기관을 직접 공격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의열단은 1920년 5월 밀양·진영폭탄반입사건, 같은 해 9월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파사건, 이어서 1920년 12월 밀양경찰서 폭탄사건, 1921년 9월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청사 투탄공격 사건, 1922년 3월 일본 군부의 거물로서 해외팽창정책을 추진한 육군대장 타나카 기이찌(田中義一) 암살을 위한 상해 황포탄(黃浦灘) 폭파사건, 1923년 1월 종로경찰서 폭탄사건, 같은 달 일본 황궁 앞에서 일본친황을 살해하

기 위한 이중교(二重橋) 폭파사건 등을 실행에 옮겨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의열단의 이와 같은 가열찬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단재 신채호(申采浩)는 1923년 1월 의열단의 경륜과 강령을 담은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서 신채호는 일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문화주의(文化主義)·외교론(外交論)·준비론(準備論) 등을 주장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립노선을 제시하였다. 곧 일제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폭력적 민중혁명(民衆革命)에 의한 일제의 타도라는 전술을 내걸었던 것이다. 단재 신채호가 한달 동안의 고심 끝에 작성한 이 선언문은 의열단원들을 감격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선언문은 작성 즉시 팜플렛 형식으로 인쇄되어 국민대표대회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에게 우선 배포되었다. 그 결과 선언문에 감동한 많은 젊은 이들이 의열단의 단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문시환을 비롯해 보천교청년회 대표로 국민대표대회 참여한 강홍렬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열단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의 오른쪽 건물이 의열단원 박재혁 의사가 폭탄을 던진 부산경찰서이다.

한편 의열단의 투쟁이 진행되는 이 무렵 임시정부의 위상을 두고서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이 증폭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의열단은 창립 이후 1920년 가을부터 그 동안 임정 내에서 나타나고 있던 이승만 중심의 외교론을 비판함으로써 반(反) 임시정

부노선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국민대표대회가 실패로 끝나자 적극적 투쟁을 주장한 의열단의 노선은 큰 호소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1923년 8월 일본 상해 총영사가 본국에 보낸 전문에 의

하면 의열단은 “임시정부에 불만족하는 자 및 노농 러시아의 후원을 믿기에 부족함을 간파한 자들로서 의열단에 참가하는 자는 점점 증가해오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의열단은 한국 내외에 걸쳐 극력 비밀선전에 힘쓴 결과 단원이 천명을 헤아리게 되었다”라고 그 세력이 상당히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1923년에 들어서 많은 의열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개조파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열단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의열단은 1923년 여름부터 만주 영안현에 있던 적기단과 제휴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침 그해 9월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여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많이 학살하자, 의열단의 김원봉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적기단과 함께 1924년 한국에서 많은 폭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열단은 단원 200여명 가운데 11명을 선정하여 1923년 12월 국내로 각각 파견하였다. 그러나 의열단의 동태파악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일제 경찰은 1923년 12월 22일 단원 구여순, 23일 김정현, 24일 오세응, 28일 강일, 29일 문시환 등을 각각 체포하였다. 이 사건을 일명 ‘의열단 제3차 암살·파괴계획’이라고 불렀다. 일본천황을 암살하기 위해 동경에 파견되었던 이중교(二重橋) 사건의 김지섭 단원 또한 이때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것이다.

1923년 12월 29일 검거된 문시환은 1924년 2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한편 계속된 투쟁 속에서 많은 희생자를 치른 의열단은 1924년부터 기존의 테러적 독립운동 노선이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1926년부터 사회주의 이론을 수용하기 시작하여 계급적 노선을 고려한 급진적 민족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그 결과 1929년 12월에는 일제의 탄압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온 국내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 조직하였다. 이후 의열단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맥락에서 1935년 우파계열의 한국독립당(이동녕, 안창호, 김두봉), 김규식의 한국동지회, 최동오의 조선혁명당 등

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창건하였다. 이 조직에서 주류적 위치를 차지했던 의열단은 민족혁명당의 예하부대였던 조선혁명군을 1938년 조선의용대로 확대 개편하였다. 1941년 민족혁명당이 임정에 합류함에 따라 조선의용대 역시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임정을 이끈 김구와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마침내 좌우합작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기존의 극우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좌우연합적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 해방후 정치활동

해방이 되면서 문시환은 동래군수, 경상남도 도훈(道勳)국장, 경상남도 상공국장 등을 역임하게 되었다. 이어서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에서 조선민족청년단 소속으로 부산감에 출마하여 제헌의원으로서 당선되었다. 그가 몸담은 조선민족청년단은 1946년 6월 이범석이 중국에서 귀국한 뒤 조직한 청년단체였다. 흔히들 ‘족청’이라고 불렀는데, 창립 당시 족청의 단장은 이범석, 부단장은 초대 문교부장관을 지내게 되는 안호상이 맡았다. 족청은 중국 주둔 미군사령관 웨더마이어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성된 9개월 만에 회원이 20만을 넘게 되었다. 이후 족청은 1947년 4월 지청천 장군이 조직한 대동청년단 등과 함께 1951년 12월 이승만의 자유당 창당에 큰 버팀목이 되었다.

제헌의원 선거에서 족청계로 출마한 문시환은 그해 6월, 국회의원 50여 명이 결성한 무소속구락부에 참여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국회 개원과 함께 제헌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총선거를 실시하여 진정한 민중대표를 선출하여 국회에 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이때 문시환은 전형위원 19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정활동은 1948년 10월부터 경상남도 3대 도지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의 도지사 업무는 1949년 11월까지 계속되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그는 일찍이 일본

과 중국의 유학시절 닦았던 어학실력 때문에 미8군 사령관 위커의 특별고문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뚜렷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는 고향 동래에서 1973년 11월 11일 77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김 승

### 3. 박기출(朴己出)



#### 의료인으로 출발

열강의 각축과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 박해로 얼룩진 일생을 마감한 비운의 한 진보주의자가 바로 부산출신 박기출(朴己出)이다.

우리사회에 민주주의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좌우익 갈등과 투쟁, 일인독재의 횡포 속에서 철저하게 희생자로 살다간 그는 분명 민족주의를 신봉하고 실천한 정치인으로 분류되지만 의료인으로서 또 체육회와 한글학회 그리고 교육과 언론에도 업적을 남긴 이색정치인이다. 박기출을 이야기하자면 파란만장한 그의 정치인생을 말하기 전에 의사로서의 면모부터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박기출은 1909년 4월 28일 부산 서구 부민동에서 한의사인 아버지 박주성과 어머니 김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4년 동래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업(父業)인 의업(醫業)을 계승하기 위해 일본 동경의학전문학교 오늘날의 동경의과대학에 입학한다. 1935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귀국하여 서복동(徐福童)씨와 결혼을 하고 부산부립병원에 근무하면서 1942년 일본 구주대(九州大)에서 재차 수학, 의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부산출신 의사 중 3번째로 일본서 학위를 받은 인물로 『부산의사(釜山醫史)』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1943년 부립병원을 그만 두고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광본외과(光本外科)를 개업하다가 해방과 동시에 박외과(朴外科)로 병원이름을 바꾸었고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병원의 문을

단계된다. 이에 앞서 해방직후인 1946년 박기출은 미군정(美軍政) 부산지방 초대 후생국장을 맡았으나 8개월만에 미군정과의 의견충돌로 사임한다.

당시 호열자(콜레라)가 창궐하여 그 피해가 극심했다. 미군정청은 일본으로부터 돌아오는 귀환동포들에게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입국시키고 있었다. 거기에다 미군정청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병원(敵産病院) 불하문제로 박기출과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박기출은 재산과 기반이 없는 귀환동포의사들에게 넘겨줄 것을 주장했으나 미군정청은 이미 개업한 기득권층의 부유한 의사들에게 불하해주고 있었다. 이에 격분한 박기출은 미군정청 후생국장직을 사임하고 개업하면서부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정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그의 아버지는 피정에서 의원을 개업하던 중 불치의 병환으로 가산을 정리하여 부용동으로 이사한 뒤 할머니가 양조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대동아전쟁에 징용하기 위하여 식량 주류 의류 등을 통제하면서 그 집안의 양조장도 징발 당하고 만다. 그때 그의 할머니가 병원을 새로 지어 주었고 박기출은 개업하여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다방면으로 유능한 외과의사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다.

박기출은 성격이 활달하고 추진력이 강한데다가 웅변가로서 주위의 신망이 두터워 경남의사회회장 대한의사협회의회장 등 활발한 활동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부산 한글학회 부산체육회 등 회장이 된다. 그런 과정에서 주위에서는 그의 사무처리와 명석한 판단력과 박력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박기출은 부산에서 상공일보(商工日報)를 경영하여 언론을 통한 사회교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한국전쟁 중 조국의 파괴와 절망 속에서 민족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하는 뜻에서 사재를 털어 “새한의숙”을 열어 수업료를 받지 않는 남녀공학의 새한중학교를 초량동

구봉산 자락에 세웠다. 새한중학교는 진보당 사건의 와중에 이승만 정권의 억압과 고난에 견디다 못해 제 삼자에게 넘어가고 만다.

그가 민족주의자라는 사실은 한글학회에 관여하면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집의 문패에 “박기출” 혹은 “朴己出”이라 쓰지 않고 “밝기출”이라고 써 붙였다. “밝”이란 이두로 표현된 것으로써 “밝은 곳 즉 해가 뜨는 곳에서 시작된 민족”이라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 부통령 후보로 지명

의료인 박기출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동기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는 데 있었다. 1942년 한글학자이자 민족주의자인 이극로(李克魯)와 만나면서 박기출의 인생역정은 정치입문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발길이 옮겨진 것이다. 정당에 가입하게 되고 한독당과 진보당 사회대중당 등의 주인공으로 가장 박해받는 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다.

이극로가 창설한 건민회(健民會)에 박기출이 가입, 경남위원장이 된 해가 46년, 이때부터 박기출은 중앙의 정치무대를 오가면서 김규식(金奎植) 조봉암(曹奉岩) 등 민족주의 진영의 정치인들과 교류가 시작된다. 이 무렵 민족자주연맹에 관련된 우사(尤史) 김규식(金奎植)과도 정치적 친분관계를 맺게 되고, 이로써 향후 박기출의 정치성향은 민족적 진보주의자로 굳어지게 된다.

해방후 좌우의 극한대립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통일을 기대하던 민족진영은 좌우합작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좌에 가깝던 여운형(呂運亨)과 가깝던 김규식(金奎植)이 각각 좌우의 대표가 되어 합작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들 두 지도자가 모두 자신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다 46년 제1차 미소(美蘇)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설상가상으로 여운형이 암살 당함으로써 민족통일은 고사하고 좌우합작운동마저 궤멸될 위기에 직면

한다.

이때 김규식은 좌우편향을 배제하고 민족자주노선을 지향한다는 기치아래 중간파에 속하던 19개 정당 및 사회단체를 결집, 1947년 10월 민족자주연맹(民族自主聯盟)을 결성한다. 민족자주연맹에는 김규식을 비롯, 원세훈(元世勳) 안재홍(安在鴻) 최동오(崔東昨) 김병로(金炳魯) 홍명희(洪明熹) 이극로(李克魯) 등이 참가했으면 박기출은 건민회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민족자주연맹 경남위원장을 맡는다.

1950년 5월 실시된 제 2대 국회의원 선거에 박기출은 부산 동구에서 출마한다. 그러나 임정요인이며 혁신계의 핵심인물이었던 장건상(張建相)이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하게 되자 박기출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각오로 출마를 포기하고 오히려 장건상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따라서 장건상은 옥중 당선된다. 당시의 선거상황은 경쟁률이 10.5대 1에 이를 정도로 후보자가 난립했는데 결과는 대한민국당과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이 각각 24석을 차지했을 뿐 무소속 출마자가 1백 26명이 당선되는 혼란상을 보이고 있었다.

총선 1개월 만인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대적인 좌익 분자 검거령이 내려지고 8월 28일 박기출도 경찰에 구금되고 만다. 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정권의 탄압으로 진보진영의 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정권이 1954년 9월 사사오입개헌으로 영구집권체제를 갖추게 되자 민국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등이 호헌동지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민주당(民主黨)과 진보당(進步黨)이 탄생하게 된다. 조봉암(曹奉岩) 서상일(徐相日) 장건상(張建相) 윤길중(尹吉重) 신도성(愼道晟) 등이 참석하여 12월 22일 진보당(進步黨)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봉암 서상일 박기출 김성숙 윤길중 등 12인을 발기인으로 선출했다. 이듬해 5·15 제3대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당추진위는 대통령후보에 조봉암, 부통령후보

에 박기출을 지명했다.

이때 민주당은 대통령후보에 신익희(申翼熙) 부통령후보엔 장면(張勉)을 내세웠다. 진보당과 민주당은 야권연합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 4월 27일 양당의 정부통령 후보 4인이 회담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장면이 불참하는 바람에 결국 3자회담이 되고 말았지만 이 자리에서 조봉암은, 대통령후보는 신익희로 하고 당선되면 민주당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해도 좋으며 부통령후보는 박기출로 한다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5월 5일 신익희가 호남유세도중 급서하게 되고 야권대통령 후보를 조봉암이 맡게 되자 박기출은 9일 “부통령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 용퇴한다”는 성명을 내고 장면에게 양보한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과 조봉암이 1대1로 맞붙게 된 제3대 대통령선거결과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당선되고 부통령은 박기출의 사퇴로 단일후보가 된 장면이 자유당의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된다.

이승만이 선거에서 적지 않은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하지만 관권선거 개입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선거상황에 대해 박기출은 그의 저서 “한국정치사”(韓國政治史)에서 “이승만의 당선은 날조된 것이었다. 샌드위치표 등 부정개표가 난무한 전형적인 관권선거였다”고 적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 진보당추진위는 모든 야권을 망라한 야권단일정당을 추진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 등 진보당과 서상일 이동영 주기형 유천 고정훈 등 민주혁신당으로 양분된다. 결국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측은 서울시공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위원장에 조봉암 부위원장에 박기출 김달호 간사장에 윤길중을 선출하고 진보당을 출범시켰다.

박기출에게 고난의 길은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진보당의 당세확장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제4대 민의원선거를 앞둔 58년 1월 진보당 간부들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시켜 조봉암체거

작업에 들어간다. 이른바 ‘진보당사건(進步黨事件)’이다. 구속사유는 진보당 간부들이 북한간첩과 내통, 정치자금을 받아썼다는 것인데 특히 조봉암은 이중간첩 양명산(梁明山=梁利涉)과 접선, 정치자금을 받아 진보당을 창당했다는 혐의였다. 이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사법과동의 과정을 거친 최종심에서 조봉암 양명산 사형, 박기출을 비롯한 나머지 전원은 무죄로



진보당사건 공판(1958)

풀려났다. 그 해 7월 30일 변호인단의 마지막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다음날인 31일 진보당 당수 죽산(竹山) 조봉암은 서대문형무소에서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조봉암이 사형을 당하자 박기출은 참담한 심정으로 낙향하여 부산에 머문다. 진보당 정치인들 모두가 활동 정지상태에 빠진 것이다.

## 반독재 민주운동에 나서다

진보당의 몰락과 동시에 자유당 정권은 종착역을 향한 막바지 폭압정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진보당사람들이 물밑에서 숨을 죽이고만 있을 계제가 아니었다. 1959년 12월이 되자 진보진영은 서서히 물밑 세규합을 다짐하고 나선다. 성민학회(醒民學會)의 김배영(金培英) 김한덕(金漢德)과 구진보당계의 윤죽향(尹竹鄉) 김재봉(金在奉) 임갑수(林甲守) 등이 주축이 되었다. 이들은 민주당 신당계의 서상일(徐相日) 김성숙(金成濤), 진보당계의 김달호(金達鎬) 윤길중(尹吉重), 민족주의 민주사회당 소속의 이훈구(李勳求) 전진한(錢鎭漢), 공화당계의 장택상(張澤相), 무정부주의자인 정화암(鄭華岩) 등과 연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신당결성을 암암리에 추

진하기 시작했다.

1960년 2월 2일 부산서 서울로 올라간 박기출은 서상일 장택상 이훈구 김성숙 정화암 등과 함께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을 결성하게 된다. 한 달 반 가량 앞으로 다가온 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2월 8일 3·15정부통령선거에 대비, 대통령후보에 장택상, 부통령후보에 박기출을 각각 지명하면서 대선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반독민련이 후보등록일인 2월13일이 임박해 등록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탈취사건이 발생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앞에서 자유당정권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 습격, 등록서류를 탈취하고, 연맹원 수 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테러가 발생한다. 이로써 반독민련은 후보자등록도 하지 못하고 결성된 지 11일만에 와



전당대회(1968. 왼쪽부터 박기출, 조현식, 김성숙)

해의 길을 걷고 만다. 부통령후보로 추대되었던 박기출은 후보등록도 무산된 채 부산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 감금됨으로써 정치활동의 길이 다시 막히는 처지가 되었다.

처음부터 3·15정부통령 선거는 자유당정권이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고 마는 결과를 몰고 왔다. 선거결과 정부통령에 이승만 이기붕이 각각 당선되었으나 사상최대의 부정불법선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드디어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부정선거 규탄의 물결은 마침내 4·19혁명으로 발전,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하야(下野)하고 이기붕일가의 자살과 함께 이승만독재정권은 비운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부산에서 4·19혁명을 맞은 박기출은 그의 논설집 “내일을 찾는 마음”에서 자유당 정권의 몰락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5년 간 이승만정권의 타도를 위해 싸워왔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청년학도들의 피로써 이승만을 축출케 되었구나. 나의 정치적 투쟁이 좀더 슬기로웠다면 수많은 이 땅의 꽃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4·19혁명은 박기출같은 진보 및 혁신세력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정치세력으로 결집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분파로 갈라져 있던 혁신 및 진보세력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구진보당과 민주혁신당 근민당계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대중당(社會大衆黨)이다. 박기출은 서상일 윤길중 등과 함께 사회대중당의 깃발아래 정치참여에 복귀했다. 사회대중당은 5월 13일 발기를 선언한 데 이어 6월 17일 창단 준비위를 발족, 대표에 서상일 간사장에 윤길중을 선출하고 박기출은 총무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4·19혁명 뒤의 과도정부 내각수반이 된 허정(許政)은 3·15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7월29일 총선실시를 공고, 다시 정국은 선거국면으로 접어든다. 박기출은 부산진갑구에서 출마했으나 1만 2천여 표를 얻어, 2만 5천 9백여 표를 획득한 민주당후보 이종남(李鍾南)에 패배,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7·29총선은 박기출 뿐만 아니라 혁신계의 정계진입을 거부했다. 혁신계 정당 중 사회대중당이 1백 29명 한국사회당이 21명 한국독립당이 12명의 후보를 각각 공천해 출마했으나 사회대중당 4명 한국사회당과 한국독립당이 각 1명씩 당선시켰을 뿐이었다. 이해 반해 보수정당인 민주당 1백 75명의 당선자를 내 전체의석의 75.1%를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회대중당은 다시 김달호계와 윤길중계로 양분되면서 박기출과

윤길중 그리고 한국사회당의 김성숙 혁신연맹의 정상구 사회혁신당의 고정훈 등이 통합하여 통일사회당을 결성한다. 그러나 그 해 5월16일 박정희(朴正熙)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모든 혁신계 인사들의 검거령이 내려지고 박기출은 수배당한 채 도피생활에 들어간다. 박기출은 6년 간의 칩거생활에 들어갔다.



1967년 4월 광주에서

박기출은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계에 발을 내딛는다. 그는 민중(民衆), 신한당(新韓黨)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 거대야당이 된 신민당(新民黨)에 참여해 그 해 6월 8일 실시된 총선에서 부산 동구에 출마, 여당인 공화당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다. 박기출이 20여 년의 정치생활 가운데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박기출은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혁신이나 보수냐의 경계를 넘어서서 민주세력이나 독재타도냐를 선택한 결과였음이 틀림없다.

2년 뒤인 1969년 박정희정권은 3선개헌(3選改憲)을 통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제1야당인 신민당은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이철승(李哲承) 등 소장파의원들이 40대기수론을 내세우면서 세대교체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때 윤보선(尹普善)은 재야인사를 흡수하여 신당인 국민당(國民黨)을 창당한다. 그 때가 1971년 1월6일이다. 처음 국민당은 이범석을 대선후보로 내세우려 했으나 이범석이 거절하자 3월22일 박기출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했다. 그는 저서 “한국정치사”에서 민족통일을 전제로 민족적 자각을 환기시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후보를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그러나 선거일 4일을 앞두고 운영위를 열어 대선포기를

결의한다. 박기출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끝까지 유세를 하는 등 선거 전에 참여했다. 결과는 4만 3천 7백여 표를 얻는데 그쳤지만 그의 목표는 조국통일과 민족의식 고양에 뜻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3선 개헌 반대강연(1969)

이어서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의 고배를 마신다. 이번 총선낙선은 박기출에게는 사실상 정계 은퇴를 안겨주었다.

이듬해인 1974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구주(九州)지방의 무의촌 병원과 보건소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그는 해방후의 한국정치사를 담은 『한국정치사(韓國政治史)』를 집필, 1974년 동경에서 일본어판으로 출판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승만과 박정희정권에 관해 비판적이었던 이유로 1989년까지 금서조치가 내려졌다. 출판을 서두르고 있을 때 이미 그는 암 선고를 받고 동경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병세가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한국의 가족들이 서울 자택으로 이송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정부는 끝내 가족들의 여건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위급해진 가족 가운데 미국의 의과대학에 의사로 근무하는 둘째 아들이 서울로 이송,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곧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박기출은 짧지 않은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1946년 한국민주당의 음해로 인해 투옥된 것을 비롯, 1956년 이승만정부에 의해 투옥, 1958년 진보당사건으로 투옥, 1959년에 진보당사건으로 재투옥, 1960년 허정내각과 민주당 때 투옥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감옥을 가야했다.

또 1961년과 1967년 박정희군사정권의 박해를 피해 잠행한데 이어 1972년 박정희대통령의 유신체제를 피하여 일본으로 피신했다가 1977년 8월 5일 파란만장의 1968년간에 걸친 일생을 마친 것이다. 자식들에게 “정치를 하고 싶거든 통일된 뒤에 하라. 우리민족 모두를 한집안 식구로 생각하라”는 유서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박기출은 『내일을 찾는 마음(1968년)』 『인간을 위한 종교(1975년)』 『인간과 삶과 종교』 『한국정치사』 등 4권의 논설집 등 저서를 남겼다. 『인간과 삶과 종교』는 저자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시로 표현된 시집(詩集)이다.

『한국정치사』는 그가 한국전쟁 중 조국의 파괴와 절망 속에서 민족의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하는 뜻에서 세운 새한학회가 일본어판을 2004년 한글판으로 출판한 것이며 이 때 나머지 시집과 논설집도 함께 다시 펴냈다.

■ 전 국제신문 논설주간 배승원

## 4. 허 정(許 政)

한국 근대사의 파란과 아픔의 격랑 속에서 그 중심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온 “정치인 아닌 정치인”을 든다면 허정(許政) 과정수반(過政首班)을 첫 손에 꼽지 않을 수 없다. 왕조로부터 일제 강점으로, 또 해방과 이승만박사의 자유당독재와 박정희군사정권의 격동기를 헤쳐 나오는데 그의 역할이 더없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1961년 4·19혁명으로 전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을 무렵 이승만대통령의 계속된 권유로 허정은 외무부장관에 취임한다. 그러나 취임 하루만인 26일 이대통령이 전격 하야함으로써 수석국무위원 자격으로 대통령권한 대행이라는 뜻밖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그로부터 같은 해 8월 8일 제2공화국의 민주당정부가 들어서기까지 1백 5일간 허정내각수반은 정국안정과 평화적 정권이양 그리고 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명쾌하게 완수했다.

허정을 지칭해서 “정치인 아닌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까닭은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30여년의 정치생활 가운데서 한번도 스스로 자리를 탐해본 적 없이 오직 ‘정치’와 ‘정치기술’을 명확하게 구별했고 그 신조를 끝까지 지켜왔기 때문이다.

허정은 1896년 4월 8일 경상남도 부산시 초량동 19통(統) 10호(戶)에서 아버지 허문일(許文逸)과 어머니 김술이(金述伊)의 5남 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가업(家業)은 물산객주(物産客主)로 요즈음의 말로 하면 무역중개업이었다. 울산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선친 때 부산으로 옮겨와 초량에 자리를 잡고 물산객주업을

시작했다. 말이 몰산객주이지 규모가 아주 작아서 간신히 생계나 유지하는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상당한 고생을 하면서 자랐다.

이름에 대하여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허정은 회고록에서 아버지 이름을 “文逸”로 적고 있으나 그의 호적부에는 “文日”로 쓰여있어 그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회고록 저술편집과정에서의 착오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許政이라는 이름도 본래는 許聖壽로 불리어졌다. 그가 중국에서 프랑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중국여권에 본래의 이름인 “성수(聖壽)” 대신 “허정(許政)”으로 기재하기 시작했고, 광복 후인 1947년 서울지방방법원심리원(지금의 서울지방방법원)에서 정식 개명관정을 받게 되었다.

### 나라 잃은 비극과 일본

허정은 자신의 회고록 『내일을 위한 증언』에서 유년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는 어려서 당시의 관례대로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여섯 살 되던 해 영국선교사가 초량에 교회회를 세우고, 거기에 세운 양국서당(洋國書堂)에 들어가서 신교육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그는 크리스천이 되면서 신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와 서양과의 최초의 만남이었다. 그는 을사보호조약이 있기 1년 전인 8세가 되던 해 공립학교를 마다하고 민족혼이 살아있는 초량사립학교(草梁私立學校)에 입학하게 된다. 초량학교는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역 박영효(朴泳孝)를 따라 개화운동을 벌였던 최유봉(崔有鵬)이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사재를 털어 세운 학교이다. 양국서당은 그에게 신학문과 함께 “서양에는 동양에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막연한 이상을 갖게 했고 초량사립학교는 민족과 구국이라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그 무렵 소년은 주시경(周時經)선생이 쓴 “잔다르크 전”을 읽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잔다르크 같은 위인이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또 소년은 남순(南巡)길에 나선 순종황제(純宗皇帝)

가 부산항에 정박중인 일본군함을 참관하러 가는 도중 지금의 자갈치시장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목선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끓어오르는 치욕감과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 나라 잃은 치욕 울분은 소년의 가슴에 평생을 두고 민족적 분노로 쌓여갔다.

소년은 초량학교를 졸업한 14세 때 서울로 올라가서 보성중학교에 입학한다. 그 해 여름 마지막 더위가 한풀 꺾여 가는 8월 29일 아침 학교로 가는 길목의 게시판에서 나라를 일본에 완전히 넘겨주는 “한일합방조서”를 읽게 된다. 치욕의 역사에 분개하면서 눈물과 허기로 중학교 3년을 마친 뒤, 이어서 지금의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에 진학한다. 보성전문을 졸업한 뒤 그는 일단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아버지사업을 돕는다. 24세 되던 해 3·1운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폭압이 극에 달했다. 피끓는 청년의 가슴에는 더 이상 가사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결의로 가득 찬다. 1919년 7월 어느 날 밤 그는 지금의 부산역인 초량역에서 북행열차에 몸을 싣는다.

## 상해~프랑스~미국으로

어느 듯 압록강을 건너가는 기차는 천지를 진동하는 기적을 밤하늘에 토해낸다. 나라를 잃고 일제에 짓밟히는 조국이 한없이 서러웠다. 부모형제를 두고 밤열차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가는 자신이 한편으로는 서글프기 짝이 없었다.

잠이 올 리 없다. 눈만 감으면 아른거리는 일본인들의 만행이 갈수록 머리를 무겁게 짓누른다. 부산과 동래 양산에서 거리로 질질 끌려나와 공개처형 당하던 의병들의 모습, 살기를 내뿜던 일인순사들의 모습, 어느 것 하나 몸서리쳐지지 않는 것이 없다. 약소국도 서러운 것인데 거기에 망국의 설움이라니, 새삼 피가 거꾸로 치솟는 울분을 삭이기 어려웠다.

기차는 달리고 달려서 봉천(奉天)~북경(北京)~천진(天津)을 거

쳐 나흘만에 상해(上海)에 도착했다. 그때 마침 국민정부 요인들 중 張 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일본 유학생이었고 파리에서 유법근학회(留法勤學會)라는 것을 조직했다. 중국말로 프랑스를 법국(法國)이라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1차 대전 때 젊은이들이 대거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는 바람에 노동력이 태부족이었고 따라서 중국의 청년들이 노동을 하면서 고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성수청년은 신규식(申圭植)선생을 통해 프랑스로 갈 수 있었다.

이때 이름을 허정(許政)으로 고쳐 적기 시작했고 우양(友洋)이란 아호도 스스로 만들게 되었다. 프랑스로 갈 때 조그마한 영국 화물선을 타고 갔는데 장장 40여 일이나 걸렸다. 지루한 갑판에 서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청년은 가족과 친구들, 고향의 산하 그리고 빼앗긴 조국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본래 바다근처에서 살았고 바다를 좋아했다. 한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는 어머니의 품속을 생각했다. 꿈길같은 다정함이었다. 바다를 벗삼는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우양(友洋)’이라 부르고 싶어했다. 파란만장했던 정치세파 속에서도 그는 어머니 품속같은 바다를 그리는 뜻의 우양이라는 아호에 힘입어 지탱해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파리에는 이관용 황기환(黃玗煥) 장택상(張澤相)등이 있었고, 조소양(趙素昂) 윤해(尹海) 고창일(高昌一)이 대표로 있었다. 그 사람들과 러시아에서 온 동포들이 모여서 유법한인회(留法韓人會)를 조직해서 성수청년이 회장이 되었다. 한인회는 동포들에게 국어 역사 지리 등을 가르치면서 노동을 하고 프랑스어를 배웠지만 너무 힘이 들어 6개월만에 미국으로 무대를 옮겼다.

1920년 7월 미국에 도착한 허정(許政)은 서재필(徐載弼) 안창호(安昌浩) 이승만(李承晩) 등 독립운동가들과 만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이승만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동지회가 있었고 안창호선생 중심의 흥사단이 있었다. 동지회에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 계층이 많았고 흥사단에는 학생지도층이 많았다. 당시 李安 두

지도자가 이끄는 단체는 첨예한 분열과 대립을 보이고 있었으나 서재필박사는 중립적 위치에 서 있기만 할 뿐이었다. 회의를 해도 따로 하고 예배를 봐도 따로 보는 등 분열과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허정은 21년 봄 재미동포를 대표하는 한인공동회(韓人公同會)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동포들의 대동단결을 호소했다.

### 미주서 「삼일신문」 창간

그러나 두 파벌의 알력과 대립을 막지 못한 나머지 그 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강대국들의 군축회의에 대표를 참석시키지도 못하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의 군축회의는 제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른 일본을 견제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문제를 제기하고 호소하는데 절호의 기회였다.

허정이 조병옥(趙炳玉)을 만난 것도 이 무렵이었고 이들은 조초(林超) 이원익(李元益) 곽임대(郭林大) 등과 함께 군중대회 준비위원으로 일했다. 한인회를 조직하고 보니까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모든 것이 능률적으로 되겠는데 그런 것을 조정할 홍보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때 뉴욕에는 이미 설산 장덕수(雪山張德秀)를 위시해서 윤홍섭(尹弘燮) 김도연(金度演) 최준수가 머물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삼일신보」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기봉(李起鵬)과 만난 것도 이 무렵이었고 윤보선(尹普善)은 스코트랜드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삼일신보”를 보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당시는 미국경제도 대공황을 맞아 어려운 실정이었다. 허정은 1년쯤 신문을 내다가 고독한 마음을 달래기 어려워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미주를 떠나 하와이로 갔다. 그곳 동포들이 붙잡기도 하고 기후도 마음에 들어 그는 그곳에서 6개월을 머문다. 그 사이 교회와 학교 일을 도우면서 “태평양잡지”를 편집했다.

허정은 하와이 생활 6개월을 끝으로 귀국했다. 돌아와서는 37살



과도정부 수반 재직시 부인과 함께

때 24살의 규수와 결혼했다. 부인은 이화(梨花)전문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일신여학교 음악교사로 있던 백귀란(白貴蘭)이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허정은 그 뒤 일생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처가의 재력에 의지했기 때문이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귀국과 함께 허정은 이기봉과 합작으로 충북 영동의 형석광이라는 광산회사를 설립했다. 일제는 대동아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광산에 대해서만은 자유롭게 방임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허정은 서울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해방의 소식을 들었다. 다음 날 오전 설산(雪山)을 찾아갔다. 허정보다 한 살 위인 설산(雪山)은 동아일보(東亞日報) 주간을 역임하다가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허정과 함께 삼일신보를 발간하면서 두 사람사이는 죽마고우처럼 두터워진 사이였다. 그는 이어서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 인촌(仁村) 김성수(金成洙),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김준연(金俊淵), 이인(李仁), 김병로(金炳魯), 유석(維石), 조병옥(趙炳玉), 안재홍(安在鴻), 김도연(金度演), 백관수(白寬洙), 김약수(金若水) 등 민족지도자들과 회동했다.

이 과정에서 상해임시정부 환국국민환영대회(송진우 장덕수 김준연 안재홍 윤보선), 고려민주당(이인 김병로 조병옥), 건국준비위원회(여운형=인민당), 한국국민당(송진우 조병옥 김병로 윤보선), 조선국민당(안재홍) 이렇게 많은 정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국민당에서 조선국민당이 떨어져 나가자 다시 당명을 한국민주당으로 개명하게 된다. 이리 하여 1945년 9월 16일 이승만 김구 이시영 문창범 서재필 권동진 오세창을 축으로 하는 한민당이 탄생한다.

한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여러 갈래의 민족진영 세력들이 하나로 집결한 최초의 정당으로 결성된 것이다. 이때 송진우가 수석총무를, 허정이 조직총무를 맡는 외에 김도연 백관수 등 8명의 총무, 그리고 김약수가 조직부장, 장덕수가 외교부장, 곽상훈이 선전부원, 신도성이 문교부원을 맡는 등 한민당의 뿌리가 형성되었다. 이 한민당이 결국은 좌(左)와 우(右)로, 우파는 또 여야(與野)로 분파(分派)와 정맥(政脈)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는 사이 이승만과 김구가 각각 귀국하였으나 이신동체(異身同體)로 표현되던 두 사람마저 결국 “남한단독 정부수립”과 “남북협상”의 정치이념의 갈등과 대립으로 나뉘는 바람에 민족분열의 비극적인 싹이 자리잡고 만다.

### 헌법위원으로 내각제 기초 마련

한민당은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이라는 고집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허정은 출생지인 부산을 (釜山乙)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다. 이어서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된 초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198명 가운데 180표로 당선된다. 이때 허정은 30명의 헌법기초위원 중 한 사람으로 헌법제정에 참여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은 다음 날 인촌과 허정을 이화장으로 불러 총리 등 조각을 상의하면서 허정에게 상공부장관을 맡을 것을 제의한다. 허정도 찬성한다. 그러나 8월 4일 초대내각이 발표될 때 허정의 이름은 빠져있고 그 자리에는 임영신(任永信)이 들어 있었다. 8월 6일 이승만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허정을 총무처장을 맡을 것을 권유했다. 허정은 “국무회의에 표결권 없는 처장은 포부를 펼 수 없다”며 사양한 뒤 2개월 여 만에 교통부장관으로 입각하게 된다.

장관으로서의 허정은 교통부 안에서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던 민애청(民愛靑)과 노총(勞總)의 좌우갈등을 원만히 수습하는 수완을

발휘할 수 있었다.李大統領의 신임이 두터워진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국정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장관 자리를 김석진차관에게 내어주고 난 뒤 곧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허정은 개인자격으로 부산까지 이승만대통령을 보좌했다.



사회부장관 재직시 기자회견 모습(1952.03)  
뒤쪽은 군경 원호장려 포스터

1950년 11월 23일 부산임시수도에서 허정은 사회부장관에 임명되어 다시 입각했고 1951년 11월 6일 장면(張勉)부총리가 유엔총회에 참석 차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됨에 따라 국무총리서리가 되었다. 그의 총리서리 시절 이른바

정치파동의 전조전이 일어난다. 같은 해 12월 초순李大統領은 허정을 불러 대통령간선제 헌법을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 국회는 이대통령을 배척하는 민주국민당(民國黨)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민주당은 장면(張勉)을 제 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허정은 이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지시를 완강히 반대했으나 결국 이대통령의 고집에 못 이겨 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국무총리서리 자격으로 대통령직선제와 국회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찬성 19 반대 1백 43표로 부결되고 만다.

허정은 그 후 장총리가 귀국하자 총리서리에서 물러났고 이어서 이대통령은 그를 무임소장관으로 임명한다. 무임소장관 허정은 민주당과 이대통령과의 화해를 집요하게 주선했으나 이대통령의 고집

과 야심은 끝내 그해 7월 4일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고, 8월 5일 실시된 선거에서 이승만은 5백 23만여 표로 2위의 조봉암(曹奉岩)을 누르고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후 허정은 이승만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1954년 제3대 총선을 맞아 부산을(釜山乙)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자유당의 지지공작 등으로 인해 낙선, 야인으로 돌아간다. 야인 허정은 생활고 등에 따라 오랫동안 살아온 신교동 집을 판 뒤, 집 뒤 산비탈에 자그마한 새집을 짓고 송풍정(松風亭)이라 부르며 한세월을 지낸다.

선거가 끝나자 허정은 여당인 자유당은 물론 신익희 조병옥 등 야당으로부터도 서로 참여할 것은 권유받지만 끝내 거절하고 은거하고 만다. 그러던 중 1957년 12월 14일 허정은 서울시장이 된다. 서울시장으로서의 허정은 세금채납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시 재정을 흑자로, 또 부정비리공무원 척결 등으로 시정확립의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 내각수반으로 국정 수습

2년 뒤 서울시장에서 물러나 조용히 가족과 함께 쉬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그를 한일회담(韓日會談) 수석대표로 임명한다. 회담대표인 유진오(兪鎭午), 이호(李濤), 최규하(崔圭夏) 등과 일본 동경으로 날아간다. 회담의제는 재일동포북송(在日同胞北送)문제와 어로저지선획정(漁撈沮止線劃定)문제였다.

한일회담이 일본측의 무성의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이 해가 바뀌어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이 터지자 이대통령은 또 다시 허정을 찾았다. 4월 22일의 일이다. 허정은 자유당이 지지른 부정을 낱낱이 열거하고 ‘이기봉의 부통령당선 무효화’ ‘이대통령의 자유당 당수사임’ ‘거국내각 구성’ 등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는 대통령 측근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이대통령은 다시 허정을 불러 입각할 것을 요구, 외무부장관을 맡게 된다. 장면 부통령을 비롯, 내각이 총사퇴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下野)하자 바로 수석국무위원으로서 즉각 내각수반(內閣首班)이 되고 이어서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4월 26일 아침 이대통령



과도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가운데 의자에 허정, 왼쪽부터 전택보 상공, 권승렬 법무, 이종찬 국방, 이병도 문교, 전예홍 부흥부 장관)

령 하야성명 발표 후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을 결의하게 된다.

5월 29일 허정은 김포공항에서 이승만을 비행기에 태워 미국으로 보낸다. 그로써 허정과 이승만과의 정치적 동반역정은 막을 내린다.

허정은 국회해산, 총선실시 등으로 뒤숭숭한 정국을 정리, 1960년 6월15일 내각제개헌을 통과시키고 7·29 총선, 8·8 제5대 국회개원, 8·12 국회에서의 대통령선거 등을 착실하게 진행시키는 등 정치일정을 단축시키는데 공헌을 세웠다. 허정은 윤보선(尹潽善)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그의 임무를 끝냈다.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8월 19일 장면을 총리로 선출했으나 신구파대립과 분열로 인해 정국은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사이 5·16군사 쿠데타를 맞는다. 1963년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이 민정이양을 선언하자 허정은 신정당(新政黨) 창당에 앞장선다. 그러나 야권은 사분오열되어 정당난립시대를 맞는다. 허정은 민정(民政) 신정(新政) 민우당(民友黨) 등 야권을 통합한 ‘국민의 당(國民의 黨)’을 결성한다.

국민의 당도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등에 얽힌 이해관계를 풀지 못하고 민정 민우당 일부가 이탈하게 되고 10·15 선거에서 국민의 당은 허정을, 민정당은 윤보선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한다. 허정은 그

러나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10월 2일 대통령후보를 사퇴하고 사실상 정계은퇴의 길을 밟는다.

허정은 1980년대 전두환(全斗煥)정부에서 통일관계 고문으로 위촉했으나 국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거처인 송풍정(松風亭)에서 1988년 9월 18일 93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했다.

■ 전 국제신문 논설주간 배승원

## 제 2 장 경계분야

1. 강석진 (姜錫鎭)
2. 구인회 (具仁會)
3. 박기종 (朴琪淙)
4. 신덕균 (申德均)
5. 윤상은 (尹相殷)

## 1. 강석진(姜錫鎭)

### 성장과정과 동명제재소

대대로 부산에서 살아 온 토박이 부산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 누구보다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고 키워온 철저한 부산 사람은 강석진(1907 ~ 1984)이었다. 강석진은 1907년 12월 21일에 경북 청도군(淸道郡) 풍각면(豊角面) 덕양동(德陽洞)에서 아버지 강병우(姜炳祐)와 어머니 서순득(徐順得) 사이의 3남 2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으며, 만년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키워온 동명목재(東明木材)의 ‘동명’을 따서 스스로 호를 동명(東明)이라 하였다.



그의 집은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한 해의 추수를 몇 백 섬이나 하던 넉넉한 생활을 누려 왔으나, 생각지도 못한 송사(訟事)에 말려 들면서 하루 아침에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그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아버지를 따라 외가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혹은 시집 간 누나의 집에서 얼마동안 얹혀 지내는 등 실로 딱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토록 어려운 처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고작 아버지로부터 틈틈이 약간의 한문을 배운 것과 청도 보통학교(淸道普通學校)를 나온 것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다.

보통학교(현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년 강석진은 나름대로 고민한 나머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서 활동 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리하여 불과 열 다섯의 어린 나이에 완전히 맨 주먹으로 정든 고향 청도를 떠나 무작정 남쪽의 큰 도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부산에 온 강석진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중 실로 우연히 발이 닿은 곳이 가구점거리로 이름난 지금의 동구 좌천동에 있던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어느 가구점이었다. 이 가구점은 원목을 켜서 여러 종류의 가구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으로, 그는 여기서 심부름꾼 겸 견습공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는 여기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성실과 근면, 그리고 나무를 잘 다듬는 솜씨로 주인의 신임을 얻는 한편 목공(木工)의 기능과 기술을 착실히 익혀 가며 비록 적은 돈이긴 해도 매달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알뜰히 모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는 사이에 그의 기능과 기술은 날로 발전하여 선배 기술자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주인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강석진은 돈을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독립하여 내 손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 생각하고, 몇 년간 일해오던 가구점에서 나와 역시 좌천동에서 불과 10여 평의 조그마한 가구점을 겸한 제재소를 열고 이름을 동명제재소(東明製材所)라 하니, 이것이 뒷날 유명한 동명목재상사(東明木材商社)의 모태(母胎)가 된 것이다. 때는 1925년 4월이요,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8세의 소년이었다.

이제 어엿한 한 사람의 사업주가 된 강석진은 자신이 고용주(雇用主)이면서도 직접 종업원들과 함께 작업장에서 원목을 켜 판자와 각목을 만드는 것은 물론 손수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로 다듬어서 질 좋은 목재와 탐스러운 가구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내고 나니 어느 사이에 동명제재소에서 생산된 목재와 가구는 그 품질의 우수성이 이미 널리 알려져 부산·경남은 말할 것도 없

고 대구·경북 지방에서도 목재와 가구의 주문이 언제나 밀려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업은 해를 거듭할 수록 번창하고 적잖은 재산도 모을 수 있었다.

사업에 자신이 생긴 강석진은 하면 된다는 불굴의 신념으로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업의 확장을 통한 한 단계 높은 도약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리하여 범일동에 훨씬 넓은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여기에 동명제재소를 이전하기로 하였다.

### 동명목재상사와 목재왕, 수출왕, 납세왕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전시체제하에 온갖 규제와 핍박으로 목재사업도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강석진은 여기에 꺾이지 않고 새로 매입한 범일동의 2천여 평 부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던 중 1945년 8·15의 광복을 맞게 되고, 그해 11월에 동명제재소를 범일동으로 이전하였다. 범일동에 제재소의 이전을 마치자, 광복 후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서도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 결과 사업의 폭을 넓혀 여태까지 해오던 제재업은 물론 그 위에 종전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던 합판 생산에도 눈을 돌려 이를 위한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고 설비를 갖추어 나갔다. 이리하여 1949년에는 종래의 동명제재소를 동



동명목재상사 전경(1973. 06)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명목재상사(東明木材商社)로 개칭하고 사장이 되어 본격적인 가동(稼動)에 들어갔다. 당시 강석진이 합판 생산에 눈을 돌린 것은 첫째, 8·15 광복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원목의 공급이 원활치 못해 목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제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나무의 자투리나 토막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이것으로 합판을 만들면 자원의 손실과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동시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아직도 일반화되지 않고 있던 합판을 생산하게 되면 반드시 수요자들에게 호평을 받아 잘 팔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의 예상은 적중하여 합판의 수요가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때 민족의 대 비극인 6·25가 터지고 말았다.

1953년 7월에 3년여에 걸친 전쟁이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갔으나, 온 국토는 초토화(焦土化)되고 전국의 모든 시설이 불타거나 파괴되고 말았다. 이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은 재건과 복구에 쏠려 있었다. 이에 따라 재건과 복구를 위한 목재와 합판의 주문이 전국에서 쇄도(殺到)하여 동명목재상사의 200여 종업원들은 밤낮 없이 제품 생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이에 동명목재상사의 사운(社運)은 날로 융성해지고, 사세(社勢)는 해를 거듭할 수록 커져만 갔다.

1950년대의 말기에 접어들면 제품의 수요가 더욱 불어남에 따라 현재의 시설 규모와 생산 설비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강석진은 우선 공장 이전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그 부지의 물색에 나섰다. 그가 생각하는 공장 부지의 조건은 각 지방에서 수송되는 원목의 하역(荷役)과 공장까지의 운반이 용이하고, 원목을 쌓아 둘 수 있는 넓은 저목장(貯木場)을 만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앞으로 해외에서 원목을 수입해 오는 것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원목을 싣고 오는 선박의 접안(接岸)이 용이한 곳이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춘 것으로 보고 선정할 곳이 바

로 남구 용당동 바닷가에 있는 60여 만 평의 광대한 부지였다.

강석진은 1960년 용당동의 새 부지에 우선 제1 합판공장을 세워 벌임동 공장의 모든 시설과 설비를 이 곳으로 옮기는 동시에 일본과 독일로부터 최신 첨단 기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생산 시설을 갖추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종래의 것과는 확실히 다른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으니, 동명목재상사의 제품은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려나가 늘 생산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따라서 1967년에는 제2 합판공장과 제1 가공합판공장이 세워지고, 1968년에는 제2 가공합판공장, 1974년에 제3 합판공장과 화학가공공장 등이 연달아 세워지니 공장의 연 건평이 5만 평이 넘었고, 종업원의 총 수가 7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합판의 1일 생산량이 수십만 매를 기록하여 이제 강석진은 누구나 인정하는 목재왕국의 왕좌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한편 강석진이 경영하는 동명목재상사는 이미 1959년부터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원목[lauan]을 수입하여 질 좋은 합판을 계속 생산함에 따라 그 명성이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마침내 1961년에는 미국 상사(商社)의 주문을 받아 대미(對美) 수출이 시작되었다. 이제 동명목재상사는 좁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으로 뛰어 든 것이다. 이로부터 해외 수출은 해마다 늘어나서 1968년에서 1971년까지 4년간 연속 전국 수출액 1위를 차지하고 수출 최고상을 받아 수출왕의 영예를 얻는 동시에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을 모조리 휩쓸고 대한민국 국민포장까지 받는 광영을 누리게 되었으며, 1970년대의 후반에는 수출 실적 1억 달러를 무난히 돌파하였다.

또 강석진은 대기업의 경영주로서 개인적인 수입과 소득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1968년에 그가 납부한 세금이 9천 1백 23만 9천 원이나 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낸 사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람으로 개인부문 납세왕으로 선정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동명목재상사를 설립해서 크게 성공하여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강석진은 동명목재를 모기업으로 하고 여기에 1974년부터 1979년까지 5년 사이에 동명산업(주), 부영실업(주), 동명수출포장(주), 동명제지(주), 동명해운(주), 동명개발(주), 동명중공업(주), 동명식품(주) 등 여러 회사를 차례로 설립하여 동명그룹을 탄생시켰다. 동명그룹의 탄생은 곧 고용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실업률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동명그룹 산하의 모든 기업은 단 하나도 부산을 떠나 판 곳에 세운 적이 없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한 적도 없이 오로지 부산을 지키는 토박이 기업이기를 고집하였으며, 그룹 총수인 강석진 자신도 거처를 부산에 두고 부산에서만 살았다. 이것은 지방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벌면 무조건 서울로 진출하려던 당시의 시대 풍조와는 대조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강석진이 평소에 “오늘의 동명을 있게 한 것이 부산이요, 부산이 있었기에 오늘의 강석진이 있게 되었으니 내 어찌 부산을 잊을 것인가” 한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을 키워 준 부산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애착심이 누구보다도 강했기 때문이다.



B.B.S.회관(준공 1965. 12. 28)  
강석진이 공사비 1,900만 원을 단독 부담,  
설계·공사를 감독한 건물

### 사회봉사활동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 엄청난 기업 이윤을 올리게 되자, 이제 강석진은 단순히 자기 기업을 위한 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강석진은 1962년에 부산 상공

회의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회장의 중책을 맡은 그는 내 고장 부산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활성화에 전력을 경주할 각오로 직무에 임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을 여러 차례 연임하여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산은행을 비롯하여 부산투자금융, 부산항만부두관리협회를 설립했는가 하면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부산데파트를 신축·개장하는 등 부산 경제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당시 부산은 전국 제2의 도시이면서도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없어 대구에까지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강석진은 고법(高法)과 고검(高檢)의 부산 신설 추진운동에 앞장서서 적극 활동한 결과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부산의 위상 제고(提高)는 물론 시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였다. 또 그는 1968년부터 5년간 자기 자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부산대학교 기성회장직을 맡아 대학의 발전에 여러 모로 힘이 되어 주었고, 1970년에는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 사이의 정기운항선인 부·관(釜·關)페리호를 취항토록 하는 데도 적잖은 힘을 실어 주었다.

또 강석진은 1967년에 대한민국 팔각회(八角會)를 창립하여 총재가 된 후로 10여 년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확고한 국가관과 철저한 반공이념의 고취를 통한 호국사상의 고양(高揚)에 온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반공 국가간의 친선(親善)과 유대(紐帶)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74년에 중화민국의 중화학술원으로부터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하였다.

한편 그는 독실한 불교신자인 동시에 사단법인 부산 불교신도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열악한 여건 아래서도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향토의 육(陸)·해군(海軍) 장병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군경(軍警) 유가족의 원호(援護)와 국가 방위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성금의 헌납에도 솔선수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거액의 사비를 들여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호국사(護國寺), 부산 군수기지사령부의 장병들을 위해 남구 광안동에 금련사(金蓮寺)를 지어 주기도 하고, 용당동에 동명불원을 지어 부산시에 헌납하기도 하였다.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단순히 부산 불교신도회장으로서 포교의 한 수단으로 택한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가 평소 애 갖고 있던 국가의 안보를 염원하는 호국정신의 발로로 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강석진의 많은 사회 활동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B.B.S운동 부산 연맹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B.B.S운동은 불우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를 목적으로 전개된 운동으로서 미국이 주축이 된 범세계적인 운동이며, 이 운동의 연맹체는 하나의 봉사단체인 동시에 자선단체였다. 그런데 1960년대 초에 결성된 부산연맹이 한국 B.B.S운동 연맹의 시초가 된다. 1964년에 B.B.S부산연맹의 회장이 된 강석진은 1980년에 사임할 때까지 불우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운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숭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회장에 취임하자, 우선 불우 청소년들에게 자립정신을 길러 주고 자활 의지를 북돋우어 주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제1차로 불우 청소년 200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면면이 적잖은 액수의 돈을 생업자금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이 운동에 동조하는 각계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취업을 주선해 주었으며, 그 후로는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활의 의지를 깨우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 소요된 많은 경비를 회장 자신의 사재(私財)로 충당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는 계속 거액의 사재를 털어 부산진구 양정동에 직업소년회관을 짓고, 동구 좌천동에는 규모가 큰 B.B.S부산연맹회관을 건립하였다. 또 연맹 산하 조직으로 대학생 지도위원회를 만들어 불우한 청소년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음으로써 이들을 보살

며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힘쓰게 하는 한편 연맹회관에 야간 학교강좌를 개설하여 배움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리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검정고시를 치른 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학비 전액을 보조해 주었고,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대학에 진학시켜 주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의 회장 재임 중 B.B.S운동을 통해 생업자급이나 학비 보조를 받은 사람은 무려 2만 5천 2백 25명에 달하였고, 그 금액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것은 돈 많은 부자라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석진 같은 자선가가 아니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통령과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비롯하여 사회의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훈장과 포장, 그리고 수많은 감사장을 받았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대만 중화학술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 광경(1974년)

1977년 강석진은 어느덧 고회(古稀)를 맞았다. 인생의 황혼

기에 접어든 그는 마지막으로 일생에 가장 보람있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같은 해에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東明文化學園)을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학교의 설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78년에는 6개 과에 신입생 640명을 모집하는 동원공업전문대학(현 동명대학)을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9년 10·26 이후 정권을 잡은 신 군부 세력은 정경유착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악덕 기업인을 없앤다는 명분 아래 강석진을 반사회적 악덕기업인으로 몰아 동명목재상사를



오늘날의 동명문화학원 전경(2004년)

비롯한 그룹 산하의 모든 기업을 해체 도산시키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뿐이었다. 이 후 강석진은 사회의 모든 활동을 접고 오로지

자신이 설립한 학원의 발전상을 지켜보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내가 왜 악덕 기업인이란 말인가”라는 탄식의 한 마디 말을 남긴 채 향년 77세로 세상을 떠나니, 때는 1984년 10월 29일이었다.

▣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이원균

## 2. 구인회(具仁會)

### 출생기와 시대적 배경

연암(蓮庵) 구인회(具仁會)는 1907년 8월 27일 경남 진양군(晉陽郡) 지수면(智水面) 승내리(勝內里)에서 구재서(具在書)와 진양 하(河)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명은 정득(丁得)이라 불렀고, 연암은 아호이다. 조부 만회공(晩悔公) 구연호(具然鎬)는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를 지냈으므로 그의 집은 구교리택으로 통하였다. 연암이 태어날 당시 집안은 비록 대지주는 아니었지만, 북쪽의 방어산(防禦山)을 주산(主山)으로 한 병풍과도 같은 마을에서 3-4백석은 추수하는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다.



그러나 연암이 태어난 시기는 그야말로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였다. 한일합방이 되기 3년 전에 연암은 태어났던 것이다. 연암 구인회는 조부 밑에서 한학을 배웠으며, 13세가 되던 1920년 만석군 집안의 김해(金海) 허씨 허을수(許乙壽)와 결혼하였다. 보수적 가정에서 태어나 한학을 익히던 연암은 결혼 후 허씨가문과 접하게 되면서 사상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손위 처남이며 뒤에 중외(中外)일보 경영자가 된 허선구(許善九)의 권유로 마을에 선 지수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하게 되었다. 그것은 결혼한 이듬해였다. 여기서 연암은 후일 삼성그룹 총수가 되는 이병철을 만났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재벌의 총수가 1920년대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인연이 아닐 수 없다.

3년간 지수보통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구인회는 서울 중앙고 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학비를 대주던 장인이 돌아가면서 중앙고보 2학년을 중퇴하고 귀향하게 되었다. 19세의 청년 구인회는 귀향하자 승산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일본 상인에 대항하는 소비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을 소비자들이 협동하여 공동구매하면 일본인에게 사는 것보다 싼 값으로 살 수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연암은 포목의 유통경로와 마케팅 기법을 체득하였다.

### 구인회 상점

3년 동안 협동조합을 키우는 일에 열중하였던 연암은 1930년 자신의 용지를 펼 활동무대를 찾아 인근의 대도시였던 진주로 진출하였다. 거기서 연암은 포목상을 열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조부를 비롯한 구씨 집안에서는 여전히 상업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의 결심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구인회상점 자리(진주시 옛 종로거리)

그렇지만 구인회는 결국 설득에 성공하여 부친으로부터 2천원의 자금을 받게 되었다. 거기에 큰 덕으로 양자를 간 친동생 구철회의 돈 1,800원을 더하여 마침내 ‘구인회 상점’이라는 간판을 걸게 되었다.

이 때가 연암의 나이 25세때의 일이었다. 한말이긴 했지만 선비이면서 지주집안에서 태어난 구인회가 포목상에 뛰어든 것은 그가 일찍 사농공상적 직업 차별의식에서 남보다 먼저 벗어났음으로 가능했다.

연암은 값을 깎아주지 않는 대신 자를 속이지 않고 신용을 쌓아

갔으며, 비수기에 싸게 매점하였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올렸다. 또 농사의 풍흉에 따라 포목의 수요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강우량과 모내기 실적 등을 유심히 관찰하여 포목경기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1936년 7월 남강이 범람하는 대홍수로 구인회상점은 엄청난 침수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암은 절망하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얻은 신뢰와 거래처와 맺어온 신용, 어려움을 겪으면서 쌓은 경험, 그리고 재기의 도전정신과 집념의 개척주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섰다.

연암은 “홍수가 일어난 해는 풍년이 들 것이고, 풍년이 들면 옷감을 많이 살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당시 쌀 200가마에 해당하는 거금 1만원을 빌려 포목을 매점하였다. 구인회의 예상은 적중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옷감은 날개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이로써 구인회는 홍수에서 본 손해를 만회하였다.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연암은 1936년 11월 진주상공회의소 의원이 되었고, 진주에서 신흥상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탁월한 이재관

사업가로 기반을 닦은 연암은 시야를 해외로 넓혀 나갔다. 무역에 대한 연암의 관심은 대단하여 만주와 일본을 두루 다녔다. 만주 전역에 일본군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연암은 전쟁을 예감하였다. 전시 특수경기를 예측하고 포목 1천짝(2만필)을 매점하여 8만엔의 이익을 보았다. 당시 상등 논의 시세가 평당 25전이였으므로 8만엔의 이윤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1940년 6월 연암은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상호를 주식회사 구인상회로 변경하였다. 이 무렵 구인상회는 예금잔고가 무려 40만엔에 달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일제의 민족자본에 대한 압박은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깊은 생각 끝에 구인회



도하였다. 그러나 배가 거센 파도에 밀려 후쿠오카에 도착하게 되어 할 수 없이 계획과는 달리 농기구를 수입하게 되었으며, 목탄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이때 그는 “무모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경영 철학을 마음에 새겼다. 이 시기에 고향의 만석꾼 허만정(許萬正)이 셋째 아들 준구(準九)를 데리고 구인회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훗날 럭키그룹을 키우는 기반이 되었던 구(具)·허(許) 협력의 시발점이 되었다.

부산에 진출한 연암이 첫 손을 댄 것은 화장품사업이었다. 화장품 생산업체인 흥아화학공업사와 거래를 시작한 것은 1946년 2월이었다. 처음엔 고전하기도 했지만 화장품 판매는 70만원어치의 크립을 서울로 보내면 현금으로 1백만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었다. 화장품 판매업에 성공한 연암은 아예 크립을 직접 생산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를 위해 연암은 고성에 있는 토지 300석 지가와 진주의 구인상회를 처분하여 피마자기를 40드립을 비롯하여 스테아린산, 글리세린, 향료 등 화장품 원료 3백만원어치를 매점하였다. 토지자본에서 상인자본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토지자본으로 전환하였던 연암이 마침내 산업자본으로 본격 진출하는 순간이었다.

### 락희화학공업사의 설립

화장품 생산을 결심한 연암은 1947년 1월 41세 되던 해에 낙희(樂喜)화학공업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럭키표 크립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럭키’는 구정희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 “서양말로는 행운이라는 뜻이고, 우리말로는 즐거울 낙(樂), 기쁨 희(喜)자, 즉 락희라 하면 제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의미였다.

크립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기술상 우월했을 뿐 아니라 물자가 귀한 시대에 매점한 원료를 제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 제품이 1타스에 5원이었음에 반해 럭키크립은 1천원인데도 불티나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게 팔렸다. 호경기는 회사창립 이후 1년 동안 계속되었다. 클리세린을 구하지 못해 어려운 고비도 있었으나, 3년만에 3억원의 이윤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공장(1953년 건설)

은 생산이 멈추지 않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되었다. 더구나 락희화학은 그동안 심혈을 다하여 외제 상품과 견줄만한 반투명크림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럭키크림은 부산국제시장을 독무대로 삼으면서 인근 도시로 판로를 확장해 갔다. 일찍이 누리지 못했던 전란속의 호경기였다. 1952년 4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5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연암은 제6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연암은 제7대 이사장에도 재선되어 1954년까지 한국화장품업계를 대표했다.



연지공장(1954년경 모습 플라스틱 산업의 요람)

게 하면 파손되지 않는 뚜껑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일본 화장품의 플라스틱 뚜껑이 좋다는 정보를 얻은 연암은 일본으로부터

### 플라스틱공업의 개척과 치약의 개발

화장품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깨지지 않는 크림통 뚜껑 개발이 항상 걱정거리였다. 연암은 어떻게 하면 파손되지 않는 뚜껑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일본 화장품의 플라스틱 뚜껑이 좋다는 정보를 얻은 연암은 일본으로부터

터 6권에 달하는 플라스틱 관계 책을 입수하여 탐독하였다. 그러다가 플라스틱 산업이 앞으로 매우 유망할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판단이 서자 연암은 범일동에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출기를 주문하여 1952년 9월부터 플라스틱 빗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그 해 11월에는 공장을 부진동으로 옮겨 칫솔, 세수 대야, 식기 등을 생산하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1952년 동양전기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10월에는 최초의 합성수지제품인 ‘오리엔탈’ 상표의 빗과 비눗갑을 만들었다.

락희화학은 치약제조와 비닐생산을 위해 연지동 공장을 신축하고 1954년 비닐시트와 필름, 1955년 3월에는 럭키포치약도 생산하였다. 럭키치약은 출시 3년만에 치약의 대명사로 불리던 미국의 ‘콜게이트’치약을 물리치고 국내시장을 석권했다. 1956년 PVC파이프를 국내 최초로 생산한 데 이어, 1957년 비닐장판과 폴리에틸렌필름을, 1959년에는 스펀지레저를 각각 개발하였다. 특히 PVC 파이프는 전후 복구사업과 맞물려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국내 최초로 개발한 스펀지레저와 비닐장판은 혁신제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 전자산업의 효시 금성사 창업

51세가 되던 1958년, 연암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산업체인 금성사를 설립하였다. 금성사는 설립초기부터 국산라디오의 생산을 준비하여 1959년부터 생산을 하였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소비자의 외국제 선호경향 때문에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국산품 라디오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밀수품 단속이 강화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60년대를 통하여 라디오가 국가의 홍보매체로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판매실적은 무섭게 증가하였다.

라디오 보급의 촉진으로 금성사는 경영수지와 기술축적, 기술확



동래공장(1960년대 말 모습으로 위쪽은 금성사 동래 공장이다.)

보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1960년 선풍기개발을 시작으로 냉장고(1964), 흑백텔레비전(1966), 에어컨(1968), 세탁기 및 승강기류(1969)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1969년

에는 18개 품목의 전자, 전기제품을 비롯해 통신기기, 전선 등으로 생산영역을 확대하고, 100억원대의 매출규모로 창업 10년만에 239배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1969년은 경영사적으로도 뜻 깊은 해였다. 락희화학의 기업공개, 민간기업 사상 최초의 전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경영선진화를 도모하였다. 당시 LG는 락희화학, 금성사, 반도상사, 호남정유, 금성판매, 한국콘티넨탈카본, 호남전력, 금성통신, 국제신보, 경남일보 등으로 다각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하던 연암 구인회 회장은 1960년대를 마감하는 1969년 12월 31일, 63세라는 한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또한 연암이 세상을 떠났던 1969년에 럭키그룹은 그룹 본사를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다. 락희화학공업사의 설립이래 부산과 함께 성장하고 부산에서 대그룹을 일군 연암은, 그룹 본사를 서울로 옮긴 그해에, 애석하게도 유명을 달리했던 것이다.

### 연암의 인화주의

연암이 남기고 간 족적은 한국경제와 경영에 주요한 자산으로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연암이 떠난 뒤 그룹은 장자인 구자경에 의해 승계되었다. 그로부터 35년여가 흐른 2005년 구씨와 허씨는 각각

LG와 GS그룹으로 분리되는 절차를 밟았다. 이러한 일들이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어떠한 잡음도 없이 원만하게 처리된 것은 연암의 경영철학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연암의 동생 구평회의 진술에 따르면 “저희 그룹에서는 창업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인화단결이라는 말이 불문율적인 하나의 사시(社是)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의 시원을 캐보면 사시 또는 사훈이기 이전에 구교리 집안의 가훈으로 쓰이고 있던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하였다. LG 인재양성의 산실인 종합연수원의 이름도 “인화원”이었다.

‘인화’야 말로 럭키금성그룹에 참여한 인적 구성의 복잡성을 훌륭하게 극복하게 하는 자산이었고, 럭키금성그룹의 독특한 인재관이기도 하였다. 연암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를 잘 써야 하고 또 선택한 인재는 이를 훌륭히 갈고 닦아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연암의 그 같은 생각은 후일 인간존중이라는 경영이념으로 확립되어 갔다.

## 근검과 개척정신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한 연암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검소하였다. 럭키치약이 미국제 치약을 물리치면서 시장을 석권해 가고 있던 무렵, 락희화학은 서울의 반도호텔 빌딩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었다. 상무였던 김홍주는 당시 신설동에 살면서 아침 저녁 미니 합승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 차에 구인회회장이 올라타는 것이 아닌가?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미니 합승버스를 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합승버스가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노랭이니 구두쇠니 부르겠지만 나는 그 말이 칭찬하는 말로 들립니다.”라고 연암은 대답하였다.

그러나 연암 구인회회장이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는 그런 인색가는 결코 아니었다. 꼭 써야할 큰 돈은 아무 말 없이 내놓으면서도 비록 푼돈일지라도 사치나 허세를 위해 낭비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여기는 분이였다. 부산에서 국제신보사를 인수하여 경영하던 무렵, 재정난으로 고전하던 라이벌 회사인 부산일보를 위하여 아들 구자경이 3천만원을 도와주고자 했을 때 흔쾌히 도장을 찍어준 일은 연암의 돈쓰는 방식을 이해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연암의 경영이념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도전과 개척정신이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유교적 분위기에서 자란 연암이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상업에 뛰어들고, 또 해방과 함께 제조업으로 과감히 변신한 뒤, 화장품과 플라스틱 그리고 전자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지평을 잇달아 열어갔던 것은 대단한 열정과 개척정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무엇이든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는 낙관적 도전 정신은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연암은 “남이 미처 안하는 것을 선택하라.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부터 착수하라.”고 역설했다. 그 시기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백달러가 안되었다. 게다가 생산품은 외제가 장악하고 있었다. 해방이후 경제난이 절실했던 시대에 오직 제조업을 통해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공급에 주력하였던 연암의 기업관은 건강하고 모범적인 기업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신라대학교 교수 김대래

### 3. 박기종(朴琪淙)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의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905년 1월 1일 서대문에서 초량까지의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부산 철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876년 5월 김기수는 수신사 정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다음해 곡산군수로 있을 때 수신사 여행기 『일동기유』를 썼다. 이 책에서 기차를 화륜거(火輪車)라 소개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철도 기록이다. 1880년 6월 김홍집은 수신사 정사로 파견되었다. 그도 국가 운영상 철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1876년 부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항장이 되면서, 근대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가 되었다. 부산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개항후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근대의 물결을 타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나갔다. 개항후 부산 근대사의 첫 장을 연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박기종(朴琪淙)일 것이다. 그는 김기수, 김홍집 수신사 때 통역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그가 꿈꾸었던 가장 중요한 ‘근대의 꿈’도 바로 철도였다.

#### 집안과 경력

그는 1839년(헌종 5) 11월 지금의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났다. 자는 형진, 본관은 밀성(밀양)이다. 증조부는 박운홍, 조부는 박춘언, 부는 박영순, 증조모는 이씨, 조모는 문씨, 모는 오씨, 처는 윤씨이다. 직계 선조의 경력은 잘 알 수 없으나, 교지에는 박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윤흥·박춘언·박영순 모두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6년(광무 10) 11월 박기종·김낙준 등이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를 세웠다. 대일 외교업무에 종사했던 선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왜관(倭館)이 존재했던 시기에 종사했던 대일 외교업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비문에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비문에 적힌 ‘유원각선생’은 통사청에 근무했던 소통사(小通事)라고 생각한다. 소통사는 일본어 역관인 훈도·별차를 보조하면서, 왜관의 각종 실무에 종사한 동래부의 하급 통역관이었다. 그는 계장(禊長)으로서 비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개항전 경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넷째 사위 윤상은의 회고담에 따라, 동래상고도중(東萊商賈都中)에 드나들면서 일본어와 상업을 배워, 조선상인과 일본상인 사이에서 거간 일을 맡아본 것으로 추정하는게 고작이었다.

『동래부계록』에 보면, 개항전인 1869~1871년 당시 동래부 소통사로 활동하였다. 특히 1869년에는 거제도 옥포(玉浦)를 담당하는 옥포통사였다. 이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빠른 경력이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가 맺어진 후, 그해 5월 김기수 수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는 통사 4명에 포함되었다. 1880년 6월 김홍집 수신사 때도 통사로 따라 갔다. 개항 후 최초의 대외사절단 통역을 맡은 것은 일본어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어 실력은 소통사 집안이라는 출신 배경의 산물이었다.



경찰관 박기종 영세불망비  
(1893. 09)

관계 진출은 1880년 이후 두드러졌다. 교지에 보이는 주요 경력은 용양위부호군(1880년), 용양위호군 경

위공위장(1883년), 부산항경찰관(1886년), 다대포진수군첨절제사겸 동래감목관(1893년), 부산항사검관(1893년), 친군총어영기사장(1893년), 절영도진수군첨절제사(1894년), 부산항경무관(1894년), 외부참서관(1898년), 중추원의관(1900년), 판리공사(1905년) 등이다. 1893년 4월~1894년 2월 다대포진첨사, 1894년 8월~1895년 8월 절영도진첨사를 맡았다. 절영도진 폐진(廢鎭)으로 마지막 절영도진첨사가 되었다. 특히 1886년에서 1898년까지 10여년 동안 부산항 경찰관, 사검관, 경무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개항장의 치안과 무역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그는 기술교육에 대한 집념이 강하여 장남 정규를 일본 사도[佐渡]광산학교에 유학시켰다. 졸업하자 곧 광무국(鑛務局) 주사로 취직시켜 광산개발에 노력하게 했다. 차남 창규를 일본 철도학교에 유학시켰다. 정규는 공무아문주사, 농상공부기사, 동래감리서주사, 삼화감리서주사를 역임한 후 함양군수, 경상남도관찰도참서관, 사무관, 밀양군수, 공립밀양보통학교장, 진주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창규는 경상남도관찰부주사, 수륜원주사 등을 역임하였다. 넷째 사위 윤상은은 그가 세운 개성학교를 졸업하였다. 구포저축주식회사(구포은행) 설립 등 부산 근대 경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 부산 최초의 신식학교 개성학교 설립

박기종은 1876년 김기수 수신사행 때 처음 일본을 보았다. 수신사행의 방문은 20일 정도에 불과했지만, 조선소, 제철소, 포병창, 학교 등 신문명의 시설을 시찰하였다. 1876년, 1880년 두 차례의 일본 방문에서 본 신문명은 근대의 꿈을 키우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꿈은 1895년 5월 부산 최초의 신식학교인 개성학교(開成學校)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름은 『주역』에 나오는 「개물성무(開物成務)」에서 따온 것이다.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제 시행하여 성공한다」는 뜻이다. 수신사

행 때 참관했던 개성학교(동경대학의 전신)와 같은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학교는 박기중·이내옥·매문화·변한경(셋째 사위)·이명서 5명이 공동 출자하였다. 전직 일본육군 예비상무학교 교사였던 아라나미 헤이치로(荒浪平治郎)가 초대 교장으로 교수·교무 업무를 맡았다. 1896년 3월 1일 약 100명의 학생으로 영주동 교사에서 수업을 시작하였다. 1891년 5월 관립 경성일어학당, 1895년 1월 관립 인항(仁港)외국어학교에 이은 3번째 일어학교였다. 1898년에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였다.

1897년 1월 공립학교로 인가를 받으면서, 매년 학부(學部)로부터 1,200원,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1,800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외무성 보조금은 그후 3,000원으로 늘어났다. 보조금은 중요한 재정기반이 되었다. 보조금 중 1,000원은 마산·동래·밀양·대구·경주의 일어학교 보조금으로 분배되었다. 유품인 『개성학교금수취록』은 학교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부산 주변의 일본어 학습열이 높아지면서, 개성학교의 도움을 받는 지교(支校)·보조교가 늘어났다. 1905년에는 3개 지교, 4개 보조교를 가진 부산·경상도 일대의 중심적 일어학교가 되었다. 개성학교 약칙(1903년) 제1조에는 “본교는 한국국민의 지능을 계발하고 도덕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함을 주로 한다.”고 하여, 민족의 자주적 개화문명을 일으키고자 함을 근본 취지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일러으로써 개명한 학술을 연마하여 양국 간의 국교 화친에 이바지하는 것이 교장 등 일본인 교사의 본뜻이었을 것이다. 개성학교는 자주적 문명개화와 식민지교육의 포석이라는 한일 양국의 다른 꿈을 꾸는 곳이 되었다.

한말에 정부가 교육법을 정비하고 체제가 갖추어진 학교를 설립하면서, 사립학교를 관·공립학교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07년 관립 이관의 통첩을 받았지만, 이를 반대하고 사립보조학교

로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3월에 사립부산개성 일어학교로 이름을 고쳤다. 그러나 1908년 3월 정부로부터 보조금 단절 통첩이 와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학교를 학부에 헌납하였다. 4월에 학부는 교직원과 학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학교 자리에 공립 부산실업학교와 공립부산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개성학교는 1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성고등학교(부산상고), 개성중학교, 봉래초등학교로 맥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상고는 인문계고로 전환하면서 2004년 11월 1일 교명을 개성고등학교로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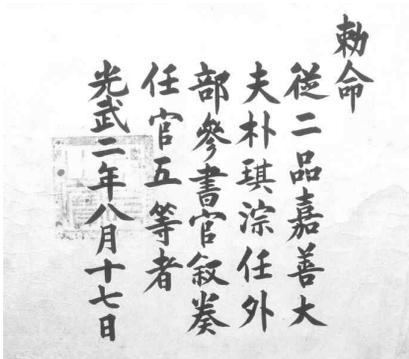
### 기선회사와 최초의 민간철도회사 설립

그는 1886년 10월 부산항 경찰관에 임명되었다. 재직 기간에 기선회사 설립에 착수하였다. 회사는 1889년 4월 통리아문으로부터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일본에서 기선을 구입하여 낙동강 연안의 포구를 왕래하면서 상업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이 번창한 후에 통리아문에 세금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인가받았다. 그가 설립을 주도하고, 부산항 감리서 관원 정현철·민건호, 일본인 마쓰오[松尾元之助] 등도 참가하였다.

회사는 1890년부터 운항을 개시하였다. 설립 초에는 소형 기선 1척에 판선(板船) 여러 척을 끌고 구포·삼랑진 등을 왕래하면서, 이익금의 1/10을 받는 영업을 하였다. 1890년 11월에는 유노마루[雄乃丸]를 구입하여 보다 멀리까지 영업하였다. 1891년 11월 30일 배가 낙동강 하구에서 침몰하여 선원이 모두 사망하였다. 이로써 회사 경영은 위기를 맞이하였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상인의 내륙행상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1891년 11월 오가와[小川實]는 사원 자격으로 미계항장인 평양으로 들어갔다. 회사는 1893년경 일본 오사카(大阪)상선주식회사 및 아사히구미[朝日組] 조선기선주식회사와 협동계약을 맺었다. 이때부터 영업권이 사실상 오사카상선과 아사히구미에 귀

속되면서, 박기종은 기선회사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칙명(1898.08.17) 외부참서관 주임관 5등 임명

그는 1898년에 외부참서관이 되었다. 이때부터 필생의 소원인 철도건설에 주력하였다. 낙동강 하구의 하단포는 구포와 함께 수운을 이용한 화물 집합지였다. 하단포 부근은 매년 많은 배가 침몰하는 위험한 곳이었다. 박기종·윤기영 등은 부산항과 하단포를 연결하는 약 6km의 경편(輕便)철도 부설을 1897

년 농상공부에 신청하였다. 서류 결함으로 거절되었다가, 1898년 5월에 재신청하여 6월 3일 부하(釜下)철도회사 설립을 인가받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철도회사 창설로 보고 있다. 임원은 도(都)사장 이재순, 사장 안경수, 부사장 민영철, 경무원(經務員) 박기종 등이었다. 여러 번 측량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자금부족, 노선의 부적합, 경부선 부설계획의 결정 등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특히 노선 중간에 위치한 해발 130m의 대티고개는 공사의 큰 난관이었다.

1899년 3월경에 박기종·홍공섭·이규환 등이 발기한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는 6월에 경성-원산-경흥을 연결하는 경원선, 함경선 부설을 신청하여 허가 받았다. 임원은 사장 이하영, 부사장 지식영, 평의장 이인영, 평의원 박기종 등이었다. 7월에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경의철도부설권이 기한 만료되면서, 대한철도회사 이름으로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대한철도회사는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와 다른 회사가 아니고, 같은 회사가 2개 부설권을 얻기 곤란하므로 명칭만 달리 한 것 같다.

철도부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자금조달이었다. 그는 자본이 부

족하다고 외국인과의 협의를 하다가는 부설권을 탈취당하므로, 국내 국민이 협의하여 자본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앙·지방관료들이 봉급의 일정액을 출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동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1899년 11월 경에는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는 존재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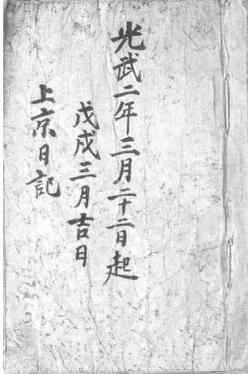
그는 경원·경의철도 부설뿐 아니라 국내 철도지선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지선 부설까지 외국에 빼앗길 염려가 있으므로, 원산에서 고성(高城) 금강산 입구, 공주에서 군산항, 전주에서 목포항, 대구에서 진주, 대구에서 강원도 간성의 5곳을 예정하고, 경인·경의·경부선과 연결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경의철도부설 계획은 오랫동안 착수되지 못하다가 1903년 부설권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부설권 탈취 책동에 따라 이재완·박기종 등이 부설권 매도교섭을 벌이다가, 1903년 9월 부설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한편 1902년 6월 김석규·박기종·이용복·유기남·유지연이 발기인이 되어, 삼랑진과 마산을 연결하는 삼마철도 부설을 계획하고, 사업을 영친왕궁에 부속시켜 영남지선철도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는 부설권 획득에 필요한 경비와 부하철도 계획 실패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일본공사와 교섭하였다. 일본도 이근택·김영진을 움직여 그가 가지고 있던 부설권을 일본의 경부철도회사에 양도하는 공작을 전개하였다. 결국 회사 설립 몇 개월 후에 부설권은 일본에 매도되고 말았다.

경원선 건설은 국가의 재정원조를 받지 않은 채 겨우 측량을 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이 단계에서 그는 이미 일본의 차관도입을 검토하였다. 영남철도지선회사는 일본의 완전한 금융지배를 받는 회사로서, 일본의 부설권 획득을 증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철도 건설을 위한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의 철도건설 계획은 근대문명의 도입단계에서 어느 나라나 경험하였던 시행착오의 한

단면이었다. 그의 꿈은 외래 자본주의 압박, 자신의 봉건성, 외래 자본주의와의 타협 등 여러 이유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 관련 자료와 유적



상경일기(1898.03~1899.02)

그는 『상경일기』와 『도총(都總)』이라는 책을 남겼다. 두 책은 외부참서관에 임명되기 직전부터 시작하여, 재임중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한말 외교관계의 중요 사항을 매일 일기체로 쓴 한말 외교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상경일기』는 1898년 3월 1일(양력 3월 22일)부터 1899년 2월 14일(양력 3월 25일)까지의 순한문 일기이다. 당시의 대신, 외국 공사·영사 및 각계 인사와의 접촉, 외교관계의 주요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외부참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능숙한 일본어와 친교 등을 바탕으로 당시의 중요 현안에 대해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2005년 2월 「부산근대역사관 사료총서(1)」로 국역 간행되었다.

『도총』 1권은 1898년 6월 13일부터 1899년 3월 7일, 2권은 1899년 3월 9일부터 1900년 9월 29일까지 사실을 국한문혼용체로 기록하고 있다. 외교상의 현안문제를 처리하면서 처리 결과, 자신의 의견, 정부의 지시 등을 모아 놓은 중요한 자료이다. 그 중에서도 회사를 설립하여 철도자력부설운동에 주력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책, 각종 교지, 『개성학교금수취록』 등 문헌자료와 그가 평소 사용하였던 유품은 증손 박상수(朴祥洙)에 의해 기증되어, 현재 부산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1995년 부산상고가 개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우면서, 그의 공을

기려 기념탑 앞에 설립자 박기종 흉상을 세웠다. 현재 부산상공인의 핵심 단체인 부산상공회의소의 효시는 1889년 설립된 부산객주상법회사이다. 1989년 간행된 『부산상공회의소백년사』에 수록된 역대 회장 사진의 첫머리에 그의 사진이



도총(1898.06~1900.09)

실려 있다. 1895년 부산항경무관으로 재임하면서, 객주 등 토착상인의 조직을 시도하고, 그들로부터 영업세를 거둘 목적으로 부산상무소(商務所)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부산항경찰관, 다대포진첨사, 절영도진첨사의 경력과 관련된 유물로는 1893년 9월 순사청이 세운 「행경찰관박공기종영세불망비(行警察官朴公琪淙永世不忘碑)」와, 1895년 3월 교리군민(校吏軍民) 등이 세운 「행첨사박공기종영세송덕비(行僉使朴公琪淙永世頌德碑)」가 정공단(동구 좌천동) 안에 남아 있다. 2001년 10월 17일 부산경찰청 내에 개관된 부산경찰역사전시관에는 ‘부산경찰 역사인물’로서 박기종 전시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1906년 그가 중심이 되어 세운 「유원각선생태안감고비」는 원래 부산시 동구 초량6동의 산기슭에 있었으나, 지금은 부산박물관 뜰에 옮겨져 있다. 이 비는 한일관계사와 관련된 비문의 중요성 때문에, 부산시 유형문화재 48호로 지정되었다.

『동래통안(東萊統案)』 기사년(1893) 5월 18일자에서는 “박기종은 이 지역 토착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일본인과 함께 처신하기를 익혀 바깥 사정에 밝아서, 부산항내의 모든 사무가 매번 이 사람의 경륜에 의존하니 이것은 경향간에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부산에서의 그의 존재와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평가라고 하겠다.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1906. 09)

경부선 개통 100년을 맞으면서 한국·부산 철도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에 관한 내용은 『고종실록』, 『부산항관초』, 『동래통안』, 『통서일기』, 『일본외교문서』,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그의 활동이나 사상 등 박기종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료는 그가 남긴 『상경일기』와 『도충』이다. 『도충』도 하루 빨리 국역되기를 기대하면서, 최근 국역된 『상경일기』의 일독을 권한다.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부산대학교 교수 김동철

## 4. 신덕균(申德均)

### 성 장

신덕균(申德均)은 부산시 강서구 동선동 (당시 경남 창원군 천가면 동선리)에서 1909년 8월 21일 아버지 신태규(申泰奎), 어머니 조선이(曹仙伊)의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호는 눌원(訥園)으로 평생토록 아호의 뜻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아버지는 일찍부터 수산업에 종사하여 비교적 부유한 가정을 만들어 왔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마을 서당에서 한학(漢學)을 수학하고 개명된 부모들의 주선으로 동경 유학을 다녀온 후, 곧 바로 구포에서 정미소를 경영하는 김정환(金楨煥)의 딸 김영자(金榮子)를 아내로 맞았다.



그는 천가보통학교(天加普通學校)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곧 서울 경신고보(敬新高普)에 진학했다. 그 당시 경신고보는 5년제 사립 미션스쿨(Mission-School)로 이상재(李商在), 안재홍(安在鴻), 홍명희(洪命熹) 등이 출강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정신 교육을 시켜왔다. 1920년대에 불기 시작한 민중계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의 바람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신덕균도 이 대열에 참가하여 조국과 민족의 소중함을 배우기 시작했다.

신덕균의 청운의 꿈은 동경유학으로 이어져서 일본(日本) 와세다 [早稻田]대학에 진학하여 조국의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1934년에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아직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전

근대적 사상이 짙었고, 더욱이 동경유학을 하고 돌아 온 사람이 ‘장삿길로 나선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시기였다. 그러나 신덕균은 유별나게 민족주의 사상이 강한 사람이었다. 신덕균은 비록 일본 동경에서 공부했지만 정신만은 조선사람의 영혼을 그대로 갖고 돌아 온 것이다.

1935년 동경에서 돌아 온 이듬해 그는 일본에서 닦은 젊은 꿈을 조국에서 실천하는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정미소(精米所)를 경영하며 쌀 장사를 하는 것이었다. 초량 뒷골목에 「태평정미소(太平精米所)」간판을 내걸었다. 신학문을 닦고 돌아 온 동경유학생으로 오로지 ‘가난한 내 조국의 경제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일본인 보다 잘 살 수 있고, 보릿고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 그의 포부였다. 이 시작이 그를 한국의 50대 재벌에 들어가게 하는 촉매가 될 줄은 그도 짐작하지 못했던 일이다.

### 쌀로서 일군 조국 경제

「태평정미소(太平精米所)」는 쌀로서 한국 경제를 일군 초석이 되었다. 신덕균은 이 정미소를 시작으로 평생을 식품사업에 투신하여 5천여 명의 직원과 함께 연간 5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재벌대열에 선 것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다. 이것이 신덕균의 경영 철학이다. 당시 한국 사람에 있어 쌀은 생명 바로 그것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쌀을 통제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일제는 식민지 정책으로 한국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하여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를 설립하고 그 이후 한국인의 땅을 빼앗고, 쌀을 통제하여 공출제도를 만들어 일체 곡물을 일본으로 보냈다.

1939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미곡통제령(米穀統制令)을

공포하고, 1940년에는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朝鮮米穀市場株式會社) 설립과 함께 각 도(道)에도 양곡주식회사(糧穀株式會社)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의 기능은 만주(滿州)에서 생산된 잡곡 등을 도정하고 양곡의 배급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것이다. 신덕균의 사업은 일제의 양곡정책으로 온갖 잔학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신덕균은 더욱 입지(立志)를 가다듬고 오로지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畫)에만 힘을 기울였다. 이때 일본 경찰들은 「태평정미소」에 ‘경계령’을 내려 밤낮으로 살피고 있었다. 이 시기부터 광복이 되는 10여 년 동안 신덕균에게는 시련이 연속되었다. 한편 일제의 억압이 더 할수록 그의 유학시절 길러진 민족주의 사상은 한층 강화되어 오로지 나라와 겨레가 발전하고 번창하여 일본이 한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었다. 이러한 그의 실천정신은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애국지사의 후원과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35회에 걸쳐 연행되기도 했다.

1941년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은 우리 민족을 못살게 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한국 민족에 대한 일제의 수탈과 억압은 천인공노할 지경에 이르렀다.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허울 아래 그들은 이 땅의 자원과 물자를 공출해 가고 젊은이들은 총알밥으로 생명을 강요했고, 장년들은 징용이라 하여 일본의 탄광의 막장신세로 만들었다. 창씨제도, 일본어 상용, 그리고 신사참배(神社參拜)라는 일찍 식민지역사에도 없는 해괴한 정책을 한국민족에게 강요했다.

그러나 신덕균은 혈기 왕성한 젊은이로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감격의 해방을 맞았다. 그리고 미군에 의해 중앙식량행정처(中央食糧行政處)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10월에는 금융연합회(金融聯合會)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기구는 모두 식량문제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5·16이 있었던 1961년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이 설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동안 신덕균은 천신만고의 역경을 딛고 8·15 해방을 맞으면서 더욱 사세를 확장시켜 왔다. 그가 경영하는 태평정미소는 벌써 해방이 되기 전부터 부산지방에 4개소, 호남지방에 3개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1946년에 와서 그는 지금 부산시 동구 범일동 눌원(訥園)빌딩에 부산정미주식회사(釜山精米株式會社)를 설립했다.

나라에서는 이 업적을 인정하여 1950년에 그를 대한민국 중앙정책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경상남도 곡물협회 회장직과 함께 대한민국곡물협회(大韓民國穀物協會) 회장에도 부임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40고개를 넘어설 때였다. 1952년에는 서울의 원용석, 주석균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양곡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한중앙양곡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장자리에 올랐다. 그후 1958년에는 상공부 무역위원, 1960년에는 농림부 농림시책 자문위원, 1965년에는 상공부 무역위원, 1965년에는 한국미곡수출협회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실로 한국미곡정책의 최고의 자리를 획득하여 대인이 된 것이다. 신덕균은 1935년부터 1965년까지 30여년 동안 한 우물만 파고 건디어 왔다. 그것은 오로지 한국의 쌀이었다. 고집불통의 고집대인 신덕균은 명실공히 ‘한국의 곡물왕’인 것이다.

### 동방흥업(東邦興業)의 영광

1946년 6월 신덕균의 계획 속에는 거대한 제2의 꿈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민족경제의 설립」이었다. ‘일제에게 받은 그 설움을 내 조국의 경제 부흥으로 보복해 보겠다.’는 것이 신덕균의 구상이었다. 그것이 「동방흥업주식회사」의 설립이다. 동방흥업의 유통은 곡물도매업, 대규모의 도정업, 그리고 선대부터 내려오는 수산업이었다. 미곡의 도정은 본인의 정미소가 담당함은 물론 곡물의 도·소매까지도 맡게 되었다. 수산업은 가업의 계승으로 선박 두 척으로 주로 근해해역에서 저인망어업을 했다.

이 저인망 근해어업은 신덕균의 사업수단을 한단계 높여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 어업은 6·25동란을 거치면서 1950년대 중반까지 동방홍업주식회사의 사업 성공사례에 속할 정도로 잘 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방홍업주식회사의 사세가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회사의 경제권도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신덕균이 주로 중앙정부 산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도 모두 이와 관계가 있었다.

1962년 3월에는 동방홍업주식회사가 부산시 중구 대교로 2가 72번지에서 서울 중구 명동 2가 57번지로 옮겨 전국의 도정과정을 근대식 기계설비로 갖추어 전면 확장했다. 이때 동방홍업주식회사의 사세는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호응하여 국내 우수한 경제단체가 이에 가담할 의사를 밝혀 왔다.

이때 장년의 신덕균은 젊은 시절에 유학했던 동경 땅에 대한 추억에 얽힌 야망을 버릴 수 없어 제2의 꿈의 현장을 일본에 심고자 드디어 그 땅에 종적을 남기게 되었다. 일본(日本) 동경도(東京都) 중앙구(中央區) 강호교(江戶橋) 13 중공(中公) 빌딩에 동방홍업주식회사의 동경사무소 간판을 걸었다.

‘그의 가슴은 벅찼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가 교차 했다. 얼마나 하고 싶던 일이었는가. 그러나 이제 모두 잊고 그들과 선린의 경제교류를 할 것을 다짐했다. 이 동방홍업은 다시 아이디어를 창출했다. 1963년 1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23번지에 5,000여 평의 공장을 건설하고 「태평표」라는 브랜드로 소맥분 마포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이후에 설립한 동방유량까지 계속하게 되었다. 이 사무소는 주로 대일본과의 곡물수출을 위한 창구로 이용되었다.

### 부산상의(釜山商議)에 남긴 발자취

지금 우리는 지방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시대」란 지역사회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의 독자적 특성을 살려 그 지방만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대상으로 그 사회가 발전해가는 행정적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다. 벌써 신덕균은 60년 전에 이것을 예지한 것이다.

「상공회의소」, 이것은 지방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지방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벌리는 운동인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설립, 이것은 부산사에 있어서는 공전(空前)의 대업(大業)이라 할 수 있다.

1946년 7월 10일! 비록 임의단체이기는 했지만 「부산상공회의소」란 이름을 걸고 새로 발족한 날이다. 신덕균은 이 창립총회에서 상임위원으로 발탁되고 이를 시작으로 1949년에서 1950년까지 2년 동안 수석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부산상의가 1953년 상공회의소 법이 시행되면서 공법인 단체로 인가 나자 곧 초대 수석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이때 임의 단체일 때 초대회장은 김지태(金智泰)였고, 제2대 회장은 이년재(李年宰)였다. 1957년 1월에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피선되어 1960년 1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했으니 소위 「부산상공회의소」의 여명기를 장식했다.'할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기념식장(1957년)

그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역임하는 동안 이룩한 공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나 우선 1957년 11월에 준공한 부산 중구 소재 부산상의 회관에 자신의 사재를 투척한 금액은 당시 부산상의 전회원의 연회비를 능가한 금액이었다. 이때 총공사비는 68,000,000환이었는데 그중 그가 14,860,000환을 부담했다. 이것

은 오로지 일제 때 일본에 설음 받은 ‘민족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방편이었다.’고 그는 술회하고 있다.

그리고 1958년 12월에는 드디어 부산상의가 국제적인 단체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바로 그것이 「국제상공회의소」

의 가입이다. 신덕군은 이에 앞서 부산을 경상남도에서 분리하여 정부직할시로 승격시키는데도 크게 공헌하였다. 이런 일련의 작업도 상공회의소의 독립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1967년 지방은행 설립의 출범을 가능케 하기도 했다.

이렇게 발전해 온 부산상의가 한 때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신덕군이 제3대 회장 당선을 둘러싸고 상의가 내분을 겪게 된 것이다. 당시 제3대 회장 입후보에는 임의 단체회장인 김지태가 출마하여 상의가 양분이 된 것이다. 이것을 그는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부산상의 제3대 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이때 주로 상의 중심으로 활동한 경제인들은 부회장 박선기(朴善琪), 박정관(朴正寬), 김양추(金亮秋), 강석진(姜錫鎭) 등이 있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시절 의원부, 사무국 합동 해인사 방문



경제계 인사들과 기념촬영(1982년 여름)

## 놀이문화재단(訥園文化財團)의 설립

놀이문화재단은 1959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가 시행하는 것은 주로 문화장려사업이다. 그 취지문에는

놀이문화상(訥園文化賞)은 1959년 지역사회의 문화향상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시상하여 왔으나 1977년 10월 재단법인 놀이문화재단의 설립으로 조국문화 향상과 사회개발 명 부분을 확충보완하여 운영되는 영구적 포상제도이다.

놀이문화상(학술상·교육상·행적상·치안상·언론 및 체육상)은 조국의 각 분야에서 국력신장을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인재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 격려하고 더욱 진지한 연구 노력의 실적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상은 재단법인 놀이문화재단이 이를 시상한다.

신덕균이 일찍이 신지식의 선구자로서 동경유학을 한 면모가 이런 생활철학에서 나타난다. 1960년대면 서로가 못살아 하루의 생활을 걱정할 처지인 때 대인 신덕균은 벌써 10년 앞을 내다보는 민족을 위한 정신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놀이문화재단의 설립은 ‘조국의 정신적 활동이 경제적 활동과 병행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신덕균은 인지한 것이다.

평소 낙동강 문화권에 관심이 깊었던 신덕균은 언제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 및 민족문화 향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발전해 가는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것의 결실이 「놀이문화재단」의 설립이다.

신덕균의 아호(雅號)가 놀원(訥園)이다. 그것은 「놀이문화상」을 제창할 때 요산(樂山) 김정한(金廷漢)의 말을 받아 드린 것으로 되어 있다.

놀이(訥園)! 그것은 논어 이인(里仁) 제4편에 나오는 「子曰君子

欲訥於言而敏於行」의 「訥(눌)」자를 따온 것이다. 곧 ‘군자는 모름지기 말하는 데는 느리더라도 행동에는 민첩해야한다.’란 뜻이다. 공자 논어에는 특히 ‘말을 조심 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학이(學而) 제1편에도 ‘「敏於事而慎於言」이라.’ 있다. 이것도 역시 ‘행동은 민첩하고, 언사는 신중하라.’는 것이다. 신덕균은 「느리고 민첩하라」는 말이 그에게는 평생의 철학이되어 이것을 직접 실천하며 살아 온 것이다. 이 「訥(눌)」자에 「園(원)」자를 가져 온 것이 더욱 묘한 뜻을 갖고 있다. 신덕균이 바라는 「원」은 그가 가꾸어 온 모든 업체가 하나의 동산(東山)으로 이상향이 되게 개척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 「원」은 울타리 구실도 한다. 「눌원」이 설립한 어떤 회사 단체도 그가 울타리가 되지 않고는 지탱될 수 없었다.

이 아호는 「눌원문화상」을 제정할 당시 작명한 것으로 본다면 「눌원문화상」과 「눌원장학금」을 받은 모든 대상자는 ‘눌원」의 생활신조를 바탕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그의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많다. 여러 기업들이 돈을 모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신덕균은 이미 이 기업들이 몽매간(夢昧間)에 있을 때 벌써 그 취지를 인지하고 출발한 것이다. 이 재단이 설립될 때 신덕균의 계산은 국민 전체를 문화민족으로 바꿔놓으려는 것이었다. 일제 때 겪은 그 가난과 문맹(文盲)에서 이 국민들을 구원하려면 바로 이러한 문화운동이 절대적 가치였기 때문이다.

또 한편 ‘국민을 상대로 하여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시기에 그 이윤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사회에 환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하나의 방법이 이 「문화재단」의 설립이었다.

역대 「눌원문화상」 수상자는 195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무려 256명에 이른다. 원래 초창기에는 편의에 따라 문학, 공예, 음악, 사학, 미술 등 12명을 수상하다가 지금은 5개 분야 각각 학술에 2



제31회 놀원문화상 시상식(1991년)

명, 교육 1명, 행정 1명, 치안 1명으로 하여 5명이 정해져 있다.

### 생을 마치고 더 소중한 이름

인간의 한 생명은 유한하다. 이 유한한 생명을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신덕균 같은 입지전이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데 대한 모범답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930년대의 최고의 인텔리겐차(intelligentzia)에 속한 동경 유학생 신덕균이가 미래를 투시하는 눈이 있어 정미소를 출발하여 한국의 대표적 재벌그룹에 속하게 된 것도 보통사례는 아니다. 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애국 운동가, 독립 운동가들에게 몰래 ‘활동자금을 제공해 왔다.’는 것도 흔히 보통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싶다.

신덕균의 뺏속에 사무친 일본에 대한 원한이 오로지 「내 나라 내 겨레」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덕균식 경영방법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민족주의와 경제 제일주의가 그의 철학이 되어 이 묘한 함수가 그의 일생을 있게 했다.

흔히들 고생하여 돈을 모으면 자기만족에 안주하여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신덕균은 남들이 꿈도 꾸지 않았던 그 시절에 벌써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앞선 운동을 시작했다. 문화상과 장학금, 연구조성비 그것은 모두 이 나라 2세들을 문화적으로 제1등 국민을 만들고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하려

는 본보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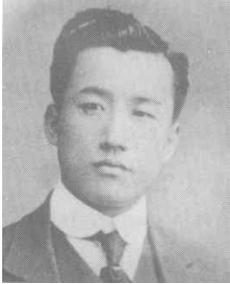
신덕균은 1999년 1월 22일에 향년 90세로 이 세상을 떠셨다. 그러나 그의 소중한 유업은 지금도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찬연히 빛나고 있다. 기록하도다. 한 인간의 생애가 이토록 위대하고보면 역시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 파전 한국학당 원장 김무조



눌원 신덕균 선생 송덕비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덕문고등학교 소재)

## 5. 윤상은(尹相殷)



### 근대 초기 일본의 경제침략

19세기 후반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한반도에 밀어 닦친 제국주의의 물결은 부산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휩쓸었다. 식민지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 제국주의 국가로의 일대 비상을 꿈꾸던 일본은 특히 부산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했다. 이로써 부산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이자 그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노력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격전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1898년, 절영도(현재 영도)의 국유지 135만평을 일본인 하자마 [迫間房太郎]가 조선정부로부터 식림대부(植林貸付) 형식으로 허가 받으며 시작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은 다만 토지의 매수로 그치지 않고 각종 상공업 및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중 금융업을 통한 일본의 침략은 1876년, 오쿠라[大倉喜八郎]와 시부자와[澁澤榮一]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자본금 5만원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사설 제일은행은 한국에 설립된 최초의 일본인 은행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으나, 일본의 금융업 침략은 이를 계기로 더욱 활발해져 1878년 12월 오시마[大嶋正朝] 등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된 제백이국립은행(第百二國立銀行)이 구사족(舊士族)을 중심으로 도쿄에 설립된 조선무역회사 천유상사(遷有商社)의 부산지점을 대리점으로 하여 진출, 1880년에는 부산 출장소를 두게 된다. 그리고 나가사키[長崎]에 본점을 둔 제십팔은행(第十八銀行)이 1897년 6월에 부산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오사카[大阪]에 본점을 둔 제오십팔은행(第五十八銀行)이 1893년 9월에 부산지점

을 개점하였다. 이렇듯 1909년 12월말에만 벌써 5개의 은행을 연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일반 은행업무 뿐만 아니라 관세업무와 각종 금융 관련의 교섭행위를 진행시켜 나가며 일본인 상공업자의 조선 진출을 지원했다.

### 윤상은의 가계와 유년시절

이와 같이 근대 초기 한국의 금융업을 일본계 은행들이 좌우할 때, 펼쳐 일어나 한국인 최초의 은행장으로서 근대 부산경제, 나아가 조선경제의 파수꾼으로 나선 이가 바로 윤상은(尹相殷)이었다. 1887년 8월, 동래부사와 사천군수를 지낸 대지주 윤홍석(尹弘錫)의 5남 중 3남으로 구포(龜浦)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기에는 전통 한학(漢學)을 공부하며 민족의식을 키웠다. 윤상은의 형제는 윤필은(尹弼殷), 윤명은(尹命殷), 윤영은(尹永殷)이 있었는데 형제 모두가 한국 근대사에 있어 일정의 족적을 남겼다. 윤필은은 동래부사와 경상우도 관찰사, 동래부 감리를 지냈고, 윤명은은 구한말 고성군수, 일제 강점기에는 울산군수를 지냈다. 동생 윤영은은 일본 유학시절, 김성수, 송진우 등과 가깝게 지내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후 1922년 구포청년회를 창립하여 야학 활동과 운동회를 통하여 구포 사람들의 단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그의 조카 윤현진(尹顯振)은 그 형제 윤현태(尹顯泰)와 함께 일제 강점기의 부산지역에서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하다가 1919년 3·1 운동 이후 상해임시정부에서 재무차장을 역임하다가 순사하기도 했다.

이같이 민족의적 성향이 강한 가풍 속에서 자라던 윤상은이 근대 학문을 접하게 되는 것은 1901년, 한말의 걸출한 기업가로 철도회사와 기선회사를 설립했던 박기종(朴琪淙)의 막내딸 박영자와 결혼하여 장인이 설립한 개성학교(현 부산상고의 전신)에 들어가면서였다. 당시 박기종은 철도회사의 몰락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쇠퇴했을 때이기는 하나 윤상은에게 조국근대화의 전망에 대해 고민하게 만



장인 박기종과 함께(둘째 줄 가운데가 박기종 그 오른쪽이 윤상은)

들어 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었다.

1904년, 개성학교를 졸업한 윤상은은 동래 감리서에 주사로 취직했으나, 을사조약으로 감리서라는 기관이 유명무실해지자 그는 구포로 돌아와 양잠업을 시작했다. 이미 탁월한

사업 역량을 발휘한 윤상은은 1906년 부산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는상을 수상할 만큼 명성을 얻었고, 부친의 지인이었던 장우석(張禹錫)과 함께 구포 상인들이 중심이 된 저축계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다.

### 구명학교를 통해 민족의식을 키우다

또한 그는 1907년, 동래 구포에 장우석을 초대 교장으로 하여 현재 부산구포초등학교의 전신인 구명학교(龜明學校)를 설립함으로써 교육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를 위해 윤상은은 1906년 11월 박형전(朴馨銓), 이경화(李敬和), 장우석, 오치현(吳致賢), 박용주(朴龍州), 서기표(徐琪杓) 등 발기인 26명을 모집해 기부금을 마련했으며 그 설립 취지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이는 구포사립학교 취지서(龜浦私立學校 趣旨書)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구자(龜者)는 신명지족이(神明之族而) 사령지일야(四靈之一也)”에서 교명(校名)을 ‘구명(龜明)’이라 하였고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1909년 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을 교장으로 초빙한 후 구명학교의 민족적 성격은 더욱

강화된다. 구명학교는 1년제 소학교였는데, 일제의 조선교육령(1911)·사립학교령(1915) 등 제반 교육령을 통한 식민지 교육정책 시행과 민족교육 탄압에 의해 1918년 4월 1일 구포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 공립학교가 되면서 동래군 구포면 화명리(華明里)의 사립화명학교(私立華明學校)와 구포의 여학교 사립정명의숙(私立貞明義塾)이 구포공립보통학교로 통합되었다.

### 한국최초의 은행을 설립하다

이렇듯 교육사업과 경제계를 걸친 탁월한 역량과 인맥을 바탕으로 윤상은은 1908년에 구포저축주식회사(龜浦貯蓄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가 한국 지방금융기관의 선구이며, 구포은행의 전신이었다. 이 회사는 구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물산객주·지주 70여명이 합자하여 자본금 25,000원으로 창립되었는데 당시의 주주 구성을 보면, 20주 이상의 주주는 윤현진(32주), 장우석(30주), 송태관(宋台觀, 30주), 장수상(張洙相, 20주), 김성윤(金晟允, 20주), 윤명은(20주), 엄주원(嚴柱元, 20주)의 7명이다. 10주 이상의 주주는 전석준(全錫準, 16주), 윤상은(16주), 윤영은(16주), 안희제(安熙濟, 10주) 등 13명이며, 나머지는 1주에서 9주에 이르는 50명의 군소주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회사의 창립을 실제로 맡은 윤상은은 16주 밖에 소유하지 않았으나, 조카 윤현진이 30주, 중형 명은이 20주, 아우 영은이 16주를 소유함으로써, 윤상은 일가의 소유주는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윤상은은 이 회사를 바탕으로 일본의 금융 침략에 맞서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구포저축주식회사의 설립을 주동한 사람은 장우석과 윤상은이다. 특히 윤상은은 이 회사 설립의 실제적인 산파역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뒤에 은행으로 성장하는데 그의 기획과 노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장우석은 구포의 물산객주 출신으로서 대

일 미국 수출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며, 윤상은가는 구포의 대지주로서 당시 만석군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장우석과 윤상은은 한 마을의 앞뒷집에 살고 있어 양가는 오랜 세교를 가졌다. 장우석은 윤상은의 부친인 윤홍석과 평소 친교가 투터운 사이이므로, 장우석이 사랑방에서 자주 소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는 구포저축주식회사의 창립에 관여하게 되었다.

당시 구포에는 객주들 사이에 저축계를 조직하고 있었는데, 이 저축계가 모체가 되어 발전한 것이 구포저축주식회사였다. 구포저축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영업이 번창하여, 1911년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은행으로 개편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러한 개편의 또 다른 동기는 1911년 1월 1일 실시된 ‘조선회사령’ 이었다. 구포저축주식회사도 회사령에 따라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당국에 제출했으나, 당국에서는 이 회사는 사설회사로서 금융대부업을 할 수 있으나 예금업은 은행업무와 상충된다 하여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 이 같은 난관에 부딪치자 구포저축주식회사는 은행으로 개편함으로써 난관을 타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회사를 은행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본을 증자해야 하고, 둘째 회사령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얻어야 했다. 이런 일은 모두 윤상은이 맡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은행 설립에 소요되는 자본조달을 위하여 장우석의 협조를 얻어 경남일대의 지주와 상인의 설득에 나섰다. 또 은행 설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손수 작성 구비하여 여러 차례 상경, 총독부 당국과 교섭해야 했다.

이 같은 노력끝에 구포은행은 1912년 6월 23일자로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자본금 500,000원의 한국 최초의 민족계 지방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은행의 설립과 더불어 구포저축주식회사는 발전적인 해산을 단행했고, 동 회사의 자금 일체는 구포은행에 인계되었다. 구포은행은 동년 9월 2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며, 다음해 3월 1일에는 부산지점을 개설했다.

그러나 구포저축주식회사가 구포은행으로 개편됨에 따라 주주 및 임원에 큰 변동이 있었다. 구포은행은 당초 자본금 500,000원, 1주당 50원, 총주수 10,000주, 주주 총수 240명으로 발족했는데 대주주의 변동에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볼 수 있다.

첫째, 부산의 거상들이 대주주로 참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부산 영주동에 거주하는 이규직(李圭直)이 451주를, 부산 옥정동(玉井洞)의 윤병준(尹炳準)이 450주를 소유함으로써 이 은행의 최대주주로 등장하였다. 이 두 사람은 구포저축주식회사에서는 각각 5주를 소유하는 소극적인 참가자에 불과했으나 구포은행으로의 개편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이다.

둘째, 구포은행의 발족과 더불어 일본인이 많이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오이끼(大池忠助, 400주), 하자마(迫間房太郎, 400주), 우에다(上田勝藏, 200주)를 비롯하여 16명의 일본인이 주주로 등장하였다. 그 들의 소유주는 총주수의 17.7%를 점하고 있었다.

셋째, 구포저축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주요 임원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구포은행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구포은행의 개편을 전적으로 추진시켜 온 장우석은 300주를 소유하여 대주주 순 제 5위, 윤상은은 200주를 소유하여 제 8위를 차지하였을 뿐 엄주원은 160주, 윤현진은 150주, 송태관은 140주, 전석준은 125주, 김홍조(金弘祚)는 100주를 소유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은 주주의 구성은 구포은행의 임원 선임에도 반영되었다. 개편 당시의 임원 명단은 두취제역 이규직, 전무취제역 장우석, 취제역 김복태(金福泰), 윤병준, 오이끼(大地忠助), 상담역 하자마(迫間房太郎), 감사역 윤상은, 고시마(五島甚吉)이었고, 일인 거상들이 중역진에 대거 선임되었다.

이상의 주주 및 임원구성을 보면 당시 부산경제의 주동세력이 이미 부산의 인물들로 옮겨졌으며 해당 세력의 진출로 구포은행 초기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의 민족주의적 성격이 약화되고 금융업 본연의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수송로의 비중이 점차 상실되어 물화집산지로서 구포의 지위가 약화되고 그 결과, 구포 상인의 경제적 입지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결국 구포은행의 실질적 지배권은 일본계의 금융자본가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경남은행 본점(1915년 구포은행 본점을 초량으로 옮기고 경남은행으로 개명함)

1915년 1월 24일, 구포은행의 본점이 부산부로 옮겨지면서 구(舊) 구포본점은 지점으로 격하되고 은행의 이름도 경남은행으로 바꾸었다. 부산부에 새롭게 문을 연 경남은행은 영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외형적 성장과는 상반되게 은행 내에서의 민족적 성격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의 근저에는 윤상운의 은행 경영권 상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포은행의 존재를 단순한 사업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반일민족운동의 수단으로서 생각했던 윤상운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또 다른 준비를 추진하고 있었다.

### 끊이지 않는 열정, 보리섬의 개간

그것은 바로 보리섬의 개간이었다. 구포은행의 창설 때 투자한 이후 남아있는 3백석짜리 논을 팔아 낙동강 홍수가 나면 모래땅이 되기가 일쑤인 버려진 삼각주땅 보리섬 35만평을 싸게 구입하여 개간에 착수했다. 개간만 잘되면 논 농사 3백석 보다는 수천 배 이익이 남을 수 있고 그런 계산대로 되어 준다면 빼앗긴 구포은행도 쉽게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난관은 끊이

지 않았다. 보리섬에다 독을 쌓고 갈대를 심어 조수를 차단하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어느 정도 끝냈다 싶으면 여름 홍수가 비참하리만큼 그 보리섬을 깡그리 휩쓸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이러기를 무려 4년, 윤상은의 끈질긴 집념 앞에 개간사업 첫 수확으로 2천석의 벼와 상당한 물량의 소금을 얻어냈다. 윤상은은 자신이 생겼다. 한때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던 좌절도 이 보리섬을 일구면서부터 의연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비록 경남은행 주식의 몇 백주만이 자신 소유의 주식으로 초라하게 남아있지만 조만간 잃었던 그 주식들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야심만은 결코 버리지 않고 있었다. 결국 1917년 윤상은은 다시 경남은행의 최대 주주로서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 더욱 정력적으로 은행 업무에 뛰어 들어 1918년 8월 7일에 마산지점, 11월 9 일에 하동지점을 개설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또 12월에는 전석준, 김홍조 등이 발기인이 되어 새로 발족했던 주일은행(主一銀行)을 흡수하고, 총자본금을 백만원으로 증자함으로써 영남 최대의 민족계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 독립운동을 지원하다

윤상은은 은행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으로 독립운동자금과 사회운동을 지원하였다. 1910년대 말 부산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한시적 호황기를 타고 백산상회를 비롯한 민족계 무역회사들이 많이 설립되었다. 이들 무역상은 3·1 운동을 기점으로 상해임시정부에 많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는데 윤상은은 이들에게 많은 현금대부를 해주었다. 그리고 3·1 운동 이후 총독부가 그 통치 형태를 ‘문화정치’로 전환하자 1919년 11월, 윤상은은 조카 윤현태와 함께 안회계가 주도한 기미육영회에 참여하여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썼으며 특히 안호상(安浩相)과 이극로(李克魯), 신성모(申性模) 등을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1919년, 조카 윤현진이 상해임시정부의 재무차관으로 임

명되면서 경남은행이 독립운동자금 조달의 창구라는 소문이 돌자 일본의 압력이 점차 심화되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윤상은은 1920년 봄에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비록 일본의 압력에 의한 유학길이었으나 그의 민족주의적 열망은 식지 않았다. 당시 동경 기독교청년회 총무로 있던 백남훈(白南薰)의 도움으로 일본에 거처를 마련한 윤상은은 유억겸(兪億兼), 최승만(崔承萬), 김준연(金俊淵), 김도연(金度演) 등과 교류하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했다.

1923년 독일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윤상은은 다시 경남은행의 업무를 맡아보았으나 그를 둘러싼 일본의 감시로 인해 압력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특히 1927년 일본의 금융공황으로 소규모 난립된 금융기관을 정비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은행의 통폐합이 강행되는 와중에 경남은행이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대구은행과 합동으로 1928년 8월 경상합동은행(慶尙合同銀行)으로 개편되자 그는 경영일선에서 은퇴하고 말았다. 그 후 해방까지 그는 구포에서 경제사회운동에만 전념하였다. 이때 그는 대리권농공제조합(大里勸農共濟組合), 온돌개선, 색의(色衣)착용운동 등에 진력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발악이 극에 달할 무렵에는 윤상은은 여러가지 난관을 겪게 되었다. 식량 공출은 물론 김해에서 재배하던 소나무를 징발당하기도 했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때에는 한글학자 이극로와의 관계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1938년 조직된 전국 최대의 황민화단체였던 국민정신총동원조선동맹의 일원으로 강제 동원되어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연설을 해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 부산대학을 설립하다

구포에서 해방을 맞은 그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으나 곧 탈퇴하고, 그와 친분이 있던 김성수(金性洙), 김도연, 김준연 등이 창

당한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에 입당하였다. 그러나 그다지 활발한 정치 활동은 벌이지 않던 그는 미군정 아래서 경상남도 재무부장으로 활동하던 1946년 5월 15일에, 당시 미군정초대 문교장관을 역임한 유억겸의 지원 하에 부산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초대 재무부장 김도연의 추천으로 재무부 전매국장을 맡기도 했으나 정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승만의 눈총을 많이 받다가 중국에서 수입한 홍삼의 판매권을 한사코 특정인에게 허가해 줄 것을 강요하던 이승만 대통령과 충돌하고 선 사직하고 말았다.

바깥 세계에 얼굴이나 이름을 내기 꺼렸던 그는 지금 부산 지역에서조차 부산대 초대 총장과 연세대 총장을 지낸 윤인구 박사의 부친으로 기억되고 있다. 윤상은은 거의 백수를 누리고 1984년 97세의 일기로 조용히 영면하였다. 그가 타계하기 전 부산대학교의 장학 사업에 쓰라고 떼어둔 자금은 1991년 부산대 인덕관 건립 공사에 쓰였다. 구포은행의 후신인 경남합동은행은 1942년, 서울에 본점을 둔 한성은행에 흡수되고, 한성은행은 뒷날 조흥은행으로 개편됨으로써 구한말에서 식민지 시대 초기에 걸친 한 젊은 은행가의 열정은 이제 조흥은행 100년사의 한 지류로 묻히게 되었다.

이상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윤상은의 삶은 민족의 정체성(正體性)을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그것에 때로는 구명학교의 창립이라는 교육 사업으로, 때로는 구포 은행의 창설이라는 금융업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돌이켜 보건대, 그의 눈앞에 닥친 난관들 중 쉬운 것이 하나 없었으나 그가 지닌 초지(初志)는 결코 꺾이는 바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함부로 이름을 알리기에 힘쓴 바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일만을 묵묵히 하면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윤상은의 삶과 업적이, 사소한 어려움에 휘둘러 쉽게 좌절하거나 화려한 조명에 현혹되어 헛된 명성을 쫓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산사람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의 사표로 더욱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 경성대학교 교수 강대민

## 제 2 편 문화예술분야

▣ 제 1 장 문학분야

▣ 제 2 장 무용·미술·음악분야

## 제 1 장 문학분야

1. 고두동(高斗東)
2. 김말봉(金末峰)
3. 김정한(金廷漢)
4. 이영도(李永道)
5. 이주홍(李周洪)
6. 조 향(趙 鄉)
7. 최계락(崔啓洛)

## 1. 고두동(高斗東)

### 성장과 부산의 인연

시조시인 고두동은 경남 충무시 태평동 336번지에서 1903년 9월 18일 아버지 고덕조(高德祚)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조경남(曹敬男)이었다. 아호를 황산(皇山) 또는 춘강(春岡)이라 했는데 황산이 애용되었다



그는 여섯살에서 열다섯살까지 10년간 아버지의 권유로 한학(漢學)을 공부했다. 뒷날 한학에 깊은 조예를 가지게 된 것은 이날에서 이루어진 성취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3·1독립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던 1919년 4월에 16세의 늦은 나이에 통영초등학교에 입학하니, 이는 신학문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그는 1학년에 입학한 지 6개월만에 2학년에 편입되었으나 1921년 10월, 초등학교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하여, 그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 경성부기전수학원(京城簿記專修學院)에 들어가 6개월만에 그 부기학원을 수료했다.

부기학원을 마친 그는 고향인 통영의 연초(煙草 : 담배)회사(오늘날의 담배인삼공사의 전신) 사무원으로 들어 갔다. 1927년 10월 연초회사의 부산지점 서기로 있을 때 부산으로 이주했다가 그 뒤 양산, 의성, 김해, 청송 등지의 전매서장을 지내는 동안은 부산을 떠나 있었다.

1945년 부산전매서장으로 부임한 후 서구 서대신동 238~6번지에 정주하여 1994년 91세로 작고할 때까지 49년간 부산에 살면서

오로지 시조시인으로서의 생애였다고 할 수 있다.

### 시작과 동인지 활동

고두동이 시조문단에 데뷔한 것은 1924년 4월 동아일보에 「월야(月夜)」와 「추천(鞦韆 : 그네)」 두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는 고향인 통영의 연초회사 사원으로 있었는데 나이 21세였다. 그 해는 3·1독립운동이 있는지 4년 뒤가 되는 해로 당시의 얘기는 동향의 시조시인 후배 장응두(張應斗 : 호 何步, 1913 ~ 1972)와의 대담이 그의 저서 『황산 고두동 문선(皇山 高斗東 文選)』에 실려 있다.

그에 의하면 고두동이 시조시인이 된 것은 3·1독립운동의 폭풍이 있을 무렵 새로운 지식에의 욕구가 불타는 민족의식을 낳아 민족시인 시조로 향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시조는 신라 향가와 고려 속요의 영향을 받아 고려말엽에 형태가 확립되어 조선시대에 성장한 정형시로 우리의 전통적 정서를 담고 있었다.

그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1919년 4월은 3·1독립운동이 일어난 한 달 뒤로 그 무렵 일제는 우리 국내의 공용어로 일본어를 강요하여 일본어를 국어, 우리말을 조선어라 하여 우리나라 사람에게 일본어를 상용케 하는데 혈안이 되어 이를 위한 언어정책을 총칼 아래 행하는 철저한 강압적 수단을 자행하였다.

고두동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일본어를 처음 배우면서 일본어 단가(短歌) 하이구(俳句)를 배웠고 그 하이구 짓기를 강요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우리말로 된 단가인 시조(時調)를 한학을 배우면서 독학으로 익혀 이미 시조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일본의 하이구에 맞서 우리의 정서는 시조에 있음을 체득하고 우리 민족의 독자성을 지키려면 시조의 부흥에 있다는 신념을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미 굳이고 있었다.

그 당시는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서구풍의 자유시가 밀려드는 기세 또한 도도했다. 문학, 그 가운데도 시작을 뜻하는 젊은이는 자유시로 기울어지면서 전통으로 이어온 우리 고유의 시조시는 낡고 고루한 시대적 유물로 버림받고 있었다.

그러한 때 고두동은 나라의 주권이 빼앗겨 있는 이 때일수록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일본어를 기피하면서 한문학과 함께 익힌 우리 국어를 시조시의 습작으로 표출하였다. 그 습작이 성취되어 1924년 동아일보에 시조시를 발표하면서 시조시인으로 등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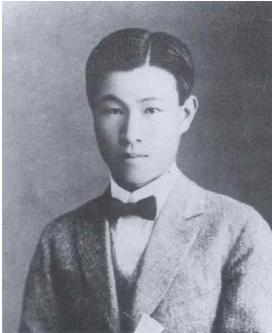
그의 저서 『황산 고두동 문선』에서 그가 말한 3·1독립운동의 폭풍이 있을 무렵 민족의식의 일환으로 시조시를 쓰게 되었다는 말은 그날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식이 뚜렷한 그는 안이하게 혼자서 시작에만 몰두한 것은 아니었다. 민족시인 시조로 민족정서를 일깨워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본어로 쓰는 일본문학에 맞서 우리문학을 일으키는 일 또한 긴요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향리 통영에서 동인을 규합하여 우리문학 전반을 발표하는 일종의 종합동인지인 『토성(土聲)』을 1925년 5월에 발간했다. 이 토성은 통영거주의 유치진(柳致眞 : 극작가, 1905~1974), 유치환(柳致環 : 시인, 1908~1967), 박명국(朴明國), 김성주(金星柱), 최두춘(崔杜春 : 시인, 1908~?) 등이 참여하여 3·4년간 5집까지 내었다. 개화기이자 우리현대문학 초창기의 이 토성은 통영문학의 씨알 구실을 하면서 통영문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두동과 김정환



24세 첫 시조시를 발표하던  
해의 고두동

이듬해인 1926년 4월에는 역시 통영에서 고두동, 탁상수(卓相銖 : 호 늘샘), 이창근(李瓚根 : 호 眞山), 김기탁(金基鐸 : 호 鐵山), 양기수(梁基守 : 호 白水) 등 8명의 시조시인들이 동아일보에 작품을 기고하는 한편 『참새』라는 동인지를 등재판으로 등재하여 월 2회 발행으로 3년을 계속했다.

이러한 일이 뒷날 통영이 시조시의 요람지가 되어 고두동 본인은 물론 통영 출신 장응두(호 何步), 김상옥(金相沃 : 호 草汀,

1920 ~ 2004) 그리고 통영 출신은 아니지만 통영여자고등학교 교사로 통영에 머물렀던 이영도(호 丁芸, 1916 ~ 1976) 등이 통영에서 시조시를 꽃피우다가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이어 이들 시조시인들이 부산으로 자리를 옮겨 부산의 시조시단 뿐만 아니라 한국 시조시단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연원(淵源) 구실을 했다.

고두동은 1926년 9월에는 진주 중심의 진주시단(晋州詩壇) 동인이 되어 주로 시조시를 발표했다. 그는 또 황석우(黃錫禹 : 호 상아탑 시인, 1895 ~ 1960)가 주재하던 『장미촌(薔薇村)』에 「자유시」가 추천되어 자유시 시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시조를 계속 고집했다.

1920년대는 경향을 막론하고 이같은 동인지 활동이 일어났는데 이 동인지 활동이 문학활동이었다. 이러한 동인지 활동은 일제가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검열을 피하는 방편일 수도 있었다. 이 무렵인 1928년에 고두동은 신경성질환을 6년간 앓게 되어 시작마저 여의치 못하게 되었다.

### 시작과 함께 한 시조시부흥운동

고두동은 1934년 경북 의성으로 이주하여 병세가 호전되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가람 이병기(李秉岐 : 시조시인,

국문학자, 수필가, 1891~1968)와 시조에 관한 교유가 시작되었는데 가람과의 교유와 함께 고두동의 시작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가람 이병기는 1920년 이후의 우리 시조를 현대적으로 참신하고도 사실적 시풍(詩風)으로 일신케 한 시조부흥의 선각자였다. 종전의 시조가 가진 고루한 구투를 타파하여 자연의 생생하고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현대시조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간 가람 이병기는 황산 고두동보다 12살 위였다.

가람 이병기는 황산이 『황산시조시집』(1963년刊)을 태화인쇄소에서 출간할 때 서문을 썼다. 그 서문이 황산의 작품을 올바르게 평가한 것으로 여겨 그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황산 고두동 형은 나와 막역한 친구로서 그 바쁜 생애에도 화조(花草) 서화(書畵)를 좋아하였으며 가장 좋아하는 건 우리 시조 작이었다. 그는 몸을 상해가면서도 근 3·40년 동안 근 만작(萬作)이었다.

그 작(作)을 보면 너무 충실하다. 충실하다는 편편이 한결같다. 개살구 지레 터진 듯이 알맞은 재조는 일찍 나타나기도 하나 황산은 그 미립이 언제나 터질까 나는 저기 걱정이었다. 그러도 황산은 남의 작평(作評)에는 현명하였으며 우리 시조단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시평(詩評)을 수차 시도하기도 했다. 또 여내 권태없이 노작(努作) 역작(力作)하여 온 건 과시 만성적인 천재라고 나는 깊이 기대하고 왔었다. 황산이 요마적 이르러서는 그 작의 새 경지를 개척하였다. 새뜩 별난 맛보다 평담(平淡) 충실한 그 속에 인간의 진정 진의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즐겨 의(義)를 읊조린 의열(義烈)의 시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사상이며 감정이며 어조가 현대적이다 나는 황산의 작을 이렇게 보며 아직도 케케한 옛 상감(想感) 옛 투어(套語)와 난조(爛調)를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작보다는 새시대의 새로운 진전이 많으리라고 믿으며 요즘 화

갑기(華甲期)를 마지하여서는 그 작들이 원숙미를 보이기도 한다.”

이 가람의 글은 선배의 입장에서 황산의 사람됨과 작품에 대한 가감없는 평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광복 이후에 씌어졌다 해도 일제강점기의 그날에서 이어온 시조시인으로서의 교유였고 이 속에 담긴 글 또한 일제강점기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인 그날 시들어 가려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형시를 이어 나가기 위한 두 사람의 염원이 의기투합으로 맺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무렵인 1939년에 쓴 황산의 시조 한 수를 참고삼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선죽교(善竹橋)

(1)

송경(松京)을 찾은 뜻은  
만월대(滿月臺)만 보랴던가  
의열(義烈)의 붉은 피가  
맺히고 스민 다리  
오백년 지나 오늘을  
나도 멈춰 섰구나

(2)

버들잎 새로 피고  
개울은 넘실넘실  
잔디 푸르르고  
울제비 드날건만  
백일(白日)이 조여 드는 듯

## 한나절을 흐른다

이렇게 황산은 일제강점기 거의가 서구식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현대문학, 그 현대문학 가운데도 자유시로 기울어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일본문학으로 쏠려드는 그 마당에 구투로 낚았다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우리 고유의 시조시에 매달려 동호인을 찾고 동인을 규합하였다.

### 부산 정주 후의 활동

그가 28년간 근속해 오던 전매청도 45세 나이인 1948년 부산전매청장을 마지막으로 그 직에서 물러났다. 이때부터 시조부흥과 시조시의 현대화에 전념했다. 그렇게 전념한 중심적 텃자리는 부산이었다.



부산의 시조시인 모임(1983. 09)

1983년 팔순 연세를 기리기 위해 당시 부산문단의 원로와 서울의 중진문인으로 조직된 황산문선출간위원회가 『황산 고두동 문선(皇山 高斗東 文選)』을 상재(上梓)한 말미에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제가 일생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엮어온 시조시와 시평 등은 공정(功程)을 따지지 않더라도 나에게서는 피땀한 분신이 아닐 수 없다. 시조시는 우리민족의 땃땃한 사강(史綱)이요 요순제(堯舜帝)의 후예인 우리 동인족(東仁族)의 맥박이며 대표적인 국문학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광복후 우리문화를 되찾는 시기가 왔음에도 학계 일

부에서는 시조시는 ‘낡았느니’ ‘설자리가 없느니’하는 따위의 물지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도 조윤제 같은 국문학자마저 시조시부흥은 어려운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필코 시조시는 부흥되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 아래 전진하면서 일본의 단가부흥(短歌復興)의 역사를 살펴 학계에 맹성을 촉구했던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명치초기(明治初期)에는 단가가인(短歌歌人)인 正岡子規, 齊藤 등 열두사람에 불가했으나 그들이 선두에 서서 국민에 호소하고 메스콤과 궁중(宮中)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중략)

우리 시조단의 부흥에 있어서도 내 또한 거의 일생을 받쳤고 이태극(李泰極)씨 등 사계 여러분과 힘을 모은 결과 이제는 시조시인만도 300명을 넘었고 시조시단도 반석 위에 놓였다.(후략)”

이 글에서 우리 시조시단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황산이 걸어온 길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황산이 1953년 순수시조문예지 『시조연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간한 일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시조연구』에 황산은 ‘시조작법 소고(小考)’ 같은 논문을 계속 실었다. 황산이 『시조연구』를 창간할 무렵은 황산 자신의 창작 경향이나 시적 이미지도 종전의 틀을 벗고 심서(心緒)의 깊이도 한결 부드러운 현대화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무렵인 1953년 『새벽』 5월호에 발표된 그의 작품 「숲」을 『한국문학대사전』(문원각 1973년 刊)이 평론가 전태규가 언급한 것을 실었는데 그것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숲

나도 숲이 되어

하늘을 이고 서고 싶다

이따금 구름과  
서로 천심을 가져도 보고  
된서리 단풍이 든 양  
곱게 곱게 타도 보고

원문을 신고 평하기를

“이 시조에 담긴 음수물이 유선 자유자재롭고 유연하다. 이 48자(字)의 짧은 틀에 담긴 상(想) 역시 어디 한곳 관념적인 데가 없고 간결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춘하추동을 숲을 두고 오랜 관조끝에 이루어진 새로운 이미지가 새로운 틀에 소담스레 담겨졌다. 그는 곧잘 숲을 즐기는 시인이다. 아마도 숲속에서 살아왔거나 아니면 숲을 끼고 숲을 산책하며 숲을 바라보며 살아왔거나 하지 않고서는 “나 또한 숲이 되어”를 대담하게 뽑아낼 수는 없었으리라. “된서리 단풍이 든양 곱게 곱게 타도 보고” 싶어하는 이 ‘숲의 시인’의 시조에 흐르는 낭만은 우리에게 크게 어필하는 바 있다.



멋들어진 한폭의 아름다운 산수화(山水畵)를 보는 듯한 운치있는 작품이다.

그는 이렇게 자연을 즐겨 읊조리는 이외에 의(義)를 강조하는 시조를 많이 짓는 의열(義烈)의 시인이기도 하다.”

고 하였다.

### 황산의 시조시 현대화 운동

황산은 시종 현대화를 성취한 성취에 의 평을 받으면서 그 자신 평필을 듣기도 했다. 그 평은 문예지 또는 신문에 논문형식으로 또 시평(時評)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그의 소론(所論)을 요약하면 시조 전편으로 흐르는 정감은 부드러우면서 품격이 있어야 하고 평범한 용어라 해도 함축이 있어 훈훈한 가운데도 창날같은 날카로움이 안으로 사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람 이병기는 『황산시조시집』 서문에서 황산을 처음으로 본격적인 시평을 여러차례 시도했다고 했다. 그 말은 1957년 4월 3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시조시단의 현황’이나 국제신보에 쓴 ‘시와 정서’ 1959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현대감각의 민족시로’ 한국일보에 발표한 ‘최근의 시조시단’ 1961년 10월 부산일보에 발표한 ‘정신영양을 섭취하자’ 등에서 보인 시평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한 그의 시평은 육당 최남선(崔南善), 일석 이희승(李熙昇), 수주 변영로(卞榮魯), 소백 이관구(李寬求), 노산 이은상(李殷相), 정운 이영도, 소안 최성연(崔聖淵), 정소파(鄭韶波)의 시조시를 두둔하는가 하면 날카로운 칼질을 한 바도 있다. 1968년에는 부산직할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황산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조로서 우리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려고 시조시를 직접 창작했을 뿐 아니라 시조시의 부흥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70년대 그 이후는 한국고대사연구회 부산지부장을 맡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에 대한 일본 여러 사서(史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논문을 일본에서 발간되는 『친화(親和)』지에 여러 차례 발표하고 『주간조선』 『자유(自由)』지(誌) 등에 「고조선의 위치」 「백제는 왜국의 종주국」 「광개토대왕비문관계연구」 등을 발표했다. 향토사에도 관심을 가져 『향토문화』지에 부산의 산명(山名)·지명(地名)의 풀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황산 고두동은 시조시 시인으로 시조창작과 함께 시조시 부흥에 그 생애를 바쳤다고 하는 말이 옳을 것이다.

■ 소설가 최해군

## 2. 김말봉(金末峰)



### 학업과 소설가로서 문단 데뷔

김말봉은 부산시 중구 영주동에서 김해 김씨 김윤중(金允中)의 5남매 중 막내딸로 1901년 4월 3일(음력)에 태어났다. 본명은 말봉(末鳳)이었다.

그는 1914년부터 동구 좌천동에 있었던 일신여학교에 다녔다. 이 일신여학교는 호주 장로교 선교회 여자 전도사가 중심이 되어 1895년 10월에 세운 사립학교로 처음은 3개년 과정의 초등학교였다가 1909년에 중학교 과정인 3개년, 고등과를 병설하였고, 그 3개년 고등과는 1915년 4년제가 되었다. 김말봉은 고등과 3년을 수료했다. 그때의 학교 위치는 지금도 벽돌교사(1905년 신축)로 남아 있는 좌천동 768번지이다.

이 일신여학교는 1925년 6월 동래구 복천동으로 옮겨져 동래일신여학교가 되고, 1940년에는 동래고등여학교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이 학교가 지금의 동래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다. 이 학교는 1987년에 금정구 부곡동으로 옮겼다.

김말봉이 좌천동의 일신여학교에 다닐 때의 동기생으로는 박순천(朴順天), 박시연(朴時淵) 등이 있었다. 박순천은 제 2·4·5·6·7 대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총재, 신민당 고문 등을 역임한 여류 정치가로 김말봉이 뒷날 사회사업으로 공창(公娼)폐지운동을 할 무렵 같은 동기적 입장으로 여성권의 신장을 위해 활동한 바도 있었다.

동기생인 박시연은 뒷날 모교인 일신여학교 교사가 되었고, 1919년 일신여학교가 3·1독립운동 시위를 경남에서 맨 먼저 벌였을 때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교사로서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를 지도했고 그로 인해 1년 6개월 형을 받고 옥고를 치른 바도 있었다.

박순천이 쓴 「나의 학창시절」이란 글이 『동구향토지』(東區鄉土誌 : 1987년 刊)에 실려 있는데 그에 의하면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가 되어 일본어를 국어라 했는데, 국어라 하지 않고 일어(日語)라 하여 일어를 가르치려 들어 온 여선생은 학생들의 놀림을 받고 울고 나가기 일쑤였다고 했다. 그럴 때면 김말봉이 일본인 일어 선생을 놀려주는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김말봉은 일신여학교 3학년을 수료한 뒤 서울의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 3학년에 편입(1917)하여 1918년에 4년 과정을 졸업하였다.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1919년에 황해도 재령(載寧)의 명신학교(明信學校)에서 교편을 잡다가 더 배워야 하겠다는 의욕으로 1920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타카네의숙[高根義塾]에 들어가 1923년에 졸업하자, 선진문물을 배우려면 영어를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의 명문 교오토[京都]의 도오지샤[同志社]대학 영문과에 들어가 1927년에 졸업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배울 수 있는 한도까지 배우고 귀국했다.

귀국한 그는 1929년에 중외일보(中外日報)기자가 되었다. 이 1929년은 부산에서 백산무역주식회사를 경영하여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제공해 오던 백산 안희제(白山 安熙濟)가 일본 경찰의 추적을 당하던 시기로 백산은 일경을 피하여 백산무역회사를 해산하고, 재정난으로 휴간 중인 서울의 「중외일보」를 인수 복간하여 민족정기를 일깨우려 할 때였다. 김말봉이 복간되는 중외일보 기자가 된 것은 백산 안희제의 뜻에 동조한데 있었다.

복간을 본 중외일보는 그 당시 다른 일간지는 6면(面)인데 중외일보는 조석간(朝夕刊) 4면씩 8면 발행의 의욕을 보였다. 그 의욕에는 일제(日帝)가 가진 식민지정책을 정론으로 비판하려는 의도가 컸다. 그러나 지나친 의욕을 보인 중외일보는 재정난과 일제의 기

사내용 관습을 견디다 못해 1931년 9월 폐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1년 10월, 노정일(盧正一)은 중외일보를 「중앙일보」로 이름을 바꾸어 속간하고 김말봉은 경영자가 바뀐 중앙일보 기자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시기 김말봉은 중앙일보의 신춘문예에 「보옥(步玉)」이란 필명으로 단편소설 「망명녀(亡命女)」를 투고하여 이것이 1932년 1월 당선됨으로서 소설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김말봉은 이에 앞서 1925년 4월18일~25일에 걸쳐 동아일보의 『신춘문단』에 『시집살이』를 발표한 바 있었으나 그것은 공식적인 문단 데뷔 절차를 밟기 전의 일이 되어 그의 문단 데뷔는 1932년의 『망명녀』를 잡고 있다.

1932년이라면 우리나라로서는 현대문학 특히 현대소설로서는 초창기에서 발전기로 나아갈 때다. 이때 부산으로서는 일본 유학생으로서 현대문학 발흥의 기운은 크게 일어나고 있었으나 실제 작가, 시인으로 공식적인 등단을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 점으로 보아 『망명녀』로 등단한 김말봉이 부산출신으로서는 현대문학 첫 등단자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초기의 여류소설가로는 김말봉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한 박화성(朴花城)이 1925년 조선문단에 『추석전야』가 추천된 바 있고, 강경애(姜敬愛)가 1931년 혜성(慧星)에 『어머니와 딸』을 발표한 바 있고, 최정희(崔貞熙)가 1932년 시대공론에 『식대(食代)』를 발표한 바 있을 정도였다.

김말봉은 1933년 부산 영주동 출신의 전상범(全尙範)과 결혼하여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며 1934년에 신가정에 단편소설 『편지』 1935년에 신가정에 『고행(苦行)』 『요람』 등을 발표했다.

### 장편소설 『밀림(密林)』 시대

김말봉이 대중소설의 가능성을 보인 것은 1935년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서 있었던 설의식(薛義植), 학예부장 서항석(徐恒錫)의 주선으로 장편소설 『밀림(密林)』을 1935년 9월 26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한데 있었다.

이 밀림을 쓸 때 김말봉은 부산에서 살고 있던 시기로 밀림의 산실(産室)은 그의 거처인 동구 좌천동이었다. 그래서 이 밀림을 서울의 동아일보 지면에 오르케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김말봉이 며칠동안 연재할 원고를 쓰면 그 원고 묶음을 광복동에 있는 에텐다방으로 가져갔다. 그 에텐다방은 뒤에 제1다방으로 이름이 바뀐 적도 있지만 일제강점기인 그 당시는 광복동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경영하는 다방이었다. 그 경영주는 동아일보 부산지사장으로 있던 강대홍(姜大洪)이었다.

김말봉이 며칠동안 실을 원고를 써서 에텐다방으로 가져가면 삽화를 그릴 한무숙(韓戊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한무숙은 서울출신이긴 해도 그의 아버지가 경상남도 도청의 고급관리로 있었다. 그때의 경상남도 도청은 부산에 있었다. 한무숙은 아버지의 근무지가 부산이어서 부모와 함께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봉래보통학교를 1932년에 졸업하고 부산고녀(당시는 부산고등여학교라 해서 부산고녀라 했다)를 다닌 4학년 학생이었다. 그때의 나이 17세, 그 17세의 고녀 학생인 한무숙이 김말봉의 소설원고에 나타나는 내용을 따라 삽화를 그려 에텐다방으로 다시 가져갔다. 그러면 그 원고에 곁들인 삽화와 원고는 다방 경영자이자 동아일보 지국장인 강대홍을 통해 서울로 올라갔다. 그때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한무숙의 그림솜씨도 작품에 걸맞게 좋았다고 한다.

이 자리를 빌어 삽화를 그린 한무숙의 얘기를 잠깐 하면, 한무숙은 1918년생이었다. 한무숙은 처음은 그렇게 화가지망생이었고 그

당시는 일본인 여학생만 다니는 부산고녀를 다녀서 학교에서는 우리말(당시는 조선어) 수업은 없어서 우리글은 능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말봉의 소설 삽화를 그리는 동안 우리말과 우리 소설에 경도되어 우리글 우리문학에 심취하여 1942년 신시대(新時代) 장편 소설 모집에 『등불 드는 여인(女人)』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부산의 국제신문의 전신(前身)인 산업신문이 1948년 장편소설을 모집할 때는 『역사는 흐른다』가 당선되었지만 그 산업신문이 폐간되자 태양신문(太陽新聞)에 그 『역사는 흐른다』가 연재되었다.

그 뒤 『램프』 『내일 없는 사람들』 『아버지』 등 수작을 발표하면서 한국일보에 장편소설 『빛의 단계』를 연재하고, 여상(女像)에 장편소설 『석류나무집 이야기』를 연재하는 등 많은 작품을 썼고 1957년에는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1990년에는 한국소설가협회 회장에 추대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산에 연고를 가진 소설가로 김말봉의 영향을 입은 부산의 두 번째 여류소설가는 한무숙이라 할 수 있다.

### 장편소설 『찔레꽃』 시대

첫 번째 장편소설 『밀림』의 신문연재로 각광을 받은 김말봉의 두 번째 장편소설은 조선일보에 1937년 3월 31일에서 10월 3일까지 연재한 『찔레꽃』이었다.

이 『찔레꽃』에 대해 세계문예대사전(성문각 1975년 刊)이 기술한 데 의하면 김말봉의 이 연재는 통속소설가로서 일약 저널리즘의 스타가 되게 했다. 한인택(韓仁澤)이 「선풍시대(旋風時代)」로 데뷔한 것이나 심훈(沈薰)이 당시 브나르드운동을 반영한 「상록수(常綠樹)」로 데뷔한 것과는 달리 순수한 흥미중심의 통속성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에서 흥미중심의 통속성이라 한 말은 순수소설에 반대하는 대중소설로 예술성보다 독자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흥미본위로

읽어나가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까다로운 문체를 피하고 스토리나 플롯을 안이하게 펼치는 수법이다. 그래서 김말봉의 소설은 신문연재에 맞아들어 크게 인기를 얻었을 분 아니라 신문소설이 가지는 대중성을 확보했다.

김말봉의 대표작을 이 『찢레꽃』에 두고 있는데 그 줄거리를 참고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설의 젊은 여성주인공 안정순은 이민수의 애인이었다. 정순은 은행장인 조만호씨택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은행장 조씨는 아내가 오랫동안 병석에 있어서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 조씨는 젊은 가정교사 정순이에게 사랑을 느끼고 접근하려 했다. 그 반면 조씨의 아들 경구도 정순을 마음속으로 그리게 된다.

이러할 때 정순의 애인 이민수가 정순이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 조씨집을 몇차례 다녀간 이후 조씨의 딸 경애가 민수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러던 사이 조씨의 아내가 죽자 조씨의 집 침모가 침모 자신의 딸을 후처로 만들기 위해 조씨의 방으로 들여보냈고 조씨는 침모의 딸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조씨에게는 가까이 지내던 옥란이란 기생이 있었다. 조씨는 그 기생에게 아내가 죽으면 후처로 삼겠다는 언약을 한 바 있었다. 기생 옥란은 이제는 조씨의 후처가 되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 조씨와 침모의 딸과의 관계를 알자 기생인 옥란이 조씨의 방으로 숨어들어 있다가 조씨가 침모의 딸과 정사를 치르는 순간 칼로 침모의 딸을 찢러 죽인다.

가정교사 정순에게 살인의 누명이 돌아왔다. 누명을 썼던 정순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고 그 집을 나오게 되는 줄거리다. 이는 찢레꽃처럼 숨박한 정순이 그 자신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남녀간의 애욕과 애증(愛憎)에 환명을 느끼는 인간사의 일면을 보인 것이다.

이 『찢레꽃』은 얽히고 설킨 애정관계가 하루하루 짧은 지면으로 연재되는 가운데 독자는 흥미를 가지게 되어 신문소설이 가진 효과

를 거둘 수 있었다. 이 『찢레꽃』이 연재될 때는 김말봉이 첫째 남편 전상범과 사별하고 재산가이며 무정부주의자였던 이종하(李鍾河)와 1937년에 재혼하여 동구 초량동의 연화동(오늘날의 초량1동 지역)에 살 때였다. 그러니 조선일보의 『찢레꽃』도 김말봉이 부산에 살 때이고 그 작품의 산실(産室)은 초량의 연화동이었다.

김말봉이 조선일보에 『찢레꽃』을 발표한 그 이후부터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말로 출판될 출판물의 허가는 일체 없어졌다. 기존 출판지(紙誌)에 대한 검열은 극도로 심해졌다. 그 검열로 폐간이란 마지막 법적제재가 내려졌다. 1940년 8월 10일에는 우리의 두 언론기관으로 남아 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폐간되었다. 우리말로 발간되던 잡지와 문예지도 폐간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인지도 단행본 출판도 불온서적으로 금서(禁書)가 되었고, 우리글을 읽는 일마저 불온화로 낙인이 찍혔다.

우리 문인들의 암흑기였다. 김말봉도 우리글을 쓸 수 없게 되어 붓을 놓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에서 글을 못 쓰는 은거생활에 들어갔다.

## 광복 후에 쏟아진 작품들

김말봉은 광복을 보자 부산에서 서울로 자리를 옮겼다. 작품활동이 본격화되어 갔다.

1945년 부인신문(婦人新聞)에 장편소설 『카인의 시장(市場)』을 발표했다. 그는 작품활동 이외에도 공창(公娼)폐지운동에 앞장서고 박애원(博愛院)을 경영하는 등 사회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1949년에는 하와이를 시찰하였다가 1950년의 6·25한국전쟁이 일어난 2일 뒤에 귀국하였다. 9·28수복 때 상경하였다가 다시 가족과 더불어 부산으로 피난하여 부산에서 피난 온 많은 문인들을 물심 양면으로 도왔다.

1952년 2월에는 서울신문에 「태양의 권속(眷屬)」을 연재하고, 『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희망』지에 「과도에 부서지는 노래」를 발표했다. 1952년 9월에는 베니스에서 개최한 세계예술가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1953년에는 영남일보에 「새를 보라」 『여성계』에 「바람의 향연」, 1954년 3월 26일에서 9월 13일까지는 조선일보에 「푸른 날개」를 연재하고 『학원(學園)』지에 「과초의 꿈」 『새가정』에 「옥합을 열고」를 발표했다.



부산피난시절(1951.9, 왼쪽부터 김말봉, 유치환, 한 사람 건너 조연현, 윗줄 오른쪽에 김광주, 김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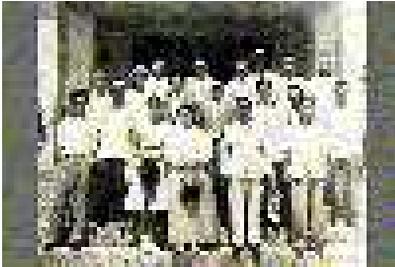
1955년에는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으로 가서 작품소재를 실제 경험으로 얻었다. 55년 3월 15일에서 7월9일까지 국제신보에 「찬란한 독배(毒盃)」를 연재하고, 1956년에는 11월 28일에서 57년 9월16일까지 조선일보에 「푸른 생명」을 연재하고 『희망(希望)』지에 「길」을 발표했다.

1957년에는 『여원(女苑)』지에 「방초탑(方肖塔)」 국제신보에 「푸른 장미(57. 6.15~12.25)」를 연재하고 한국일보에 「화관(花冠)의 계절(57.9~58.5)」을 연재 했다.

1958년에는 연합신문에 「사슴(58.6~58.12)」을 연재하고, 『주부생활』에 「행로난(行路難)」 『학원』에 「광명한 아침」 『보건세계』에 「아담의 후예」 조선일보에 「환희(58.12.15~59.6.21)」를 연재했다.

1959년에는 부산일보에 「제비야 오렴(58.12.1~59.7.19)」, 대구일보에 「장미의 고향」, 연합신문에 「해바라기(59.7~60.2)」 등을 발표했다.

이 이외 단편소설로 연합신문에 「성좌(星座)는 부른다(49.1)」, 『신여성』에 「낙엽과 함께(49.3)」 『문예』에 「망령(52.1)」 『문예』에 「바퀴소리(53.2)」, 『전선문학』에 「처녀의 장(章 : 53.2)」, 『현대문학』



부산원예고에서 문학 강연후 직원들과 함께(1959년 경, 앞중 중앙의 한복차림이 김말봉, 그의 왼쪽이 소설가 한무숙)

에 「女心(55.2)」, 『신태양』에 「식칼 한자루(55.2)」, 『여원』에 「사랑의 비중(56.4)」, 『현대문학』에 「이브의 후예(60.4)」 등 그의 작품은 계속 수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 김말봉의 작품세계

김말봉의 작품세계는 광복 이전은 남녀간의 애욕(愛慾)의 문제로 다루었으나 광복 이후는 인간의 애욕문제가 가미된 사회문제를 다룬 것이 특이 하다. 광복이전의 작품을 그의 제1기 작품이라 하고, 광복 이후의 작품을 제2기 작품이라 하면 제1기의 대표작품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조선일보에 연재한 『짚레꽃』이라 할 수 있고, 제2기의 대표작품은 역시 조선일보에 연재한 『생명(生命)』이라 할 수 있다.

제2기의 『생명』의 주인공 역시 여성을 등장시켰지만 부모도 없고 피를 뽑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대학생 주인공으로 삼았다. 내용으로는 주인공 창님이 동창생인 정미의 아버지 김한주 사장이 저지르는 부패성과 사업가가 가진 치부(恥部)를 드러내고 있다. 이 고발적 수법은 당사가 가진 사회성의 일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보아 김말봉의 광복전 제1기 문학은 개인이 가진 애정이 애욕으로 나아가는 서구식 사조를 받아들였지만 광복후의 제2기에서는 사회공동체에 눈을 돌려 사회정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문소설이 가진 극적구성으로 대중소설의 개척자로 일컬어진 김말봉에 대해서는 예술성과 인간을 탐구해야하는 문학적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순수문학 옹호자들이 비판을 하면 그는 스스로 통속작가임을 자처하면서 순수문학 옹호자를 순수귀신(純粹鬼神)이라고 통박하기도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했다. 작가는 인간의 현실적 상황에 눈을 돌려 대중과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그는 영문학을 전공한 경력 때문인지 서구식 대중성에 영향을 바꿨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1957년에는 우리나라 그리스도교 최초의 여성 장로가 되었다.

그는 1962년 2월 9일 폐암으로 6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의 저서로는 장편소설로 『찔레꽃』을 인문사가 1939년에 낸 바 있고 1948년에는 합동사서점에서 낸 바 있다. 『밀림』은 영창서관에서 1942년에 낸 바 있고 공동문화사가 1955년에 낸 바 있다.

『화려한 지옥(문연사, 1952년)』, 『태양의 권속(삼신출판사, 1953)』, 『푸른 날개(형설출판사, 1954)』, 『별들의 고향(정음사, 1956)』, 『생명(동인문화사, 1957)』, 『벌레 많은 꽃(대일출판사, 1977)』 등이 있고, 단편집집으로 『꽃과 뱀(문연사, 1957)』 등이 있다.

■ 소설가 최해군

### 3. 김정한(金廷漢)



#### 출생과 학업 그리고 습작시절

요산(樂山) 김정한(1908. 음9.26 ~

1996.11.28)은 부산에서 태어나 활동하다 이 땅에 묻힌, 한국현대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소설가이다. 김정한이 태어난 남산동은 당시 경남 동래군 북면에 속했으며 이후 부산시 동래구에 속하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금정구에 속하게 되었다. 그의 생가는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뒤로하고 천년사찰 범어사와 인접해 있다.

그가 태어난 1908년은 의병항쟁이 절정에 달함과 동시에 식민지 수탈을 위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애국계몽문학으로서의 역사·전기류가 격감하면서 신소설 「금수회의록」이 출간된, 대한제국의 황혼기였다. 그의 집은 부농에 속했다. 부친은 특별히 신학문을 배우지는 않았으나 자식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이나 마을에 다리를 놓는데 앞장 서 자동차가 들어오게 했다는 등의 요산의 몇 가지 회고로 짐작컨대 개화에 일찍 눈을 뜬 인물로 보인다.

요산은 어렸을 때 “왜- 스놈 끈 놈/ 꼬치 밭에 끈 놈” 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일본인들에 대한 미움을 배웠으며 특히 밀주단속에 적발되어 어른들이 일본순사들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원수를 갚아야지.” 라는 막연한 저항감을 키웠다. 그는 자신의 소설세계의 무대가 된 낙동강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다. 금정산 뒤편이 바로 낙동강이었기 때문인데 다리가 놓이기 전 동네 동무들과 나룻배를 타고 당시의 김해 대저면 등으로 건너다니기도 했다. 한글을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는 여섯 살 때부터 마을에서 주로 집안

아이들을 위해 연 서당에서 종조부에게 한학을 배웠다.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은 「농촌세시기」(1955-1956)에 잘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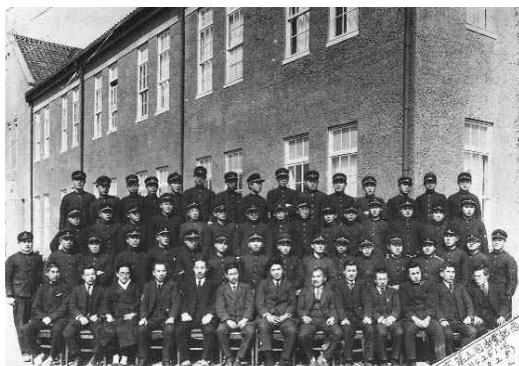
서당공부를 마치고 범어사 경내에 있는 명정학교에 들어간 해가 1919년이다. 범어사와 명정학교는 두 사람의 불교인물이 관련되는데 만해 한용운과 김법린이 그들이다. 만해는 1910년 불교의 일본장악을 반대하여 송광사와 범어사를 오가며 승려들의 반대궤기대회를 주도하면서 조선임제종 중무원을 범어사에 설치했다. 그러는 한편 1913년에는 『불교대전』을 이곳에서 발행했다. 한편 김법린은 만해를 스승으로 하여 범어사에서 중이 되어 3·1운동에 참가하고 26년 파리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로서 38년 만당(卍黨) 사건과 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불교운동가이다. 김법린은 부인과 같이 명정학교 교사로 있었다. 요산이 다닌 4년제 소학교인 명정학교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민족의식이 높았던 학교로 볼 수 있다.

3·1 항거 때 명정학교의 하급생들은 범어사와 범어사 입구를 오가며 만세를 부르고 상급생들은 동래로 나가 만세를 부르기로 했지만 상급생들은 밀고로 인해 동래까지 나가기도 전에 모두 잡혔다고 요산은 회고하고 있다.

명정학교를 마친 요산은 23년 서울의 중앙고보에 진학했다가 다음해 9월 동래고보로 옮겼다. 동래고보 재학 중 본격적으로 문학에 눈을 떴다. 그 계기를 그는 특별한 게 아니라 민족적 울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에게 문학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음을 우는 것과 같이 본래적인 것이었다. 동래고보 졸업 직전 동맹휴교로 다른 학우들과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는데 집단적이기는 하지만 요산생애의 첫 구금이 된다.

1927년 요산은 왕고모의 중매로 결혼을 한다. 배우자 조분금(趙分今)은 요산과 같은 해인 1908년 양산시 하서면 화제리에서 태어났다. 화제리는 그 뒤 그의 대표작 「수라도」(1969)의 무대가 되는

데 가야부인은 김해 명호에서 시집은 처조모를 모델로 한 것이며 시아버지 오봉선생은 바로 이 동리 뒤편의 오봉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지금의 양산시 물금 앞의 매깃들은 외가와 왕고모 덕이 있고 그 자신 뒤에 농민조합사건과 관계되는 곳이기에 요산과 특히 인연이 깊은 공간이다.



1928년 동래고보 졸업기념사진

동래고보 졸업 후 그는 교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28년 9월 울산 대현공립보통학교의 교사가 되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11월경 그는 경찰에 피검되는데 조선인교사에 대한 차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연맹조직

에 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편지로 썼다가 검열에 발각된 것이다. 동래경찰서로 이첩되어 고문과 조사를 받다 풀려나지만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에 겪은 일은 소설 「어둠 속에서」(1970)에 잘 나타나 있다.

보통학교 교사를 그만둔 요산은 1929년 2월 일본 도쿄로 건너가 동경제일 외국어학원에 일 년간 적을 두었다가 30년 4월 와세다대학 제1고등학원 문과에 입학한다. 당시는 본 대학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부속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관례였다. 입학 후 그는 독서회에 가입하여 문학서적 보다 사회과학 쪽 책을 많이 읽었다. 메이데이 시위 같은데 열심히 따라 다녔으며 마르크스주의와의 만남도 이때였다. 당시 문학친구는 이찬, 안막, 이원조 등이었는데 『학지광』 편집에 관여하게 된 것도 시인 이찬의 권유였다. 셋은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요산은 1931년 11월 동경에서 결성된 마르크

스주의 예술이론에 입각한 재일 한인의 새로운 예술 연구단체인 <동지사(同志社)> 발기인으로 편집부 임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산은 소설에 앞서 시를 먼저 썼다. 1928년부터 1931년 사이에 발표된 시와 시조는 30여 편에 이르는데 대부분 민족의 비애를 애상적으로 표현한 습작 수준의 작품들이다. 소설은 일본유학시절부터 썼다. 「구제사업」이 《신계단》에 제목만 목차에 나온 것은 32년 11월이다. 요산은 이 작품을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도덕적 타락에 초점을 맞춘 김동인의 「감자」에 대한 불만으로 썼다고 회고하고 있



일본 유학시절의 김정한

다. 최초로 활자화된 요산의 소설은 《문학건설》(1932.12)에 발표된 「그물」인데 이 작품은 마름과 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저항을 다룬 소품이지만 출세작 「사하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1932년 여름 방학 귀향시 동래출신 유학생들과 양산농민봉기사건의 피해조사와 농사조합 재건 등을 위해 개입하다 피검되었는데 이 일은 학업 중단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어려운 시절의 글쓰기와 사회활동

1933년 10월 그는 남해공립보통학교의 교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에 대한 뜻을 세운다. 항일일선에 나서지 못할 바에는 글로서나 고발해 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우선 우리말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 우리말 사전 노트와 식물도감 노트를 만들면서 「사하촌」(1936)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옥심이」(1936), 「추산당과 결사랍들」(1940) 등을 잇달아 발표한다. 절 논을 부치는 소작농민들이 자연



등단 무렵의 김정한

발생적으로 쟁의에 돌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정통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린 「사하촌」은 30년대 농민소설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힌다.

‘남해 시절’은 일본어상용과 창씨개명 등, 일제의 강압정책이 노골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1940년에 끝나게 된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동아일보』 지국을 열었지만 밤사이에 지국 간판이 떼어져 나가고 배달 중 신문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다 신문 강제폐간으로 그만두게 된다. 1940년 11월 요산은 경남도청에 근무하던 고향선배의 도움으로 경상남도 면포조합의 서기 자리를 얻었다. 면포조합은 도청 상공과 산하의 민간물자통제 단체였다. 요산은 짧은 처가살이를 마치고 부친의 도움으로 도청이 가까운 부산교도소 뒤편 넷가에 집을 마련했다. 서구 동대신동 3가 210번지가 그곳이고 이른바 ‘대신동시대’가 이렇게 열린 것이다. 1976년에 서구 동대신동 2가 313번지 삼익아파트로 옮기기까지 - 이 땅은 한국전쟁때 요산이 수감되었던 부산교도소 자리이다 - 요산은 그 집에서 30여년을 살게 된다. 면포조합에 근무하는 동안 그는 일본인 양자가 되어 일본인 행세를 하는 상급자를 혼내주는 에피소드 정도를 남기면서, 그리고 5월 부친상을 당하면서 8·15 광복을 맞이한다.

그러나 해방을 그는 숨어서 맞이해야 했다. 일경이 ‘불령선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예비검거나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구포에 있는 고아원으로 피신을 한 것이다. 이러한 해방맞이의 모습은 해방정국과 단독정부수립, 그리고 6·25로 이어지는 격랑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인생행로에 하나의 상징이 된다.

그는 <건국준비위원회> 경남지부에 참여하고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개편된 뒤에는 문화부에서 활동하면서 <조선문화단체총연맹(문련)>의 부산지부격인 <부산예술연맹>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한편으로 그는 <경남해방운동자위원회>에 동경유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희곡 작가 신고송과 참가하여 연극단체인 ‘희망좌’를 만들어 공연하

는 한편 부산-동래회생자 위령탑을 세웠다. 요산은 이 무렵 좌파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미군정 하에서 고초를 겪는 「옥중회갑」과 「설날」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민주신보』의 논설위원으로 그리고 『대중일보』에는 논설 및 칼럼을 기고하는 등 언론활동을 하기도 했다.

1947년 부산중학 교사로 취임함으로써 해방 직후의 좌파 사회활동을 대부분 중단하지만 단독정부 수립 후에도 요산은 일시 피신을 해야 하는 등 신변의 불안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신변위험은 부산대학교 조교수로 발령을 받았던 1950년의 전쟁 발발로 절정에 달했다. 결정적인 것은 일제강점기나 해방정국에서 진보적 시각으로 민족운동이나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관찰 관리하는 <국민보도연맹>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것이었다. 전쟁이 나자 그는 당시 부산근교였던 낙동강가 엄궁으로 피신했다가 군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때부터 아호인 요산(樂山)을 쓰기 시작했는데 요산은 스스로 그 의미를 인자수(仁者壽 : 오래도록 지조를 지키며 살라는)로 해석했다.

당시 보도연맹 가입자의 피해는 엄청났는데 미국정부의 압력과 비등한 국내 여론으로 이승만정권이 정식재판의 절차를 밟기 시작한 이후에 체포되었다는 점과 둘째 처남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요산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이때의 체험은 최후작 「슬픈 해후」(1985)에 잘 나타나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모래톱이야기」에 담겨있다.

대학교수로서 그리고 1959년에는 <부산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다 피신과 피검을 겪기도 했다. 4·19가 일어나고 민주당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는 남북통일을 촉구하는 어떤 강연에서 남북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교원노조>부산지부결성식에서 축사를 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1961년 5·16 쿠데타가 일



부산대학교 교수시절의 김정한

을 폭발시켰다. 66년 10월에 「모래톱이야기」 발표를 시작으로 「수라도」 「사뭇재」(1971)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1977)등 뛰어난 작품들을 썼다. 특히 노년의 나이에 다시 창작열을 불태운 제한으로서의 단편쓰기를 뛰어넘는 「수라도」는 민중이 아닌 양반가문의 가족사를 민족사와 연결시키면서 “양반가문의 근대적 해체를 격조 높은 리얼리즘으로 묘파”해 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주인공 가야부인은 “한국 현대문학이 창조한 가장 매력적인 형상의 하나로” 손꼽기도 한다.

1974년 2월 정년 뒤에도 부산대학교 대학원과 동아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면서 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문학단체와 사회단체 결성에 앞장서면서 후배들을 독려했다. 1974년에는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고문을, 동년 12월에는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 그리고 1976년에서 1977년까지 ‘한국엠네스트’ 위원으로 일했으며 1985년 5월에는 부산에서 결성된 ‘5·7문학회’의 고문을 맡아 지역후배들을 격려했다. 또한 1987년 10월에는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으로 추대되고 이후 명예회장을 지냈다. 요산은 이미 1967년 경 ‘한국문인협회’ 및 ‘예총’ 부산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었다.

노후에 그는 협심증과 폐기종으로 시달렸다. 1992년 병환중 가톨릭 영세를 받았으며(영세명은 요셉) 1996년 11월 28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남천성당에서 타계하였다. 감기 기운

으로 동아대부속병원에 입원했다가 임종을 남천성당에서 맞은 것이다.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묘택은 양산시 어곡동 신불산공원묘지로 했다.



어려운 시절에 만들어진 부산의 문학단체에서 후배들을 격려하는 요산

### 낙동강 - 현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학공간

요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무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소설에 담아내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세계는 지방색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을 한국문학에 우뚝 서게 한 것은 한반도의 끝자락 낙동강 하류에 사는 민초들의 삶을 보편적인 한국 근현대사의 고통과 저항의 모습으로 그려내었기 때문이다.

요산은 자신의 문단복귀와 문학관, 그리고 지식인의 자기반성을 담아낸 「모래톱 이야기」에서부터 낙동강과 부산 근교를 소설의 공간으로 들여오기 시작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는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조마이섬의 땅은 본래 나라의 역둔토였다가 일제강점기에는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하고 불하하여 일 본인들 손으로 넘어간다.



을숙도 갈대밭에서의 요산 - 최민식 찍음

해방이 되지만 소유권은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권력을 동원한 국회의원과 유력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만다. 결국 광복 후에도 일반 민중의 억압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요산은 건우네 가족의 비극을 통해 참담한 분노의 눈으로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고통과 불의에 맞서는 갈밭새영감의 강한 저항정신을 통해 민중의 전형을 창조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가난한 조선인 동리에 사는 일본인 철도노동자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를 해방 뒤까지 연결시켜 한일 양국의 민중 연대를 이야기하는 「산서동 뒷이야기」(1971)의 무대도 낙동강을 앞에 둔 양산시 물금으로 하고 있다.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소설 중에서 부산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삼랑진인데 이곳을 배경으로 한 「뒷기미 나루」(1969)는 50년대 반공이데올로기에 희생된 가족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산은 앞서 언급한 「수라도」를 비롯해 낙동강 하류 마을을 배경으로 변경에서 고통 받으면서도 민족정신과 저항정신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의연한 인물들을 창조해냄으로써 우리 고장을 넘어선 ‘낙동강의 파수꾼’이 된 것이다.

금정산 옆구리를 타고 노포동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일컫는 「사밭재」의 ‘송노인’을 두고 요산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사람들은 무척대고 그를 고집장이라고만 하지만 … 손발 꼭 움츠리고 앉아서 날씨니 세월이니를 기다린다는가, 그러고서 기껏 웅알거리거나 하는 따위를 그는 아주 싫어했다. … 말하자면 그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힘껏 부딪쳐 보는 것이다.”

요산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았지 누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거나 쉬 포기하지 않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고 나면 그는 옳음을 위해 발을 내디뎠다. 그의 기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모가 나가거나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꼽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그는 노년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일을 맡기도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몸담고 사는 현장과 현실을 중요시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나이와 명망을 내세워 거들먹거리거나 뒷짐 지고 불평하느니 직접 나서서 게 그의 성품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현실주의자였다. 「항진기」(1937)에서 얼치기 관념주의자를 비판함은 물론 「수라도」의 가야부인이 긍정적으로 형상화된 것도 현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을 포함한 우리 근대문화운동이 중인 계층에 의해 출발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실주의의 약점은 역사와 관계된 정신적 가치를 등에 지지 못함으로써 시류에 민감하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일부 휘철한 문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요산은 거의 생래적인 선악에 대한 판단력과 부단한 자기 채찍질을 통해 시대의 질곡을 헤쳐 간 희귀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그는 문학이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인간적인 삶을 방해하는 시대와 권력에 대해 힘없고 약한 약자의 편에서 맞서는 ‘양심선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요산은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작품과 세상에 대한 자기 엄격함을 지켜나갔다. 그의 지조도 자기 엄격함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요산 김정한은 「산거족」(1971)에 나오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협한다든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은 아니다.”는 말을 통해 문학이 인간을 인간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뚜렷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한 평생 반식민 반독재의 반골의 삶을 산 김정한은 우리근현대문학의 주요한 흐름인 사실주의 문학을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민족문학의 완성에 큰 걸음을 내디딘 부산이 낳은 위대한 작가이다.

■ 경성대학교 교수 조갑상

#### 4. 이영도(李永道)



정운(丁芸) 이영도(1916~1976)는 해방직 후 불모지나 다름없던 현대시조계에 한국적인 정한(情恨)을 깔끔한 언어로 다듬어 현대시조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인 시조시인으로 꼽힌다. 1954년 부산 남성여중고교 교사로 부임한 것을 계기로 부산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시작활동과 함께 「달무리회」 「꽃무리회」 등을 조직하여 여성교양운동에 힘을 썼는가 하면 부산어린이집 관장을 역임하는 등 부산을 위해 많은 공적을 남겼다. 이영도는 1916년 10월22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호동에서 선산 군수였던 이종수와 어머니 구봉래 사이의 3남매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바로 위 오빠는 문단에서 널리 알려진 시조시인 이호우(李鎬雨; 1912~1970)이다. 이영도의 증조부는 을사조약 뒤 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 향리의 뒷산인 용각산에 ‘대운암’이란 암자를 지어 속세를 등졌고 조부 이규현(李圭現)은 일제 치하에서의 벼슬을 단념하고 고향에 의명학당이란 사립학교를 세워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버지 이종수는 관직을 따라 객지로 돌아다녀 1년에 한두 번쯤 집에 들러가 말까 였다.

그래서 이영도는 부정(父情)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자랐으나 조부로부터는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할아버지 이규현의 지극한 사랑 속에 ‘아양단지’라는 애칭으로 통할만큼 귀여움 속에 성장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당돌하면서도 대담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영도가 일곱 살 무렵에 자기네 집 뜰 안을 흐르는 도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도랑이 하천부지라고 하여 군청에서 관리들이 나와 자주

성가시게 굴었다. 집터 안에 들어있는 도랑이 되다보니 서투르게 집터를 쪼개어 가를 수도 없고 해서 조부는 군청 측과 여러 차례 논란을 거듭했다. 그러자 어른들 틈에서 시비 내용을 듣던 어린 이영도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다. “집터 안으로 흐르는 도랑은 집터 바깥쪽에 그 만큼 땅을 파서 물길을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뒤 하천부지 말쟁은 일단락 됐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일본인 관리는 “저놈의 계집애 나중에 큰일을 저지르고 말겠는데...”하며 두고두고 혀를 찼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손녀딸의 반골기질을 의식했음인지 객지로 내보내 공부시키는 일을 몹시 꺼렸다. 그리하여 이영도는 공부를 뜻대로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꿈꾸어 왔던 북경유학도 포기해야 했다. 오빠 이호우는 일본 유학까지 하고 그의 사촌들은 모두 다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이영도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조부가 세운 의명학당의 교사였던 현창식 선생을 집으로 모셔와 국어와 역사를 배웠다. 의명학당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이미 공립보통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이규현은 한학과 한시(漢詩)에 뛰어난 밀양 영남루의 유학자였으므로 집안에는 향시 문인문객들이 출입해 율창(律唱)을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은연중에 시율(詩律)에 귀가 텅졌을 뿐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는 「논어」 「장자」 「채근담」 등을 배우고 익혔다. 이 때 익힌 동양 고전들이며 유교적 교양과 덕목은 이영도가 60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외딸 진아와 함께

1937년 봄 이영도는 21살 나이에 할아버지가 정혼해 둔 대구 만석꾼의 아들 박기수(朴基樹)와 결혼했다. 남편은 이영도보다 한살 위였고 이목구

비가 수려했으나 병약했다. 이영도는 북경대학의 정치과에 유학해서 정치계로 나가고 싶었던 포부를 접은 채 결혼했지만 남편은 8년 만에 딸 진아를 남긴 채 1945년 작고했다.

### 시작(詩作)활동과 교편생활

이영도는 남편이 죽자 독립하기로 작정하고 딸을 데리고 시집을 나와 자립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대구의 범시민적 동인지인 『죽순(竹筍)』에 「제야(除夜)」라는 시조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데뷔하였다. 『죽순』지는 한국전쟁 당시까지 자유진영의 유일한 문화단체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신인 추천제도가 있었다.

‘밤이 깊었는데도 잠들을 잊은 듯이/집집이 부엌마다 기척이 몇  
지않네 / 아마도 새날 맞이해 이 밤 새우나 부다.....할머니가 오시  
고 새해는 돌아오네 / 새로운 이 산천에 빛이 한결 찬란하다/어떠  
한 고담을 캐며 이 밤들을 새우노.’

이영도의 데뷔작품 「제야」의 일부다. 이어 이영도는 「바위」 「머  
연 생각」 「병고(病孤)」 「맥령」등을 차례로 발표하여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갔다. 이영도가 생활터전을 부산으로 옮긴 것은 1954년  
무렵으로 7년 동안 근무했던 통영여고에서 부산의 남성여자중고등  
학교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시조시인 초정(艸丁) 김상옥(金相沃)  
선생이 남성여중고교에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영도를 초  
빙한 것이다. 통영여고에서 이영도는 수예를 가르쳤으나 남성여중  
고교에서는 국어를 가르쳤다. 남성여중고교에는 역시 시조를 쓰는  
서정봉이 교장으로 있어서 이영도는 교장의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남성여중고교 뒷산에 거처를 마련한 이영도는 그 방에 ‘수연정’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영도는 여중생들에게 국가와 민족의식을 일깨워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주기도 하고 세시(歲時)와 풍속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등 지난 시절 현창식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은 교훈들을 깊이 심어 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유년시절부터 암기해 뒀던 100수가 넘는 시조를 읊조리거나 즉흥적으로 시조를 짓는 등 문학적 역량을 한껏 발휘하였다. 이영도가 시를 읊는 시간이면 학생들은 울창 속에 빠져들어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이영도는 발랄한 사춘기 소녀들을 상대로 재치있는 화술과 감성으로 하루 4시간씩 강의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 ‘수연정’에서 첫 시조집인 『청저집(靑苧集)』을 발간했다. 그러던 중에 지병인 ‘폐침윤’이 도져 잠시 마산의 성지여자중학교로 휴양 겸 전근을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남성여중고교에서 교편생활을 계속했다.

1956년 첫 수필집인 『춘근집(春芹集)』을 자비로 출판했다. 그

리고 부산여자대학(현 신라대학교)에 강사로 출강하면서 부산일보 문예란에 고정적으로 원고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로 「바람」 「지리산초(智異山抄)」 「한라산」 「설악산시초(雪嶽山詩抄)」 「4월의 하늘 아래서」 등의 시조를 『현대문학』과 『현대시학』 등의 월간 문예지에 발표하는 등 왕성한 시작활동을 펼쳤다.



경남여중 제자들과 함께

## 꽃무리회 활동과 놀원문화상

이영도는 동래 차밭골에서 살다가 수필집 『춘근집』을 낼 무렵에 동래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구(舊)정문 맞은 편 부근의 장림주택 7호에 안착하였다. 이 집의 당호를 ‘애일당(愛日堂)’이라 짓고 1960년 8월 무렵에 시를 좋아하는 여성들을 모아 「달무리회」를 만들었다. 가정주부로 구성된 달무리회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애일당에 모여 합평회를 가지기도 하고 시조시인 고두동(高斗東) 등 문단의 중진 시인들을 불러 월평을 듣기도 하였다. 달무리회는 여성 시조동인의 성격으로 7회 이상의 모임을 가졌는데, 아마도 한국 최초의 여성 시조동인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영도는 달무리회를 이끌어가는 한편으로 애일당 이웃 주민들을 중심으로 「꽃무리회」를 발족했다. 당시만 해도 애일당 근처는 허허벌판의 삭막한 늪지대였다. 키를 넘는 풀들이 무성해 삭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영도는 이웃 10여 가구 주부들과 함께 마을환경 미화작업에 나섰다. 처음엔 매월 한번씩 만나 식구들 치다꺼리에 잊혀지기 쉬운 주부들의 생일을 자축하며 작은 선물 주고받기의 친목계 형태였다. 그러다가 서서히 ‘내 집 앞 내가 쓸기’등의 환경가꾸기 운동 형태로 확산되었다. 회원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담장 아래와 길가에 꽃을 심고 ‘꽃모종 나누기’ ‘옷가지 나누기’ ‘절미운동’ 등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꽃무리회」는 여성사회활동단체로서의 전통을 이어받아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다. 1963년 5월 이영도는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부산 어린이집」 관장에 취임했다. 부산진구 범내골 옛 혜화학원 근처에 자리잡은 어린이집은 5백여평의 대지에 세워져 탁아시설과 급식소, 의료봉사, 도서관 운영 등 극빈가정 자녀를 위한 제반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관장직을 맡은 이영도는 관청과 사회단체, 기관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어 어린이집 일이 잘 돌아가도록 힘을 썼다. 어린이집 회관에서는 그림 전시회, 동화듣기대회가 열렸는가 하면 아동문학가들에게 회관을 무료로 빌려주는 등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문화운동본부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 무렵 강사진으로는 시인 최계락, 동화작가 박돈목, 소설가 이주홍 등이 있었다. 이영도는 50세가 되던 1966년 사단법인 놀원문화재단이 시상하는 「놀원문화상」을 받게 된다. 놀원문화상은 예술, 행정, 언론 및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인재에게 주는 상으로서 이영도는 문학부문 수상자가 되었다. 놀원문화재단의 기록에는



시조시인과 함께(왼쪽부터 김남환, 이영도, 박옥금)

“『청저집』 『춘근집』의 저서가 있으며 한국문인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창설회원으로 활약하고 「달무리회」, 「꽃무리회」 등을 통한 여성교양운동과 「부산어린이집」 관장으로써 크게 이바지했다”

라고 수상공적을 적고 있다.

1968년에는 오빠 이호우와 함께 오누이 시조집 『바람불고 비읍니다』를 펴냈다.

토장맛 덩덩이 뻥 / 석새 베 특진 태생 // 두견은 싫다지만 / 울 수라도 있잖던가. // 말없이 가슴앓이여/보라! 멧힌 핏방울.

-이호우의 「석류」전문-

다스려 다스려도 / 못 여밀 가슴 속을 // 알알 익은 고독 / 기어이 터지는 추정 / 한자락 / 가던 구름도 / 추녀 끝에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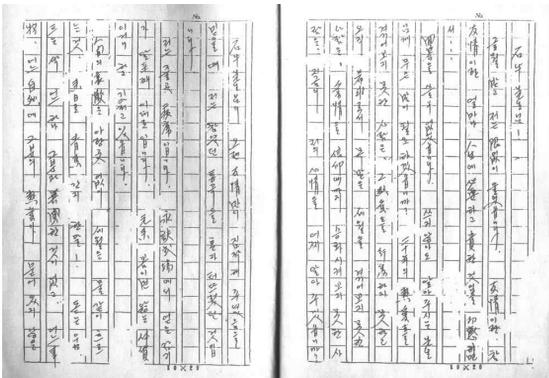
-이영도의 「석류」전문-

석류라는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오누이가 각기 다른 뉘앙스로 표

현하고 있는 시조 경연 모습은 많은 이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샀다.

### 청마(靑馬) 유치환과의 로맨스

이영도가 청마를 알게 된 것은 통영여고 교사로 있을 때였다. 당시 통영여고에는 유치환(柳致環; 1908~1967)이 국어선생으로 있었고 작곡가 윤이상, 화가 전혁립 등 쟁쟁한 예술가들이 교편을 잡고 있어 ‘문화여고’라는 이름이 생겨날 정도였다. 이영도는 수업을 가르치는 한편 기숙사 사감 직책도 함께 맡았다. 이영도의 처소였던 기숙사는 마침 청마의 부인 권씨가 경영하던 「문화유치원」에서 멀지않은 몇분거리에 있었다. 청마는 가끔씩 그 앞을 지나다가 이영도를 만났다고 한다. 사실 그들은 애정이 싹트기 이전부터 『죽순』 지 동인으로 같이 활동했으며 부산의 시 동인지에도 함께 관여했다. 그러던 것이 『현대문학』 지를 친필로 써서 서로 상대방에게 선물하고 문학의 길을 같이 가는 지기지우로서 서로에게 작품을 써서 보여주며 시평(詩評)과 격려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나중에는 1주일 간격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일기를 쓴 뒤 서로 나눠보며 사랑을 확인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했다. 그렇게 20여년 동안 두사람이 주고받



이영도의 친필 편지(石牛는 『죽순지』 주간이며 친구시인)

은 편지만도 5천통이 넘을 정도였다. 1967년 청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이영도는 그에게서 받은 수천통의 애정편지를 정리하여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라는 서간집을 발간하였다.

당대를 주름 잡던 남녀 두 시인의 애정 서간집은 일대 세세

이션을 일으켰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문단 일각에서는 이영도에게 ‘비도덕적이다’ ‘편지를 팔아먹은 못된 문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애정서간집은 1968년도 비소설부문에 단행본으로서는 유래가 드문 2만5천부가 팔렸다. 그러자 판권과 인세 소유권 문제가 다시 한번 유족과 이영도 사이에 불거졌다. 그러나 모든 이익금은 「현대시학사」로 넘겨져 시문학상 기금에 쓰기로 결정이 났다. 그것이 이영도의 호를 딴 「정운문학상」의 기금이 되어 매년 연말 그 해에 발표된 시조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 시상하게 되었다. 두 시인이 모두 작고하고 없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서로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지(知)와 미(美)를 나누며 당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청마와 이영도의 ‘사랑법’은 하나의 「문학적 기념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청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 안되어 이영도는 일생의 영주처로 생각했던 애일당을 버리고 상경하게 된다. 그러나 부산에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이영도의 마음 가운데 부산은 언제나 아름다운 곳으로 자리잡고 있음이 그의 수필 곳곳에 드러난다.

“내가 살고있는 이 차밭골은 원 마을이 푸른 울타리로 되어 있어 뉘집을 둘러보아도 신선한 기운이 풍기고....탱자꽃들의 그윽한 향기가 뒷산 솔바람과 함께 얼마나 사람의 감정을 기름져 주는지 모른다.”

“저 관악을 넘어 남쪽 천리 밖에는 내가 살던 애일당이 지금 쫘 누런 모과와 주렁주렁 열매를 가지 끝에 달고선 잣나무가 추청(秋晴)을 업고 서있을 것인가.”

이영도의 수필 「울타리」와 「창가에 앉아」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산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다. 1974년 3월부터 이영도는 중앙대학교에 출강하기 시작했고 1975년에는 시조협회 회장과 여성문학인



여성문학인회 문우들과 동학사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회 부회장에 피선되는 등 화려한 문단 경력을 이어갔다. 그러던 1976년 3월6일 이영도는 뇌일혈로 자택에서 쓰러졌다. 향년 61세였다. 이영도의 장례는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 구상(具常) 등 200여명의 조문객들

이 모인 가운데 문인장으로 치러졌다. 이영도 자신이 10여년전 직접 마련해둔 아름다운 수의에 육신을 감싸고 홀연히 이승을 등진 것이다. 무남독녀 박진아가 유품을 정리하니 미리 써둔 유서가 나왔고 죽음을 알릴 사람의 이름과 장례비까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남에게 신세 지기를 싫어한 이영도는 딸에게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다.

## 정운의 문학세계

‘너는 저만치 가고/나는 여기 섰는데..//손한번 흔들지 못한 채/  
돌아선 하늘과 땅//애모는/사리로 맺혀/푸른 돌로 굳어라’

- 「탐Ⅲ」전문

“나의 시조는 내 목숨의 기도”라고 소신을 밝혔던 정운 이영도는 1945년 등단이후 타계하기까지 200여편의 시조 작품을 남겼다. 저서로는 『청저집』(1954년) 오누이 시조집인 『비가오고 바람이 불니다』(1968년) 유고시조집 『언약』(1976년) 등이 있고 수필집으로 『비둘기 내리는 뜨락』(1966) 『머나먼 사님의 길목』(1971년) 유고수필집 『나의 그리움은 오직 푸르고 깊은 것』(1976년) 등이 있다.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박재삼(朴在森) 시인은 이영도의 시조세계를 “애모와 회한이라는 정감을 통한 민족정서의 재현”이라고 개괄했으며 『한국시조큰사전』에는 이영도를 가리켜 현대시조가 지녀야 할 예술성을 승화시킨 시인 중 한사람이라고 꼽고 있다. 청저집 출간이후 이영도의 작품세계는 여성 특유의 연연한 그리움과 낭만, 기다림에서 탈피하고 시선이 사회로 옮겨진다.

‘4월의 이 거리에 서면/내귀는 소용도는 해일//그날 동해를 덩굴  
며 부서지던 포효//그속에 네 목청에 겹쳐/이 광장을 넘친다//정작  
발길 댄덤해도/한 가슴 앓는 상흔/녹물같은 얼굴마다//천이요/만의  
푸른 눈매가/나를 세운다.

- 「광화문 네거리에서」

‘눈이 오시는 날에 동작동 묘지를 걷는다/뜨겁게 목숨을 사뤼도  
사무침은 돌로 썼네’

- 「낙화(落花)」의 일부

이렇게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성 짙은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영도의 60생애는 시문(詩文)에서 뿐 아니라 용모와 자태, 언행 등에서도 ‘마지막 조선의 여인’이라는 애칭이 붙여졌을 만큼 정갈하고 단아했다. “그를 맨 처음 대한 것은 청저집 출판기념회 자리에서였다. ‘청저(靑亭)’란 글자 그대로의 한복을 입고 청아하게 앉아 있는 그 첫 인상이 바로 ‘마지막 남아 있는 조선여인’이던 것이었다.“1979년 『죽순』 동인지에 발표한 향파 이주홍의 「정운 생각」이란 수필의 한 대목이다. 향파의 표현대로 이영도는 평생 한복을 즐겨 입었으며 바느질이나 염색도 손수 할 때가 많았다. 여름에는 옥색 모시적삼, 하얀 모시옷을 즐겼고 겨울엔 주로 진보라와 검정 한복을 입었다. 머리는 늘 동백기름을 발라 땅아서 뒤로 말아올렸

다. 매무새가 언제나 단정하고 기품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교편생활과 원고료 수입으로 딸을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 유학시킨 열혈 엄마였지만 자신은 철저한 내핍생활을 하였다. 택시를 타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물건을 샀던 포장 노끈까지도 잘 간수했다가 재활용했고 원고지 뒷면의 활용은 물론 편지를 쓰다가도 틀린 곳은 종이를 다시 덧붙여 썼다.

‘사흘 안 끓여도 솔이 하마 녹슬었나/보리 누름철은 해도/어이 이리 길고/감꽃만 줍던 아이가 몰래 솔을 열어보네’



이영도 시비(부산시 동래구 금강공원 소재)

‘진아에게 엄마가 주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영도의 시 「보리고개」 전문이다. 성인이 된 외딸 진아에게 보리고개를 겪는 가난한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늘 기억하고 삶의 보릿고개에 닥칠 때 그것을 인내와 덕성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듯하다. 자신의 삶은 절약하면서도 남을 위한 배려는 돈독하였다. 동료문인들의 딱한 사정을 접하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우고자 하였다. 평생을 손끝이 닳도록 원고를 썼고 인간에 대한 애정 뿐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에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보냈다. 치열하게 살았던 이영도의 유해는 밀양 유천 선산에 오빠 이호우 곁에 묻혔다. 그리고 1996년 3월 이영도의 문학혼을 기리는 시비(詩碑)가 정운이 끄적이도 사랑하고 아꼈던 금정산 자락의 금강공원에 세워졌다.

■ 희곡작가, 전 부산일보 논설위원 김숙현

## 5. 이주홍(李周洪)



이주홍(1906~1987)은 강양(江陽, 혹은 합천陔川) 이씨 첨사공파(詹事公派) 33세손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1906년 5월 20일 아버지 이정식(李正植, 호적에는 동신東信, 자는 성오成五)과 어머니 강정화(姜汀華) 사이에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진양(晉陽) 강씨 두횡(斗橫)의 2녀로서, 본관은 진주이다. 향파의 외숙은 만정(晩汀) 강만달(姜晩達)로, 당시 뛰어난 한시인이었다. 『강양(합천) 이씨 계보』에는 환주(煥周)로, 『호적』에는 주홍(柱洪)으로 올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홍(周洪)으로 적었다. 호는 향파(向破)인데, 필명으로는 향파(香波), 향파(向破), 주홍, 여인초(旅人草), 방화산(芳華山), 망월암(望月庵) 등을 사용하였다.

### 생애와 문학활동

향파는 1906년 경남 합천의 읍내에서 이십 리 정도 떨어진 영창이라는 농촌의 산밑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 위로는 형이 둘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이때 그의 아버지 나이가 서른 여섯 살이었고, 어머니가 스물 여섯 살이었는데, 결혼 후 10년만에 그가 태어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다섯 살에 모친을 여의고, 열두 살 때 부친을 여윈 뒤 형편이 괜찮은 백부의 그늘에서 일종의 고아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어렸을 때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다. 아버지는 들일을 나가고 어머니는 시삼촌 집의 일을 거들어 주며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그는 어려운 집안에서도 부모가 늦게 낳은 자식이라 매우 사

량받은 듯하고, 그 역시 부모님을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하였다고 한다.

1918년 고향에서 합천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친의 명에 따라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했다. 그의 공적 학력은 보통학교 졸업이 전부이다. 그의 어렸을 때의 취미는 그림, 음악, 연극, 문학책 읽기 등이었다. 그뿐 아니라 『삼우』, 『형제』, 『신소년』, 『자양일보』 등의 이름을 단 개인잡지나 마을 신문을 펴내는 등 일찍부터 편집과 글쓰기에도 재능이 있었다. 그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면서기 후보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면서기가 될 수는 없었다. 어린 시절의 농촌에서 겪은 가난의 체험은 훗날의 창작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여겨진다.

1922년 서울로 가서 고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문학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를 포기하고 실의에 빠져 1923년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거들면서 문학과 음악과 미술로 세월을 보냈다. 이때 아동잡지 『신소년』에 동요를 지어 투고하였더니 그것을 그대로 실어 주었기에 문학에 대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21년 4월 1일부터 1924년 3월 15일까지 ‘경성 한성중학원’을 다니고 졸업한 것으로 그의 자필 이력서의 학력란에 적혀 있다. 그가 1921년에서 1924년까지 거주지를 합천, 서울, 합천으로 옮겨다닌 것으로 본다면 한성중학원은 정규 교육기관은 아닌 듯하다.

1924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탄광, 토목, 철물, 문구, 제과 공장 등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하면서도 방대한 중국 경서를 독학으로 공부했다. 무서울 정도로 향학열을 불태우게 된 것이 바로 이때인 듯하다. 이때 향과는 1925년 4월 1일부터 1928년 3월 26일까지 3년 동안 ‘동경 정칙영어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에 이르자 히로시마에서 교포교육을 위한

사립 근영학원에서 1928년 4월 1일부터 1929년 1월 31일까지 교편을 잡게 되고, 문학에 대한 열정을 다시 발산하기에 이르렀다.

1928년 『신소년』지에 투고한 「배암색기의 무도」라는 동화가 독자란 아닌 본문에 실렸는데 이것이 그의 문단활동에 있어서 첫 데뷔작품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1929년 서울에 돌아온 뒤에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투고한 시가 간간히 실리기도 하였으며, 광도고사(廣島高師)의 우리나라 학생이 내는 잡지에 다다 같은 난해한 내용의 소설을 한 편 실었다고 한다.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공모에 투고한 단편 「가난과 사랑」이 입선되어 문학에 대한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오게 된다. 일본에서 지낸 6년이 그의 문학적 경험의 직접적인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1929년 서울로 온 그는 당시 개벽사의 편집일을 보던 신형철의 도움으로 생활해 가면서 많은 문인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의 동화가 수록된 『신소년』의 편집장이 되었는데, 이 시절을 회고하여 ‘맨발의 편집장’ 시절이라고 하였거니와, 월급은 없고, 밥은 사주 이 중건의 집에서 먹고, 잠은 잡지사에서 자면서, 원고 쓰기부터 표지, 삽화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도맡아하는 일인 다역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그는 조선프로예맹(KAPF) 미술분과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신소년』지의 편집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문학의 길로 들어서서, 『여성지우』에 잇달아 3편의 소설을 발표한다. 이후 『신소년』, 『음악과 시』, 『별나라』, 『우리들』 등에 동요, 동화, 동극, 소년소설 등을 발표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가로서 활동한다. 이 시기는 향파의 아동문학시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운동과 아동문학작품 창작에 매진한 시기다.

1935년 조선프로예맹이 해산되고 난 뒤, 1936년부터는 소설 창작에 매진하여, 「산가」, 「여운」, 「하이네의 안해」를 잇달아 발표하

고, 그리고 「야화」(1936. 10-1937. 5.)를 『사해공론』에 연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1936년 『풍림』이라는 순문예지를 편집·발간하였다. 이 잡지는 편집 겸 발행인이 홍구로만 알려져 있지만 향파와 홍구가 같이 발간한 것으로, 1937년 5월 제6집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당시에 벌써 잡지 편집에 일가를 이루었고, 특히 ‘문단만화’는 거의 독보적이었는데, 이 만화로 인해 이태준, 김문집 등과는 원수지간이 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이후 『영화 연극』이라는 잡지를 편집하기도 하고, 종합잡지 『신세기』의 편집장을 맡기도 하였다. 1940년 신세기사를 그만두고, 한양영화사에 입사했으나 회사가 부실한 탓으로 곧 퇴사하였다. 또한 이 해에 열일곱 살이던 셋째 누이동생이 장티푸스로 죽게 된다. 자신의 말을 빌면 이 해가 ‘실직, 무전, 실연, 유전, 자살유혹 등이 겹친 생애 최고 수난의 해였다’고 한다.

1945년 봄 평소 일제에 의해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당하고 몇 차례 하숙에서 가택수사를 받았던 그는, 결국 고향인 함천에서 올라온 형사에게 붙잡혀 거창 검사국에 송치되어 옥고를 치루게 된다. 이때 그는 배재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광복이 되자 유치장에서 풀려 나와 상경하여 배재중학교에 다시 교사로 근무하면서 『초등국사』를 펴내고, 연극운동에 몰두하면서, 새시대 건설에 노력한다. 그리고 다시 사회주의 문학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1945년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에 맹원으로 참여하여, 중앙집행위원과 아동문학부 위원을 맡고, <조선프롤레타리아 미술동맹>의 위원장과 중앙협의원과 조직부원으로 참여한다. 이어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연맹>에 미술 부문의 상임위원과 중앙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의 특수위원회인 ‘아동문학위원회’의 위원으로, 개편된 서기국의 출판부원, 서울시 지부의 집행위원으로 선임된다. 그리고 그는 『신소년』을 이어받은 아동잡지 『새동무』의 편집을 맡으면서 1947년



못난 도야지(1947년)

최초의 동화집 『못난 도야지』를 아동사에서 발간한다. 이 동화집은 일제시대 발표한 작품 8편이 실려 있다. 이처럼 해방공간에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회주의 문학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47년 부산으로 내려와 사회주의 문학단체와 손을 잡고, 동래 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며 연극운동에 몰두했다. 희곡 창작뿐 아니라 연출까지 맡아 부산의 연극계를 이끌어 갔다. 1949년 2학기에 부산수산대학의 전임강사로 부임하면서 1972년 퇴임하기까지 이 대학에서 근무하였다. 1956년 첫 단편집 『조춘』을 발간했다.

1958년 부산 아동문학회를 창립하고 부산의 아동문학운동을 이끌어 가면서, 아동문학창작에 주력한다. 1965년 『현대문학』 11월호에 「바다의 시」를 발표하면서 다시 소설창작을 재개하였다. 이때부터 1984년 78세에 이르기까지 50여 편의 소설을 정열적으로 발표한다.

또한 1965년에 김석환, 김종출, 김하득, 박지홍, 유지환, 이상근, 이영도, 이용기, 이주호, 최준호, 최해군, 허창 등과 더불어 동인지 『윤좌』를 발간하였으며, 1966년에는 월간문예지 『문학시대』를 태화출판사 추성구 사장의 도움으로 창간하여 주간으로 일하면서 제7집까지 간행하였다. 『문학시대』의 간행은 당시 부산지역으로서는 획기적인 일로서, 편집 방침에 따라 부산과 서울의 필진을 반씩 구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78년에 박노석, 조순, 송원희, 박순녀, 빈남수, 서인석, 오제봉, 임신행 등과 동인지 『갈숲』을 창간하였다. 향과는 부산문학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문학지와 동인지의 발간을 위

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1965년부터 1987년까지는 소설과 아동문학작품을 함께 정열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때가 그의 나이 60-80세에 이르렀으므로 작가로서 노익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문학적 업적과 인간적 면모

이주흥은 아동문학, 소설, 시, 희곡, 시나리오, 수필, 번역, 만문만화 등 문학의 전분야에 걸쳐서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엄청난 분량의 작품들을 쏟아낸 다산성(多産性)의 작가이다. 또한 작품 창작뿐만 아니라 연극 연출, 잡지 편집·제본, 잡지 표지화, 컷, 작사, 작곡, 만화, 회화, 서예 등에도 상당한 조예를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예술가로서도 활약하였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배재중학교, 동래중학교, 부산수산대학교의 교사와 교수로 재직하며 뜻있는 교육자의 길을 걸기도 하였다. 이처럼 작가이자 예술가, 그리고 교육자로서 향과가 걸어간 80여 년의 세월은 단순히 한 뛰어난 개인의 발자취로서가 아니라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해방기의 좌·우익의 사상적 대립과 한국 전쟁, 근대화와 군사독재라는 고난의 한국 근대사와 마주한 삶이며 역사에 대한 개인의 창조적 응전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향과는 일반적으로 김정한과 더불어 부산문학의 터를 다진 작가로, 특히 소설문학과 아동문학 그리고 희곡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부산문단의 거목이자 대부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아동문학 작가로서 그의 위상은 지역문학을 넘어 한국 근대아동문학을 개척한 원류로 평가받는다. 또한 소설가로서의 위상 역시 문혀 있었던 작가적 역량과 의의가 복권되며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정당하게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는 소설작품 속에서 서민들의 소외된 삶과 타락한 현실상태를 그려낸다. 지게꾼, 떠돌이, 서커스단원, 음식점 접대부, 반통이 장수, 거지 등의 서민들의 소외된 삶에 초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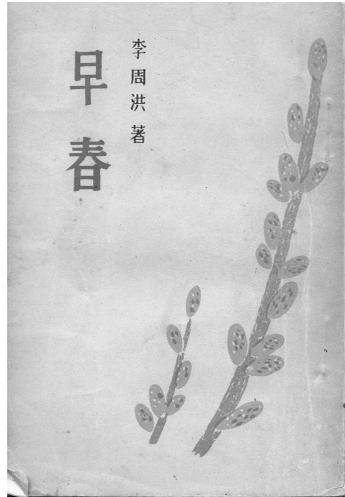
맞추어 이들의 일상을 리얼하게 묘사한다. 또한 왜곡된 현실과 역사에 대해 비판하면서 아울러 노인 문제와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요컨대 그의 소설작품은 인간다운 삶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 냉철하게 비판하는 건강한 역사 의식을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현실적 문제를 다루되 그것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거나 적극적 해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갈등을 화해와 포용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창작방법의 문제로서, 현실로부터 거리두기의 방법으로 걱정을 다스리고 그로써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독단적 판단이나 선부른 단정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문제의 문제됨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자는 진지함과 섬세함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독자에게도 스스로 생각하여 해답을 구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인 것이다. 이러한 창작방법과 작품세계를 김중하(부산대 명예교수)는 서정적 리얼리즘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화해와 포용의 모성지향적 작가의식은 아동문학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의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백지상태의 수동적 존재가 아닌 작품을 적극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능동적인 독서주체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이루어낸 산물이다. 예컨대 어른의 관점에서 상상적으로 회상하는 관념적인 동심의 세계를 회구하거나 자칫 계몽적 목소리만 앞세우는 목적의식이 강한 교조적 태도를 강요하지 않고 어린이의 눈으로, 어린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동화될 수 있도록 특유의 기지와 해학, 풍자를 구사하며 동심의 세계를 형상화하였다. 모성지향적 의식의 근본적인 원리가 타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반추하고 끌어안는 것이라고 할 때 그의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러한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주제화시키기 위해 독특한 해학과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이러한 점이 오늘까지도 향과의 동화, 동시 등이 어린이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60여 년에 이르는 문학활동 중에 그가 남긴 작품집만 해도 200여 권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집으로 『탈선 춘향전』(1951), 『조춘』(1956), 『해변』(1971), 『풍마』(1973), 『어머니』(1979), 『아버지』(1982), 『깃발이 가는 곳을 향하여』(1984) 등이 있고, 아동문학집으로 『못나도야지』(1947), 『아름다운 고향』(1954), 『피리부는 소년』(1955), 『비오는 들창』(1955), 『외로운 째보』(1959), 『톡톡 할아버지』(1961), 『못나도 울엄마』(1977), 『청개구리』(1978), 『철우요술통』(1983), 『사랑하는 악마』(1983) 등, 번역작품집으로 『수호지』(1960), 『서유기』(1966), 『홍루몽』(1968), 『중국해학소설전집』(1971), 『삼국지』(1975), 『금병매』(1985), 『열국지』(1988)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수필집이 있다. 그리고 향파의 수상 경력은 제1회 부산시문화상(1957), 제1회 경남도문화상(1962), 제1회 부산대학학술공적상(1962), 늘원문화상(1968), 대한민국 예술원상(1979), 제1회 한국 불교아동문학상(1983), 대한민국 문화훈장(1984), 대한민국 문학상 본상(1985), 3·1문화상(1987) 등 그 문학적 재능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향파는 문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이같은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선배나 동료들은 물론 제자나 후배들을 항상 인격적으로 대했다. 큰소리로 누구를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며,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매우 싫어하였다. 모든 면에서 자상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잔정이 많아 후배들을 항상 챙기고 인간적인 격려를 아끼



조춘(1956년)

지 않았다. 특히 아끼는 제자들에게 청출어람(靑出於藍)의 고사를 주시시키며 작품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기도 하였다. 이런 면모와 관련하여 향파가 어느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다시금 되새겨볼만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쓸쓸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정겹고 믿음직스러웠던 사람들이 많



1936년경 중앙인서관 시절(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것도 찬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오늘의 세대 때문에 더 앞서 없어진 사람들이 그리워진다.” (수필집, 「바람의 길목에 서서」서문) 이는 후배들에게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세대를 걱정하면서 은연중에 약삭빠른 인간을 꾸짖는 경종의 의미를 담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당신의 삶과 정신을 지탱해온 울곧은 역사의식,

곧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선비의 기개와 강경한 지조의 내면에는 이상적인 올바른 삶에 대한 동경 이전에 현세적 삶에 대한 연민 어린 애정과 포용이 깔려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강남주(전 부경대총장), 김영(전 부산문화방송 사장) 등 제자들은 엄격하지만 관대한 스승으로서 향파의 자상함을 기리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주홍 아동문학상(이주홍문학상)을 만들고, 이주홍문학관의 건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1981년 제정한 이주홍 문학상은 2005년 현재 25회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그 명성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백운산 공원묘지의 추모 비석에 새겨진 시인 구상의 「추모송」은 향파의 삶과 문학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여기에 옮긴다.

“오롯이 팔십평생 / 붓하나로 사시면서 // 앉으신 키만큼의 / 작품집  
을 펴내셨네 // 이나라 문학전반에 / 큰발자취를 남기셨네 // 넓은  
도량에다 / 자상하신 그 마음씨 // 체구는 작으시나 / 거인으로 사셨  
어라 // 가시매 남은이 가슴 / 더더욱 사무치네”

1987년 작고한 후 그  
의 소장도서 육천여권  
외에 친필서화, 도자기,  
전각작품, 친필원고, 일  
기 등의 유품이 부인 박  
무연 여사에 의해 보관  
되어 오다가 2002년 이  
주흥 문학관이 건립되어  
여기에 고스란히 전시되  
어 있다. 이주흥 문학관  
은 이주흥 문학재단(이



이주흥 문학관(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사장 강남주)이 향파가 1971년부터 1987년 작고할 때까지 살았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177-18번지의 집을 부산광역시의 지원금으로 구입하여 새롭게 개축한 부산지역 최초의 문학기념관이다. 그러나 이 문학관은 장소가 협소하고 골목안이라는 위치에 너무 좁고 불편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 같은 동래구 온천1동 435-24번지로 옮겨 1층은 회의장 및 세미나실로, 2층은 전시실로 새롭게 단장되어 2005년 5월 20일 다시 개관식을 가졌다. 현재 부산의 문학예술인들의 모임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류종렬

## 6. 조 향(趙 鄉)



### 출생과 수학과정

조향은 1917년 12월 9일(음 9월 22일) 경남 사천군 곤명면 금성리 외가에서 아버지 조용주와 어머니 강숙희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명은 희제였고 본명은 섭제였다. 친조부 조직규는 나비그림을 잘 그려서 「조나비」라는 별칭이 있었고, 조선말 명필이었던 강매산은 외조부인데 조향은 이들 양가의 예술적 기질을 이어 받은 것 같다.

선생은 부친의 직장을 따라 1924년 산청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곤양초등학교를 거쳐 진주 제1공립보통학교에서 1930년 졸업하게 된다. 1932년 진주고등보통학교에 수석으로 입학, 우등을 하면서 양 조부의 영향 탓인지 미술, 습자,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조선어 선생이었던 박중구의 격려와 지도로 문학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진주고보를 1937년에 졸업, 그해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고 대구사범학교 강습과에 입학하여 1938년 수료, 그해 가락국민학교 훈도 발령을 받는다. 그러나 향학에의 꿈을 버릴 수 없어 훈도생활을 청산하고 1941년 일본으로 유학의 길을 떠난다. 그래서 일본대학 예술학원(현 예술학부) 창작과에 합격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같은 대학 전문부 상경과로 옮긴다. 그러나 애인이며 동료교사였던 배기은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가 일본 관헌의 검열에 걸려서 일본 경시청 내선과(內鮮科)에서 문초를 받다 민족주의 사상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추방당한다. 이것으로 그의 공식적 수학과정은 끝났으나 개인적

인 그의 문학에의 학문적 접근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된다.

### 인간적 면모

삼라만상은 음과 양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다. 조향도 인간이기에 더욱 그렇다. 조향 주변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의 약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인과의 복잡한 편력을, 둘째는 그의 독설이다.

조향은 1940년 23세의 나이로 김경필과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 결혼하게 된다. 뜻에 맞지 않은 결혼생활로 그해 이미 동료교사인 배기은과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배 선생은 조향이 연애편지로 검열에 걸려 문초를 받고 추방을 당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뒤 귀국하여 조향은 마산 성호국민학교에 훈도로 재직하게 되었는데 일본인 여교사 신모도 사다꼬, 시오즈키 타미 등과의 연애가 알려져 성안군 복원촌국민학교로 갑자기 좌천되기도 했다. 급기야 오래도록 별거해 오던 아내 김경필과는 1946년에 이혼을 하고 그 다음해 정복진과 재혼을 하여 자식들도 두게 된다. 그러나 사랑의 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50년대 후반에는 여대생 정모 양과 1960년대 초반에는 체조담당 김모 교수와 그리고 중반쯤에서는 고 김춘방 시인과의 사랑을, 웬만한 부산사람이면 다 알고 있었다.

동아대학을 떠나 상경 이후의 소식은 일체 알 바가 없었으나 1984년 8월 9일 강릉해수욕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봄 आयु회(태종대 1957년 경 둘째줄 왼쪽에서 두번째)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심장마비로 급서, 영구를 하관하던 날 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하관을 못하게 한 젊은 여인이 있었으니 조항은 한생애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여인과의 사랑을 놓지 못했다. 이러한 여인들과의 편력을 이해할 만한 그의 글(안장현의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읽고) 일부를 인용해 본다.

### -종락-

가와바타 씨는 한 집에 있는 18세의 소녀 가정부를 좋아했는데, 관서지방 문학강연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간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 날 밤에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

..... 괴테와 18세인가 된 ‘올리가 폰 레베초브’는 어땠으며, 그렇게 점잖아 보이고 엄격해 보이는 세잔느도 가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다. 평생을 독신으로 있다가 작고하신 오상순 선생 주변을 맴돌던 비슷한 이야기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약점(도덕적인 현실 원칙에 비춰 보면 약점이겠지만, 결코 약점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 있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인간인 것이다. 예술은 이런 인간의 약점의 아름다움을 그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겠는가!

시인·예술가들도 일반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캔들도 일으키고, 미스테인크도 하고, 사건도 저지르고 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썼을 때, 독자들에게 훌륭한, 위대한 시인·예술가라는 거리감을 없애고, 자기네와 같은 차원에 있다는 친근감을 일게 할 것이다. 시인이나 작가는 독자 앞에 군림하는 존재는 이미 아니다. 이웃사촌이요, 친구요, 의논상대인 것이다. -후략-

그리고 김용태(전 신라대 총장)와의 대화(『문학도시』 2004년 겨울호, 부산광역시 문인협회)에서도

“선생님은 사랑 없인 하루도 못 사시는 분이시죠.”

“이 사람아,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사랑이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위대한 힘이야. 명예나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애뜻한 사랑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라고 했듯이 조향은 명예나 돈보다 사랑 제일주의자이기도 했다.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률에는 저촉될지 모르지만 현대의 첨단을 걸었던 한 시인의 사랑관은 이해될 수도 있겠다.

한편 그는 주변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했다. 교만, 자만, 안하무인 등 지독한 독설가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지성인으로서 냉철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기에 타협이 없었다. 특히 문학 작품 비평에서만큼은 예외가 없었다. 그의 월평이나 연간평에서는 유명시인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실험이 없는 세대」에서는 박두진, 조지훈, 김윤성, 구상, 청마 등이, 「1959년 시단총평」에서는 청마, 문덕수, 김남조 등이 혹평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주변사람들로부터 교만한, 자만한, 안하무인격인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인간적인 강점도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서 추방당할 정도의 민족주의자로서,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 시기인 광복 이후에는 「건준(建準)」의 일부 적색분자들과 투쟁한 반공주의자로서, 제자의 취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교육자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그리고 1947년 동아대학의 전임강사 발령 이후로는 대학의 사명을 논리적으로 확립시키고, 대학의 3단계 커리큘럼을 정립시켜 대학인의 지성, 인생관, 세계관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한 교수·학자로서 초창기 한국 대학교육이 나아갈 방향타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다. 그리고 권위나 구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학문을 숭상하고 박학다식한 학자로서 그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한문학이나 불문학에 약했던 그는 그 방면의 전공교수, 설사 손아래 교수에게라도 찾아가 배우고 익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

지 않은 학문적 자세는 후학들에게 규범이 되기도 했다.

### 문단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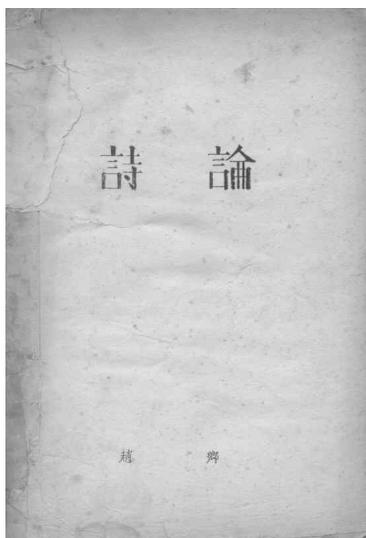
진주고등보통학교 조선어 선생 박중구(朴重九)의 영향으로 문학에 뜻을 둔 이후 그는 매일신보(현 서울신문 전신) 1940년 신춘문예현상에 「첫날밤」으로 시부(詩部) 3석에 당선됨으로써 문단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그는 도일 이후 대판에서 발간되었던 월간 『日本詩壇』(吉川則比古)과 동경에서 발간된 계간 『詩文學研究(시문학연구)』(木尾浦正之 주재)의 동인으로서 해방직전까지 매일 시작활동을 했다.

광복 다음해 그는 김수돈, 박목월, 김춘수, 유치환, 이호이, 서정주 등 동인들의 협조로 시동인지 『魯曼派(로만파)』를 창간, 4집까지 내고 폐간되었다. 조향이 굳이 낭만파(浪漫派)로 쓰지 않고 『魯曼派(로만파)』로 고집한 이유는 이 말이 Roman을 의역한 것이 아니고 음역한 것이기에 일본식 음역보다 한국 음역표기 즉 로만이 옳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며 이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 魯曼(로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을 맞은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식민지 잔재의 하나인 일본 음역 낭만(浪漫)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이 지론에서 독립국가의 자존심과 민족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인들은 낭만(浪漫)을 로우만이라 읽음).

그런데 그의 본격적인 주지주의(modernism)와 초현실주의(surrealisme) 문학운동은 1949년 『후반기』 동인이 결성되고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운동의 배태는 1941년 일본에서 추방되어 귀국, 마산에서 여러 예술인들 즉 바이올리니스트 이연우, 조각가 김종영(서울대 교수), 오석규(동국대 교수), 문인으로는 정진업, 김수돈 등과 교우를 가졌는데 이때 김수돈이 갖고 있었던 일본 계간지 『詩と詩論(시와 시론)』을 읽고 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 문학에 상당한 흥

미를 갖게 된데서 비롯된다.

『후반기』동인은 조향의 주도적 역할로 창립되는데 이때 창립동인은 조향, 이한직, 김경림, 박인환, 이상로, 준동인으로는 김차영, 배모였고 이후에는 이한직, 이상로가 탈퇴하고 그대신 이봉래, 김규동, 김차영이 새로 가입하게 된다. 제1집은 박인환이 맡아 조판까지 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창간호가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피난지 임시수도 부산에서 『후반기』동인은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이때부터 한국문인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존의 문학, 즉 구파문학을 철저히 비판하



시론(1950년 프린트판으로 현대시 이론으로는 최초임)

고 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 문학 작품과 이론으로 대결해 나갔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시 창작의 한 형태로 조향, 김경림, 이봉래 3인의 합작시 「불모(不毛)의 에레지」가 이때 발표되기도 했다. 그래서 동인지 한 권 내지 못했는데도 한국현대문학사의 한 자리를 꿰찬 동인지는 『후반기』뿐이다. 그만큼 『후반기』는 한국현대문학사에 한 획을 긋는 비중 있는 동인지였다.

이렇게 탄탄했던 『후반기』동인은 부산정치파동에 말려들어 해체되고 그 대신 조향은 『현대문학연구회』를 조직하여 그 대표가 되면서 1954년 동인지 『현대문학』 제1집을 내게 된다. 다음해 그는 『gamma』동인회 대표가 되면서 동인지 『geiger』 1집을 발행하고 1962년 동인회 『일요문학회』를 창설하여 한성여대(현 경성대학 전신) 김일구 교수의 도움으로 한성여대 교실에서 초현실주의 문학 강의도 하면서 동인지 『일요문학』 1집을 낸 것이 부산에서의 마지막

막 동인활동이었다.

그는 1966년 봄학기 시작과 함께 동아대학교 교수직 및 여러 보수직을 타의에 의해 사표를 내고 서울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약 7년간 뜸했던 동인활동을 그곳에서 재개하게 된다. 그는 1973년 『부산의 일요문학회』의 후신으로 서울에서 연구동인회 『초현실주의 연구회』를 조직하여 매 일요일마다 강의와 토론으로 서울에서 또 한번의 초현실주의 문학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다음해 『초현실주의 연구회』의 기관지 『아시체(雅屍體)』 1집을 발간하고 이후 1984년 타계할 때까지 4집을 내면서 즐기찬 동인활동도 동시에 마감한다.

그는 추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처음부터 문학의 동인활동을 주창했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임종 한 해전까지만 해도 추천받아 등단한 제자는 직계로 취급해 주지 않았다.

그는 이상의 동인지 활동 이외에도 문단·예술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49년 문총(文總) 경남지부 문학부장에서 출발하여 부산예술문화협회 부회장, 1957년에는 문총(文總) 부산지부 대표위원(기구개편으로 2년 뒤에는 문총 부산지부위원장)으로 피선되고 문총 부산지부 주최로 제1회 부산예술제를 총지휘하기도 했다.

한편 1961년 경남예술인 총단합준비위원장으로 제1회 경남재건예술제를 총지휘했으며 다음해에는 예총부산지부 초대지부장을 역임했다. 또한 전국 국어국문학회 부산지회 대표이사로서 학계에도 활동하면서, 동아대학교 문리대 학장(1960~'62), 도서관장(1963~'66)도 역임하였다. 특히 그는 연극에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어 이론뿐만 아니라 전위극단 「예술소극장」 대표로 표현주의 연극을 주로 상연하여 부산시민에게 현대연극의 진수를 선보이며 중흥무진으로 부산의 예술문화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 초현실주의 문학 개척자

인간의 의식세계를 표출한 기존의 시에 익숙한 독자는 인간의 잠재의식을 표출한 시에 낯설어 하고 당황해 했다. 그럼에도 조향 그는 한국의 초현실주의 문학의 개척자이다. 부산에서의 『후반기』, 『일요문학』 동인지의 활동과 서울에서의 『아시체(雅屍體)』 동인활동을 통하여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운동 이후 1950년대 이르러 초현실주의 문학의 이론과 시 창작법을 한국문단에 확실히 정착시켰다.

그의 예술관과 시관(詩觀)의 일면을 소개하면 ‘예술에 있어서의 엑스페리먼트란 항상 그 사고면에서 보다 기교적인 면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예술상의 묵은 전통을 폐기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상의 정통성을 창조하려는 건설적인 의욕에서만 현대시의 답은 이룩될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초현실주의 시는 잠재의식의 세계를 표출하는 원칙 하에서 ‘연속된 의미의 세계를 모조리 단절해 버리고 무의미의 상태에서 새로운 언어의 기능을 실험해 보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시관(詩觀)에 따라 창작된 그의 시를 소개한다.

삶의 「아코오덤」은 대화를 관뒀습니다.

— 여보세요!

「뽀뽀다리아」

「마주르카」

「디젤·엔진」에 피는 들국화.

— 왜 그러십니까?

모래밭에서

수화기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여인의 허벅지

낙지 까아만 그림자.

비둘기와 소녀들의 「랑데·부우」

그 위에

손을 흔드는 파아란 기폭들.

나비는

기증기의

허리에 붙어서

푸른 바다의 층계를 헤아린다.

「바다의 층계」 전문.

이 시는 시어의 어미 전달보다 시어가 가지는 음향, 시어와 시어와의 결합에서 오는 예기치 않았던 이마쥬, 혹은 5연처럼 활자 배치에서 오는 시각적 효과 등 언어의 기능면에 중점을 둔 현대시이다.

「디젤·엔진과 들국화」, 「모래밭과 수화기」, 「나비와 기증기」 사이에는 일상적 의미망이 형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시어들로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관계를 박탈해 버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데빠이즈망(depaysment)이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제3의 강렬한 이마쥬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마치 전기의 +선과 -선이 결합되면 강렬한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전혀 이질적인 두 낱말의 이마쥬가 결합되면 전혀 새로운 제3의 보다 강렬한 이마쥬를 창출해 내는 원리와 같다.

이렇게 일상적, 합리적인 관념에서 해방된 특수한 제3의 객체를 오브제(objet)라 하는데 이 오브제는 초현실주의 시를 이해하는데

요체가 된다.

이와 같이 일상적 의미의 세계를 포기한 현대시, 돌발적인 신기한 이마주들이 단층을 이루고 있는 현대시에서 찾아야 할 것은 의미도, 음악도 아닌 순수한 이마주이다. 시인에 있어서 이마주는 ‘절대’와 ‘본질’에 통하는 유일의 통로며, 탈출구이다. ‘절대현실’은 곧 ‘초현실’이다. 그러므로 「바다의 층계」는 순수시이다.

자작시에 대한 조향 자신의 구체적 해설을 보자.

낯은 「아코오딩」의 서투른 연주가 끝났다. 막이 열린다. 고요가 있다.

어디선지 「여보세요?」. 소녀의 부르는 소리. 그것은 먼 기억의 주름주름 사이에서 잠자고 있던 청각(聽覺)인지도 모른다. 다시 고요가 돌아와서 도사린다.

앞서 말한 「오브제」의 모꼬지. 그 가운데서도 「메커닉」하고 거창한 「디젤·엔진」과 연약하고 서정적(抒情的)인 「들국화」의 결합은 엑센트가 꽤 세다. 이렇게 거리(距離)가 서로 먼 것끼리일수록 「이마주」의 효과는 크다.

새삼스럽게 어디선지 아까번의 소녀의 부르는 소리에 응하는 소리가 있다. 「왜 그러십니까?」. 음향의 「몽따주」로서 바리아송을 주기 위한 수법이다. 다시 고요가 도사리고 앉는다.

다음엔 제2의 「오브제」의 심포지움. 장소는 하얀 모래밭. 메커닉하고 딱딱한 「수화기(受話器)」와 휴먼(human)한, 보드랍고 오동동한 「여인의 허벅지」와 그로테스크한 「낙지 까야만 그림자」의 대비(對比)에서 빛어지는 강렬한 「뽀에지」! 새로운 시적(詩的) 공간(空間) 구성(構成). 그리고 여기에선 하나 하나의 「오브제」에다 위직적(位直的)인 바리아송을 주기 위하여 「포르마리슴」(formali-sme)을 시험해 봤다. 「포르마리슴」은 언제나 언어단편(言語斷片)(word-fragment) 아니면 단어문(單語文)(word-sentence)으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명사(名詞) 종지법(終止法)이 많이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엔 「비둘기」와 「소녀」와 「랑데·부우」와 「파아란기폭들」. 이 시(詩) 가운데서도 가장 서정적이고 「로망」이 풍겨지는 「스탄자」다. 이 「스탄자」 때문에 이 작품 전체에 서정적인 색깔이 유독 더 짙어 보인다. 나는 항상 시(詩)에다가 이러한 「바운딩」(bounding) 곧 「넘실 거털」을 끼워 두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하고 있다. 나의 밀창에 romanticist가 살고 있다는 증거다.

맨 끝 「스탄자」에서는, 연약한, 서정적인 「나비」와 육중하고 메커니컬한 「기중기」가 가지는 원거리(遠距離)로서 효과를 내보려고 했다. 「푸른 바다의 층계를 헤아린다」로서 맺으면서 서정적인 여운(餘韻)을 남겨 놓았다. 혜안(慧眼)을 가진 독자(讀者)라면 여기에서도 「포르마리즘」이 시도(試圖)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인」의 구성을 층계처럼, 원근법(遠近法)에 의하여 층을 지어 놓았다. 이와 같이 현대시(現代詩)는 여러 모로 「퀴즈」(quiz)다운 데가 많다.

부산의 원로시인이며 객관적 시각을 잃지 않는 국제신사(국제신보사 논설실장으로 근무한 데서 얻은 별칭?) 김규태도 조향을 일컫어 「조향, 그분 참 성격이나 하는 것들은 못됐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학문적 깊이나 그 지식의 넓이에 대해선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선 별도의 방식(자리)을 하나 깔아줘야 할 사람」(김용태앞의 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열음사에서 출판된 조향전집(趙鄉全集)(I, II)이라든가 『백민』 『자유문학』 『문학춘추』 『시문학』 『서울신문』 등 중앙지에 그의 작품이나 평론이 게재되고 신구문화사의 세계전후문학전집이나 한국전후문제시집에 시작품 13편이 수록된 점을 감안한다면 김규태 시인의 인물평이 과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합리주의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초현실주의를 이해시키는

데 그는 베르그송의 생철학,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꿈의 분석은 물론 현상학, 실존철학, 성격학, 현대미술의 이론 등 다양한 보조학문을 원용한 그의 강의는 과연 명강의였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조 향 시비(부산시 중구 용두산 공원 소재)

는 문학과 학문을 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의 표본이 되기도 했다. 이런 유능한 시인이요, 평론가요, 교수요, 한국 초현실주의 문학의 제일인자, 개척자, 전도사를 서울로 보낸 것은 부산문화계의 큰 손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초현실주의 문학의 씨앗이 부산과 서울에서 싹터 한국문학의 영역을 넓히고 있으니 조향 정신은 영원하리라 믿는다.

■ 한국예총 부산연합회 회장, 동아대 교수 최상윤

## 7. 최계락(崔啓洛)



### 수학과정과 초기활동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금정산 기슭에 자리잡은 금강공원에는 부산을 사랑했던 문인들의 시비가 몇 개 서 있다. 금강공원 입구를 지나 회전목마가 있는 어린이 놀이터 위쪽 케이블카 정류소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오석에 새겨진 시비 하나가 눈에 띈다. 이 시비가 동시인 동록(東鹿) 최계락(崔啓洛) 시비이다.

또 그의 시비 바로 아래에는 생전에 가깝게 지냈던 이영도의 시비가 서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향파 이주홍의 시비가 있다. 살아서 가깝게 지냈던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정한 이웃으로 살고 있다. 이들 시비 가운데에는 동백나무가 서 있어 봄이면 꽃잎의 붉은 속살이 시인의 마음을 열고 있는 듯이 보인다. 시비의 정면에는 향파 이주홍의 글씨로 동시 「꽃씨」가 새겨져 있다.

꽃씨 속에는 / 파아란 잎이 하늘거린다 // 꽃씨 속에는 / 빠알가니  
꽃도 피어서 있고 // 꽃씨 속에는 / 노오란 나비떼가 숨어 있다 //

시인 최계락은 부산에서 활동하다 마흔 살의 아까운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아름다운 시와 동시는 아직도 많은 독자들의 관심 속에 읽히고 있다. 그의 동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아름다운 마음을 길러주고 있으며 그의 동시에 곡을 붙인 많은 동요는 어린아이들의 애창곡이 되

었다.

동록 최계락(1930. 9. 3 ~ 1970. 7. 4)은 1930년 9월 3일,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 597번지에서 아버지 최경호와 어머니 이증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동생으로는 정희, 영희 두 여동생과 남동생 종락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진주 중학교 3학년 중퇴생으로, 경성제국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였던 것을 보면 학문을 향한 열정이 매우 큰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계락의 유년 생활은 옆집 친구의 형이 일본에서 보내주는 소년 잡지를 빌려 밤을 새워 외우고 할머니의 구수한 옛이야기를 들으며 문학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다. 그의 유년 시절의 행적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고향인 지수에 있던 생가는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사라졌고, 문학의 열정을 키웠던 진주 중학교에도 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최계락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하여 학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형만이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쓴 『최계락 동시 연구』가 길잡이 역할을 한다.

최계락은 지수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진주 중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한 번 더 6학년 과정을 이수한 다음 진주 중학교에 입학했다. 이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순조롭지 못했던 까닭으로 아버지의 소가에 가 있다가, 진주 백병원에서, 또는 파성 설창수 택에서 기거하는 등 어려운 학업 생활을 했다.

최계락은 진주 중학교에 입학하기 1년 전인 1943년 『주간 소학생』지에 「조각달」을 발표하며 문학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때 그의 나이 13살이었다. 진주중학교 재학 중 문예반에서 붓을 가다듬던 그는 1944년 『문예신문』에 동요 「고갯길」, 1947년 『烽火』지에 동요 「해즈른 남강」, 『새동무』에 「새일꾼 어린이」 「봄이 오면은」 「보슬비」 「허수에비」 「이슬」, 『문예신문』에 「고갯길」, 『소학생』지에 「봄바람」 「수양버들」을 발표하였고, 1949년에는 『문예신문』에 「외로

운 고개], 『어린이 신문』에 「구름은 조각배」, 『문학청년』 5집에 「길」 「설날」 「할아버지등」을 발표하며 진주의 문사로서 이름을 높여갔다. 그리고 1952년에는 시 「哀歌」가 『문장』지의 추천을 받게 된다. 이 조숙한 시인의 동요 「보슬비」는 진주 중학교 1회 졸업생이며 그 당시 진주사범학교 교사이던 이상근에 의해 작곡되었고, 얼마 안가 초등학교 5, 6학년용 교재에 실렸으며, 국민음악연구회 발행 『초등음악』에 재수록되어 노래로 불리는 영예를 얻었다.

최계락은 16세 때 초등학교 동기생인 구정희와 혼인을 하였다. 이는 조부의 권유라고 알려져 있다. 최계락과 구정희 사이에서 아들 형림과 딸 정림, 숙림, 순림, 혜림, 옥림 모두 1남 5녀의 남매가 태어났다. 결혼 후 그는 집안의 가장으로 힘겨운 생활을 해나갔다. 1948년 9월부터는 학생기자로서 돈을 벌면서 학업과 창작, 생활을 꾸려나갔다. 1949년에는 일생의 지우였던 이형기와 만났고, 이후 1951년에 동인지 『二人』을 발간하였다. 이형기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계락은 일찍부터 문학 열정뿐만 아니라 창작 능력에 있어서도 널리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 이형기와 만남

이형기는 ‘1949년의 추억’이란 글에서 최계락과 만났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형기는 1949년 11월 진주에서 처음 열린 영남예술제 시 부문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형기는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것은 최계락과의 만남이다. 진주 중학교 6학년인 최계락은 당시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다. 특히 아동문학과 동시 분야에 있어서는 중앙 문단에서도 작품이 더러 발표되고 있어서 문학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은 그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나는 이가 두 살 위인 최계락을 감히 먼저 찾아가 인사를 청할 만한 용기가 없어 먼발치에서 그가 최계락인 것을 알고만 있었다. 그 최계락이

먼저 나를 찾아와 인사를 청하고는 신문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서울의 K신문이었는데 그가 나의 어깨를 치면서 가리킨 곳은 광고란이었다.’

최계락이 가리킨 것은 신문의 광고란이었는데, 거기에는 『문예』의 11월달 광고가 나있었고 게재된 작품 목록에는 이형기의 시 ‘비 오는 날’이 초회 추천으로 되어 있었다.

이형기는 최계락을 알아보기도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최계락은 왜 이형기를 찾아 인사를 청했을까. 최계락이 이형기를 찾아간 것은 좋은 문우가 같은 고장에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만남 이후 둘은 문학의 동료로서 든든한 친구로서 우리나라 문학사에 깊은 우정을 과시하게 된다.

1963년에 간행된 이형기의 첫 번째 시집 『적막강산 寂寞江山』 후기에 최계락은 「낙서」라는 제목으로 ‘그의 시가 그 맑은 감성으로 서정의 보탬을 지켜 꾸준히 그 깊이를 더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스스로의 참 자세를 찾고, 또 거기 진실 하려는 그의 맑은 인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시집 발간을 축하해 주었고, 또 이형기는 1981년에 발간된 최계락 유고 시선집 『외갓길』 후기에 쓴 「최계락 그 인간과 문학」에서 ‘우리나라 동시를 시의 경지, 아니 시 이상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빛나는 공적을 남긴 사람’으로 문학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1950년 5월 1일 진주 중학교(당시 6년제)를 졸업한 최계락은 동아대학교 문과에 진학했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1951년 여름 최계락은 이형기와 함께 폐허가 된 진주거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표지까지 합쳐 꼭 30쪽의 알팍한 동인지를 내었다. 두 사람이 낸다고 해서 『二人』으로 이름 붙였다. 이 책은 창간이자 종간이 되어 버렸다. 문단에 알만한 이도 몇몇 되지 않은 초라한 동인지였으나, 이형기는 이 동인지를 통해 최계락의 맑은 시

심의 절정을 발견하고 그를 가슴속 깊이 아끼게 된다. 이형기는 최계락의 천의무봉한 동심의 세계를 높이 평가했고, 최계락은 이형기의 재기와 감성을 사랑했다. 이 책에 실렸던 동시 「꽃씨」는 이형기의 문학적 열정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최계락 문학에 찬란한 성과를 보태었다.

최계락은 1952년 6월에 월간 아동잡지 『소년세계』의 편집기자로 근무하였다. 1953년 4월에는 육군중군기관지 『전선문학』, 1954년엔 경남일보 문화부에 근무하였다. 1956년 11월 16일에는 그의 마지막 직장이 되는 국제신문사에 입사하여 죽음에 이르는 1970년 7월까지 약 15년 간을 기자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어린이들에 대한 따뜻함을 가진 시인으로서 삶을 영위해갔다.

최계락은 활기찬 모습과 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살았고, 무엇인지 모를 풋풋하고 그냥 기대고 싶을 만큼 편안한 느낌을 주며, 어린아이와 같은 맑고 고운 눈으로 혼탁한 세상을 가슴 졸이고 아파하며 순수를 지키기 위해 애쓴 순수 그 자체였던 사람이었다. 1남 5녀의 아버지이며 1년에 평균 4번이나 전셋집을 옮겨다니는 가난한 삶을 꾸리면서도 자녀들의 등록금까지 동료 문인이나 후배들에게 주어버리거나, 군대 간 후배 작가의 원고료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참으로 남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여린 성품의 소유자였다.

“인생은 순간이고, 밥그릇 한들의 차이밖에는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부유하고 가난한 것, 잘나고 못난 것이 뭐 그리 차이가 나겠는가?” 하고 힘께나 있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제일 경멸하였고, 이 세상을 오래 살지 않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 문학활동과 작품세계

최계락은 문학 활동 이후 많은 동인에 참여하였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활동을 보면 1946년에 영남문인회 발간 『嶺文』에 참여하였고,

『文學青年』을 주관하였으며, 1951년에는 이형기와 함께 ‘이인문학 동인회’를 결성하여 동인지 『二人』을 발간하여 당시 진주 지역 문학의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1958년 3월에는 격월간으로 『新潮文學』을 이끌었고, 부산에서 활동하던 아동문학가 이주홍, 손동인 등과 『부산아동문학회』를 결성하여 부산아동문학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1962년엔 『詩旗』의 동인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문단활동을 전개하였다.

최계락의 동인 활동은 동인지 『群像』 『진주시인협회』 『부산아동문학회』 『詩語同人會』 『搭』 『남해안』 『詩壇』 『新語』 『부산문예비평회』 등이다. 이러한 아동문학에의 공적을 인정받아 1963년에 부산시문화상(문학부문)을, 1967년에는 시집 『철뚝길의 들꽃』 과 동시 「골목」 「꽃밭에서」로 제 3회 소천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가 소천문학상을 받았던 1967년에는 청마 유치환이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타계하는 일이 일어났다. 유치환의 부음을 듣자 시인 박성룡은 기자로 일하는 『주간한국』에 청마와 당시 부산에 거주하던 시조시인 이영도 사이에 주고받은



문학상 시상식 후 축하연에서 부인과 함께

편지를 두 쪽에 걸쳐 가득 실었다. 이렇게 되자 출판사들은 다투어 이영도에게 청마의 편지를 출판하자고 매달렸다.

두 달 뒤, 시인 이근배에게 이영도가 전화를 걸었다. 이근배가 부산에 내려 온 날은 이영도의 집에서 부산 문인들이 청마 추모 문학제를 올리는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영도는 청마의 편지를 이근배에게 내어주었다.

이근배는 이 편지를 당시 국제신문사 문화부장이었던 최계락과 함께 동래 금호장 호텔에서 편지를 정리한 후 서울로 가져가 책으로 내었다. 이 책이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였다.

청마는 여성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다. 문덕수는 어느 좌담회 자리에서 최계락이 한 말을 떠올리며 “최계락은 5000통 정도로 추정하기도 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마는 부인 권재순과도 오랫동안 연서를 주고받았고, 이영도 외에도 문학 지망생들과 편지를 나누기도 하였다. 문덕수는 “서한집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지만 남녀의 개인적 사적 밀담은 어느 구석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고 말했는데, 이는 국제신문사 문화부장으로 있었던 최계락이 청마 사후에 청마와 관련된 자료를 잘 관리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소설가이며 부산의 향토사가인 최해군은 최계락이 국제신보 문화부장(1961~1967)으로 있던 때는 물론 편집부국장이 되어서도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의 굵은 일 어려운 일을 푸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해결해 주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시 「귀천 歸天」으로 잘 알려진 천상병도 최계락의 도움을 받은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다. 60년대초 천상병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 철도청 공무원이었던 큰형 집에서 기식을 하며 한동안 낭인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해 최계락은 같은 신문 기자 출신으로 시장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던 비서에게 청을 넣어 촉탁 공보 비서로 자리를 얻게 해서 시장의 축사나 식사 원고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천상병의 전 생애를 통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된 직장생활이었다.

최계락은 1959년에 동시집 『꽃씨』를 발간함으로써 순수서정의 동심세계를 확연히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1966년에 『철독길의 들꽃』을 내어놓음으로써 1960년대 본격시 운동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며 동심의 세계를 그림을 그리듯 자유율로서의 동시의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향파와 이주홍의 제자(題字)와 장정이었는데, 그 편집도 향파덕에서 했다. 그러나 이미 발표한 것 가운데 요긴한 게 빠트려진 게 많았다. 향파가 가진 지지(紙誌)에서 그의 작품 여러 편을 가려내어 보충해 주면서 제것 하나 못가리느냐는 통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최계락의 동시는 동시사상 최초의 의식적인 문학으로 출발하겠다는 이념적인 명징성에 기반을 두었다. 또한 동시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든 안 하든 어린이의 눈이 아닌 시인의 눈으로 쬐어지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어와 소재에 있어서는 완전히 유아어를 벗어나게 되고, 짜임에 있어서는 단순함을 벗어나 시로서의 문학과 예술성을 갖추게 되었다. 『철독길의 들꽃』 이후의 작품과 유고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들에서는 자연 광경의 관조에서 벗어나 현실 속의 생활을 담으려 노력함으로써 동시의 폭과 깊이를 더하며 짜임의 단순성에서의 탈피와 동심 세계의 확장 등 훨씬 세련되고 다양한 그의 동시 세계를 보여주었다.

아동문학가 이재철은 “해방 전후 등단한 최계락, 이종택과 50년대 초에 등단한 이종기 박홍근 등 신인들에 의해서 다시 30년대 동시 수준을 극복하려는 모색이 시작되었다. 특히 최계락의 해사적(解辭的, paratactic)인 시의 어법은 박영종의 전통을 계승한 시어의 함축미로서 전대의 동시를 극복했다.”고 하였고, 아동문학가 신현득은 “동록 최계락은 50년대의 통속팽창기에 동시의 순수성을 지켰으며, 이것이 60년대의 본격 동시 운동에 가교가 되었다. 또한 그의 시법은 현재로 이어져 최계락류의 서정시가 쓰여지고 있다. 즉 자연과 생활의 어떤 시제라도 그의 서정의 형식 안에서 녹여, 암시와 율격이 결든 동경과 애수의 시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는 비록 두 권의 시집을 남겼으나 그 서정성으로 한국아동문학사에 찬연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였다.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최해군은 경남 출신의 아동문학가 이주홍, 이원수, 최계락 세 사람의 체질이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 “외형으로 광대뼈 아래가 쪽 빠지고 콧바퀴가 크며 여위면서 후리후리한 키가 닳은꼴인데다 예민한 감각과 소탈하면서도 정감적 성품 또한 닳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이들의 문학 체질 또한 닳은꼴이다. 이주홍이 19세에 「뱀새끼의 무도」를 『신소년』지에, 이원수가 15세에 동요 「고향의 봄」이 『어린이』지에, 최계락이 진주 중학교 시절인 17세에 동시 「수양버들」이 『소학생』지에 당선 발표되어 제각각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고, 세 사람 모두 인간관계 또한 폭이 넓고 다정다감한 것이 정서적 특징으로 동류항(同類項)이 되어 상호간 밀착된 친교를 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최해군은 또 최계락과 같은 동류항에 들 시인 세 사람으로 최계락, 이형기, 박재삼을 꼽았다.

최계락은 부산에서 향파 이주홍이 발행하던 문예지 『문학시대』 1966년 3월호에 아래의 시 「한일 寒日」을 발표했는데, 그가 쓴 시 제목처럼 그의 일생이 그러했다. 나라 잃은 시기에 태어나 해방과 1950년대에서 1970년까지 격동의 시기를 살았다. 그 40년의 일생을 가난과 시와 사람과 더불어 살았다. 그는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훤히 꿰뚫어보는 미안(美顔)을 가지고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신비를 파악할 줄 알았다.

한일 / 山을 넘어 온 / 어린 / 記憶. // 어느 / 少年의 꿈 조각이 / 바람에  
/ 운다. // 닳은 외투깃에 / 얼굴을 묻은 / 무능한 아버지의 / 아픈 / 日  
常. // 오늘도 / 너는 / 그 언덕에서 / 빛깔 없는 / 回想의 / 열레를 감고,  
// 너무 / 멀리 왔구나 / 종이연 / 하나 / 電線에 묶인 / 어린 / 꿈 조각.

아쉽게도 ‘전선에 묶인 어린 꿈 조각’의 이 세상 인연은 길지 않았다. 그는 간이 좋지 않아 간암으로 복음병원에 입원해서 1970년 7월 4일 40살의 나이로 이승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청룡동 시립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생전에 그는 형제간의 동기에도 극진하였는데 그의 사후 30주년이 되는 2000년에 아우 최종락이 최계락문학상 재정을 도와 국제신문사와 최계락문학상 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최계락문학상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제 1회 최계락문학상 시상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제 4회 최계락문학상을 시상하여 시인 동록 최계락의 문학정신을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계락은 동시집으로 『꽃씨』(예문관, 1959), 『철독길의 들꽃』(청운출판사, 1966)을 남겼으며, 사후에 그의 10주기를 맞아 유고시선집 『외갓길』(해양출판사, 1981)을 펴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동시 「꽃씨」 「꼬까신」 「외갓길」 「철독길의 들꽃」 「편지」 등이 있다. 시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에 「꽃씨」가, 중구 광복동 용두산공원에 「외갓길」이, 서구 대신공원에 「해변」이 있으며, 경남에는 진주시 신안동 녹지공원에 「해저문 남강」이 있다.



최계락 시비(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 데레사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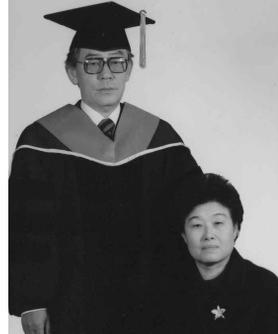
## 제2장 무용 · 미술 · 음악분야

1. 강이문(姜理文)
2. 강태홍(姜太弘)
3. 금수현(金守賢)
4. 김종식(金鍾植)
5. 오제봉(吳濟峯)
6. 오태균(吳泰均)
7. 윤이상(尹伊桑)
8. 이상근(李相根)
9. 이석우(李錫雨)
10. 현 인(玄 仁)

## 1. 강이문(姜理文)

### 출생과 성장

강이문은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 무용계의 대표적인 평론가, 이론가, 연출가, 기획자, 행정가, 대본작가로 독보적인 존재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아호는 여천(黎泉), 취운(翠雲)이며 호는 프른 구름, 국석(國石)으로 함경남도 단천군 단천면 용현리에서 1923년 4월 8일, 부친 강통운과 모친 정송죽의 1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강이



부인과 함께

문은 평범한 경제력을 지닌 화목한 외가에서, 글 읽기와 쓰기를 좋아했던 선비인 외조부와 생활력이 강했던 외조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외조부는 외손자인 소년 이문을 끔찍이 사랑하여 그 시대에는 드물었던 유치원 교육을 시켰으며, 보통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다.

1930년, 함북 무남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성적이 우수하여 교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어린 이문은 강인한 성격으로 고집이 센 편이었으며, 무엇이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마무리하는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다. 1936년 보통학교를 졸업하던 해에는 일본인 담임 교사가 이문을 떠나보내기 싫어 1년 더 학교에 다니기를 권유하기도 했다.

1937년, 당시 한국인의 입학이 쉽지 않았던 함흥공립상업학교(5년제)에 진학한 이문은 상급학교에 진학한 뒤 유도부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과로로 앓아 누울 정도로 열심히 수련하여 유도 2단을 획득하고 유도 부장의 직책을 맡기도 했다. 또 방학 때면 어머니의

집에 들러 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등 유도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졸업앨범에 장래 희망을 '의사'라고 밝혀 놓았다.

그 후 청년기에 접어들어 일본대학 척식과(拓植科)에 유학을 하고, 동경사진학교와 경응외국어학교를 잠깐 다니다, 일본군 학도병 입대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1944년, 중국 교민학교였던 월성국민우급학교 교장으로 일년간 재직하다가, 다음 해 동북 반산의 백의문화사(白衣文化社) 주간으로 직을 옮겨 월간지 『무궁화』 편집장을 지내면서 무궁화 가무극 단장을 함께 맡았다. 중국생활 3년째 접어들면서 동북 심양에서 중한문화협회동북분회(中韓文化協會東北分會) 간사, 월간 『신생(新生)』 편집장, 「동북한보」 집필위원과 동북한교청년단 지도위원을 지냈다. 형과 친했던 동생 김칠관에 의하면, 우리 교포들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택하여 학교장을 그만두고 편집장 일을 맡았으며, 그 당시 「사와 곤충」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는 종교인의 가면적인 형태를 풍자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글로 인해 쫓기며 목숨까지 위협받는 몹시 불안한 상태가 전개되었다.

1947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종로에서 조그만 서점을 운영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강이문은 다시 건국대학교 법정대 정치학과에서 학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다 한국전쟁 당시 단신으로 부산에 와 초량에서 담배 가게를 겸한 노점 책방을 시작했다.

### 층계의 입문과 입지 구축

강이문은 노점 책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그런 대로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다. 이 때도 굉장한 독서열로 밤세워 책을 읽곤 했었는데 그의 박학다식함은 그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인정하는 부분이다. 뛰어난 글 솜씨로 1952년 당시 국제신보에 「한국 민족

무용의 진로』라는 춤 평론을 처음으로 게재하면서 춤계로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 그 당시 춤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람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춤계에 입문한 이유에 대하여,

시인 김인환은 “그 분이 이북에서 보았던 한국 춤(최승희의 춤이었던 듯)과 일본춤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있고, 춤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며 일본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회고한다.

정막은 “가정적으로 부모님께서 예술적 기질이 있다거나 예술계에 종사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며, 단지 일본에 있을 때의 사진 공부와 중국에서의 신문·잡지 일이 예술의 길을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하였다.

부인 김홍련은 “외골수로서 한 번 결정하면 앞도 뒤도 보지 않는 함경도적 기질이 춤 외길 인생을 가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생 김칠관은 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문학 쪽으로는 인재가 많았고 춤 쪽으로는 다소 인적 구성이 미흡했으므로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셨다.”고 한다.

서예·사진·그림·문학 등의 여러 예술가적 기질과 북경 반산에서의 무궁화 가무극 단장을 지낸 경험 등도 춤계 입문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춤계 입문 뒤에는 춤꾼들에게 무용소 허가서류, 무용소 업무보고 등을 대필해 주면서 그들과 밀착되어 갔고, 만주에서 터득한 조직력과 보다 커진 춤평의 위력으로 춤꾼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아 가기 시작했다.

이 당시 부산은 임시수도로서 전국의 많은 춤꾼들이 정착하여 역사상 최대의 춤 열정에 싸여 있었다. 강이문은 한국전쟁 때에 월남했거나 부산에 피난 와서 활동하던 한국 춤의 제 1세대라 할 수 있는 김백봉, 장홍심, 임수영 등의 춤에 관해 각 신문의 지면을 통하여 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53년 환도와 더불어 부산의 춤계는 활발했던 활동들이

퇴조하고 문화예술의 중심세력은 서울로 옮겨갔으며, 부산에 정착한 춤꾼들 대부분은 학교 또는 문화기관에 자리잡거나 나름대로의 생업에 종사하여 자연스럽게 춤 활동은 미약해졌다. 강이문 역시 동광동에서 도장가게를 겸한 영세 프린트사를 운영하였으나, 전쟁 이후의 생활은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아주 어려웠다.

1954년에 접어들자 재부 춤꾼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 속에서 유능한 신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부산시에서 주최한 3.1절 기념 예술과 8.15 경축 예술제에 부산 춤꾼들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특히 강이문은 미려한 부산 춤꾼들의 집결과 춤 예술의 창달, 저조한 사회적 인식의 재고를 위해, 부산에서 행해진 모든 공연평과 연말 총평 등을 「민주신보」 「부산일보」의 양대 신문에 꾸준히 실어 부산 춤계의 주도적 역할을 다했다. 초기 강이문의 춤 세계는 자연주의적 경향이었으나, 전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이전의 창작춤이 한국 춤계를 풍미하던 당시엔 정형화된 형식주의적 춤관을 보였다.

1956년, 강이문의 국민학교 동창인 처이모의 주선으로 당시 충주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부인 김홍련과 결혼하고, 이듬해 장남 강재영을 낳았다. 충무동 쌀 가게 옆방에서 어렵게 살던 당시에 춤꾼들은 쌀, 미역 등으로 장남의 출생을 축복해 주었다. 강이문은 아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으나, 아들에게는 엄한 아버지였고, 집이 이사를 하면 집을 몰라 전의 동네에서 물어 물어 찾아올 정도로 가사에는 무던한 그 시대의 전형적인 가장이었다.

이듬해인 1957년 12월에는 강이문의 앞선으로 부산에서는 처음 춤꾼 협동단체인 ‘부산 무용가 협회’가 결성되고 지금까지 분산되었던 부산 춤계의 힘이 한곳으로 모이게 된 계기가 되었었는데 당시 강이문의 직책은 고문이었다. 1958년 6월엔 민주신보에 “부산춤소고” 평론을 발표하였으며, 8월에 ‘부산 무용가 협회’의 발전적 해체를 단행하고 ‘부산 춤예술인 협회’를 결성하였는데 강이문이 그 산

과역을 맡아 춤꾼의 권익옹호 및 춤 연구의 저변확대에 힘을 쏟았다. 1959년 2월에는 청담다방에서 한국 최첨단 시화전으로서 강이문·이화 2인 미전인 『바우하우스전(BAUHAUS & 展)』을 열기도 했다. 강이문은 춤, 체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서예에 이르기까지 막히는데 없이 잘 하였으며, 특히 서예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서체로 미학적 바탕에 현대적 회화성을 지녔다는 평을 받았다.

정막은 강이문의 서체를 ‘무용체’라 일컬으며, 당시 춤꾼들은 프로그램에 그의 서체를 많이 활용했다. 부인 김홍련은 2층을 꾸며 서예방으로 쓰려고 하던 중 돌아가신 것을 마음아파 하였으며, 지인들은 그의 서예 수준이 대가급에 이르렀다고 표현하였다.

같은 해 태풍 사라호로 인한 이재민 구호 음악·춤 대공연을 부산일보 주최로 제일극장에서 개최하였다. 부산 최초로 김향춘·황무봉·정무영·장홍심·송준영·조예경·김혜성 등 재부 춤꾼들이 출선하여 애국애족적 성심을 나타낸 공연에 강이문은 총지휘를 맡았다.

이와 같이 1950년대는 강이문에게 있어 춤계에 입문하여 그의 입지를 구축한 시기로, 우리나라 초창기 춤평론의 지평을 열었으며 혈기왕성한 장년기를 부산춤계의 정립과 발전에 바쳤던 시기라 하겠다.

### 교육계 입문과 열정적인 춤계 활동

격동의 한국전쟁을 겪은 후 춤계에 입문하여 재부 춤꾼의 한사람으로 그 입지를 구축하였던 강이문은 1963년 한성여자초급대학(현재 경성대학교의 전신) 체육과에 춤 이론 교수로 부임하여 미학과 무용사를 가르치게 된다. 춤의 실천적 이론가로서 강이문의 삶은 교육현장에서 후학들에게 춤 이론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1963년 이화여자대학에 무용과가 개설된 것을 계기로 대학의 춤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교육이 활발해져 1960년대 후반의 춤계는 대학무용과 출신의 젊은 세대에 의해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지적·기능적인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학문적으로도 체계화 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 춤 작품의 특징은 무용극 형식을 위주로 한 공연이 주류를 이루어 「봄의 향연」 「신라야화」 「산하역만년」 「조국찬가」 등 강이문이 연출한 대표적인 작품들 또한 무용극 형식을 가졌고, 1963년 3월에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제 2회 경남·제 1회 부산예술제』 공연에서도 무용극 형식의 작품인 「봄의 향연」이 공연되어 강이문은 연출을 담당하였다.

1964년 4월에는 ‘부산명보소녀가무단’의 일본 순회공연이 있었는데 무용극 「신라야화」를 공연, 강이문은 무대감독과 연출을 맡았으며 이때부터 차츰 협동작업에 의한 무대활동이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이 공연은 참가 인원 40명의 신원 조회만 6개월이 걸리던 사회적 상황에서 한국 최초의 단체 해외공연이라는 일은 거대한 작업이었다. 그는 진주의 비단공장을 돌려 의상을 만들고 손수 염색했으며, 재생필름도 귀하던 시절에 원 필름을 100통이나 마련하는 정열을 보였다.

1964년 7월부터 강이문은 YMCA회관에 부산 시민의 대학 강좌 강사로 활동하고, 제 6회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1966년부터 부산 평론가 협회가 결성되고 강이문은 무용분과 간사로 활동하였다. 강이문이 1967·68년도에 쓴 「한국 신무용사 연구」와 「한국 신무용 후진 성향의 고찰」 등은 시대 조류에 즈음하여 인상비평의 단계에 머물렀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부산 춤꾼들의 서울공연과 해외공연 참가가 선견되었고, 환도 후 처음으로 전국행사인 『신문화 60년 기념 전국 춤 제전』이 강이문의 기획으로 부산에 유치되어, 재부 춤꾼과 전국 춤꾼이 함께 합동공연을 하여 부산 춤계의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 해 강이문은 한성여자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의 교육무용”과 “한국 고유미의 무용” 등의 논문을 저술하고, 1970년대의 근대화 정책을 앞두고 부산의 춤계를 점검해 보는 의미에서 1968년 부산 향토춤 총평을 부산일보에 게재하였다. 또한 1969년에는 자유주의와 개방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세계 속의 한국 춤”을 부산일보에 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무용미학론 “춤의 시간과 공간의 미적 구성론고” 저술을 끝으로 1960년대를 마감하였다.

1960년대까지 기존형식과 기법에 얽매어 재현과 모방의 예술로 일관하던 우리 부산에 현대적 춤의식이 겨우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다. 강이문 개인에게 있어 1970년대는 춤계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 전성기라고 송준영은 말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강이문의 활동은 『부산시사』 제4권에 언급된 바와 같이 1970년에 문공부 예술창작 공모에서 현대춤 부문에 강이문이 연출한 「산하역만년」이 당선되어 서울과 대구에서 발표공연을 가진 것이 도화선이 되어 부산에도 춤 예술의 현대성이 움트기 시작했다. 정병호에 의하면 이 때 정막이 연출을 하고 정병호는 안무를 하였으며 대본은 강이문이 썼는데 이 작업을 통해 셋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후일 조동화까지 합세하여 네 사람은 아주 가까웠었다고 한다. 한편 정병호는 그 당시만 하여도 육완순 활동 전이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춤의 활동이 없었으며, 비전공자인 세 사람을 통해 「산하역만년」이 소개되었다는 것이 문제되었다고 회고한다.

그 해 10월에는 대서사시적인 뮤지컬 플레이 「조국찬가」가 국도극장에서 공연되었다. 2천 5백명 수용이 가능한 대극장과 소극장, 상설화랑 등을 갖춘 시민회관의 건립이 결정되자, 속이 비어있는 부산 문화의 허약성을 드러낼까 우려하여 부산예총지부의 주관 아래 종합적이고 다양한 무대공연을 위한 「조국찬가」가 기획되었다. 그 때까지 이런 대규모의 종합적인 무대공연이 없었기에 「조국찬가

」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였는데 1970년 10월 24일자 부산일보 기사 내용에서 과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9일 시내 국도극장에서 막을 올리게 된 「조국찬가」엔 3백 여 명이 무대에 등장한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나뉘어서 제각기 다른 레퍼터리로 공연해 오던 무대예술과는 판이한 형식을 취한 것이다.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춤, 음악, 연극 등 각 분야가 협동, 공연하게 되는 것이 조국찬가의 특징이란다. 말하자면 부산의 무대예술 파트가 총동원된다. 거기에는 40여명의 타이트, 뮤직 가수도 출연, 연 등장 인원은 모두 7백 여명을 넘는다.

조국찬가는 전 3부 15장으로 대본, 구성, 연출은 강이문이 맡았고, 안무는 황무봉과 송준영, 출연에는 황무봉, 이매방 등 중견 춤꾼 36명이 있다.

「조국찬가」가 공연에 올려졌을 때 강이문은 개선장군처럼 기뻐했다고 당시 안무자였던 송준이 회고했다.

1972년에 강이문은 한국무협 부산지부지부장 겸 한국예총 부산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고 5월에 국립극장에서 있었던 전국 춤꿈 창작 춤공연에 황무봉 안무의 「꽃샘의 비원」과 송준 안무의 「생명」, 「무브망」을 연출하였다. 이 공연은 해방 후 처음 있는 전국 창작 춤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작품 「무브망」은 한국춤의 전위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강이문은 이 작품을 통해 한국에서 제일 처음 전위춤을 시도하였다며 송준영은 그 시도의 참신함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 해 11월, 한국예총에서 주최하는 『한국예총 10주년 기념 문화예술인 대회』에서 강이문은 예술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강이문의 이러한 춤계에서의 활약은 1973년,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시립무용단’을 창단하기에 이른다.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당시 조직은 단장-당연직으로서 부산시장, 부단장-강이문, 안무장-황무봉, 훈련장-송준영, 단무장-손세란으로 이루어졌다.



부산 시립무용단 창단식(1973년)

시립무용단의 창단 공연은 그 해 10월에 시민회관 개관 기념으로 열렸다. 「강강수월래」 「아아 동래성」 「출어제」 등이 공연되었는데, 구성·연출 강이문, 안무는 황무봉, 주역 춤꾼은 황무봉, 송준영, 손세란 등이었다. 특히 작품 「아아 동래성」은 지방의 향토성이 강조된 작품으로 강이문의 당시 작품 경향을 짐작케 해 준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춤 창작 경향은 전통적 춤사위를 창작에 수용하여 다양한 표현 양식을 갖추며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도되었던 강이문 기획 연출의 『제 1회 부산창작 무용 합동공연』은 부산에서 처음 가지는 창작 춤 모임으로 부산춤꾼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킨 기폭제적 행사였다. 이와 같이 춤 창작 활동이 전국적으로 증가되면서 비평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고, 또한 비평가들의 활발한 활동은 춤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가지게 된다.

당시 시대적 흐름에 의해 창작춤 활동이 활발해지고 아울러 창작에 있어서의 전통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강이문도 시대적 조류에 따라 1977년의 “현대 예술론”을 비롯한 1978년의 “한국 전통춤의 현대화”와 “경상도 덧비기춤”에 이르기까지 과거 신무용 위주의 글과는 다른 색깔을 나타낸다. 1976년에는 지난 1966년, 박용구, 조동화 등 춤평론가들에 의해 발간되었다가 폐간된 『춤』지가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조동화에 의해 다시 부활되어, 강이문은 그 해 3월 “민속 고전무의 전통과 명무 - 우리 춤의 본성을 일깨워 준 이매방 춤에 붙여서”를 실은 후부터 작고때까지 꾸준한 집필 활동을 하였다.

1977년 10월에는 문예진흥원의 250만원 지원으로 ‘부산무용단’ (단장-강이문)이 서울 진출을 과감히 단행하였는데 이 때의 작품으로는 「신검」 「연」 등이 있다.



제자들과 함께

1979년에는 부산에서 최초로 부산여자대학교(현재 신라대학교의 전신)에 무용과가 개설되고 강이문이 무용학과장을 맡게 되었다. 춤 세계의 작품 현장에서 춤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외

길을 걸어온 강이문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학 강단의 이론 강의를 맡았으며 부산 최초의 무용학과를 신설하여 많은 제자들에게 예술의 혼을 불어넣었다.

이와 같이 1960·70년대 춤계는 이전의 신무용적 춤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1980년대의 한국 춤 예술이 그 독창성을 갖추게 되는데 커다란 기반이 되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강이문은 공교육 기관에서 보다는 무용연구소 위주로 부산 춤계를 이끌어 나갔던 춤꾼들의 지적 수준을 고취시키고 창작 의욕을 불러 일으켜, 질적 향상을 통해 기량을 키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 춤 평론의 전성기

실천적 이론가로서의 강이문은 부산 최초로 무용학과에서 학과장

을 맡아 춤의 아카데미에 더욱 분투하였으며, 변함없는 춤에 관한 정열과 더불어 1980년대 부산 춤계의 시대적 요청으로 그의 노년기는 더욱 뜻깊고 보람되게 진행되었다.

침체되었던 부산의 춤계는 1980년대 들어와서 놀랍게 바뀌어가고 있으며, 부산의 10개 대학 중(전문대학 포함) 6개의 대학에 무용학과가 신설되어 춤의 아카데미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연횟수가 배 이상 늘어났다.

1985년을 기점으로 한 하야로비 현대무용단과 그 이후의 배김새, 짓, 현대무용단 춤, 부산 현대 무용단, 연무회, 부산 창작 무용단 등이 동인 그룹 형식으로 만들어져 각자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어, 춤 단체 활동과 공연이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춤 평론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필요했으며, 그 동안 독보적인 활약을 해 온 강이문의 평론은 보다 더 의미있는 춤 방향성과 춤의 미적 가치와 부산춤의 미래를 지적해 주었다. 게다가 1981년에는 한국 예술 평론가 협의회와 한국 춤 펜클럽이 결성되어 보다 적극적인 춤 평론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춤에 대한 집념으로 두박두박 걸어온 암울한 청년기로부터, 차근차근 춤 이론을 정립하며 끈질기게 집착한 장년기와 중년기를 거쳐온 험난한 외길 인생이었으나, 이 때는 가장 안정된 여건 속에서 춤의 평론이 꽃을 피운 전성기라고 보여진다.

1982년에는 부산시 문화위원의 직책을 맡았다. 이즈음 「부산춤 문화권 형성」이라는 제언으로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지역춤만이 서울의 중앙적 춤문화와의 주객전도에서 벗어나고, 부산적 한국춤, 부산적 발레, 부산적 현대춤을 생산하고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민족춤의 전진은 개성적인 향토춤의 다양한 집성에서 이루어지며 개성적인 민족춤의 조성이야말로 세계 춤 문화의 전진에 공헌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해부터 춤지에 개재되는 춤평도 지난 해보다 배로 많아지기 시작한다.



부산의 무용가들과 함께

에 대한 공로가 컸기 때문에, 명예교수로 남아 계속 후학들을 지도하게 된다.

이러한 변함없는 열정의 강이문은 1988년에 한국 예술 총연합회에서 예술 공로상을 받았고, 1990년에는 한국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개천예술제의 대회장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에 부산 사람으로서 그것도 춤 평론가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 무용제에 심사위원장을 맡아 한국춤 방향을 고집하는 심사평을 했다. 1991년에는 한국 춤 평론가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평론가들의 자세와 사회적 역할, 소임을 깨닫고 실천적으로 살고자 노력했다. 그는 일생을 춤에 대한 집념으로 변함없는 일관성과 노력의 자세로 살았다.

1992년, 마지막 운명 때 남긴 책상 위 쪽지에는 무용이란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고 물으면 “소설 쓰나, 시 쓰나”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살다 가는 거지”라고 대답하셨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춤을 위해 열심히 살다 가셨다. 돌아가시던 날 혈압이 올라 답답해지자 옥상 시멘트 바닥 위에 엎드려 “이러다 괜찮을 거야” 하셨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태가 왔다. 열린 순찰차를 불러 메리놀병원으로 모셨으나 2시간만에 심장마비로 눈을 감으셨다. 그는 돌아가기 직전 수녀님으로부터 요셉이라는 대세를 받으며 종교에 귀의하여 경남 양산의 석계 이북 5도민 단천묘역에 안장되었다.

## 춤계에 끼친 업적

강이문의 이론세계를 계승한 뚜렷한 제자가 없다는 점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김춘방과 몇몇 이름이 거론되긴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활동상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나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깊은 경지의 춤이론과 평론세계가 그대로 잠들었다는 것은 한국 춤계를 위해서도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대해 정병호는 강단에 선 세월이 그리 오래 되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제자를 키운다는 것이 힘들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고, 김온경은 스승이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기에 어떤 방식으로 제자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잘 모르셨던 것 같다고 한다. 또한 김칠관은 오로지 혼자 책을 보고 독학을 한 일이니 만큼 스승의 역할과 내리사랑의 방법을 잘 모르시고, 제자를 키우는 방법 면에서 부족했으리라고 한다.

저술이 없다는 것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1970년대부터 저술의 의지를 보였었고, 주변에서도 많이 권유하며 최승희에 관한 일본 원서와 일본의 ‘노’에 관한 책들을 구해 드리기도 했으나 결국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다.

부인 김홍련은 이제 저술을 하고자 준비를 하셨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돌아가셨다고 회고한다.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또한 완벽하지 않은 책은 용납할 수 없었던 성격 탓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일부에선 학문적 계보 문제를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

정병호에 의하면 그 당시만 해도 김경옥, 조동화, 강이문씨 정도가 평론가로 활동했다고 한다. 조동화, 김경옥씨는 현대무용의 평론을 잘 했고, 강이문은 신한국 무용에 대한 평을 많이 했다. 그의 평론은 학술적이었으며 천부적인 수준에서 춤을 논해, 그 당시 부산춤계의 대변자 겸 춤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평론의 이론적 배경은 아주 혁신적인 창작무용 중심이었으며, 한국 창작적인 신무용을 더 중요시했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상과도 무관하지 않

다. 평론가로서의 강이문은 각 대학의 왕성한 평론 활동을 가동시킨 초석 역할을 하였고, 특히 영남 지방 춤계의 활성화, 질서 유지에 중심적인 인물이라 생각된다. 최승희에 관한 언급이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승희에 대해 극찬을 하면서 큰 호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복한 무용의 영향 또한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김칠관도 최승희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회고하고, 교수 자격 인준을 위한 논문도 최승희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시대적으로 그 논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거두어들었으며, 현재 손세란이 보관하고 있다. 당시의 평들은 평론이란 분야를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연구소간의 과열 경쟁을 유발시키는 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회고한다.

평론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분으로 기억된다. 어떤 작품이든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평을 하여 누가 보아도 의문없이 인정하게끔 문장을 엮으셨다. 참으로 다정다감하고 춤계를 사랑하신 분이셨다.

정막 역시 강이문의 춤평론은 어휘수와 표현이 독특했고 춤적이었으며, 아주 한국적인 춤 용어를 잘 찾아 썼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알기 쉬웠다고 한다. 강이문에 대한 춤평의 수준이 뛰어났음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또한 춤평론계의 독보적인 존재이자 부산 춤계의 정신적 대부로서의 강이문이 춤계에 끼친 지대한 업적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척박한 땅에서 독학으로 한 학문 분야를 일구어낸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서도 자랑할 만 하리라.

강이문은 한국 춤 평론의 한 획을 그었으며, 차세대 평론가들의 초석 역할을 하여 현재의 춤평론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만주에서 갖추어진 능력으로 춤계에 조직력을 불어넣어 한국 최초로 부산 시

립 무용단을 만들었으며, 이로써 부산 춤계는 국제 무대 진출이라는 꿈을 가지고 한층 강화된 위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는 소신에 찬 준거를 바탕으로 근현대 춤문화사에서 춤문화의 중앙-지방 균형을 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족적인 것과 향토적인 춤을 주장하는 독자성을 구가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적 보편성에 접근하는 창작춤과 한국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춤을 서로 융합시켜 미래의 국무(國舞)를 창조해야 한다는 원대한 제안을 하였다.

강이문은 또한 춤의 아카데미를 이루어 내었다. 한성여자초급대학에서 춤이론을 강의하다 부산여대 무용과를 개설시키면서 부산의 대학 무용에 대해 산과 역할을 했다. 그 뒤 6개 대학에서 무용과가 생겨나고 춤계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며, 동인 활동이 활성화되고, 부산 춤계는 질적·양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다.

그는 한국의 전통적 민족무용을 국무라 규정지어 이 개념을 각별히 부각시키고, 한국무용의 교육적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한국무용에 대한 과학적 자세로 역사학적, 비교무용학적, 심리학적, 운동학적, 사회문화적, 창조공학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무용의 현대화에 따른 방안에서는 전통적 무용과 현대의 무용은 서로 효율적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무용의 개념 및 성격, 시기별 활동 상황과 무용가, 신무용의 영향과 진단 등을 논하고 있다. 또한 부산 시사 편찬위원을 맡아 부산무용사를 정리, 후학들에게 좋은 지침을 주기도 했다.

신문 혹은 잡지에 일반적인 무용론을 발표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평론을 쓰기 시작, 춤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체계화시킴으로써 부산 춤계의 교통정리를 했다. 전통춤과 창작춤을 구분하고, 춤가락에 대한 질서를 잡으며, 예술관을 부각시켜 부산 춤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춤의 위상 정립에 공헌했다.

또한 춤평론가로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현장 무대 예술가로서

의 자리매김을 위해 대본이나 무대연출 및 감독으로 직접 참여한 실천적 이론가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뮤지컬 「조국찬가」를 비롯하여 무용극 「산하역만년」 「아아 동래성」 등 13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으며, 이는 무대 형식을 바로잡아 종합예술로서의 춤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 춤꾼들의 구심점으로, 세계무대로의 진출 등 보다 넓은 안목을 지니고, 높은 지적 수준과 창작 의욕을 지니도록 각성시켰으며, 실천적 삶의 태도를 지니도록 독려하여, 춤꾼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춤대본작가, 춤연출가, 춤기획자, 춤행정가, 춤이론가, 춤평론가 등 춤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기억되는 강이문의 춤계에 남긴 지대한 업적은

첫째, 춤평론가로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현장 무대 예술가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대본이나 무대연출 및 기획, 제작, 감독으로 직접 참여한 실천적 이론가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한국 춤평론계에 한 획을 그어 한국 춤평론의 초석을 이루었다. 춤지에 70여편의 평문을 실었으며, 기타 간행물에 실린 평문 및 논문 등도 70여편이 넘어서는 다작의 기록을 이루었다.

둘째, 춤이론가로서, 학자로서 춤의 아카데미를 이루어 내었다. 부산여대 무용과를 개설시키면서 한국의 대학무용 이론전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부산시사 편찬위원을 맡아 부산무용사를 정리하였다.

셋째, 춤행정가로서 국제 무대への 꿈을 가지고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 시립 무용단을 창단하는 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부산무용가 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넷째, 춤, 체육(특히 유도),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서예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예술적 소양을 지니고, 1950년대부터 이 능력들을 집중해 춤의 순수한 열정을 춤계에 던져 주었다.

다섯째, 부산 춤꾼들의 정신적 지주로, 보다 넓은 안목·높은 지적 수준과 창작 의욕의 각성, 실천적 삶의 태도를 지니도록 독려하고, 춤꾼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글을 썼음에도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실이다. 순수한 삶의 열정, 40년 험난한 인생 외길에서도 결눈질 한 번 하지 않은 지고지순한 삶과 춤의 사랑법을 깊이 새겨, 다양한 시각으로 그의 생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당리중학교 교사 김연화

## 2. 강태홍(姜太弘)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가야금의 명인 강태홍의 음악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의 삶의 흔적은 매우 희미하다. 그는 산조뿐 아니라 소리·병창·풍류·무용 등에 이르기까지 두루 뛰어난 재능을 지닌 명인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에 비해 그에 관한 기록이나 자료는 매우 희소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는 이미 작고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여서 그의 생애를 추적하는 데도 많은 한계가 있다. 오직 증언을 통해 4,50~100년 전의 일을 되살려야 하지만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마치 사금파리를 주워 모으는 심정으로 강태홍의 삶을 한 조각 한 조각 소중하게 맞추어 본 것이다.



### 강태홍의 집안 내력

강태홍(姜太弘, 1893~1957)은 호는 효산(曉山), 본관은 진주(晋州)로 1893년 3월 21일 전남 무안군 외읍면 교촌리 664번지에서 부친 강용환과 모친 정가매의 4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집안은 전라남도 무안의 당골 집안이었다. 당골이란 동네의 크고 작은 곳을 도맡아 하는 그 지역의 세습무당을 말하는데, 예로부터 모든 것은 음악과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골은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인이자 춤꾼이나 마창가지였다.

강태홍의 가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안에는 뛰어난 음악인들이 많았다. 그의 큰아버지 강준한(姜俊漢)은 소리는 물론 해금과 피

리에도 뛰어났다. 무엇보다도 부친 강용환(姜龍煥, 혹은 用安, 用漢)은 고종황제 때의 어전광대로서 우리나라의 창극을 처음으로 만든 창시자였다. 그는 의친왕에게 장단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사고참봉(史庫參奉) 벼슬까지 받은 명창이었다.

창극이 만들어진 당시 서울에는 지금의 청계천 2가 수표교 건너에 청국인의 거리가 있었다. 그곳에는 창극관이 있었는데 날마다 ‘삼국지’ 등을 연희하였다. 강용환 명창은 틈만 있으면 이 창극관에서 살다시피 하였는데, 그는 청국의 창극을 모방하여 판소리 춘향가를 최초의 창극으로 발전시켰다고 한다. 창극 ‘춘향전’은 1903년 가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극장 원각사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밖에 강용환에 대한 기록을 간략하게 보면, 그는 명창 이날치의 제자로서 고종황제 당시 희대의 대가로서 풍채도 좋았고 어려서 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재주와 학문을 겸한 천재요 귀재라 하였다. 판소리 12마당 중에 못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특히 춘향가, 심청가를 잘 불렀고 적벽가는 뛰어나게 잘 불렀다. 그는 창극 춘향전·심청가·변강쇠타령·최병두타령을 창작하는 등 창극의 최고 일인자였다.

이렇게 음악적 재능이 넘쳐나는 강태흥의 집안은 당연히 그의 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형 강태중도 당시 전라도 땅에서 손꼽힐 만큼 대금을 잘 불어서 많은 공연에 불러 다녔다. 그런가 하면 사촌지간인 명창 강남중은 임방울과 동문수학한 사이로서 병창에도 뛰어났으며, 독립운동에도 적극 참가하여 그의 아호인 오현(梧峴)은 백범 김구 선생이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 강태흥 선생의 집안이 이러하니 그의 음악적 재능은 이미 모태로부터 타고난 것이었다.

## 한을 품고 고향을 등진 강태홍

강태홍의 생애는 대략 네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태어나서부터 19세에 고향을 떠나기까지이다. 이 기에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집안 환경에 따라 태교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의 기초가 다져졌다. 그러나 불과 8세 때에 부친 강용환이 멀리 평양에서 객사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강태홍이 태어날 당시 집안은 매우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서당은 다닐 정도여서 그는 서당에서 한학과 예절을 배웠다. 실제 그의 필적을 보면 궁체로 매우 세련되게 잘 쓴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일 권번에서는 기생들에게 예절을 가르칠 만큼 어렸을 적 서당교육이 큰 바탕이 되었다. 그는 15세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으나 행복하지는 못한 듯 후일 딸 하나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된다. 그는 10대 약관의 나이에 한 동안 광주 신청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신청(神廳)은 곳을 할 수 있는 전문음악인들의 모임이었으니 당시 그의 음악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그는 자신의 신분과 음악에 대하여 심한 마음고생을 겪어야만 했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이 그의 음악은 높이 사면서도 정작 그 음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멸시한 때문이었다. 그는 젊은 혈기에 자기에 대한 천시를 건디기 힘들었고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욕구 또한 참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는 19세 무렵 고향을 떠나 대구로 옮겨갔다. 고향에서의 멸시가 얼마나 가슴에 맺혔던지 이때 고향을 등진 후 그는 죽을 때까지 거의 고향을 돌아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집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평생 동안 객지를 떠돌면서 오로지 자신의 음악만을 의지한 채 외로움에 젖어 살았다.

## 자기 자신과 싸워온 一心의 길

둘째 시기는 19세~34세 무렵의 대구권변과 경주권변에서 보낸 약 15년 간의 기간이다. 이 때는 음악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면서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였다. 최금란(1910?-1974), 이소향이 당시의 제자였으며 이때 ‘풍류회’를 조직하여 영제풍류를 전수하고 정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불교에 심취하여 대구 동화사, 경주 불국사 등 절을 자주 찾았다. 그 후 불교를 평생철학으로 삼았는데 생전에 그는 ‘음악을 하려면 사람으로 아홉 번을 환생해야 가능하다’면서 업보를 중히 여겼다고 한다.



안양스님과 함께(대구 동화사에서)

셋째 시기는 34세~47세 무렵의 약 십 수년 간 서울활동 기간이다. 이 때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을 오가면서 생애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34세 때인 1926년에는 제자 이소향과 함께 상경하여 병창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40세 때에는 조선악협회, 42세 때에는 조선성악연구회에 참여하는 등 활약하다가, 1939년 명창 이동백의 은퇴공연에 출연한 후 서울 활동을 접는다. 그는 원래 서울에서의 활동을 번거롭게 여기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용히 지내면서 음악을 즐기고 제자 가르치기를 더 좋아하였다. 방송이나 녹음, 사진 촬영 등도 싫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료들도 별로 남은 것이 없다. 이 때 틈틈이 대구에서 역시 제자를 두었는데, 박차경과 가야금의 명인 김중기의 조카 김취란에게 풍류와 산조를 가르쳤고, 당시 16세였던 박귀회가 달성권변에서 산조와 병창을 배웠다고 한다. 1937년에는 경주권변



경성방송국 공연(1937년 가야금은 정명도)

에 잠시 있었는데 당시 박동진이 큰아버지로 모시는 인연을 맺기도 하였다. 이후 강태홍은 울산 권번을 거쳐 부산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게 된다.

넷째 시기는 부산 동래 시절로서 그가 작고하기까지 약 20년이 채 안 되

는 기간이다. 부산 동래시절은 그의 음악을 완성시키고 많은 제자에게 그의 음악과 무용까지 고스란히 전수한 시절이다. 그의 산조가 단모리까지 완성된 것은 1951년쯤으로 추정되며, 후일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제자 구연우와 신명숙만이 비로소 완전한 가락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동래권번이 해체된 후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강태홍은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도 부산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부산은 강태홍 선생의 마지막 삶의 꽃을 피운 곳으로서 그에게는 고향보다도 더 정이 든 곳이라 할 수 있다.

### 부산에 뿌리내린 강태홍의 가락과 춤

그는 부산에서 자신의 새 산조를 완성시켰으며 원옥화·강남월·박차경·김춘지·김소희·구연우·신명숙 등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다. 한 동안 동래권번에서 제자를 가르치다가 후에는 ‘한국음악무용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가야금과 소리 외에도 해금·양금·피리 등으로 풍류와 산조·병창을 가르쳤다. 강태홍은 무용에도 능하여 승무·춤·수건춤 등을 가르쳤으며 당시 김운경(전 부산여대 무용과 교수)이 그의 무용을 전수받았다. 그가 언제 무용을 익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춤과 장단에 능통했던 한성준에게서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성준과는 많은 활동을 함께 하면서 교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가 부산의 동래권번에서 처음 가르친 제자는 원옥화(1928-1973)와 강남월이었다. 그러나 재주가 남달랐던 원옥화는 불운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김춘지(1919-1980)에 이르러 강태홍류 산조가 국가의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인정을 받고 막 꽃을 피우려다가 그만 김춘지 마저도 병환으로 작고하였다. 그 후 강태홍 산조의 운명은 구연우



47세 때의 모습(앞줄 왼쪽 둘째 형 태형, 뒷줄 왼쪽은 큰 형 태만의 아들)

우는 강태홍의 표현대로 “늙어서야 만난 번듯한 제자”로서 일찍이 16세 무렵에 입문한 남자 제자였다. 더군다나 그는 선생의 완성된 산조를 처음으로 배운 제자였다. 그런 그가 스승의 가락을 제대로 세상에 펼치기 시작하였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 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지병이 악화되어 스승과 선배들의 곁으로 세상을 떠났다. 참으로 묘한 운명이었다. 세간에서는 강태홍류만 하면 모두 죽는다 하고 강태홍류는 이제 끝났다고들 수군거렸다.

그런데 강태홍류의 마지막 인연은 따로 있었다. 다 꺼져버린 듯 하던 불씨가 새롭게 피어올랐다. 그 불씨는 다름아닌 강태홍 선생의 마지막 제자이자 구연우의 부인인 신명숙이었다. 동문수학하였던 남편의 내조를 위해 장롱 깊이 숨겨두었던 가야금을 그와의 인연이 끝나자 새롭게 세상에 들어내 보인 것이다.

이렇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만에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그의 마지막 제자에 의해 불꽃을 피우게 되었다. 1989년 신명숙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를 발족시켰고 부산의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을 받았다. 그 후 보존회의 적극적

인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첫 사업은 효산 강태홍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전국에 알리고 기념하는 행사였다. 그것은 단순한 추모제가 아니고 전국 규모로 기념 학술발표회와 연주회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강태홍의 고향 무안에는 그 일가의 예적비가 건립되었고, 효산국악제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국악제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벌써 올해 여섯 번째를 거행하였다. 이처럼 공연과 학술발표회를 함께하는 행사는 아마도 효산국악제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제 강태홍류 산조는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으며 나날이 넓고 깊게 뻗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공인된 이수자만도 11명이며 10명의 전수장학생이 강태홍 산조를 전수받고 있다. 그 밖에도 유락여자중학교와 해강초등학교가 부산시의 무형문화재 전수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히 강태홍류 산조를 전수하고 있다. 보존회가 발족된 후 산조 악보 출간, 음반 제작, 자료집·논문집 제1~3집 출간 등 학술 자료 정리에도 적극적이어서 무형문화재의 어느 단체보다도 내실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근래에는 강태홍의 산조와 춤 외에도 그가 남긴 다른 분야에도 새로운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가 남긴 악보의 풍류음악을 무대에서 재현하게 되었고 다른 악기의 가락을 첨가하여 동래풍류의 재현까지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강태홍이 남긴 산조의 구음가락을 제자 신명숙이 발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산조 구음가락은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그 교육적·음악적 가치가 매우 귀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강태흥 산조의 맛과 멋

‘강태흥의 산조는 다른 류에 비해서 개성이 있고 독특한데, 장단의 뒤를 열고 가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묘미가 있다.’

‘강태흥 가락은 장단 끝에 다음 장단을 걸고 넘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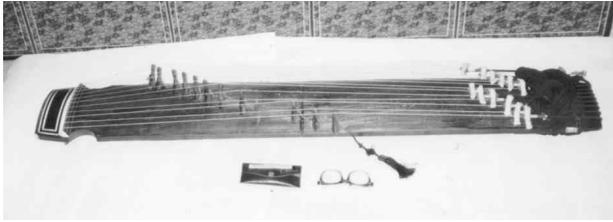
‘다른 산조도 겹가락이 있지만, 강태흥 산조는 갑절의 겹가락이라 아주 깊은 맛이 있다.’

‘강태흥 가야금은 귀신우는 소리 같았는데, 비가 오거나 굿은 날에는 영락없었다.’

‘강태흥 선생은 가야금으로 거문고 소리 흉내도 잘 냈는데, 그 후 그런 소리를 다시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강태흥 산조를 나타낸 말들이다. 이것은 강태흥 산조의 개성, 오묘한 맛, 장단 붙임새의 절묘함, 독특한 성음 등을 표현한 것이다. 강태흥 산조는 다른 산조에 비해 우조 가락이 많으며 표현을 절제하여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장단의 복잡 미묘한 멋은 다른 가락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독보적이며 어렵고 까다롭기가 정평이 나 있다.

강태흥의 가락에는 그가 혼신을 다한, 창작에의 집념이 녹아들어 있다. 그는 산조가락을 만들 때 각 지방에서 귀담아들었던 초상집의 울음소리를 참고하여 진양조의 계면조에 담았는가 하면, 개구리우는소리를 성음으로 만들어 자진모리 가락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는 길에서 마주친 조랑말의 발굽소리도 놓치지 않고 단모리 가락에 넣었다. 명무이자 명고였던 한성준의 집 앞에서 비가 오는 날 우연히 종이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게 되자, 휘모리에서 엄지손가락을 줄에 비벼내는 마찰음으로 그것을 함께 표현해 낼 정도였다. 이렇듯이 그는 오직 ‘一心’으로 자신의 산조 가락을



유품(가야금과 안경)

완성하였다.

이 밖에도 그의 재능에 관한 일화는 많다. 가야금으로 빗소리, 바람소리를 표현

해 들려준다거나, 병창으로 천자뒤풀이를 거꾸로 노래해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든지, 무대에서 느닷없이 곱사춤 흥내를 내면서 퇴장을 해 청중들이 배꼽을 움켜잡기도 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적벽가를 특히 잘 불렀고 병창으로는 새타령·화초타령·대장부가 등을 즐겨 불렀다.

강태홍은 음악적 재능 못지않게 인물도 준수하여 단아하고 균형 잡힌 체구에 말끔하고 수려하며 선비와 같은 풍모를 지녔다고 한다. 성품이 강직하고 깔끔해서 평생 한복만을 즐겨 입었고 험벗은 사람을 보면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주었다. 왼손잡이로서 성격이 괴팍한 반면에 해학적이고 태평스러운 일면도 있었다. 음악 외의 세상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별명이 “강태평”으로 불렸다고 한다. 또 하나 그의 삶에서 빼 수 없는 것은 아편이었다. 당시에는 비상약으로 아편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여행 중에도 흔히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 환경 탓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었고 강태홍 선생도 그런 경우였으리라 추측된다. “아편나고 강태홍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죽는 날까지 아편을 즐겼으며 굳이 아편을 끊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아편에 완전히 굴복한 것도 아니어서 아편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해를 입힌 적은 절대 없었다. 여느 중독자와는 다르게 죽을 때까지 끈고 맑은 정신을 지켰다고 한다.

강태홍 선생은 1957년 2월 3일 65세를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북통을 책상삼아 악보를 정리하던 중 앓은 채로 그대로 눈을 감았다고 한다. 그가 남긴 옥필 악보로는 산조보와 풍류보가 있으며 그 악보에는 ‘一心’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그 밖의 유품으로는 그의 손때가 묻은 가야금과 돋보기 하나, 그게 전부이다.

■ 부산대학교 교수 백혜숙

### 3. 금수현(金守賢)



금수현(金守賢, 1919-1992)은 작곡가이며, 교육자였다. 그의 호는 가락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당시는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면 사덕리) 전금마을에서 정미업과 땅콩 농사를 하였던 아버지 김득천(金得千)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그곳은 대부분 김녕김(金寧金)씨가 30여호 모여 살았고, 1930년 대저섬을 사이에 두고 두 줄기로 흐르던 서쪽 낙동강변에 수문을 설치하는 일천식(一川式)공사로 마을 전체가 500여미터 뒤로 옮겨 앉았다. 그의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무더운 여름날 구포장을 오가는 목마른 나그네들을 위하여 버드나무가 있는 그의 집 그늘 아래 장독에다 간장을 탄 물을 항상 내어 놓았다고 한다. 금수현은 6살에 서당에 들어가 천자문을 익혔는데, 반년도 안되어 모두 외워 그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무더운 여름날 서당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꼬마 친구들과 함께 마을 옆수로에서 떡을 감다가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다. 1926년 8살에 그는 집에서 2km정도 떨어진 대저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정규학업을 시작한다.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땡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속 나부낀다.  
제비도 놀란 양 내려 쉬고 보더라

한번 구르니 나무끝에 아련하고

두번을 거듭하니 사바가 발 아래라  
 마음의 일만근심을 바람이 실어가네

위 노래는 누구나 중·고등 음악시간에 한 번쯤 불러보았던 「그네」라는 가곡이다.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바로 금수현이다.

우리의 전통 장단인 3박자에 향토색이 짙은 이 노래는 1947년 어느 일요일, 여류작가이자 그의 장모였던 김말봉(金末峰, 1901~1961)의 시를 읽은 선생이 모시 한복을 단 아아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평화롭게 그네를 타는 광경이 눈에 보이는 듯한 곡상이 떠올라 약 15분 만에 완성했다는 일화가 있다.



금수현 노래비(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낙동강변, 조각가 금누리 제작)

### 음악의 꿈을 키우다

금수현이 처음 음악에 두각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 3학년 학예회에서였다. 김춘수라는 여교사 담임의 지도아래 “남경거리에도 해가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차라메라 불며불며 걸어간다”라는 일본말로 된 노래를 학예회에서 같은 반 여학생과 2중창을 하게되었다. 이 때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칭찬을 들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장차 음악가가 되기로 다짐하게 된다.

그의 음악수업은 4학년 때 김두성 선생님을 만나면서 본격화 된

다. 당시 그의 담임선생님이었던 김두성(金斗星)은 진주사범학교를 나온 새내기 교사로 금수현이 4학년부터 6학년 졸업 때까지 담임을 맡았던 사람이다. 담임선생은 음악이론에 밝고 또 오르간도 잘 연주하였는데 금수현은 선생님의 특별지도를 받았다. 따라서 금수현의 음악입문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의 담임선생님이었던 김두성이었다.

그러나 음악을 향한 뜨거운 그의 열정은 사업가나 혹은 금융가가 되기를 원하는 완고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꺾이어, 부산제2상고(부산상업고등학교, 2005년부터 남녀공학의 일반계 고교인 개성고등학교로 전환됨)로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음악적 열정과 꿈을 도저히 접을 수 없었던 금수현은 친구 김대우의 집에 있었던 피아노를 이용하여 바이엘을 연습하고, 어려운 부분은 당시 구포보통학교(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던 김재갑선생의 도움을 받는다. 음악 공부를 반대하신 아버지를 설득하여 18세되던 1937년 봄 드디어 일본 유학길에 올라 음악에 대한 그의 꿈을 현실화 시켜 나간다.

전통 있는 사립의 일본 동경의 동양음악학교(현 동경음악대학) 본과에 성악전공(바리톤)으로 응시하게 된 그는 응시자 9명 가운데 유일하게 합격한 한국인으로 후나코시(船越富美子)교수의 지도를 받게 된다.

음악학교 합격은 하였으나 당장은 입학금과 생활비가 문제였다. 고향을 떠나올 때 누군가가 알려준 대저초등학교 선배 김정호를 찾아가서 그의 주선으로 신문사지국의 배달원으로 취직이 되었다. 지국 2층에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월급 15원을 받게 되었고 지국장 내외가 매우 친절하여서 음악학교 입학금을 걱정했더니 쾌히 빌려주어서 학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은 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궁핍하지만 음악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신문과 우유배달 그리고 피아노가정교사 등의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이어나갔다.

이 때 그의 한국인 동기생으로서는 서수준(徐守俊, 전 경희대학교 교수), 최병선(崔炳善), 황삼용, 마금희(馬金姬) 등 5명이었고, 1년 후배로서는 이성삼(李成三), 김학상(金學相), 김학성 등이 있었다. 이들과 많은 음악적 경험을 쌓게 된다. 그리고 당시 한국인으로 하대응(河大應, 테너, 전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인범(李仁範, 테너, 전 연세대학교 교수), 이상춘(李想春, 테너), 마금희(소프라노), 남궁요설(南宮堯高, 베이스) 등이 일본 매일신문 주최의 콩쿠르에 입상한 것들을 보며 재차 음악공부에 열정을 쏟게 된다. 또한 그는 이 때 여러 지인들을 알게 되는데, 일본인 미우라 타마키(三浦環, 소프라노), 후지와라 요시에(藤原義江, 테너)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후지와라(藤原) 오페라단에서 활약 중이던 김영길(金永吉, 일본명 永田絃次郎) 등을 사귀게 된다. 그리고 저명한 수필가 김소운(金素雲) 선생을 알게 되고 또 일본인 종교가 카가와 토요히코(賀川豊彦)를 통하여 「가난 이야기」, 「한 알의 밀」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도 눈을 뜨게 된다. 3학년 때에는 일본에 오기 전 한국에서 문화운동을 한 사상범으로 몰려 80여일간 구치소 생활을 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1940년 3월 졸업연주회에서 「심봉사의 탄식」을 작곡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졸업 후에도 성악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동경에 머물며, 아사쿠사(淺草)의 국제극장 내 마츠다케(松竹) 오페라부 합창단원으로 1년간 활동하였다. 이때의 오페라단 경험이 그로 하여금 오페라 작곡에 대한 집념을 심어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1941년 3월에 오페라단이 해산되고 시국도 어수선했기에 따라 금수현은 그해 봄 5월에 귀국하게 된다. 그는 귀국 후에 부산좌(현 부산극장)에서 귀국독창회를 갖게 되는데 이 때 그의 스승인 후나코시(船越富美子)교수가 찬조 출연을 하여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주었다. 이 후 그는 구포에서 숙박업을 하는 김용수가 출자한 공연단을 만들어 노래와 춤이 있는 극을 소재로 마산, 통영, 삼

천포 등지로 순회공연을 다녔다.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한 구경거리 인지라 가는 곳마다 크게 환영을 받았으나 수입은 많지 않아 적자를 보고 결국 해산하고 만다. 그 후 고향 선후배들의 제의로 「강팔십」이라는 농촌 계몽극을 만들어 마을 회관과 김해읍 등에서 공연을 펼쳐 많은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 교육자로서 그리고 음악가로서

금수현은 23세 때인 1942년 4월 동래고등여학교(현 동래여자고등학교)음악교사로 발령받아 교육자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당시 동래여고는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의 권영운(權寧運)이 교장을 맡고 있었는데, 권교장과의 면담이 있던 지 1주일 후에 곧바로 음악교사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여학교인 까닭에 총각 이었던 그는 학생들과의 염문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한 학기 안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발령을 받았다. 또한 가르친 제자와는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약조를 하였다.

그는 첫 월급 80원을 받아 고스란히 고향의 아버지께 드렸는데, 아들이 여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것과 월급이 매우 많다는 것 등으로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다.

금수현은 오르간과 합창단 그리고 발레의 기본 등을 지도하며 학예회를 여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며,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또 학생들과 함께 「목란종군(木蘭從軍)」이라는 음악극을 만들어 좋은 평을 받기도 하였다.

그의 결혼은 극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동료 여교사이며 사돈지간이었던 황순조의 주선으로 황교사와 초등학교 동기생이었던 이 학교 출신의 전혜금(全蕙金)이라는 여성을 학적부의 사진으로 소개받게 된다. 그 후 우연한 계기가 되어 부산 초량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던 장차 장모가 되는 김말봉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 자신의 딸이 피아니스트라며 내민 사진 속에 전혜금이 있었던 것이

다. 김말봉은 서울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京都)의 도시샤(同志社)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일간지에 「밀림(密林)」 「짚레꼳」 「생명(生命)」 등의 소설을 연재하여 각광을 받았던 소설가였는데, 전해금의 생모는 아니었다. 이 김여사의 노력으로 여름방학에 전해금을 만나 부산 송도해변을 거닐며, 두 젊은 연인들은 한여름 내내 음악 애기로 사랑을 키웠다. 그들은 1943년 10월 27일 부산 초량의 김말봉의 집에서 백년간약을 맺고, 경주와 해운대로 신혼여행 떠났다. 그의 부인 전해금은 금수현이 재직하고 있던 동래고등여학교의 전신인 동래일신여학교의 졸업생으로 인천 부평의 대정보통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드디어 8월 15일 광복을 맞았다. 며칠을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행진을 하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한국어로 된 마땅한 노래가 없어 만세만 부르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다. 이 때 금수현은 이런 감격의 순간에 불러야하는 노래가 있어야 함을 느껴 동료교사인 이중희에게 작사를 부탁하여 교무실에 앉아 “삼천리강산에 새 빛이 트는 날”로

시작하는 「새노래」를 작곡하였다. 그리고 이 노래를 프린트하여 동래중학교 등 부산 시내 여러 조선 학교로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리에서 금수현 작곡의 이 「새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이 행진을 하였다.

해방이 되자 금수현은 건국준비위원회 경남도위원회 문화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7살의 최연소 건국준비위원회의

새 노래

이중희 작사  
금수현 작곡

해방을 맞아 1945. 8. 17

광복을 맞아 1945년 8월 17일 작곡한 「새노래」의 악보

도위원으로서 해야 할 첫 임무는 관악대와 혼성합창단을 만드는 일과 「독립」이라는 오페레타를 작사·작곡하여 부산 초량교회에서 연습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UN군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나라이름을 대동진국으로 정하는 등의 일련의 건국작업들은 백지화되고 군정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금수현도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불과 며칠전까지 일제하에서 일본말로 교육을 했던 죄책감 등으로 만약 교육계로 복귀를 하면 학교를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마침 같이 동래고등여학교에 교감으로 재직하였던 김하득이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현 경남여자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수현을 교감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말을 전한다. 금수현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터라 1945년 10월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상남도 학무과장 및 1946년 신설한 부산사범학교(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장을 겸임하였던 윤인구(尹仁駒,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가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도청으로 들어가 보니 윤과장은 금수현이 작곡한 「새노래」가 무척 마음에 들어 자신도 “8월 15일”이라는 시를 한편 썼으니 그것에다 곡을 붙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금수현은 하루만에 곡을 완성하여 다음날 윤과장에게 보여주니 그도 악보를 조금 볼 줄 아는 터라 몇 번 같이 불러보고는 매우 흡족해 하였다. 윤과장의 지시로 이 「8월 15일」은 경상남도 전 학교에 배포되었다. 또한 부산방송국에 금수현의 노래 지도로 매일 같이 이 노래가 방송되었다. 최소한 경상남도에서는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 「8월 15일」과 그리고 「새노래」를 즐겨 불렀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에 한국어로 된 우리의 노래가 없었고, 또 일제탄압의 울분을 달래는 데는 이 두 노래가 제격이었기 때문이다. 금수현이 작곡한 두 노래를 통하여 사람들은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경남여자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자리를 옮



그런 와중에도 금수현은 부산의 음악인과 음악교사들이 중심이 된 ‘경남음악협회’를 1946년에 결성하고, 초대 회장을 맡게 된다. 이 협회는 경남에 음악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조직되었는데, 교육음악부, 성악부, 기악부, 작곡부의 4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단체는 음악 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기 위해 경남음악콩쿠르대회, 음악주보 발간 등을 수행하였다.

1946년 제1회 경남음악콩쿠르대회가 경남여고 강당에서 열렸는데, 이 콩쿠르는 해방 이후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이후 경연대회의 전례로 본보기가 되었다.

경남음악협회는 광복 후 첫 음악 간행물인 ‘음악주보(音樂週報)’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크기는 8절지 1매를 4면으로 나누어 프린트한 것인데, 당시 음악계의 주요 뉴스와 교재용으로 부를 노래 1곡을 실어 부산과 경남의 각 학교에 배부했다. 특히 주보는 매월 3원의 유가지였는데도 구독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매주 2천부를 찍어야 했다. 금수현은 이것을 경험으로 1951년 대청동에 새로이출판사를 차려 일반도서 및 악보출판을 시도했다. 그리고 1970년에는 음악잡지 『월간음악』을 창간하였는데,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둔 1992년까지 무려 22년 동안이나 발행함으로써 적박했던 한국음악계의 디딤돌 역할을 다했다.

1947년 금수현은 두어해 전에 「8월 15일」이라는 노래를 같이 만들었던 윤인구가 그동안 학무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였는데, 그의 추천으로 경남도립극장인 부산극장의 상임위원 지배인으로 발탁되어 예전에 자신이 독창회를 가졌던 부산극장의 운영자가 되어 교직일은 잠시 접고 극장장으로 8월에 전근하게 된다. 그는 극장장으로 취임하자 한국의 쟁쟁한 음악가들을 불러와 매달 1회의 ‘희망음악회’를 열었다. 이 음악회는 희망하면 누구나 무대에 섰으며, 곡목은 청중의 요청에 따라 조정되는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립극장의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제일 큰 문제는 무대

에 올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었는데, 영화나 연극 그리고 약극도 올려보고 또 당시 유일한 관현악단인 서울의 서울관현악단을 초청하여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 고민 끝에 아예 공연단체를 만들자고 생각을 내어 “새들예술원”을 창립하여 음악극 「피리와 칼」을 무대에 올리게 된다. 먼저 자신의 근무지인 경남도립극장의 부산극장에서 3일간 공연을 하였는데 성공이었다. 그 여세를 몰아 마산과 대구로 지방 순회공연도 가져 마산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대구의 명보극장에서의 공연은 당시의 시국사태로 실패하고 만다. 한편 도립극장운영도 너무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적인 것만 올린 탓도 있지만 표과는 직원들의 농간으로 수지도 말지 않았다. 그것에다 도청 회계과장은 도지사의 판공비 마련을 빙자하여 약극단 경연대회를 열어라는 권고와 또 깡패들의 횡포 등으로 금수현은 심한 갈등을 하게되고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만다. 대략 1년을 극장장으로 지낸 셈이었다.

1948년 9월 그는 다시 부산사범학교 교감으로 채용되어 교직에 복귀하였다. 1949년 1월에는 음악인뿐만 아니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자회”를 조직하여 미국공보원의 공간을 빌려 매달 국민개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 당시 금수현은 이런 저런 일들로 생활비를 제 때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 궁여지책으로 마당에 양계장을 만들어 부업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꽤찮은 수입을 가져다주었다.

1950년 경남음악협회의 제5회 경남음악콩쿠르를 동광초등학교 강당에서 예선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38선에서 남북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진다. 그러나 행사를 중단할 수 없어 겨우 예선만 끝내고 예선을 통과한 사람 모두를 입상자로 선정하고 행사를 종료하였다.

전쟁은 학도병으로 강원도 전선에 나간 그의 제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들어야 했고 또 한편 과거 그가 경남여고시절에 만든

음악극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이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등의 내용으로 된 「을불(乙弗)의 고생」 속에 삽입된 곡이 전선으로 향하는 군인들이 즐겨 부른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이후 그는 1952년 34살의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경남여중 교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이승만대통령의 한글맞춤법 간소화 정책에 대한 반대건의서 올렸다는 이유로 다시 좌천되어 1956년 2월에는 경남통영고등학교 교장으로 1년간 역임하였는데, 그곳에서도 열심히 학교를 잘 운영하여 성공적인 대학합격률과 또 학교 시설 보완과 부지를 확충하는 일련의 성과를 올렸다. 이것으로 그의 현장 교직생활은 마치게 되었다.

1957년에는 문교부 편수관으로 공무원 신분이 되어 살림을 모두 서울로 옮겨 가게 된다. 편수관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하고, 국정교과서의 편찬과 검인정교과서의 검열 등을 수행하는 주요한 직책이었다. 이때에도 그는 음악용어의 한글화 작업에 의욕을 보여 음악용어제정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또 한편 그의 부인과 주변 친지들이 모여 “별을 돕는 모임”을 만들어 오늘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후원자가 되어 또 한명의 세계적인 음악가를 길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1961년 5·16 직후 금수현은 박정희 군부정권의 중앙정보부 행정이사관 시사정보실장에 되었다. 이때 그는 중앙정보부의 기관지 『양지(陽地)』의 발행일을 맡기도 했다. 곧 공화당이 조직되자 중앙상임위원이 되어 부산 동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 했으나, 공천과정에서 처참하게 낙선을 하고 다른 당으로 출마하였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외도가 되었다.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금수현은 국제신문 고문을 맡아 ‘거리의 표정’이라는 칼럼을 낙초(洛初)라는 필명으로 100회까지 썼으며, 후에 이를 ‘거리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묶어 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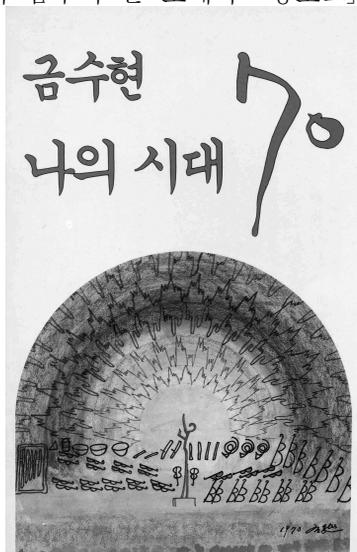
서울에서 금수현은 1965년 작곡가 정윤주의 제안으로 ‘영필하모

니관현악단'을 조직하고 이사장직을 맡았다. 그해 2월에 YWCA강당에서 창단연주를 하고 매월 정기연주회와 영화음악녹음 등도 함께하는 관현악 활동을 시작하였다. 1970년에는 음악잡지 『월간음악』을 창간하여 음악소식과 보급에도 열심이였으며, 이 일은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22년간이나 계속했다. 그 외에도 그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리에 종종 추대되었는데, 1972년 음악저작권협회 회장, 1982년 한국작곡가협회 회장, 1982년 한성로타리클럽 회장 등이 그것이다.

1989년 그는 자신이 살아온 70평생의 지난날을 회고하는 자서전적인 『금수현 나의 시대 70』을 저술하였다. 그 저술방식은 소설형식을 빌려 전편을 부산에서의 생활 그리고 후편은 서울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이 책에는 금수현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오래전부터 꿈꾸어 온 오페라 「장보고」를 3년여에 걸쳐 완성하고 난 후, 당뇨합병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1992년 8월 31일, 73세의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다행히 그가 떠나기 몇 개월 전 1992년 2월 21일 고향인 대저1동 낙동강대로변 독에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작품인 「그네」노래비가 건립되었다.

착상이 기발한 선각 음악가 혹은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나가는 아이디어맨으로 불리었던 그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주옥같은 선율들은 아직도 우리 귀에 쟁쟁하고 그가 길러낸 많은 제자들은



1989년에 금수현 자신의 70평생을 정리한 자서전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있다.

▣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정영진

## 4. 김중식(金鍾植)

### 성장과 수학

김중식(1918~1988)은 척박한 여명기 부산화단을 지키고 가꾼 1세대 순수 토박이화가로서 일생을 부산에서 활동한 부산 근현대미술의 개척자이며 선구자였다.

그는 1918년 12월 13일, 부산 동래구 장전동에서 한의사인 아버지 김하준(金河駿)과 어머니 정연군(鄭然君)의 2남1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호는



남장(南藏)이다. 장전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공부하기 위해 열살 때 초읍동으로 이사를 해서, 성지공립보통학교를 다녔다.(1926~31)

1937년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일본제국미술학교(현 무사시노 예술대학)에 유학하여 5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1942년 귀국하여 부산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한편 교육일선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하였다.

그림에 대한 재능은 유년기부터 나타나 그림그리기를 좋아해 온 집의 벽과 사랑채 대문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릴 정도였으며, 부친으로부터 붓글씨를 배웠는데, 훗날 그의 화필에 영향을 주었다. 고등학교 재학시, 일본인 미술교사 이찌이다메지로(一井爲次郎, 동경미술학교출신)에게 비로소 미술에 대한 소질이 발견되고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부친의 희망이 의사였기에 미술부활동은 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부모 모르게 미술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유학길에 올라 일본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게 되며, 부모도

응락하기에 이른다.

당시 그가 다닌 미술학교는 사립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유럽의 미술사조와 예술론과 회화기법을 폭 넓게 배울 수 있었으며, 여기서 터득한 그의 서양회화와 예술에 대한 안목은 이후 황무지와 다름없었던 부산화단에 밑거름이 되었고, 서양화법을 수용하여 토착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입학동기생으로 황염수 김창억이 있고, 함께 공부한 한국미술학도로 임환규 최덕휴 권옥연 김종하 장옥진등 후일 한국미술계를 지도한 이들이었다. 재학중인 1938년에는 ‘재동경조선미술학우회’회원으로 ‘백우회전’(白牛會展)에 참여하였다.

### 교육 및 작품활동

귀국 후에는 작품활동에 전념하였으나, 해방과 동시에 교육계에 몸담아 동래공립중학교(1945~47)를 시작으로 부산여중학교(1948~51) 부산개성중학교(1952~55) 부산중학교(1956~61) 경남충무중학교(1962) 양산중학교(1963) 진해중학교(1964~66) 김해중학교(1967)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68년부터 1983년 정년퇴임때까지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한편 작품생활을 병행하였다.

1946년 3월, ‘김종식 유화전’을 동래공립중학교 강당에서 ‘해방감격’외 39점을 가지고 열게 되며, 이후로 생애에 걸쳐 19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그때마다 지역미술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선도적 작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개인전 기록을 정리해 보면, 1회전(1953, 실로암다방) 2회전(1954, 실로암다방) 3회전(1961, 실로암다방) 4회전(1963, 부산공보관) 5회전(1964, 동광동 은다방) 6회전(1965, 문화방송살롱) 7회전(1965, 울산 명다방) 8회전(1966, 마산 제일다방) 9회전(1966, 진해 흑백다방) 10회전(1970, 동광동 맥스웰다실) 11회전(1973,

남포동 코스모스다방) 12회전(1974, 목마화랑다실) 13회전(1975, 목마화랑) 회갑기념회고작품전(1978, 현대화랑) 16회전(1979, 국제신문전시장) 18회전(1982, 남산화랑) 19회전(1983, 수로화랑)이다.

특히 1953년에는 동인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토벽동인전(土壁同人展 1953~54)」을 서성찬 김영교 김윤민 임호 김경과 함께 결성하여 참여하게 된다. 당시 피난지인 임시수도 부산에 몰려와 있던 중앙화단 미술인들의 작품과 차별화를



회갑기념전시회에서 부인과 함께(1978년)

위해 기획했던 것이다. ‘토박이’에서 전칭하여 명명된 ‘토벽’의 어휘에서 향토적인 미의식의 향훈이 짙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1세대 미술인들이 지녔던 부산미술에 대한 정체성의 자각적 태도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창립전(1953.3.22~29 르네상스다방) 팸프렛」에 실렸던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서 그들의 예술적 지향처를 살필 수 있다.

“제작은 우리들에게 부과된 지상의 명령이다. 붓이 문질러지면 손가락으로 문대기도하며, 판자조각을 주어서는 화포를 대용해가면서도 우리들은 제작의 의의를 느낀다. 그것은 회화라는 것이 한 개 손끝으로 나타난 기교의 장난이 아니오, 엄숙하고도 진지한 행동의 반영이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이 천박한 유행성을 띄운 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닐진데, 그것은 필경 새로운 자기인식 밖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여기에 우리들은 우리 민족의 생리적 체후에서 우러나오는 허식없고 진실한 민족미술의 원형을 생각한다.

가난하고 초라한 체, 우리들의 작품을 대중 앞에 감히 펴놓은

소이는 전혀 여기에 있다.”

이후 그가 참여한 또 다른 동인활동은 「7월동인전(1955~56, 현군록전)」과 「신제작동인전(1969)」 그리고 부산지역 원로미술인들의 모임인 「후기전(1971~75)」이 있으며, 구상화계열의 「하상전(1982~87)」에 원로로 초대되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의 작품이 초대되어 발표되었던 각종 전시회를 기록하여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미술협회 창립전(1948), 부산미술전(1948, 민주중보사주최), 부산현대작가전(1959), 부산신춘화전(1962, 청우싸롱), 부산예술제·미술초대작가전(1963, 민주신보주최), 한국미술전(1963, 터어키 앙카라예술회관), 양데빵당전(1965, 부산미술협회), 진해군향제미술전(1968), 공간화랑 개관기념 3인초대전(1975), 지방작가 초대전(1975, 서울미술회관), 한국서양화대전(1977, 서울국립현대미술관), 부산미술 30년전(1979, 부산미술협회), 동방미술회관개관기념전(1980), 제1회 부산미술제(1980), 부산작가 50~70대 초대전(1982), 원뿔 9인의 형상전(1982, 부산미술평론가 3인 기획),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1982), 부산판화제(1985), 화랑협회미술제전(1986), 부산미술 10인전(1987, 갤러리누보개관전)을 들 수 있다.

작품활동을 하는 한편으로 지역미술의 살림살이를 맡아 부산미술협회 회장(1959)과 경남교육미술연구회 부회장(1960), 충무미술협회장(1962), 진해미술협회장(1964)으로 일했으며, 부산시 문화상 심사위원(1959), 제1회 동아국제미술전 심사위원(1968), 제1회 부산미술전람회 심사위원(1975), 부산시 문화위원(1982~83)을 역임하였고, 이와같은 지역문화예술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직할시문화상(1984)과 국민훈장 동백장(1984)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부산시 문화상 수상식장에서(1984년)

분위기, 순수조형의 세계, 먹선 펜화의 드로잉, 만년의 사의적인 필치의 풍경화등 여러차례의 변모와 다양한 관심의 이행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그가 회화의 근원적인 세계에 대한 지향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걸어가는 행로와 유사한 작가적 태도를 견지한 데 있다.

말하자면 의식의 변모에 따라 그 때마다 상응하는 작품을 쉼새없이 실현해 보인 탓이다. 전체적으로 서구적인 회화미학(개체성)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산수미학(우주성)으로 나아가려는 끊임없는 지향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가 일생을 통해 완성해 보이려고 했던 것은 ‘새로운 남화’였으며, 그가 엄두에 둔 ‘남화’(南畵)란 남부지방의 산하가지닌 밝고 따뜻하고 풍요한 대기감과 풍토적 성향을 내재화시켜 화창하고 영묘한 기운이 깃든 진경(眞景)으로서의 풍경을 서구의 재료인 유채(油彩)로 표출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인 수묵산수화(水墨山水畵)의 남화와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남화’라고 했다. 예컨대, 흰빛 화폭의 바탕위에 주홍색을 주축으로 청색 녹색 황색으로 엮어지는 풍요한 색감 곧 진채(眞彩)로서의 기운을 머금은 사의(寫意)풍의 표현성 짙은 회화공간을 말한다.

그의 남화로서의 풍경은 서구의 사생(寫生)으로서의 재현적(再現

## 화풍과 작품세계

그가 섭렵한 회화의 세계는 실로 폭이 넓고 다채로와 표현양식으로 볼 때, 사실적인 것 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에 이르고, 표현주의적인 성향에서 구성적인 것에 미치고, 초기의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관능적인 탐미, 유현한 정신적

的)인 것이나 인상파류의 감각적인 화법과 구별되는 것이며, 전통산수화가 지닌 관조적(觀照的)인 시선을 계승한 것으로, 풍경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과 순간적 감흥을 질게 드러내는 경향이였다. 따라서 절제된 색채와 필획으로 함축적인 화면구성을 통해 의표(意表)를 고도화 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가 영감을 얻었던 풍경지는 부산을 비롯하여 영남의 일원에 걸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오늘의 부산과 관계가 깊은 곳을 든다면, 첫째로 대청동 산중턱에서 바라본 ‘부산항’을 소재로 한 것이다. ‘부산항’연작은 1949년에서 1956년에 이르는 데, ‘부산항 여름’(1949), ‘부산항 겨울’(1949)은 1940년대말의 궁핍한 시대를 말하듯 짙은 표현성으로 쓸렁하고 적막하다.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가 작품으로 남긴 부산의 여러 곳은 해운대 태종대 광안리 영도 서생 이송도의 바닷가를 비롯하여, 낙동강변 하단 장림 엄궁 암남동과 근교의 신암 금정산 산성 창기 연산동 천마산 구덕산 만덕 범어사 김해대저를 위시하여, 남부지역으로 경주석굴암 불국사 계림 통도사 내원사 석남사 송광사 무등산 용화사 내장산 밀양남천강 얼음골 무주구천동 언양 충무 가야산해인사 부석사 충남아산 승주선암사 대흥사 내장사 금산사 장안사 영취산이 포함된다.

실로 그의 작품에 끼친 지리적 남부와 영남 및 부산의 풍광은 남화의 좋은 소재였으며, 작품형성의 인자로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남화이전에도 그의 시선은 늘 우리들의 삶의 결과 함께 하였다. 해방후 귀국한 귀환동포의 길거리에 나앉은 생활을 다룬 ‘귀환동포’(47), 6.25전쟁 당시의 피난민의 애환어린 삶을 엿보게 하는 ‘노상’(52) ‘판자촌’(53) ‘자갈치 제빙회사’(53) ‘행상’(54)이 있다.

특히 화가로서의 일생에 결정적 계기가 된 ‘색채에 대한 개인’도 부산역전 대화재(1953.7.28)의 재난체험을 통해서 비롯했다. 먼저

나간 불길로 자신의 대청동 화실과 작품과 집이 전부 타버린 불의의 화재를 당한 그는 망연 자실한 가운데 불바다를 응시하였고, 그 이글거리던 불꽃과 화염에서 살아 있는 주홍빛 색채를 발견하고 감격적으로 눈과 가슴이 열린 것이다.



작품 「제비」 1952년 작

이 주홍빛 불꽃체험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제비’(1954, 88×134cm 유채)이며, 본격적으로 주홍색 일색으로 다룬 첫 작품이 ‘인간가족’(54)이다. 그 뒤를 이어 ‘석류’ ‘닭’ ‘소’가 주홍색의 진수이자 정점을 보인 작품이다. 그리고 ‘제비’이후로 그의 부산항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 ‘일출의 부산항’(1955)이 되면서 먼동이 트는 부산항의 아침하늘을 포착하기에 이르며, ‘부산항 석양’(1956)에 와서 훨씬 동적인 화면이 되고 주홍색 반점의 필획이 곳곳에 찍히고 있다. 이 주홍색 반점은 그 뒤 1970.80년대의 남화 풍경에서 영묘한 필획으로 되살아 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주홍색 체험을 계기로 그의 남화풍경에서 주축을 이룬 녹색 황색 청색 흰색이 연대별로 풀려 나오는 데, 이른바 녹색기(1960년대, ‘호수’ ‘녹심’ ‘수림’), 황색기(1970년대 중반, ‘누드’ ‘오월의 바람’), 청색기(1970년대 후반, ‘불국사’ ‘범어사’ ‘대흥사’ ‘만덕’), 흰색점획기(1980년대 초, ‘장안사’ ‘서생’)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색채의 종합화를 위해 흰빛 바탕위에 주홍색 필획을 주축으로 하면서 여러 색들이 어울린 남화로서의 풍광을 구상한 것이 만년의 화풍이었다. 그러나 그 온전한 미학적 종합과 성취를 이루지 못한 채 미완으로 남기고 생애를 마쳤다고 하겠다.

남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풍경화가 수렴한 회화적인 성취



작품 「신암풍경」 1973년 작

는 영묘(靈妙)한 색채와 3박자 혹은 6박자의 출렁이는 호흡을 지닌 간결한 운필의 선과 필획, 그리고 절제된 화면의 구성미에 있다. 우리 전통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그의 작품에 용해되어 계승되었고, 유년기의 붓글씨는 독특한 필치로 되살아났다. 얼핏 보아서 허술해 보이는 화면이지만, 팽팽한 기운이 충만하고 유채화의 세련된 발색에서 오는 풍토적 미감은 그가 서구의 유채화를 얼마나 자기화시켜 독자적인 경지에 도달했는가를 짚어보기에 충분하다.

유채화와 병행한 흑백 드로잉(drawing, 소묘)의 회화적 성취도 주목되는 것이다. 그의 드로잉은 종이위에 올려지는 먹색의 펜화로서 재료의 자연성과 함께 직관적인 표현의 담백함과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것은 전통회화인 수묵화(水墨畵)와 정신적 유대를 지니고, 그 미학적 탐구의 한 방법으로서 주효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남화'그리기에서 요구되는 흰빛 바탕만들기 즉 여백으로서의 무(無)와 공(空)에 대한 통찰과 상호관련되어 병행해간 것이다. 실오라기 같은 가는 선으로 베를 짜듯이 날줄과 씨줄로 촘촘이 엮어지며 되풀이되는 선긋기에서 생성되는 화면의 담백하고 유연한 깊이는 독보적인 경지를 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작품세계는 '김중식 화집'(1988, 부산일보사)과 '김중식 드로잉화집'(1987, 도서출판국제)으로 정리되고 엮어졌다.

## 작품주변과 사후평가

늘 휴대용 화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방이나 주점에라도 앉으면 만년필로 드로잉을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그의 회화에 대한 안목은 가히 독보적인 수준을 가져서 그의 가르침은 정곡을 찔렀으며, 어눌한 말투로 비유법을 썼던 탓에 마치 신문답같아 화두를 던져주는 방식이었다. 대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오고 간 대화속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 술도 마른 명태와 고추장을 안주로 막걸리를 마시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그의 안목으로 봐서 대충 길 훑기식의 작품을 하는가 싶으면 ‘사기꾼’이라고 주저없이 평가 했다.

그 자신 비사교적인 성격도 있지만, 대단한 자존심을 지녀 서울 지역을 비롯해 타지역에 알릴려고 하지도 않았고 개의치도 않았다. 또 그의 작품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 생전에 작품을 바깥에 내놓지 않고 스스로 소장하다시피 했다.

학교의 제자로서 미술활동을 하는 인사로 이용길 김해성 안세홍 이두옥 백성도 조순옥이 있으며, 학교밖에서 사숙한 제자로 서상환 김영주 박윤성이 있다. 주변의 지인으로 각별했던 이들은 김만철 김수용 박춘재 신옥진 안용기 옥영식 주정이를 들 수 있다.

1988년 부산일보사의 주관으로 작품집 출간과 회고전을 준비하였으나, 행사를 불과 열흘 앞두고 8월21일 타계하여 유작전이 되고 말았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백운공원묘원에 안장되었다. 89년 1주기를 맞아 대청동의 화실은 유족에 의해 기념관으로 단장되어 개관하였으며,(중양동 40계단위 남성여고빌) 이때 동아대학교 회화과 출신 제자 및 재직자 친지들의 뜻으로 그의 흉상이 조각가 원승덕(동아대학교 교수)에 의해 제작되어 안치되었다. 그리고 94년 4월에는 생전에 그를 따랐던 제자와 주변사람들 38명의 뜻으로 부산에서는 최초인 ‘김종식 그림비’를 만들어 금정구청과 범어사의 협조를 받아 금정산 범어사 기슭 하마마을 양지바른 곳에 세웠다.



김중식 그림비 제막식 후 기념촬영(1994년)

그림비는 커다란 화강암 자연석을 이용하였으며, 비명은 미술평론가 이시우의 고졸한 욕필을 빌려 음각하였고, 비문은 시인 김규태(전 국제신문 논설주간)의

것으로, 조각가 김정명(부산대학교 교수)의 구상과 조각가 김외칠 정희옥의 솜씨로 다듬어 졌다. 그림비답게 가로 놓인 자연석의 오른쪽 윗부분을 액자모양으로 하고, 그의 작품 ‘부산항 석양’(56)을 오석으로 화폭처럼 만들어 넣었다. 「비문」의 내용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손은 그의 영혼을 대신하여 움직였다. 영혼의 황홀한 전파를 손으로 전달받아 그리고 지우고 또 문질렀다. 끈적거리는 색채들을 마치 교향악처럼 울리어 놓을 줄 알았다. 잠자기 전까지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쉬지 않은 까닭이다. 찬란한 손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사후에도 그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전시가 계속되었다. 열거하면, 부산 직고작가전(1992, 용두산미술전시관), 향토 작고작가전(1996, 부산일보사), 김중식특별전(1999, 부산시립미술관), 한국현대미술의 시원전(2000, 국립현대미술관), 김중식 회고전(2001, 부산공간화랑), 화랑미술제(2001, 예술의전당 미술관), 대구아트엑스포(2002, 대구문화예술회관)이며, 발간물로는 『한국예술총집』 「미술편II」(1999, 대한민국 예술원)에 작품 ‘수전노’(1944) ‘가일

의 초가'(1955)가 수록되었으며, 『한국현대미술의 시원전 도록』(2000,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작품 '인물A'(1960) '화병'(1962)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부산시립미술관에는 그의 작품 '귀환동포'(1947)를 비롯한 대표작 20점이 소장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작품 '생'(1982)이 소장되어 있다.

■ 미술평론가 옥영식

## 5. 오제봉(吳濟峯)



### 성 장

오제봉(吳濟峯)은 1908년 8월 26일 경북 금릉군 증산면(甞山面) 장전리(長田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명은 ‘덕개(德介)’이고 아호는 ‘청남(靑南)’이다. 아버지는 오준경(吳俊京), 어머니는 나복련(羅福連)이다. 이 두 분 사이에는 8형제가 있었으나 누님 봉순(鳳順), 형님 봉개(鳳介) 둘만 살아 있었다. 그러나 형마저 19세에 요절(夭折)하고 남은

남자라고는 청남 뿐이었다.

더욱이 아버지는 동학군(東學軍)에 가담하여 언제나 나돌았고, 가난한 집안을 지키는 사람은 어머니였으나 전통적 가부장제도하의 가문을 이끄는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하나 밖에 없는 손자를 위하여 노심초사(勞心焦思) 덕개의 장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일곱 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는 덕개를 서당(書堂)에 보내기로 마음먹고 이웃에 있는 송계동(松溪洞)으로 보내게 되었다. 이곳에서 2년동안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을 마치고 아홉 살 때 다시 도영재(道英齋)에 보내지게 되었다. 도영재 김진사(金進士) 훈장은 덕개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이담에 군수는 못 돼도 면장 짚은 하겠다.’

후에 덕개는 살아오면서 이 말의 추억을 언제나 간직하면서 꿈을 길러 왔다고 술회했다. 동네 훈장이 덕개를 자랑하는 것은 이 시를 지은 후부터이다.

산은 깊고 맑은 계곡물 찬데  
 지난 해의 고기는 크지를 못했구나  
 만약 비가 와서 동쪽으로 흘러간다면  
 네의 조상이 살던 넓고 큰바다를 만날 것이다.

山深清溪冷 不長去年魚  
 若雨東流去 滄溟爾祖居

이런 서당생활도 열두 살에 끝을 맺고 가난한 집안을 위하여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할아버지와 함께 짚신을 삼아 생계를 도왔다.

### 부처님과 인연

이제까지 동학군에 따라다니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마음을 돌려먹고서는 짐으로 돌아왔다. 곧 아버지는 두부막(두부공장)을 차렸는데 배고픈 시절이라서 의외로 두부가 잘 팔려 집안이 조금씩 좋아졌다. 이때 아버지는 덕개를 김천(金泉)이나 대구로 보내 공부를 더 시키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하려 했다. 그때 나이가 열다섯 살이었다.

어느 날 단오절(端午節) 동네 어른들이 정자(亭子)에 모여 단오잔치를 의논하는데, 지나가던 한 스님이 다리섬을 청하였다. 그 스님은 해인사(海印寺)에서 직지사(直指寺)로 가는 박영찬으로 해인사의 임환경(林幻鏡) 스님이 ‘제자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동네 어른 중 한 사람이 오씨 집안 후손들의 단명(短命)함을 잘 알고서는 ‘자네 아들 덕개, 서당에서 공부도 했고 고풍(古風)도 꽤 지으니 절로 보내 공부를 더 시키면 어떻가.’ 했다.

그날 저녁 덕개 집안에서는 동네 어른들과 함께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아버지쪽과 어머니쪽이 갈려 장시간 논의가 되었으나 결국은

‘명이 짧은 집안의 아이라.’는 것으로 어머니도 출가하는데 동의하게 되었다.

1923년 음력 5월 초여섯 날 가족들의 눈물어린 배웅을 받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해인사로 향했다. 당시 스승이 될 환경 스님은 홍제암(弘濟庵)에 주석했다. 덕개는 스님의 몇 가지 물음에 답을 잘해서 곧 제자의 허락을 받았다. 홍제암의 첫날밤은 너무도 길었다. 이튿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몸이 되었다.

홍제암에 온지 반년이 지났을 때 스님은 덕개의 덩기머리를 자르고 삭발했다. 그 이후도 2년 동안 경전 한 줄 못 배우고 부엌때기 노릇만 했다. 그러자 덕개 나이 열일곱이 되니 환경 스님은 덕개에게 ‘동률(東律)’이라는 법명을 내리고 때로 한자 공부, 글씨 지도도 해주었다.

불경 공부는 사미의(沙彌儀), 초심(初心), 발심(發心) 등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발심편 원효대사 수행장(修行章)에 있는 ‘행함이 없는 빈 몸은 길러도 이익됨이 없고 몇몇함이 없는 뜬 목숨은 사랑하고 아껴도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無行空身 養無利益 無常浮命 愛惜不保)를 좌우명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해인사에는 강원(講院)이 있어 이 강원에는 전국에서 승려 지망생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동률은 이 강원의 학인(學人)이 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공부에만 매달렸다.

이미 독학으로 사미과(沙彌科)를 끝낸 동률은 사집과(四集科)에 들어갔다. 이때 홍제암에는 조실(祖室)로 변설호(卞雪翹) 스님이 계셨는데 동률을 사랑하여 언제나 그를 따로 불러 공부시켰다. 이때 강원에서는 ‘관음전’ 현액 글씨를 학인들에게 써내라 했는데 요행히 동률의 글씨가 뽑혀 이로부터 동률은 붓글씨 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연마했다.

## 의곡사(義谷寺)의 추억

강원의 마지막 과정인 대교과(大教科)를 마치면 해인사 말사(末寺)의 주지자격이 부여 된다. 그러나 나같은한 절도 없어서 제봉(濟峰)은 동봉(東峯=河東山), 금봉(錦峰=曉堂 崔凡述), 설봉(雪峰), 일봉(一峰), 응봉(應峰), 허봉(虛峰), 묘봉(卯峰), 서봉(西峰) 등과 함께 절에서 큰스님들의 시봉을 들면서 지내고 있었다. 이 구봉(九峰)들은 후세 제 나름의 자취를 남긴 스님들이다.

이 스님들은 모두 해인사 강원 출신들인데 이때 잇을 수 없는 두 스승은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과 화봉(華峰) 유엽(柳葉)이다. 만해는 민족주의자로 사상적으로 강원 학인들을 교화했고, 화봉은 와세다[早稻田] 문과출신으로 교양과 문학으로 학인들을 매료시켰다. 이 두 분의 사상적 영향은 한창 커가는 학인들 가슴에는 천근같은 무게로 다가왔다.

1932년 대교과를 마치고 강원을 졸업하는 날 그렇게 엄격하던 환경 스님은 동물을 불러 ‘지금까지는 동물이었지만 이제부터 제봉(濟峰)이라 법호를 내리네.’했다. 동물은 ‘그 길고 고단한 세월을 용하게 버티고 견뎌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을 지체할 수가 없었다.

강원을 졸업한 후에도 오제봉(濟峰)은 조교 자격으로 강원에서 학사운영을 돕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동봉은 범어사(梵魚寺), 금봉은 다솔사(多率寺) 주지로 각각 부임해 갔다. 얼마 안있어서 난데없이 진주, 사천 지구에서 진정서가 환경 스님께 배달되어 왔는데 그것은 ‘오제봉 스님을 진주 의곡사(義谷寺) 주지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1937년 2월 9일, 드디어 의곡사 주지로 부임하게 되었다. 출가하고 15년이 지났다. 그때 오제봉은 29세 젊은 나이였다.

이때까지 의곡사는 관리 소홀로 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신도들은 ‘젊은 스님이 새로 왔다.’하여 절의 면모를 혁신시키기로 했다. 오제봉은 첫 출발의 주지 생활이라 강원시절에 배운 지식을 정성을

다하여 불사에 바치고 신도들에게는 설법으로 감화시켰다. 그는 그때의 상황을 회고록에서 이렇게 술회했다.

아무튼 내 일생의 큰 분수령이 되는 의곡사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비로소 나의 독자적인 생활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대처승이 된 것도 또 서예에 뜻을 둔 이래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한 인간의 통과 의례에는 반드시 분수령이 있는 법이다. 제봉이 출세간에 이름을 더 날릴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의곡사 생활 22년 동안이었다.

의곡사 시절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만해당(萬海黨) 사건이다. 만해가 해인사 강원에 강사로 있으면서 학인들에게 민족정신을 교육시킨 여파가 새로 부임한 함천(陝川)경찰서장 다케우라[竹浦]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오제봉이 의곡사를 맡고 2년이 지난 1939년 음력 12월 초였다. 일본인 형사 열명과 조선인 앞잡이 한 명이 느닷없이 의곡사에 와서 2시간여 조사를 하고서는 만해당에 입당한 것과 오세창(吳世昌)과의 서신 연락한 것을 보고 함천경찰서로 연행했다. 이 만해당은 해인사 출신의 쟁쟁(鏗鏘)한 승려는 모두 가담했다. 이날 변설호(卞雪翹)를 위시하여 최범술(崔凡述), 임환경(林幻鏡), 김법린(金法麟), 김범부(金凡夫), 이고경(李古鏡), 민동선(閔東禪), 이원구(李元九), 박인봉(朴印峰), 최성관(崔性寬) 등이 모두 연행되어 심한 고문 끝에 반신불수(半身不隨)가 된 사람도 있다.

어느 날 의곡사에는 지봉의 기와가 태극무늬이고, 또 절 문쪽에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다는 평계로 절사람들을 못살게 했다. 제봉은 이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요행이 만해당 당원중 6명은 부산으로 이첩되고 제봉을 위시한 6명은 석방되어 8개월 만에 다시 의곡사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 이때 다시 해인사에서는 별난 일이 일

어났다. 그것은 홍제암에 있는 사명대사의 비가 ‘만해당과 관계가 있다.’하여 다케우라에 의해 파괴된 것이다. 이 다케우라는 이 사건으로 통영경찰서로 영전되어 가서 이곳에 있는 제승당(制勝堂)에 안치되어 있던 이순신 장군(李舜臣 將軍)의 영정에도 칼질을 한 악질 경찰관이었다.

### 개천 예술제와 국전 출품

대한민국이 수립된 4년 뒤인 1949년도에 처음 국전이 열렸다. 50년도에 6·25가 발발하여 쉬다가 53년 정부가 환도하여 제2회가 이어졌다. 이 국전에 출품할 때까지 오제봉은 수많은 스승과 동호인을 만났고,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은 모두 이때 만난 사람들이라고 그는 회고록에서 술회하고 있다. 의곡사는 서화인의 집합소만이 아니고, 시인묵객이 진주에 들으면 반드시 찾는 곳이었다. 그때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풍곡(豊谷) 성재휴(成在休), 청전(靑田) 이상범(李象範), 운전(芸田) 허민(許珉), 산강(山康) 변영만(卞榮晩), 소정(小亭) 변관식(卞寬植), 벽산(碧山) 정대기(鄭大基), 성파(星坡) 하동주(河東洲) 등이었다. 오제봉은 이때를 회고하여

훌륭한 스승, 좋은 친구가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 값진 재산임을 생각해 볼 때 이렇듯 이름 높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나는 참으로 복 많은 자임에 틀림없다.

이 글을 통해 진실로 오제봉의 인간적 일면을 읽을 수 있다. 성실하고 인정 많은 그의 면모가 눈에 선하다.

특히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풍곡(豊谷)과 의재(毅齋)이다. 그 중 오제봉보다 일곱 살 아래인 풍곡을 처음 만난 것은 오제봉이 스물다섯때 대구의 서화인 죽농(竹農)의 조카 서철규의 집에서

였다. 풍곡은 그곳에서 심부름 따위 잔일을 하며 기식하고 있었는데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 어쩌다 그가 들리면 그림 좀 봐달라며 눈앞에 들이대곤 했는데 사람을 그리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나무를 그리면 또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세밀히 그린 그런 그림들이었다.

그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청전(靑田)과 의재 문하에서 그림을 배우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오제봉이 의재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인연이 됐던지 이후 6년여 동안 광주에서 의재의 제자로 그림 수업을 받게 됐다.

오제봉이 평생 살아오면서 친교를 두텁게 가졌던 지인들은 요산 김정한(樂山, 金廷漢), 산정 서세옥(山丁, 徐世鈺), 여초 김응현(如初, 金應顯), 영운 김용진(穎雲, 金容鎭), 소전 손재형(素筌, 孫在馨), 일중 김중현(一中, 金忠顯), 시암 배길기(時庵, 裴吉基), 국초 김창국(菊初, 金昌國), 소암 현중화(素庵, 玄中和), 목우 이성순(木偶, 李性順), 여운 최재용(如耘, 崔在鎔), 동헌 오용준(東軒, 吳龍俊), 삼호 하석구(三乎, 河錫九), 경재 조녕조(敬齋, 曹寧助), 창산 성항근(昌山, 成恒根), 여석 송세현(如石, 宋世賢), 윤재 이규옥(潤齋, 李圭鈺), 월전 장우성(月田, 張遇聖), 남농허건(南農, 許健), 청초 이석우(靑艸, 李錫雨), 우암 오재수(又庵, 吳才秀), 청당김명재(靑堂, 金明齋), 근원 구철우(槿園, 具哲宇), 학우 권손(蟻宇, 權巽), 계남김영배(溪南, 金永培), 소정 변관식(小亭, 卞寬植), 검여 유희강(劍如, 柳熙綱), 야동 오복근((也東, 福根), 강암 송성용(剛庵, 宋成鏞) 등이었다.

진주는 예부터 예향이다. 조용한 반촌이지만 예인들이 많아 예술의 도시로 이름이 높다. 이런 연고로 오제봉이 의곡사에 있으면서 개천 예술제가 이 도시에서 시작된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있었다. 1949년 10월 3일, 단군이 이 나라의 국기(國基)를 잡은 날을 기리는 첫 「개천 예술제」가 거행되었다. 오제봉도 이 행사의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진주지방의 예인인 설창수

(薛昌洙), 강천석(姜千錫), 강주식(姜周軾) 등이 주축이 된 이 행사는 해가 거듭할수록 전국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해마다 10월 3일이면 진주로 몰려오는 예술인들은 모두 의곡사로 모여 들었다. 그것은 오제봉이 개천 예술제의 발기인이면서 의곡사가 예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예인들과 교류하고 개천예술제에 출품한 성과를 국전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것이 오제봉의 큰 꿈이었다.

1949년 11월에 제1회 국전입선작 전시회(1949. 11. 21~12. 11)가 경복궁(景福宮) 미술관에서 열렸다. 오제봉은 첫 출품한 2점이 모두 입선되었다. 하나는 「계산무진(溪山無盡)」이란 액자였고, 또 하나는 「칠언고시(七言古詩)」를 쓴 가리개였다. 오제봉은 여기에 힘을 얻어 그 이후부터는 더욱 서예 정진에 몰두하여 제8회 때에는 문교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 청남(靑南)의 작풍(作風)

일찍이 향파(向破) 이주홍(李周洪)은 『청남서예집(靑南書藝集)』 서(序)에서

현하(現下) 서예가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기초의 법도도 없이 손끝 재기(才技)만으로 시류에 편승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청남은 자기 세계의 설정이 늦다 싶을 만큼 문자 그대로 마천천개연(磨穿千個硯)과 모진만상호(耗盡萬箱毫)로 고규섭렵(古規涉獵)을 일과로 해 왔으니 오늘 전예해행초(篆隸楷行草)에 두루수(髓)를 얻고 있음이 우연의 소수(所收)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렇다. 청남은 오서체(五書體)에 두루 박통하였다. 흔히들 그를 일러 다작의 명수라 이른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정진의 한 방편임을 생각하면 게으른 사람들의 한갓 부질없는 말인지 모르겠다. ‘청

남은 평생을 통해 천개의 벼루에 구멍을 내고, 만상자의 붓을 소모했다.’란 향과의 말을 빌리면 ‘어찌 다작했다.’함이 흥이 되겠는가.

정중환(丁仲煥)은 『청남서예집』 발(跋)에서

서(書)는 사람이란 말과 같이 선생의 중후한 인품과 같은 불교의 수양과 유가의 대중지도(大中之道)의 정신에 의하여 서예에 있어서도 선생은 항상 무본(務本)에 힘써 왔다. 기교나 명성을 떠나서 서도의 기본 정법을 탄탄히 닦아 왔다.

서예의 정도도 인격의 온축(蘊蓄)과 함께 한다. 오제봉은 어린시절 유가의 집안에서 뼈대가 굵고, 자라서는 불도에 입문하여 그 인격을 쌓았다. 서예의 길도 바로 이 길과 함께 했다. 흔히 세속적으로 청남정도 되면 서예가 돈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가 평생 개인전을 4번 밖에 하지 않았던 이유의 하나가 ‘돈과 바꾼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라고 할 정도였다.

한 예로서 오제봉은 「佛」자를 자주 썼다. 이것은 오제봉의 마음 뿌리에 박혀 있는 영혼의 알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로지 무념무상(無念無想)하는 속에 진공묘유(眞空妙有)가 있었다. 모든 세속적 욕심을 떠나서 「佛」자를 쓰는 그 순간만은 항하사(恒河沙)와 같은 먼 시간 속에 몰입하여 오로지 망기(忘機)하고 정진할 따름이었다.

### 인생유전, 다시 머리를 기른다.

을유(乙酉) 해방을 맞고, 이승만(李承晩)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교계도 개혁의 바람이 크게 일었다. 일제강점기 사찰에 있으면서 처를 가진 대처승은 모두 친일본자라는 허황한 소문이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 교구제(敎區制)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22년 동안 몸담았던 의곡사 생활을 청산하고, 몇몇 정들었던 신도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 남강(南江)으로 나갔다. 초여름의 신록이 싱그럽

기만 했다. 푸른 무 잎이 남쪽 밭에 가득히 펼쳐져 있었다. 그때부터 내 아호가 '무 청(菁), 남녘남(南)' 곧 청남이 된 것이다.



제2회 개인전(1967년 3월)

오제봉은 진주집에 가족을 둔 채 당시 부산 대각사(大覺寺) 주지로 있던

맥문(麥門) 김홍경(金弘經) 스님을 찾았다. 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추월영(秋月映) 교장을 위시하여 불교계에서 사귀었던 몇몇 친지들을 찾아 앞길을 의논하였다. 그들의 의논은 제1회 개인작품전을 여는 것이었다. 드디어 1957년 7월~8월 서예 전시회를 광복동 미화당 3층 전시실에서 '청남'이란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 성과는 너무도 좋았다. 첫 개인전이라서 작품도 적지 않게 팔렸다.

이것에 힘을 얻어 맥문(麥門) 주지 스님의 주선으로 안과의사 운여(雲如) 김광업(金廣業)과 대각사의 방 한 칸에 「동명(東明) 서예학원」이란 간판을 내걸었다. 일년이 지나고 나서 당시 경남고등학교 교장인 추월영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서예를 담당해 줄 것을 권해왔다. 또 경남상고 강제호(姜在鎬) 교장도 권해왔다. 이 두 교장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청남에게 생활을 해결해 주었고, 그 대가로 해방 후 거칠어졌던 학생들의 정신 순화를 위해 서예수업은 '그들의 정서를 가다듬게 하는데는 안성맞춤이었다.' 결국 이 두 교장은 두 마리 토기를 한꺼번에 잡은 성과를 거둔 셈이다.

1958년도부터는 부산사범대학, 동아대학교까지 서예강사로 출강하게 되었다. 청남은 이 시절을

바로 내 나이 50~60대 초이든 그 시절은 참으로 눈이 핑핑 돌

만큼 할일 많고 맡은 직책 많고 보람도 컸던 분주한 나날들이었다. 한 마디로 그 시절은 나의 80평생 인생살이의 최절정기였다.



제1회 부산상공회의소 예술대상 시상식(1989년 7월)

고 회고했다. 원래 1950년대 부산에는 서예는 불모지였다. 그동안 청남이 노력한 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1962년도에는 한국미술협회 부산지부장, 1965년도에는 국전추천작가, 부산시문화재위원, 1970년에는 그렇게도 바랐던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이 되었다. 이때에는 상복도 많아서 1963년에는 눌원문화상(訥園文化賞), 1964년 부산시 문화상도 받았다.

1968년에는 동대신동에 3층 집을 하나 마련하여 가정살림을 하면서 3층에 ‘청남묵연회(靑南墨研會)’란 간판을 걸었다.

이로부터 1960~70년대까지 가장 활발한 작품활동을 했다. 그동안 남긴 작품을 살펴보면 용두산 공원 표석(1960년), 축석루(矗石樓) 현판(1960년), 김정호(金正浩) 선생 기념비(1967년), 양산 통도사 현판(1969년), 태종대 공원의 금석문(金石文)(1975년)이 있고, 70세를 넘기면서도 많은 명품을 남겼다. 곧 광개토대왕비 전문 병풍서(廣開土大王碑 全文 屏風書), 성덕대왕신종명(聖德大王神鍾銘), 부산충렬문, 해남 대흥사(大興寺), 울산 석남사(石南寺) 등의 현판과 서울 덕수궁(德壽宮) 가락당(歌樂堂)의 현판, 부산 세관청사 외벽 금석문, 대청공원 조각공원에 서예비(書藝碑)(1990년)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1989년에는 부산시립박물관에 다량의 고서화와 보관해온 작품

을 기증하여 후진들의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유지를 받들어

청남은 1991년 11월 27일 향년 83세로 이 세상을 떠났다. 1968년에 설립한 묵연회는 그가 죽기 1년 전인 1990년에 문화재단이 창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묵연회 회장은 여석(如石) 송세현(宋世賢),



대청공원 서예비 앞에서(1990년)

문화재단 이사장은 부산일보 사장 민립 김상훈(民笠, 金尙勳), 동헌 오용준(東軒, 吳龍俊)이 사무국장을 맡아 청남 오제봉(菁南, 吳濟峯)의 유지를 받들어 서예도를 기리며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본 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전국회호대회를 하는데 그 연륜이 15년이 지났다. 이 대회에서 벌써 초대작가 30여명이 배출되었다.

■ 파전 한국학당 원장 김무조

## 6. 오태균(吳泰均)



### 부산 교향악운동의 선구자

부산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교향악단, 극단 등 시립예술단이 있다. 그중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962년 제일 먼저 창단되어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으로 시민의 정서생활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 그러면 이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한 음악인은 누구인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상임지휘자로 활동한 오태균의 음악적 세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음악적 삶과 활동

오태균은 1922년 4월 27일 충남 조치원에서 오영세와 이신덕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소학교 4학년때 동네 레코드 가게에서 들려오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듣게 되면서부터 서양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부모님께 타 쓰는 몇 푼의 용돈을 남몰래 모아서 약 1년 뒤 바이올린을 구입한다. 음악을 좋아하면서도 운동에도 관심을 보여 어린이 야구팀에도 몸을 담았었다. 부산 제2상고에 진학하면서 야구선수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운동으로 인한 손가락의 부상이 잦아지자 음악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시대에는 남자가 음악을 한다는 것은 나약한 것으로만 알던 시대였으므로 친구에게도 이 변민을 털어놓기가 어려웠다.

1943년 8월 경남 진양 태생의 강찬숙과 혼인하여 대전에서 부모

님과 함께 생활한다. 그 후 1947년 친척의 도움으로 서울에 정착하게 된다. 그때 마침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조직된 고려교향악단이 해산되고 지휘자 임원식, 김생려를 거쳐 미국인 로프자코비(R. Jachobi)가 이끄는 국립서울교향악단이 조직된다. 오태군은 국립서울교향악단에서 제1바이올린주자로 활동하는데 이 시기에 본격적인 교향악 운동이 전개된다. 1948년 11월 대전 공회당에서 첫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진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나자 교향악단의 단원들은 연락이 끊기고 모두 호구지책을 강구하기 위해 바빴다. 그 후 오태군은 북송의 위기가 있었으나 모면하며 서울에 잔류했던 음악인들과 지휘자 김생려를 중심으로 해군정훈음악대(해군교향악단)를 조직하고 음악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1·4후퇴를 맞음으로 부산에 정착한다. 그리고 해군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2월에 동경국제 음악학교로 유학을 간다. 이 시기에 바로크에서부터 낭만, 근대,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음악세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궁핍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포 예술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면서 함께 자주 연주회를 열었다.

### 현악4중주단, 부산교향악단 창단 및 활동

1953년 9월 오태군은 관현악단인 ‘부산실내악단’으로 현악4중주단을 창단한다. 단원으로는 제 1바이올린 오태군, 제 2바이올린 홍선하, 비올라 김진문, 첼로 장규상으로 구성되었다. 남성여고, 부산대의대 강당 등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 항상 초만원이었다. 오태군은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중구 보수동에 바이올린 연구소를 개설한다. 그 뒤 1년 6개월이 지나 중구 토성동으로 연구소를 옮겨 조기교육을 위한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1955년 5월에는 부산 공회당에서 제 2회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 한편 1950~1960년에는 활발한 평론활동을 한다. 그리고 고전음악 애호가들을 위해 1954~1970년까지 명곡감상회를 열었는데 망향에서 시작되어 미화당 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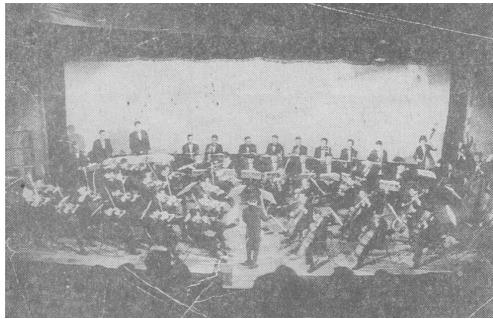
골목에 자리 잡은 칸타빌레, 아폴로음악실, 미화당 옥상, 클래식, 백조 등으로 이름과 장소가 바뀌면서 300여회에 걸쳐 감상해설을 했다. 레코드 음악감상 회원들은 현악4중주 연주회장으로 빠짐없이 몰려들었으며 뒷날 교향악운동의 청중으로 흡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53년 오태균은 장르를 초월한 예술적 교류를 즐겼는데 당시 광복동의 태백다방은 부산예술가들의 집합소였다. 음악계의 윤이상, 최인찬, 유신을 비롯하여 문학계의 유치환, 무용계의 이매방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낭만이라고 불리우는 기풍속에서 각 예술의 영역이 지닌 환희와 오뇌와 갈등을 발산시켰다.

1954년 오태균은 부산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약 2년 동안 활발한 연주활동을 했던 ‘현악4중주단’을 모체로 1955년 단원 50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2관편성인 부산대교향악단을 탄생시킨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시내에 있는 관현악전공 음악인들을 자극시켜 교향악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대교향악단은 3년동안 의욕적인 활동을 했으며 이 시기에 한병함이 이끄는 소규모 편성의 방송관현악단도 발족되어 관현악단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을 놓고 경쟁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자 주위에서는 이들의 통합을 권유하기 시작했고 박두석, 한남석, 김대철의 노력으로 부산교향악단이 만들어진다. 1957년 국제극장에서 서울오페라단을 초빙하여 현제명의 「춘향전」을 공연했으며 1958년 4월 24·25일 부일 시네마에서 부산일보사 주최로 부산교향악단 제3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1960년 동명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과 손을 잡고 푸치니의 「라보옌」을 공연했으며, 왕자극장에서는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을 무대에 올렸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스페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지휘자 안익태가 서울국제음악제에 참가하면서 부산교향악단을 객원지휘하게 된다. 이날 공연을 마치고 안익태는 부시장에게 “부산시가 시립교향악단 하나 안 만들고 무엇했느냐”며 호통을 쳤다. 안익태의 이와 같은 독려와 함께 오태균은 꾸준하게 김현옥시장실 방문을 두드려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결정을 맞이하게 된다.

부산에 현악4중주단이 태동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의 관현악 운동은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었으며 기쁨과 감동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1962년 11월 2일 중구 남포동 제일극장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연주회가 열렸다. 1962년 12월 7일 밤 8시 제일극장에서 2관편성의 54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창립연주회가 상임지휘자 오태균, 부지휘자 한병함, 악장 김진문으로 탄생하게 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 외에도 수해의연금 모금연주회와 각급학교 순회연주회 그리고 마산, 진주, 울산 등 지방 순회연주회를 거쳐 음악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공연장으로는 상업영화관인 제일극장, 왕자극장, 대한극장 등이 주무대가 되었으나 연주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무대가 비좁아서 합창단과의 협연이 있을 때는 지휘자가 설자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방음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음향은 천장으로 새어나가 뒷좌석의 관객은 제대로 음악을 감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연주횟수는 하루 3회(3시·5시·7시)연주를 했다. 이렇게 연주횟수가 많았던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클

래식 음악의 혜택을 주고자 했던 이유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오태균이 재임하던 시기에 53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연간 평균 6회 연주회를 가졌던 셈이다. 이 기간동안 객원지휘자의 지휘는 모두 5번이었는데 1963년 데이비드 사필로, 1964년 김만복, 1968년 정희석, 1965-1968년 권영순이다. 나머지 연주회는 모두 상임지휘자 오태균이 맡았는데 객원지휘자를 다양하게 초빙하지 못한 이유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주곡목으로는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차이코프스키, 슈베르트 등 고전파의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모차르트의 「마적」,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하이든의 「고별」 교향곡,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교향곡 등이다. 정기연주회가 열릴 때는 극장 앞에서 관객들이 장사진을 쳤으며 유리창에 매달려 음악을 듣는 극성파도 많았다고 한다. 지금처럼 레코드와 실제 연주회를 감상할 기회가 적었던 당시로서는 관객들의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지금과는 다른 순수한데가 있었다.

오태균은 완전한 음악을 향한 열정으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도 적극적인 만남을 가졌다. 1968년 미국무성 초청으로 카잘스 음악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지휘자 E.오르만디에게 지휘법을, 1982년 로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서 J.파울 교수에게, 1984년 쾰른부르크의 모짜르트 음악원에서 J.푸르니에 교수 밑에서 음악연구를 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음악연수를 통해 대가들의 음악세계를 직접 듣고 배우면서 그들이 가진 음악정신과 특유한 기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 대학가 오케스트라운동의 선두주자

오태균은 대학총장의 임기를 끝으로 1992년까지 약 20년 동안 대학교육에 투신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상임지휘자로서 10여년에 걸친 활동 끝에 대학에서의 음악교육에 뜻을 두어 부산여자대

학 음악과 교수로서 자리를 굳혔다. 1973년 부산여대에서는 실내악과 관현악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부산 대학가 오케스트라운동의 선두주자로서 17회 관현악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타 대학에 많은 자극을 던져 주었다. 한편 여러 보직을 거쳐 1988년 11월부터 첫 직선제 학장을 지냈으며 꼼꼼한 성격이었던 선생은 총장이라는 직책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대학발전에 전력을 기울였다. 1989년 10월 부산시 직업음악인으로 구성된 <부산 카메라타 앙상블>을 창단하여 부산의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말년에는 민간교향악 창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그 동안의 과로가 누적돼 지병이 악화되어 대외생활은 거의 하지 않았다. 선생은 간암으로 1년 남짓 투병생활을 했으며 건강을 위해 집을 남천동에서 공기가 좋은 기장으로 옮기기도 했다. 그러나 기장에서는 3개월 정도 생활했으며 1995년 4월 29일 0시 5분 부산 백병원에서 삶을 마감하였다.

오태군이 작고한 뒤 부산음악협회가 주축이 되어 2001년 6월 30일 사하구 하단동 에덴공원 솔바람음악당 옆에 오태군의 기념비가 제막되었다. 유호석(전 신라대학교 교수)은 “현재 부산에서 문학비나 미술비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반해 음악인을 기리는 추모비는 한 두 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독지가와 부산지역 음악인들의 협조로 이상근, 고태국 등 부산음악 1세대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태군 음악비는 김목운 시인이 비문을 썼으며 음악의 길로 인도한 작품이자 좋아했던 베토벤 「운명」 교향곡 악보를 발췌해서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고 오태균 선생님은 1922년 4월 27일 공주에서 출생하여 1995년 4월 부산에서 별세했다. 1952년부터 부산에 정착한 오태균 선생님은 연주가로서 음악교육자로서 부산음악발전에 현저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혼효한 시대인 1962년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해 교향악발전에 혼신을 쏟았고 후학양성에 정성을 다 하였다. 또한 연주를 통한 유려한 음악해설로 고전음악연구의 저변확대에 헌신한 바 지대함으로 그 공적을 높이 기리기 위해 음악협회가 주축이 되어 백광덕씨가 제공한 부지와 평소 고인을 아끼시던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이 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2001년 6월 30일 건립추진위원회>

1992년 4월 27일 고향(孤響) 오태균선생의 고회를 맞이하여 부산 여대 음악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오태균, 끝없는 교향악에의 추억』(청산, 1992)이 출간 되었다. 축하의 글에서 지인들의 회고를 발췌했는데 전 부산대학교 총장인 최재훈(崔載勳)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할 무렵의 그분의 피나는 노력과 창립 후의 초기 상임지휘자로서 여러 가지 당시의 어려운 일에 勞心焦思 하시던 때의 그분의 모습은 잔잔한 물결위에서 차분히 사상하는 音樂家의 모습이라기보다 밀어닥친 怒濤위에서 興亡의 岐路를 놓고 제 奮戰의 提督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전 부산대학교 문리대 교수 김철구(金喆九)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가 뭐라해도 그의 철학은 음악정신이다. 지성으로 한 신비적인 이미지로 사물을 관찰하고 인생을 관조한다. 그러면서 휴머니즘으로 인간과 음악을 사랑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탄생하기까지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인 공과 제임 10년 동안 불타는 정열과 집념으로 엮어진 활동이 시민들의 정서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었다. 한마디로 지방교향악운동의 선구자로서 한국교향악 운동사에 빛을 던져 주었다. 음악에 대해 품었던 순수한 열정과 개척자의 역할은 오늘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있게 된 밑거름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주은경

## 7. 윤이상(尹伊桑)



### 민족과 인간, 세계의 평화를 노래하다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尹伊桑 1917~1995)은 민족과 인간과 세계를 온몸으로 살다간 예술가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를 경험한 그는 누구 못지않게 민족현실에 가슴 아파했으며, 동베를린 사건의 굴욕을 극복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깨달았다. 또한 스스로 냉전 이데올로기와 남북대결의 희생자이면서도, 세계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껴안음으로써 지구촌의 평화를 모색한 대 음악가로 성장했다. 나아가 작곡자로서 그는 동양의 음악적 전통을 창작의 토대로 삼고, 이를 서양 현대음악 기법에 접목시킴으로써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구현했다. 요컨대 ‘음악을 통한 세계평화’와 ‘동아시아 음악전통의 현대화’는 윤이상이 갈구했던 양대 지표였다.

### 일본유학과 저항운동

윤이상은 1917년 9월 17일 경남 산청군 덕산리에서 양반출신의 윤기현(尹基鉉)과 농민출신의 김순달(金順達) 사이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여기서 세 살까지 살다가, 이후 충무시(현재 통영시) 도천동 157번지 본가로 옮겨와 호적에 올려졌다.

5살 때 호상서재(湖上書齋)에서 3년간 한학을 공부한 바 있는 그는, 8살인 1916년 4월 1일 6년 과정의 통영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해서 1922년 3월 23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 시기 윤이상은 인근 예배당에 다니며 찬송가와 풍금을 배웠는데, 그것은 훗날 그

가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통영협성상업강습소(統營協成商業講習所)를 2년간 수료하고, 1934년 서울로 올라가 바이올리니스트 최호영(崔虎永)으로부터 2년동안 화성학 중심의 작곡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작곡공부는 애시당초 한계가 있었으므로 윤이상은 2년 만인 1935년 초에 고향 통영으로 귀향하고 말았다. 일본 도오요오[東洋]음악학교 출신의 최호영이 전문 작곡가가 아니었던 까닭이었다.

통영으로 귀향한 윤이상은 작곡수업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일본에 유학해서 상업학교를 진학할 경우 음악공부를 해도 좋다는 부친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935년 4월 그는 오오사카[大阪]의 상업학교에 입학하는 한편, 오오사카 음악원에 등록해서 본격적인 음악공부에 매진했다. 여기서 그는 작곡·첼로·음악이론을 공부했지만, 갑작스런 어머니의 부고 소식에 2년을 못다 채우고 급거 귀국했다. 고향집 가세는 기울어져 더욱 가난해져 있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1936년 11월 8일 새문안교회 차재명(車載明)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기도 했다.

1937년에 윤이상은 첫 동요집 『목동의 노래』를 출판하고, 1938년 통영 산양면의 사립 화양학원(지금의 화양초등학교) 교사로 생활했다.

1940년 초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파리국립음악원 출신의 엘리트 작곡가 이케노우치 토모지로오[池内友次郎]에게 작곡을 사사하는 한편, 반일지하단체에 가담해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양학원 교사시절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윤이상은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귀국했고, 1942년 4월 아버지를 여의었다. 1944년 그는 무기제조로 독립운동을 꾀하다 그 해 7월 체포, 통영에서 두 달 간 구금생활을 했다. 9월 17일에 풀려난 그는 또 다시 내려진 체포령을 피하려 서울로 탈출했고, 서울에서 해방을 맞았다.



통영현악4중주단

### 통영과 부산에서의 지역문화운동

귀향한 윤이상은 통영공립고등여학교 음악교사로 지내는가 하면, 시인 유치환(柳致環)·김춘수(金春洙)·김상옥(金相沃), 작곡가 정윤주(鄭潤柱) 등과 함께 1945년 9월 15일 ‘통영문화협회’를 창립했다. 그것은 한글강습회·정서교육강습회·시민강좌·연극공연·음악회·농촌계몽순회강연 등을 통해 지역문화의 창출을 목적인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 윤이상은 9개교, 즉 통영여중·통영고등학교, 옥지중학교, 통영·충렬·두룡·진남·용남·원평초등학교의 교가를 작곡해 주었고, 1947년 ‘통영현악4중주단’(윤이상·정윤주·최갑생·최상우)을 조직해서 지역문화의 저변확대에 헌신했다.

1948년 통영공립여자중학교 음악교사 윤이상이 부산으로 옮겨 온 것은 1949년 부산사범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였다.

1949년 8월 1일 그는 그간 작곡한 「古風衣裳」·「달무리」·「鞞鞞」(1947)·「忠武歌」·「편지」·「나그네」를 모아 가곡집 『달무리』(서울: 行文社, 1949)를 펴냈다. 이들은 장·단조의 조성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전통적인 5음음계를 즐겨 활용했고, 화성 면에서 서양식 3화음에 2·4도의 부가음을 사용으로써 보다 근대적인 음악으로

나아가려 했다.

또한 이 무렵 그는 금수현과 함께 ‘노래하자회’를 조직해서 개창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1949년 1월 21일 창립된 노래하자회는 매일 새노래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적극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한층 드높이는데 기여



부산사범학교 시절(앞가 금수현)

한 바 크다. 여기에는 김호민·정복갑·김상용·박지로·김진안·김창배 등 당대 부산음악가들이 대거 참여, 한때 참가자가 800명이나 될 만큼 성황을 이루었으나 한국전쟁으로 그 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아울러 이 시기 윤이상은 부산음악가협회 정회원 작곡부 간사, 주간 『소년태양』의 편집장직을 맡았고, 전쟁이



가곡집 『달무리』의 표지

일어나자 전시작곡가협회 사무국장으로 김세형·이흥렬·윤용하·김동진·김대현·박태현·나운영과 함께 음악활동을 벌이면서 「백두산 행진곡」 등 전시가요와 「산넘어 남쪽」, 「간호언니의 노래」 등 전시동요를 지어 보급했다.

전쟁 와중에 관청이나 학교 등이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하게 되자, 그는 다시 부산사범학교 교사로 복직했고, 부산대학에서 서양음악사 강의를 맡기도 했다. 그리고 이 무렵 그는 유치진 극본·연출의 「처용의 노래」 음악을 작곡, 공연했는데, 그것은 한국 최초로 시도



윤이상·김영일이 공동으로 펴낸 『초등학교 새음악』과 『소년기마대』

된 음악·연극·무용의 종합공연물이었다.

1952년에 들어 윤이상은 이은상의 시 「낙동강」을 합창곡으로 만들어 전쟁속의 젊은이들에게 조국수호의 의지를 고취시켰으며, 1951년부터 1953년 사이에는 아동문학가이자 동요작가인 김영일(金英一 1914~1984)과 함께 문교부 검인정의 학년별(1~6학년) 『초등학교 새음악』과 전시 초등학교

노래책 『소년기마대』를 공동으로 제작, 부산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아기방울」·「오리병정」·「꼬마 위문대」·「따리아 아가씨」 등의 동요가 실려있는데, 이것은 전쟁 와중에서도 자라나는 2세들의 반공정신을 드높이고, 그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한편 이 시기 윤이상은 음악비평 활동을 피하기도 했다. 그는 1953년 2월 11일자 부산일보에 「빈사한 예술가-채동선씨의 작고에」, 5월 30일자 같은 지면에 「앤드슨 양에게-당신의 영가는 당신의 피」를 각각 썼다.

「빈사한 예술가」는 당대 최고의 음악엘리트 중 한 사람이었던 작곡가 채동선의 빈사(瀕死)에 즈음해서 씌어졌다. 윤이상은 이 글에서 “(채동선이) 살기 위해 한때 부두에서 그의 체력에 과중하게 육체노동을 했”고, “그의 가족이 부두에서 담배행상을 했”으며, “못

먹어서 괴로왔고 괴로워서 병 났고 병으로 쇠진해가는 육신을 지탱할 영양을 주급치 못했음”을 지적하는 한편, 당시 한국이 처한 현실과 음악가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짐작케 해 준다.

또 「앤드슨 양에게」는 미국의 알토 성악가 메리 앤드슨의 독창회를 참관한 후 씌어진 것인데, 그녀의 흑인영가에서 묻어나는 슬픔과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은 민족의 슬픔을 일체화시켜 두 민족의 동질감을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여기 전쟁고아가 얼마나 있는가 정든 고장과 전래의 양습을 빼앗긴 늙은 부모와 먹기에 풀초차 군색한 농민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이땅의 순박하고 어진 젊은이들이 어느 나라의 짐승보다도 못한 식료로써 건디며 전선에서 원수와 마주 서고 있는가”에서처럼 이 무렵 윤이상이 한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얼마만큼 고뇌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953년 휴전협정과 함께 윤이상은 서울 성북동으로 이주한다. 양정고교 음악교사로 잠시 재직하던 그는 서울대·덕성여대 강사로 일하며 독주곡·실내악곡 등의 창작은 물론, 각종 음악회를 열고 음악비평 활동을 벌이면서 한국 음악계에서 부동의 음악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첼로소나타 1번」(1953), 「현악4중주 1번」(1955), 「피아노3중주곡」(1955) 등을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당시 문화예술가의 최고 영예인 제5회 서울시문화상을 작곡가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한 바 있다. 또 1954년에 「악계구상의 제문제」라는 평론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당시 한국악단이 처한 여러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 전통음악의 바탕 위에 세계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는 이후에도 「화천근방」(1954), 「오늘의 세계음악」(1955), 「한국적 대중음악에 대한 고찰과 방법론」(1956), 「작곡계 발흥기에 도달하다」(1956) 등의 글을 강연회에서 발제하거나, 『문예』·『새벽』·『음악』 등을 통해 발표했다. 특히 1956년 한국작곡가협회 주최로 열린 제

1회 작곡발표회를 마치고, 오화섭(당시 연세대 영문과 교수)과 벌인 음악논쟁은 한국논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 유럽행, 세계 무대에 우뚝 서다

불혹을 앞둔 1956년 6월, 만학도 윤이상은 유럽으로 건너갔다. 유럽의 현대음악, 특히 쇤베르크·베베른·베르크 등 ‘신 비엔나악파’의 12음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그는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수학했으나 1957년 8월 독일 베를린 음대로 전학, 슈바르츠 쉐링(R. Schwarz-Schilling)에게서 대위법과 푸가를, 블라허(B. Blacher)에게서 작곡을, 그리고 쇤베르크의 제자였던 루퍼(J. Rufer)에게서 12음기법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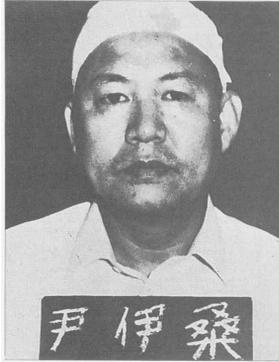
1959년 7월 베를린 음대를 졸업한 윤이상은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이었다. 그러던 중 그 해 9월 네덜란드 빌토벤(Billthoven)의 ‘가우데아무스 음악제’와 독일 다름슈타트의 ‘현대음악제’에 두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다. 12음기법에 기초를 둔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1959)과 「일곱악기를 위한 음악」(1959)이 그것이다. 특히 「일곱악기를 위한 음악」은 12음기법을 차용하면서도 동양의 음양사상을 음악적으로 표현(첼로의 글리산도)하려 했고, 훗날 윤이상 음악언어의 토대가 되는 ‘주요음향기법’(Hauptklangtechnik)을 사용함으로써 동서음악의 융화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주요음향기법’은 동아시아의 음악적 전통인 헤테로포니를 유럽적인 폴리포니로 확대시킨 음기법으로 ‘점묘적 음렬주의’(Punktueller Serialismus)에 머물던 당시 유럽음악계의 작곡방식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써 그는 ‘가우데아무스 음악제’와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에 정식으로 연주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그것은 세계 무대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연주단체는 함부르크 실내악단의 독주자들이었으며, 젊은 미국인 지휘자 프랜시스 트래비스(F.

Travis)가 지휘를 맡았다. 9월 4일 열린 데뷔무대는 성공적이었고, 이날 공연은 프랑크푸르트 방송국을 위시해서 전 유럽에서 중계되었다. 베를린 방송국의 현대음악 담당자였던 핫세(Hasse)는 윤이상이 지금 쓰고 있는 관현악곡을 빨리 완성해서 자기에게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윤이상은 독일에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현대음악의 아성인 독일에서 자신의 용지를 펼치고자 결심했다.

두 개의 세계음악제에서 성과를 올린 윤이상은 이듬해 국제현대음악제(ISCM 1960), 현대음악을 위한 날(1964), 도나우싱엔 현대음악제(1966) 등에서도 잇단 성공을 거둬으로써 일약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그는 베를린·함부르크·헤센 등 유수의 독일 방송국의 위촉에 따라 관현악곡 「바라」(1960), 대편성 관현악을 위한 「교향악적 정경」(1960),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착적 음향」(1961), 실내앙상블을 위한 「낙양」(1962),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가락」(1963), 불경을 텍스트로 한 전5악장의 오라토리오 「오연꽃 속의 진주여」(1965), 오페라 「류통의 꿈」(1965) 등의 문제작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 동백림사건으로 거둬난 코스모폴리탄

그러던 중 윤이상은 1967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이른바 ‘동백림 사건’의 주모자로 몰리게 된다. 독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점, 1963년 강서고분의 「사신도」를 직접 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점 등이 그 이유였다. 6월 17일 그는 남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서울로 납치,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1심에서 종신형, 2·3심에서 각각 15년·10년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으로 남한 정부는 세계의 따가운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했다. 리게티·헨체·슈톡하우젠·스트라빈스키·카라얀 등 무려 161명에 달하는 세계적 예술인들은 항의서명을 남한 정부에 전달했고, 피아



동백림 사건 때의 윤이상

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는 서울연주회를 취소했으며, 이들은 독일 정부와 더불어 그의 석방을 위한 연주회를 열고 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수감생활 중 심한 고문으로 자살을 기도한 바 있던 윤이상은 세계 각국의 전폭적인 외교적 압력과 독일 정부의 조력으로 1969년 2월 말에 마침내 서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수감 중에 작곡한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1969)은 석방 직후 「류통의 꿈」과 함께 뉘른베르크에서 초연되었다.

한편 1970년대는 윤이상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 독일 킬(Kiel) 시(市)로부터 의뢰받은 오페라 「유령의 사랑」(1970)이 70년 6월 20일 ‘킬의 축제주간’에 성공적으로 초연되었고, 킬시를 위한 공적이 인정되어 같은 해 6월 23일 ‘킬 문화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또 72년에는 서 베를린 음악대학 명예교수(77년 이후 정교수가 됨)로 임명되었고, 뮌헨올림픽 문화행사의 하나로 의뢰받은 오페라 「심청」(1972)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을 거둠으로써 그의 국제적 명성을 재삼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1975~76년을 고비로 윤이상의 작품세계는 일대 전환점을 이루었다. ‘동백림 사건’을 극복한 그는 비로소 세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의 음악적 내용이 인류가 처한 보다 현실적인 것에서 찾아졌으며, 폭력과 불평등을 거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1960년대 이래 줄곧 시도해 왔던 ‘주요음향기법’을 더욱 다듬어 1970년대 이후 창작의 주요한 토대로 삼았다.

1980년대 윤이상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광주여 영원히」(1981)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격렬한 표현을 통해 인류 전체에

가해진 폭력을 경고했고, 오보에와 하프를 위한 이중협주곡 「견우와 직녀」(1982),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1987)를 통해 남북화해의 길을 모색했으며, 그의 가장 장대한 「교향곡」 제5번은 오늘날 자행되는 폭정과 무관심을 질타함으로써 세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갈구하는 ‘실천적 음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윤이상의 음악문화적 공적은 주로 북한과 독일에서 인정되었다. 북한은 윤이상연주소 설립(1984), 윤이상 관현악단 발족(1990), 윤이상음악당 건립(1993) 등을 행했고, 독일은 튀빙겐대학 명예박사학위(1985)와 연방공화국 대공로 훈장 수여(1988), 독일문화원의 ‘괴테메달’ 선정(1995) 등으로 기념했다.



평양에서 열린 윤이상 음악회(1987)

윤이상은 생애에 걸쳐 가곡 5편, 동요 70여편, 독창곡 4곡, 독주곡 18편, 실내악곡 52편, 협주곡 13편, 관현악곡 21곡, 칸타타 및 합창곡 10편, 그리고 4편의 오페라 등 총 190여편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을 썼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유럽에서 현대음악기법을 익힌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어법을 창출해 냈다. 그것은 동아시아 음악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끊임없이 다원성을 지향하는 열린 음악관에서 기인한 바 크다. 민족과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모색한 그의 세계관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윤이상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 한 고향 통영을 끝내 다시 찾지 못했던 불행한 시대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독일에 있는 윤이상의 묘와 묘비

의 예술가이기도 했다.  
1995년 11월 3일 베를린의 발트병원에서 향년 78세로 삶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 동아대학교 강사  
김창욱

## 8. 이상근(李相根)

### 전통을 흡수하여 음악으로 용해한 작곡가

이상근(李相根, 1922~2000)은 경남 진주시 봉래동 176번지에서 아버지 이봉길(李奉吉)과 어머니 탁방수(卓方秀)의 4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5년제였던 진주중학교를 다닐 때 언론인이었던 부친의 남다른 음악적 취향으로 유성기를 통하여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그가 소년기에 음악적 꿈을 키우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가 즐겨 들었던 유성기 음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이었다. 후에도 그는 남달랐던 아버지의 음악적 취향으로 자기를 음악에 눈뜨게 한 이 점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청운의 꿈을 안고 1943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양음악학교(현 동경음악대학)에 진학하여 본격적인 음악수업을 시작한다. 당시 일본 음악계는 193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드뷔시, 라벨 등의 인상주의 음악과 힌데미트, 바르톡, 무소르그스키 등의 음악적 경향 및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수용하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귀국한 그는 1946년 24세 되던 해 마산여자중학교 교편을 잡는다. 1947년 마산여중 연구발표회에서 한국 민요를 바탕으로 한 합창곡 「새야새야 과랑새야」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후 이 곡은 마산여고, 효성여대, 부산대학과 국립합창단 등에 의하여 많이 불리어졌을 뿐만 아니라 1948년에는 문교부지정 중등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이시기 그는 한국전통음악을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연구하여 피아노곡으로 한국 아악음계에 의한 7개의 전주곡과, 중주곡으로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티네 현악 4중주 1번을 작곡하였다.

또한 그는 훌륭한 작곡가가 되기 위하여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폴란드의 파데레프스키(Paderewski, Ignacy, 1860~1941)를 본받아 자신도 작곡을 하루에 10시간씩 하겠다고 평생 음악지우이자 피아니스트인 제갈삼(諸葛森, 1925~ )에게 의지를 표하기도 하였다 한다. 그리고 그는 기보법(記譜法)에도 뛰어나 그가 진한 연필로 그린 악보는 가히 미술 작품에 가까웠다.

27세 되던 1949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진주사범학교로 자리를 옮긴다. 그러나 이듬해 6.25 한국전쟁의 발발로 다시 마산으로 피난을 다시 오게 된다. 북한 인민군이 전라도로부터 하동을 거쳐서 진주로 향하고 있을 무렵 꿈속에서 그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빨리 집을 떠나라는 질책을 듣고 황급히 진주를 떠났는데, 얼마 안되어 진주가 인민군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다시 마산여고에서 교직을 시작했던 그는 동료 영어교사였던 김세익이 작시한 시에 곡을 붙여 「석류», 「딸기」라는 합창곡과 피아노 3중주 1번도 작곡하였다.

1951년 11월 25일 이상근은 마산제일극장에서 제1회 작품발표회를 가진다. 발표곡은 연가곡 ‘가을 저녁의 시’, 피아노곡 ‘한국아악음계에 의한 전주곡’,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합창이었다. 특히 연가곡 ‘가을 저녁의 시’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가곡을 연상케 하는 신선함으로 그 당시의 한국가곡의 실상을 감안한다면 가히 한국가곡사에 남을만한 역작이라 해도 될 것이다.

이상근 제1회 작품발표회 프로그램

- 단  
에  
근  
삼
- 1. 합창 ----- 마산여고 합창
    - 가. 새야새야 파랑새야(민요) 지휘 이상근
    - 나. 석류(김세익-金世翊 시)
    - 다. 딸기(김세익 시)
  - 2. 소프라노 독창 ----- 전경
    - 가. 언덕에서(김춘수-金春洙 시) 반주 제갈삼
    - 나. 길 바닥(김춘수 시)
    - 다. 늪(김춘수 시)
    - 라. 여자(김춘수 시)
  - 3. 바리톤 독창 ----- 김대
    - 가. 네가 가던 그날은(김춘수 시) 반주 제갈삼
    - 나. 瓊이에게(김춘수 시)
    - 다. 가을 저녁의 詩(김춘수 시)
  - 4. 피아노 독주 ----- 제갈삼
    - 한국 아악음계에 의한 7개의 전주곡 중 제4번, 제7번
  - 5.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 바이올린 김진문
    - 제1악장 Lento Espresso 피아노 제갈삼
    - 제2악장 Allegretto Brillante



젊은 시절의 이상근

이날의 발표회는 전반부는 성악곡 후반부는 기악곡으로 짜여 졌는데, 출연자들 대부분이 마산과 지역적 연고가 있었던 음악인들이었다. 어수선한 전쟁분위기 속에서 작곡 발표회가 열렸지만, 그 내용에는 비하여도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또 1년여 동안 그는 열심히 작곡을 하여 이듬해 1952년 12월 6일 부산에서 제2회 작곡발표회를 열었다. 장소는 이화여대가 피난을 내려와 부산 부민동에 대지 2000여평에 건평 346평으로 모두 30동에 이르는 규모를 갖추었던 가교사인 강당이였다. 발표회의 내용은 제1회 때에 발표되었던 합창 대신에 제2회 때는 피아노 3중주 1번과 현악 4중주 1번을 편성하여 발표하였다. 전란의 와중이었지만, 강당을 가득메운 청중들의 열기는 대단하였다. 이 때 그는 자신의 작곡 이념에 대하여 세계수준에다가 1mm를 더하는 것이고, 낭만적 요소와 인상적 기법 그리고 그것에 민족적 소재를 더하고, 한국적 이국정취로부터 이탈과 음악적 전통을 고수하며, 건실한 음악을 구축한다고 말한 바 있다.

### 부산음악계에 창작의 지평을 열다

1953년 늦가을인 11월에 그는 윤이상의 후임으로 부산고등학교 음악교사로 부임하여 음악가로서 부산시대를 전개한다. 이 시기에는 합창곡으로는 「시냇물」 외에 대부분 기악곡 창작에 열성을 쏟았다. 실내악으로 「콘체르토 아르테」, 안장현의 시에 의한 「세 폭의 그림」, 「팀파니와 현악합주를 위한 콘트라스트」가 작곡되었고, 그 외에 「피아노협주곡 1번」, 「교향곡 1·2번」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교향곡 1번」의 스코어 악보는 2악장만 남기고 1악장 악보는 분실되었다. 남은 2악장은 「한국선율에 의한 서완조(徐緩調)」라는 부제로 독립된 단악장 곡으로서 많이 연주가 되었는데, 한국의 시골풍경을 연상시키는 곡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교향곡 2번」은 민족의 혈맥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 종류의 리듬 음형을 각 악장에서 활용하였으며, 나의 태생지인 진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체험을 통해 창작되었다고 작곡자 자신이 밝힌 바 있다. 그것은 이미 이상근이 자신의 작곡 이념에서 말한 민족적 소재를 실천하고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당시는 이러한 관현악 작품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로 한국 관현악곡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무렵은 작곡가 금수현이 주도하였던 음악교육연구회 주최의 학생음악 콩쿠르가 성했던 시기로 그가 지도하였던 부산고교의 합창단은 매우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고, 그 또한 피아노전공이 아니면서 기교가 필요한 슈베르트의 가곡 반주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어 주변 음악인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이 후 부산의 왕성했던 합창운동의 밑거름되기도 하였다.

1955년 중등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2년제 부산사범대학이 개교하여 3년 뒤인 1958년 봄에 이르러 부산에 처음으로 음악전공과가 개설된다. 이에 이상근은 부산사범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때 교수진용에는 성악에 고태국, 김창배, 전경애였으며, 피아노에 이경희, 이금숙 그리고 바이올린에 전희봉, 작곡이론과 합창에 이상근 등이었다.

이 시기 이상근의 작품은 가곡으로 「바다야」, 실내악곡 「디베르티멘토 I」, 「피아노 3중주 2번」 등 3곡을 남겼다. 그리고 당시 부산음악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각출하여 서울에서의 그의 작곡 발표회 비용을 마련하였던 일이 있었다. 1958년 5월 12일 서울시공관(市公館)에서 <이상근 관현악 작품의 밤>이 그것이었다. 이 때 1950년 고려교향악단을 기반으로 설립된 서울교향악단(현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이상근이 직접 지휘하면서 자신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당시 관현악만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 작품발표로는 최초 무대였다.

이상근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넓히고자 1960년 미국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존스홉킨스대학교의 피바디 음악원에 2년여간 유학을 떠난다. 이것은 일본 동경에서의 음악수학 이후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음악적 전기로서 미국유학에서 그는 서구음악의 새로운 흐름인 우연성음악과 불확정성음악 그리고 범전음계주의 등을 접하게 된다. 특히 탱글우드 하계음악학교에서 아론 코플랜드를 사사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하여 그는 음악적으로 한 층 더 다양성과 정밀성을 추구하는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

## 작품 활동의 정점에서

1962년 부산사범대학은 해체되고 부산대학교 병설 부산교육대학으로 개편되어 초대 학장에 김하득이 취임한다. 또 다시 1년 뒤에는 2년제 부산교육대학으로 개편된다. 이 때 이상근은 부산사범학교 교원이므로 자동적으로 부산교육대학의 교수가 되어 안정적인 위치에서 후진양성과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대략 이 시기 즉 그의 나이 40~52세까지 그러니까 1974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12년간이 창작활동의 전성기로 볼 수 있다.

1962년 미국 피바디음악원의 유학에서 귀국한 그는 왕성한 의욕으로 여러 작품들을 쏟아 놓는다. 유치환의 시에 의한 연가곡 「아가 I」, 이옥봉 시에 곡을 붙인 합창 「4계절의 여심」, 「교향곡 3·4·5번」과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조우」 시리즈 4곡 등이 그것으로 이 시기에 성악곡 26곡과 기악곡 15곡을 쓰게 됨으로써 작곡가로서의 전성기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아노를 위한 「투영」 시리즈 I·II·III과 총 8개의 「조우」 시리즈가 이때부터 작곡되어지는 시기였다. 그리고 그는 「조우」 시리즈에서 “나의 국악에 대한 접근을 의도한 연작이다. 그것은 서양과 동양의 만남, 곧 우리악기와 서양악기의 만남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 시기 양악과 국악의 결합을 통한 세계성의 추구라는 음악관을 지향하게 된다.

그는 또한 이 시기에 1964년~1965년, 1972년~1974년까지 대구 계명대와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대구 효성여대(현 카톨릭대학)에 출강하며 작곡과 지휘법 등을 강의하여 타 지방의 후학들에게도 그의 음악적 지식을 전달하였다. 특히 대구의 대표적 작곡가인 우종억(동아시아작곡가협회장)과 임우상(계명대 교수)에게 강한 음악적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고려산업(주)에서 설립한 놀원문화재단이

1958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국력신장에 이바지한 부산·경남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해 매년 수여하는 눌원문화상에 작곡상을 받았고, 1975년에는 한국 작곡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는다.

### 한국적인 정신으로 인생의 긴 여로에서

그의 나이 52세 때 1974년 3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안에 음악교육과가 개설되면서 그는 부산대학교로 자리를 옮긴다. 이 시기에는 주로 대작들이 쓰여 졌는데, 그의 유일한 오페라 작품인 「부산성 사람들」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6년 부산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에서 초연되어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그 외에도 칸타타 「분노의 물결」 관현악곡으로 「조우」 시리즈 4곡 「축전서곡」 「무악」 2곡 등이 있고, 합창곡으로 「청산별곡」 「한국의 꽃」과 피아노곡으로 「투영 II」 「파랑새 변주곡」 등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작품에는 더욱 더 한국적 색채를 강하게 풍기며, 그가 누누이 말하였던 우리민족 예술의 특징인 「힘」 「한」 「슬기」 「멋」을 그의 작품 속에 용해시키고 있었다.

그는 또 부산대학교에 재직시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1982년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현악양상블 ‘프로뮤지카’(Pro Musica)를 창단한 것이다. 정년퇴임 때까지 10회의 연주회를 거치며 당시 부산에 전무했던 현악합주단의 모델을 만들었고 연주되는 곡목은 거의가 한국초연·부산초연이라는 대단히 학구적인 무대였다. 이 단체는 오늘날 부산신포니에타(리더 김영희)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부산신포니에타 역시 그 맥을 훌륭히 이어가며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현악양상블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1987년 2월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과 함께 “교수의 진가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것은 결코 총장이나 학장이 아니라 오직 학생들일 뿐이다”라는 뼈있는 퇴임사를 남기고 부산대학교를 끝으로 오랜 교단생활을 마감하게 된다. 퇴임 후에는 건강의 악화로 내내 병중



1994년 바이올리니스트 배도순 제7회 독주회를 마치고(좌로부터 8번째가 이상근)

이었지만 그의 창작 의욕은 식지 않았다. 연가곡 「아가 I」 이후 19년 만에 시인이자 수필가인 신달자의 시에 의해 1988년 「아가 II」를 작곡했으며, 같은 해 실내악으로 「투영 III」와 1992년 「한국의 꽃」을 발표하

였다. 1987년에는 지역예술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음으로써 50여년간 작곡가로써 살아온 그의 예술적 삶에 대하여 정당한 대접을 받게 된다.

그리고 관현악 곡으로 1991년 「축전음악」과 1994년 「교향곡 6번 한국의 춤」을 작곡하였는데, 그 가운데 「교향곡 6번」은 그가 평소 작곡가로서 지향하였던 한국적 소재를 총 결산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피력하였다. 이 작품은 부산 원로연극인 박두석의 대본에 의하여 작곡되어졌으며 임진왜란 당시 정발장군을 소재로 한 부산의 역사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2000년 11월 21일 78년의 생애로 영면하고 만다. 이제 이상근에 버금가는 음악인이 언제 다시 부산에 나타날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다. 그러나 부산이 이상근을 가졌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축복이요 행운이다.

영남악파의 거두로 성악곡 72곡, 기악곡 50곡 총 122곡의 방대한 음악적 자산을 남겨준 그는 “어느 사회에서나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지 말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교육하고 있다.

■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정영진

## 9. 이석우(李錫雨)

### 성장과 수학

이석우(1928~1987)는 1950년대부터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부산화단의 전통회화(동양화)의 명맥을 지키면서 개척하고 가꾸는 한편, 지역미술의 인재양성을 위해 이바지하였다.

그는 1928년 12월 10일,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아버지 이행기(李行基)와 어머니 손춘도(孫春道)의 6남2녀중 4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후 당숙의 양자로 입양하게



되어 새로 아버지 이철기(李哲基)와 어머니 신남조(申南朝)를 맞게 된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청초(靑艸)이다.

지방의 부유한 토호인 입양가정에서 별 경제적 어려움없이 성장기를 보냈으며, 1946년 청주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뒤이어 청주사범학교 특수강습과(단기과정)를 수료한다. 그림에 대한 재능은 이미 초등학교때 부터 나타나 사생대회에서 일등상을 받았으며, 빼어난 그림솜씨로 돈과 화투를 그대로 그려내 주위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청주상업학교 시절에는 온통, 그림그리기에만 몰두하여 집안의 반대가 많았으나 고집스럽게 미술활동을 계속하였고, 미술교사 안승각(安承珏, 일본 태평양미술학교 출신 서양화가, 도미)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지도를 받고자 전근지를 따라 청주사범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속사정을 알지 못한 부친은 화가가 아닌 교직을 기대하고 크게 반겼다고 한다. 청주상업학교 재학시 미술부 동문으

로 동양화가 박노수, 서양화가 윤형근이 있다.

미술전공을 반대하던 부친에게는 문리대 법학과에 진학한다고 말하고,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에 1기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뒤늦게 사실을 안 부친의 극구 반대로 등록금 일체와 경제적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고모님댁에 기거하며, 물지계를 지고 물을 날라주는 품삯을 받아 고학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

미술대학 재학중에는 해방후 식민지 잔재인 일본화풍을 청산하고 전통화법을 계승하려는 기풍에 맞추어 당시 지도교수인 김용준(近園 金溶俊)과 장우성(月田 張遇聖)의 가르침에 따라 남종 수묵화풍의 사의화(寫意畫)의 정신과 필법을 주로 학습하게 되며, 한국미술의 전통적인 미의식은 물론 현실생활에 대한 소재와 주제의식에 눈뜨게 된다. 이러한 회화의 방향성은 이후 그의 그림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학업은 4학년1학기까지만 중단되었다. 당시 동양화과 입학동기로 서세옥 박노수 권영우가 있으며, 이들은 한국화단의 지도적 위치에서 활동한 주요 작가들이다.

## 교육 및 작품활동

이석우는 국민방위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 1951년 1·4후퇴때 부대와 함께 남하하여 통영에 왔고, 군복무후 아무런 연고도 없는 피난지인 통영에 단신으로 머무는 동안 통영중학교 미술교사를 시작하면서(1953~56.2), 교육계에 몸담아 생활하는 한편으로 작품활동을 하게 된다. 부산미술계와 인연을 갖게 된 것도 통영중학교에 근무하던 1953년과 1955년 두차례에 걸쳐 부산미국공보원에서 개인전을 가지면서 부산지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런 결과 주위의 추천으로 부산대신중학교 미술교사(1956.3~62.2)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이후로 그는 타계할 때까지 부산지역을 떠나지 않고 작품활동과 교직생활을 병행하였다.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계속된 교직은 부산사범대학 미술학과 강사(1958.4~62.7) 부산 남고등학교 강사(1963.4~63.7) 해동고등학교 강사(1963.4~64.8) 동아고등학교 강사(1963.9~64.8) 동아대학교 회화과 전임강사대우(1967.9~75.11) 부산산업대학 강사(1976.3~77.2)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강사(1977.3~81.2) 동아대학교 회화과 초빙교수(1981.12~83.2) 부산대학교 미술대학 강사(1983.3~83.7)로 오랜 강사생활을 하다가, 1983년 10월 5일 교수자격위원회로부터 조교수 자격을 인정받아 비로소 동아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모처럼 자리를 잡았고, 1987년 신병으로 타계할 때까지 약 5년간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활동하였다.

부산에서의 작품활동은 어려운 피난살이에도 불구하고 1953년 미국공보원에서 작품 27점을 가지고 '이석우동양화전'을 가지게 됨으로서 시작되었고, 부산지역에 동양화부문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며 서양화의 우세속에 잊혀지기 직전의 전통회화의 명맥을 유지한다.

개인전을 기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회(1953, 부산미국공보원), 2회(1955, 부산미국공보원), 3회(1969, 광복동 회다방), 4회(1971, 광복동 회다방), 5회(1974, 서울 조선히otel화랑), 6회(1976, 서울 미술회관), 7회(1977, 한광미술관), 8회(1981, 옥당화랑), 9회(1982, 한광미술관)

단체전으로는 청맥미전(1957~58, 미화당 문화회관), 경남미술교육연구회원전(1957, 미화당 문화회관), 호수화랑개관전(1958, 동광동), 3·1절 기념예술제(1959, 문화회관), 부산미협회원전(1959, 문화회관), 동명서화원전(1960, 미화당화랑), 광복절경축미전(1960 미화당화랑, 1962 경남공보관, 1963 부산공보관, 1969 부산시전시관), 국제자유미술전(1961, 영보백화점), 신춘부산화전(1962, 청우싸롱), 5·16혁명 1주년 기념예술전(1962, 경남공보관), 부산·대구미술교사 파스텔화전(1962, 경남공보관), 부산화전(1963, 청우다방),

부산·대구합동서화전(1964 부산공보관, 71 부산시전시실), 3·1절 기념 부산미협회원전(1964~69, 부산공보관), 부산문화회관개설기념전(1966, 광복동 부산뉴욕양과3·4층), 6대 대통령취임경축부산예술제(1967, 부산시전시관), 9인전(1968, 모란다방), 한재민을 돕기위한 온정의 작품전(1968, 남포동 송다방), 영호남 3도 합동서화교류전(1970, 국제신보), 부산탐미술관개관기념전(1973, 부산탐미술관), 현대화랑개관기념전(1975, 광복동 현대화랑), 부산미술 30년전(1979, 부산미술협회), 늘원문화상수상작가전(1979, 수로화랑), 원맥9인의형상전(1982, 평론가3인기획 현대화랑), 부산문예진흥기금 조성전(1984, 부산시민회관), 부산일보사사옥준공기념전(1985, 부산일보)을 들 수 있다.

초대전으로는 한국미술전(1965), 동아국제전(1968),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75.추천작가,1979.초대작가), 현대동양화대전(1976, 국립현대미술관), 이석우초대전(1977, 대구숙화랑), 부산미전(1977~79)이 있으며, 해외초대 및 개인전으로는 미국 뉴욕 월드갤러리국제전(1958), 한일친선국제전(1959), 한·터키 국제교류전(1963), 일본나고야교육관초대전(1971), 제1회 아세아현대화랑명가연합전(1977, 중국), 중국역사박물관초대개인전(1981, 중국국가화랑), 동남아현대미술대전(1985, 일본), 르살롱전(1985, 프랑스)이 있다.

작품활동을 하는 한편으로 지역미술의 살림살이를 맡아 제1회 경남납계예술제미술전 심사위원(1961), 부산시 문화위원(1962), 부산미술협회 부회장(1965) 및 예총부산지부장 직무대리(1965), 부산미술협회 회장(1969), 한국미술전 심사위원(1965), 제1회동아국제전 운영위원(1968), 부산미전 심사위원(1975, 76, 78, 79), 전국대학예술제미술전 동양화부 심사위원장(1972, 75),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1982, 84), 원미술대전 심사위원(1985), 창작미술가회장(1985), 한국예총부산지회장(1987)을 역임하였고, 이와 같은 지역 및 한국문화예술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늘원문화상(1969)

과 부산직할시 문화상(1969), 대한민국사회교육문화상(1987), 중화민국문예진흥장(1987, 대만성문예작가협회)을 수상하였다.

## 화풍과 작품세계

이석우는 전통회화가 다루던 산수·화조·기명절지 등 소재의 관념성을 탈피하고 현실성을 지니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그래서 조선후기 이래 단절되다시피 한 인간 삶의 정경을 그리는 인물풍속화를 현재적 시점에서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그린 생활정경은 우리의 풍토적 정서와 애환과 향수가 깃든 주변의 소박하고 진솔한 서민적 삶의 세계이며, 그 자신이 몸으로 체험했던 삶의 편린들이다.

우선 1950년대 초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농촌의 생활정경으로 농민의 일상사를 그린 것과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 1960년대 초 도시 서민의 생활정경을 그린 것이 있으며, 역사적인 회상의 정경과 전통민속연회의 정경을 들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화풍은 서울대학교 재학시절의 지도교수였던 김용준의 영향이기도 하다. 특히 해박한 이론을 겸했던 김용준이 강의를 통해 주장했던 한국전통회화의 제모습·제자리찾기의 방법과 상응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실천으로 옮겨 이석우 특유의 화풍과 작품으로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김용준이 제시한 방법은 수묵사의 화법에 따라 대상의 외형적인 사생이나 묘사가 아니라 객관 대상의 본질과 작자의 의취를 드러낼 것(以形寫神), 장봉모필로 탄력있는 선을 활용하여 활달하고 분명한



1987년 예총부산지회장 취임식장에서  
(왼쪽부터 부인 박경상, 이석우, 김주호 부산시장, 배혜경)

고 힘찬 선을 자유분방하게 구사할 것, 먹이 주가 되어 선을 그리고 채색이 쫓아가는 절제되고 간략한 선묘, 색채는 한국의 풍토적 정경에 맞게 맑고 투명한 채색인 담채를 하며,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을 사생하여 대상을 철저히 보고 거기에서 회화의 참의미와 표현하는 방법까지 창출한다는 것이다.(서세옥 술회 『해방이후 한국회화단의 변화』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1, 삼성미술관

2003)



작품 목양(1982년 作)

농민의 생활정경을 그린 것으로 ‘번농오수’(繁農午睡) ‘목양’(牧羊) ‘성하정경’(盛夏情景) ‘석양귀로’(夕陽歸路) ‘목동’(牧童) ‘목가’(牧歌) ‘초부’(樵夫) ‘세모’(歲暮) ‘한중군술’(閑中軍術) ‘송림’(松林) ‘역투’(力鬪) ‘투우’(鬪牛)가 있다. ‘번농오수’는 여름철 점심나절에 정자나무아래 지게를 벗어놓고 낮잠을 자는 농군들과 한켠에 앉아 곰방대를 문 인물을 그렸고, ‘목양’은 염소먹이느라 물이하는 노인이

나 젊은이의 일상적 순간을, ‘성하정경’은 버드나무있는 강변 원두막의 생활장면, ‘석양귀로’는 소를 앞세우고 지게를 진 농군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정경, ‘목동’은 소의 잔등위에 올라타고 강변을 따라 돌아가는 목동의 모습이며, ‘목가’는 강변 버드나무아래 앉아 즐기고 있는 소와 거기에 기대거나 턱을 편채 쉬는 아이들과 피리부는 목동의 전경을 그렸다. ‘초부’는 높이 쌓은 짐과 사람을 싣고 가는 황소달구지의 힘든 표정과 곰방대를 문 주인의 아랑곳없는 모습. ‘세모’는 겨울철 한짐 지게를 지고 눈길을 가는 인물과 그를 따르는 검둥개, 저 멀리 눈에 묻힌 초가가 보이는 정경을 그렸다. ‘역투’는 지게를 벗어두고 일손을 멈춘채 씨름으로 힘내기를 하는데,

한켠에 소가 건너다 보고 구경꾼은 응원에 열중이다. ‘투우’는 황소가 뿔을 맞대고 싸움하는 광경을 그렸다.

농촌의 서민적 풍류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세월’(釣歲月) ‘어옹’(漁翁) ‘호월시사’(呼月詩思) ‘일간풍월’(一竿風月) ‘귀로도’(歸路圖)가 있다. ‘조세월’은 강변 나룻배전에 백자술병을 앞에 두고 앉아 낚시를 드리우고 한가로움에 취해 있는 노인네, 멀리 새들이 날고 쳐놓은 고기어망들이 보이는 정경이다. ‘어옹’은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벼랑밑 바위에 낚시를 드리운채 무심히 팔장을 끼고 앉아 있는 늙은 이를 그렸다. ‘일간풍월’과 ‘귀로도’는 보름달빛을 받으며 긴 낚시대와 고기망태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노인네의 정답이 오고 가는 정경, ‘호월시사’는 정자나무아래 백자술병을 앞에 두고 앉았거나, 혹은 너럭바위에 앉아 보름달과 벗하며 홀로 한잔 술을 들고 있는 노인네의 풍류를 그렸다.

이와같은 농촌정경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흰무명 바지 저고리차림에 그을린 얼굴과 깡마른 몸매를 지녔고, 그 표정 또한 신산한 인생살이를 체관한 듯 태연작약하다. 회화적인듯 해학적인 자세에서 작가의 서민적 삶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과 야인적인 풍취의 느낌새들이 묻어 나는 화폭들이다.

도회지 서민의 생활정경을 그린 것으로는 ‘효운’(曉韻) ‘주점’(酒店) ‘시장정경’(市場情景) ‘노변’(路邊) ‘효반’(曉搬) ‘반’(搬)과 ‘고진감래’(苦盡甘來)가 있다. ‘효운’은 새벽 초승달이나 보름달아래 머리에 함을 이고 일터로 나서는 아낙네들, 때로는 등에 아기를 업고 가는 모습이다. ‘주점’은 길가에 천막을 치고 나무탁자를 놓고 차린 간이주점의 젊은 술꾼과 늙은 이, 젊은 주모가 보이는 정경이다. ‘노변’은 노상에 좌판을 펴고 앉은 아낙네들, 길가는 아기를 업은 아낙의 삶이 교차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시장정경’은 행상의 아낙네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데 등에는 아기가 잠들어 있다. ‘효반’은 새벽 초승달 아래 물지게를 지고 가는 늙은 이와 젊은 이의 힘

차고 바쁜 모습을 그렸다. ‘반’과 ‘고진감래’는 굽고 긴 막대에 돌을 메달고 어깨에 받쳐 지나르는 목도꾼들의 힘든 노동의 순간을 포착했다. 그을린 피부빛과 꿈틀거리는 근육이 일필의 강건한 필치로 표출되어 노동의 신성한 아름다움이 박진감있게 드러난다.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는 정경으로는 ‘피난민’ ‘해방’이 있다. ‘피난민’은 1.4후퇴 당시 눈발속에 피난가는 행렬의 모습이다. 보통이를 인 아낙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무겁게 한짐 진 젊은 이, 어깨에 짐을 맨 어린 소년, 짐보통이를 실은 소달구지, 정치없이 줄을 지어서 눈밭을 가고 있는 애환어린 역사적 사실을 그려낸 것이다.

‘해방’은 압제의 철조망과 굴레를 박차고 일어나 감격의 함성을 지르며 태극기를 펼쳐든 인물들의 격렬한 몸짓의 표현성 짙은 초기 작품이다. 교훈적 삶의 정경으로 ‘협동’(協同)이 있는데, 눈밭에 손수레에 잔뜩 짐을 싣고 가는 광경이다. 앞에는 가장인 듯 남자가 힘차게 끌고, 뒤에서는 아기 업은 아낙이 밀고, 옆에는 아들 딸이 함께 밀고 있다. 한몸 한뜻으로 고난을 헤쳐가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석우의 회심의 대표작품은 전통민속연희인 농악

마당을 그린 ‘환월’(還月) ‘환무’(還舞) ‘농악도’(農樂圖) ‘풍농율’(豐農律)이다. 화폭의 크기에 따라 등장인물이 달라지는데 2인(소고와 장고), 7인(뽕파리 장고 징 북 소고2 노인네), 15인(태평소 포수 선비 지갯꾼 각시 소고가 추가된다)이 되고 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아래 농악마당의 절정인 자진모리가락에 벼구꾼



작품 풍농율(1977년 作)

인 소고잡이들의 상모돌리기가 신명을 얻어 크게 한바탕 원을 그리며 노는 장면이다. 신명을 돋구는 풍물잡이들의 흥겨운 동작과 상모돌리기의 경쾌한 각양의 춤사위, 잡색인물의 독특한 복장과 춤을 포착하고 있다. 거침없는 일필로 그려낸 농악연작은 그의 인물풍속화의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에 속한다.

### 작품주변과 사후평가

평소 대단한 애주가였던 이석우는 밤낮의 구분이 없었고, 청탁 또한 가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늘 자기가 술값을 치르는 바람에 가정에 봉급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않아 가정살림이 어려웠다. 언젠가 기다리다 못한 부인이 학교에 와서 확인하니 6개월어치의 봉급이 가불이 된 때도 있었다. 그와 항상 어울린 술친구로 동양화가인 이윤제가 있었고, 60년대에는 남포동의 ‘대학촌’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어울렸다. 취흥에 정선아리랑을 잘 불렀으며 때로는 길가다 주머니의 돈을 몽땅 걸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저고리를 벗어주는 기행도 있었다고 한다.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이 부인 박경상(朴庚相 1930~ )은 온갖 부업(보험소개, 월부책판매, 레코드점등)을 하여 살림살이를 꾸려나갔으며 작품활동에 내조를 다하였다. 만년에는 그의 그림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 화실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때가 있었다. 그는 몇차례에 걸쳐 옮겨 다니면서 ‘청초화실’(송도 범일동 광복동 대신동)을 열고, 후학들에게 미술에 대한 꿈과 길을 열어주고 지도했다. 학교의 제자로 미술활동을 한 인사는 한인성 심문섭 황유찬 차우용 박충겸 조일상 백성도 조운복이 있으며, 화실제자로 진강백 최추자 이 영 등이 있다. 슬하에 3남1녀를 두었는데 차남인 이민한(부산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이 한국화가로 뒤를 잇고 있다. 부산예총지회장 재직중인 1987년 10월 24일 후두암으로 부산대학병원에서 타계하였다. 장례식은 부산예총장으로 치러졌

으며, 경남 양산 석계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도자벽화 「농악환월도」 세계 디자인 박람회 출품(1989년)

작고 후인 1989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 디자인 박람회’(1989.7.12~23)에 그의 대표작인 ‘농악환월도’를 도자벽화로 제작하여(18.25×6.8m, 2500개의 부조식 도판 편화집합, 모본은 병풍대작 농악환월도)

출품하였으며, 한국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호평을 받았다. 행사후 도자벽화는 나고야시에 기증하였다. 당시 도자벽화의 제작은 재일 교포인 박노진사장이 제작비일체(약1억원)를 지원하고, 도자가인 김호용이 실무와 감수를 맡아 추진하였다. 그리고 전시회에는 관계자 일행들(김호용 박경상 이민한 조운복 박상필 김진정)이 참석했다.

사후 그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전시는 부산작고작가전(1992.3.20~5.20 부산용두산미술관 개관기념전, ‘목양’을 비롯 11점), 향토작고작가7인전(1996.9 부산일보 창간50돌기념, 부산일보 전시실, ‘해방’ ‘성하전경’출품), 청초 이석우전(2002.11.4~24, 미광갤러리 이전 개관기념)이 있다. 그리고 부산시립미술관에는 대표작 ‘농악’을 비롯한 9점이 소장되어 있다.

■ 미술평론가 옥영식

## 10. 현 인(玄仁)

###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대중예술가

1.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 /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던가 /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홀로 왔다
2.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꿈도 그리워진다 /  
    영도다리 난간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
3. 철의 장막 모진 서름 받고서 살아를 간들 /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있으랴  
    금순아 굳세어다오 북진통일 그날이 오면 /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이것은 1951년 8월 피난지 대구에서 오리엔트레코드사가 내놓은 대히트곡 「굳세여라 今順(금순)아」의 노랫말이다. 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의 이 노래는 가장 부산적인 대중가요의 하나인 동시에, 가수 현인의 존재를 대중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시킨 노래이기도 하다. 나아가 흥남부두·일사이후·국제시장·영도다리 등 시대를 상징하는 어휘를 통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낮은 타향에서 고통받아야 했던 서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극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우울한 시대, 서민의 희망을 노래했던 대중예술가 현인, 그는 누구인가?

## 어린 시절 부산에서 보내다

일제시대 노래활동을 시작한 이른바 ‘가수 1세대’의 대표주자 현인(玄仁, 본명 玄東柱)은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12월 14일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서 태어났다. 영국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다녔던 아버지 현명근과 일신여학교를 나온 신여성이었던 어머니 오봉식 사이의 2남1녀 중 맏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 회사의 사원 주택이 있던 영도와 할머니댁이 있던 동래군 구포면을 오가며 성장했다. 이후 석유회사를 다니던 아버지가 일본 마이니치(毎日) 신문의 동경지사 기자가 되어 일본으로 떠났는데, 그는 5살 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도일(渡日), 히비야(日比谷) 공회당에서 열린 러시아의 베이스 가수 샬리아핀의 독창회를 보고 처음으로 음악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동래의 구포소학교에 입학, 2학년 때 초량에 있던 영주소학교로 옮겼다. 5학년 때 아버지가 경성지국으로 전근가면서 서울 서대문 죽점소학교로 전학했고, 1931년 경성 제2고보(지금의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영어와 일어 그리고 음악에 재능을 보였던 그는 학교의 배구 대표선수였을 만큼 운동도 잘 했고, 방과후에는 밴드부에서 일본의 대중가요나 미국의 포크송을 트럼펫으로 즐겨 불었다. 3학년 때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던 현인은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다.

## 동경음악학교 출신의 음악엘리트

1935년 어린 시절의 꿈인 파일럿이 되기 위해 일본 육사시험을 치르려 동경으로 갔다. 하지만 일본 군인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방향을 바꿔 우에노[上野] 공원 내의 동경음악학교(東京音樂學校, 지금의 동경예술대학) 성악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조선은 서구에 의한 근대화와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가 동시

에 진행되었던 시기로, 일본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서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였다. ‘근대’라는 이름의 제국주의가 정신적인 이념과 함께 제도적 장치로서 선명히도 아시아지역에 확립된 곳은 상하이[上海]와 도쿄[東京]였고, 도쿄는 19세기 말부터 한국 지식인의 지적(知的)인 메카였던 까닭이다.

음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일본 유일의 관립(官立) 동경음악학교는 조선의 음악엘리트들에게 있어서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곳은 홍난파(洪蘭坡)가 언급한 바와 같이 수준높은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상”이자 “유일무이한 이상의 정점”이었던 한편, 조선인의 입학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선융화(日鮮融和)의 목적 아래 조선총독부가 실시했던 관비유학생(官費留學生)으로 입학한 소프라노 윤심덕(尹心慰)을 비롯, 한기주(韓琦柱), 바이올리니스트 홍난파, 동요작곡가 윤극영(尹克榮), 피아니스트 김영환(金永煥), 대중가수 김용환(金龍煥)·이규남(李奎南) 등 극소수의 조선음악가만이 그곳을 거쳐갔을 따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학교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패심하게 여긴 아버지는 유학비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마이니치신문의 보급소에서 1년간 신문을 포장하는 등 중노동을 해야만 했다.

1년 뒤 우연히 NHK에서 합창단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오디션에 응시, 단원이 된 그는 동경음악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독일의 음악이론 보다는 미국의 재즈나 프랑스의 샹송을 더 좋아했다. 당시 일본에는 세계 각국의 대중가요가 크게 유행했던 터에, 그는 방송곡에 드나들며 각국의 최신 음악정보나 악보를 구해 열심히 익혔다.

1939년 창씨개명령이 내려지자, 아버지의 명에 따라 고토 징(後藤仁)이라는 일본 이름을 얻었다. 해방 후 그가 ‘현인’이라는 예명을 갖게 된 것도 이때 붙인 이름을 따랐기 때문이다. 유학시절, 그

는 일본 왕족출신의 마리코와 교제하기도 했지만 본과 3학년 때 귀국해 소학교 교사였던 조창길과 첫 결혼을 했다.

1942년 동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성악교수가 되려 했던 그는 그것이 여의치 않자, 성보악극단의 음악교사로 들어갔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했던 1943년 징용을 피하기 위해 박단마·황해·진방일 등과 악극단을 구성해 중국 텐진[天津]으로 떠났다. 이때부터 그는 텐진의 클럽 ‘신탄양’의 무대에 올라 상송 등 외국가요를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베이징[北京]·항저우[杭州] 등 중국의 주요 도시로 순회공연을 다니다 상하이[上海]에 정착했다.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였던 상하이의 국제클럽에 취직한 현인은 영국인과 포르투갈인 사이에서 난 마리아라는 혼혈 여가수와 사랑에 빠져 1년 반 동안에 걸쳐 동거생활을 하기도 했다.

### 해방 이후 대중스타로 군림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그는, 그 해 12월 귀국길에 올랐지만, 일본군을 위한 위문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베이징 비밀행무소에 수감되어 고초를 겪은 바 있다. 친신만고 끝에 서울로 돌아왔으나, 그는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존재였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시작한 그는 별이가 좋은 미군 위문공연에 뛰어들었다. 당시는 탱고가 크게 유행하던 시기로 그는 이장백·김광수 등과 탱고를 전문으로 하는 고향경음악단을 조직, 1947년 최초의 나이트클럽인 충무로 신문회관에서 뉴스맨스클럽 무대에 섰다. 이 무렵 그는 「서울야곡」을 불러 보았다. 외국노래가 아닌 우리말로 된 탱고풍의 가요에 관객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국내 최초로 3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최고급 극장식 맥주홀 은성살롱이 생겨났다. 그는 여기서도 김광수악단과 엮토미악단의 반주로 번안곡을 위주로 노래를 불렀다.

제법 밤무대에서 이름이 알려지자, 작곡가 박시춘(朴是春)이 자신

의 신곡을 불러보겠냐는 제의를 해 왔다. 정규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그는 “상송·탱고 등 외국곡이 아닌 유행가를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으나, 박시춘의 강력한 권유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박시춘은 유호(兪湖)가 작사한 「신라의 달밤」(1946)을 작곡, 현인으로 하여금 럭키레코드사 창설 제1회 취입곡으로 출반케 함으로써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달빛이 비치는 산사에서 풍류객이 고도 경주를 내려다보며 흥얼거리는 듯한 가사, 이국적인 멜로디, 스페인 춤곡 볼레로의 리듬, 가수 특유의 부르르 떠는 창법 등이 대중들의 마음을 일순 사로잡았던 것이다.

1947년 고려영화협회는 해방 후 최초의 영화 「자유만세」를 명동시공관에서 올렸다. 이때 현인이 소속된 악단을 초청한 것은 관객을 끌기 위한 수법이었다. 여기서 그가 부른 「신라의 달밤」은 무려 아홉 번의 앵콜을 받았는가 하면, 공연은 대성황 속에 열흘 이상 계속되었다.

1949년 음악영화 「푸른 언덕」의 주인공으로 등장, 영화주제가를 부른 것도 치솟는 그의 인기 덕분이었다. 이것은 해방 전 오케레코드 가수들이 총출연했던 영화 「노래 조선」에 이어서 만들어진 해방 후 최초의 음악영화였다. 이때 상대역이었던 신인 여가수 김은희와 사랑에 빠져 잠시 동거하기도 했으나, 때마침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헤어졌다.



영화 「푸른 언덕」의 신문광고

더욱이 그는 이 무렵 당시 세계를风靡하던 「베사메 무쵸」나 「꿈속의 사랑」 등을 번안해서 노래함으로써 이전 트롯트 일변도의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고, 나아가 1952년에도 E. 피아프와 Y. 몽탕의 「장미빛 인생」, 「파

리의 지붕 밑」, 「고엽」 등을 불러 한국에 상송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인이 낸 앨범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그는 이후 「고향만리」(유호 작사·박시춘 작곡, 1946)와 「비 내리는 고모령」(호동아 작사·박시춘 작곡, 1946), 「럭키 서울」(유호 작사·박시춘 작곡, 1947), 「군세어라 금순아」(강사랑 작사·박시춘 작곡, 1951), 「전우여 잘 자라」(유호 작사·박시춘 작곡, 1952), 「인도의 향불」(손로원 작사·전오승 작곡, 1954) 등을 잇따라 히트시킴으로써 50년대 가장 빛나는 대중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제에 의해 남태평양으로 징용간 젊은이들의 망향을 그린 「고향만리」, 6·25 전쟁으로 고향을 등지고 남하한 사람들의 그리움을 노래한 「비 내리는 고모령」, 전쟁 당시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준 진중가요

(陣中歌謠) 「전우여 잘 자라」, 전쟁으로 닳은 타향에서 고통받는 피란민들의 절절한 심경을 읊은 「굳세어라 금순아」 등과 같은 노래는 고단했던 한국현대사를 탁월하게 반영한 민족의 노래이자, 우울한 시대에 서민의 아픔을 달래준 희망의 노래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대 초 그는 부산에서 많은 공연활동을 벌였다. 50년 4월 1일 동아극장에서 은방울악극단의 ‘은방울쇼’에 당대 스타였던 가수 남인수(南仁樹)·박단마(朴丹馬), 영화배우 황정자(黃貞子)·김승호(金勝鎬)·최은희(崔銀姬) 등과 연예활동을 피했고, 51년 3월 30일 부민관에서 ‘손목인과 그 악단’ 공연에 특별출연했으며, 51년 4월 24일 동아극장에서 ‘현인과 그 악단’을 만들어 ‘명기의 노래’를 무대에 올렸다. 또한 52년 6월 1일 신청년극단의 가극 「성웅 이순신」(나운영 작곡)에 남인수·김정구·전옥·박단마·신카나리아·장세정·이난영 등과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그에게 있어서도 매우 고통스런 시기였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그는 인민군의 눈을 피해 경기도 산골과 집안 다락방에서 숨어 지냈다. 9·28 서울수복 후에는 박춘석 악단과 함께 잠시 부평 미1해병사단의 무대에 올랐지만, 1·4후퇴 때는 또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다. 오리엔트 레코드에서 취입한 그의 「굳세어라 금순아」는 부산의 피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그는 군부대 위문공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1953년 서울로 간 그는 박시춘의 ‘은방울쇼단’에 합류하면서 다시 큰 인기를 모았다. 당시 ‘남인수 대 현인: 가요 대합전 15회전’은 장안 최고의 인기무대로, 현인은 남인수의 인기에 버금가는 라이벌로 등장했다. 실제로 1957년 잡지 『삼천리』에서 실시한 가수 인기투표에서



현인과 라이벌 관계였던 가수 남인수

‘가요황제’ 남인수를 제치고 현인이 1위에 오른 것을 보면, 그가 50년대 한국의 대표가수로 뿌리내렸음을 알 수 있다.

### 조락의 계절, 꽃이 지다

1950년대 말에 이르면서 현인의 음악활동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1957년 명창 박녹주(朴綠珠)의 질녀인 박정혜와 두 번째 결혼 후 삼남매를 두었지만 5년을 넘기지 못했고, 59년에는 ‘봉봉쇼단’을 만들어 전국 각지를 돌았지만 사업수완이 신통치 않았던 탓에 6개월만에 파산하고 말았다. 게다가 1962년 경쟁자였던 남인수의 사망 이후 그의 인기는 줄곧 쇠퇴했고, 40대 중반이 되면서 퇴역가수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의기소침한 그는 1968년 15세 연하의 팬이었던 임소연과의 동거에도 실패, 결국 1974년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떠나 버렸다. 이후 그는 1978년 3대 미스코리아 김미정(金美貞)과 세 번째 결혼을 하고, 클럽 가스라이트 등의 사업을 벌였으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1981년 마침내 귀국했다.

1961년 연예협회 가수분과 초대위원장, 1962년 연예협회 부이사장을 지냈고, 1967년에는 문화공보부 공로상을 받으며 이따금 방송을 통해 음악활동을 한 현인이었지만, 그는 지난 시절 그 빛나던



현인의 고회연

영화를 다시 누리지는 못했다. 그것은 197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7년만인 1981년에 다시 돌아와 행했던 가수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다. 수용자 대중의 음악감수성이 이미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 말에 들어서, 약극 ‘그때 그 쇼를 아십니까’에 배삼용·남진 등과 함께 현역으로

##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출연했던 현인은 그간 음악활동의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KBS특별 가요대상(1990), 대한민국영상음반대상 본상(1996), 제6회 대한민국국악예예술대상(화관문화훈장, 1999) 등을 수상하고, 2002년 4월 13일 당뇨합병증을 얻어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으로는 부인 김미정 여사와 장녀 혜선(惠善), 차녀 희봉(喜鳳), 삼녀 지원(智媛), 장남 재헌(在憲) 등 1남 3녀가 있다.

우울한 시대, 서민의 희망을 노래한 대중예술가 현인! 비록 그는 떠났지만, 160여곡에 이르는 그의 노래는 우리의 가슴 깊이 남아 있다. 이미 대구 파크호텔 입구에 「비 내리는 고모령」, 경주 불국사 앞에 높이 5미터나 되는 「신라의 달밤」 노래비가 각각 섰고, 부산시와 영도구청은 1억원을 들여 옛 영도다리 입구에 「굳세어라 금순아」의 노래비를 세웠다. 노래비는 가로 세로 각각 4미터, 높이가 3미터로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와 항구가 어우러진 배의 형상과 갈매기가 나는 형상이다. 노래비 앞에는 현인이 앉아서 노래하는 모습의 1.2미터 동상이 세워져 관광객의 발길을 끈다.



영도다리 입구에 세워진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비와 현인의 동상

■ 동아대학교 강사 김창욱

## ◆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위 원 장	김임식	동의대학교 이사장
부위원장	이원균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위 원	강대민	경성대학교 교수
”	김무조	파전한국학당 원장
”	김숙현	전 부산일보 논설위원
”	김희로	우리물산장려운동 이사장
”	배영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송정재	부산환경운동연합 고문
”	이태길	광복회 부산광역시지부장
”	임정덕	부산대학교 교수
”	전상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정영일	부산광역시 문인협회 회원
”	정진채	부산광역시 문인협회 회장
”	최상윤	예총 부산연합회 회장, 동아대 교수
”	최원규	부산대학교 교수
”	최해균	부산을 가꾸는 모임 회장, 소설가

## ◆ 집필위원 명단

성 명	소 속	집필분야
강대민	경성대학교 교수	곽상훈, 윤상은
김대래	신라대학교 교수	구인회
김동철	부산대학교 교수	박기종
김무조	파전 한국학당 원장	신덕균, 오제봉
김숙현	희곡작가, 전 부산일보 논설위원	이영도
김 승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문시환
김연화	당리중학교 교사	강이문
김창욱	동아대학교 강사	윤이상, 현 인
류종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주홍
배승원	전 국제신문 논설주간	빅기출, 허 정
백혜숙	부산대학교 교수	강태홍
옥영식	미술평론가	김종식, 이석우
이원균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강석진
정영일	시인, 데레사여자고등학교 교사	최계락
정영진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금수현, 이상근
주은경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오태균
조갑상	경성대학교 교수	김정한
최상윤	예총 부산연합회 회장, 동아대 교수	조 향
최해균	소설가, 향토사학자	고두동, 김말봉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

인 쇄 2005. 07. 20  
발 간 2005. 07. 20  
편 집 부산을빛낸인물선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발행처 부산광역시  
인쇄소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비매품>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5동 1000  
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 051/888/3451